



정답과 해설

고등국어

상 1~5단원



1. 읽기의 가치와 즐거움

(1) 자화상

교과서 꼼꼼히 이해하기

11쪽

01 ② 02 ④ 03 ④ 04 ③

01 이 시에는 한 문장이나 문단에서 같은 어구 또는 문장을 반복하는 반복법과 비슷한 어구나 내용을 늘어놓는 열거법이 사용되었으나, 대상을 실제보다 과장되게 표현하여 의미를 강조하는 과장법은 사용되지 않았다.

오답 풀이 ① 2연의 내용을 6연에서 반복하고 있다.

③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쳐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와 같이 우물 속 아름다운 자연물을 나열하고 있다.

④ '파아란 바람'에서 촉각이 시각화되는 공감각적 심상이 나타난다.

⑤ '사나이가~비니다.'라는 구절의 반복을 통해 '사나이'에 대한 화자의 심리 및 태도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02 우물은 화자가 자신을 비추어 보는 공간으로, 자아를 성찰하는 매개체가 되는 공간일 뿐 삶의 여유를 찾게 해 주는 공간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우물은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쳐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는' 공간으로 평화롭고 아름다운 자연 풍경이 비쳐진다.

② 우물 속에 추억처럼 한 사나이가 있는데, 이는 과거 화자의 순수했던 자아를 의미한다.

③ 화자는 우물 속에서 초라한 모습의 한 사나이를 발견하는데, 여기서 '한 사나이'는 현실 속 화자의 부끄러운 자아에 해당한다.

⑤ 화자가 자신을 들여다보고 있으므로, '우물'은 자아 성찰의 매개체 역할을 한다.

03 화자는 우물 속에 비친 현실의 초라한 자아인 '한 사나이'를 보고 미워져 돌아갔다가, 돌아가다 생각하니 다시 가없어져 도로 우물에 가 들여다보고,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갔다가,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지는 심리 및 태도 변화를 겪고 있다. 이러한 심리 변화의 과정에서 '한 사나이'에 대한 미안함은 찾아볼 수 없다.

04 화자는 자신의 자아에 대해 '미움-연민-미움-그리움'의 감정 변화를 보이며 내적 갈등을 겪고, 결국 과거 순수했던 자아를 발견하며 내적 갈등을 해소한다. 따라서 '추억처럼 한 사나이가 있는' 것은 부끄럽고 미웠던 자아가 아닌 순수했던 자아를 확인하는 것이므로, 내적 갈등이 해소되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소단원 평가 문제

본문 12~15쪽

- 01 ② 02 ③ 03 ④ 04 우물 05 ⑤
06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07 ② 08 ③ 09 ④
10 ② 11 ⑤ 12 ④ 13 ④ 14 '파아란 바람'에서
촉각의 시각화가 나타난다. 15 ③ 16 ⑤ 17 ⑤

01 문학 작품을 감상할 때에는 작품의 내적 요소에 초점을 둔 절대론적 관점에서 감상할 수도 있고, 작품의 외적 요소인 작가, 현실, 독자 등에 초점을 둔 표현론, 반영론, 수용론적 관점에서 감상할 수도 있다. 또한 작품의 가치를 타당한 근거를 들어 평가하고, 자신의 경험과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작품의 내용을 이해하며 주체적으로 감상할 수도 있다. ②와 같이 기존 학자들의 연구에 맞추어 작품을 감상하는 것은 수동적인 감상 태도로 올바른 감상법이라고 볼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절대론적 관점에서 작품을 감상한 것이다.

③ 주체적인 방법으로 작품을 감상한 것이다.

④ 반영론적 관점에서 작품을 감상한 것이다.

⑤ 표현론적 관점에서 작품을 감상한 것이다.

02 이 시에서는 화자가 우물을 찾아가 우물 속 자신을 들여다보고 미워져 돌아가다가 가없는 생각이 들어 도로 가서 들여다보다 다시 미워져 돌아가다가 그리움을 느끼는 과정이 나타난다. 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화자의 정서 변화는 화자의 행동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우물을 찾아갔다가 우물을 떠나는 과정과 우물 속 풍경이 제시되고 있을 뿐, 근경에서 원경으로 화자의 시선이 확대되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② 관조적 시각은 고요한 마음으로 대상을 관찰하고 음미하는 자세로 주관의 개입을 배제하므로 화자의 정서나 감정이 시의 표면에 나타나지 않아야 한다. 이 시에는 화자의 '미움, 연민, 그리움'의 정서가 직접적으로 나타나 있으므로 관조적 시각에서 화자가 처한 상황을 제시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이 시에서는 자신을 성찰하며 내적 갈등을 겪고 있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날 뿐 현실의 모습과 그에 대한 비판적 태도는 찾아볼 수 없다.

⑤ 화자는 우물 속 풍경과 함께 비쳐진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아 성찰을 하고 있다. '우물'은 화자의 내면을 보여 주는 매개체이므로, 화자의 시선은 내면에 머물러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내면에서 외부로 시선이 이동했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3 이 시에서 화자는 우물에 비친 '한 사나이'의 초라한 모습에 부끄러움을 느끼며 미운 감정을 갖는다. 하지만 이어서 '연민-미움-그리움'으로 심리 변화를 보이며 내적 갈등을 하고 있으므로 화자의 감정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감정이 고조된다는 것은 감정이 계속 높아진다는 의미인데 이 시에서 화자의 감정은 '미움-연민-미움-그리움'으로 변화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A]에서 화자는 우물을 들여다보고 '한 사나이'를 발견하고 그가 미워져 돌아간다.

② [A]의 미움은 [B]에서 연민으로, [C]에서 다시 미움으로 바뀐다.

③ [A]와 [B]에서는 사나이에 대한 미움과 연민의 이중적인 감정이, [C]와 [D]에서는 미움과 그리움의 이중적인 감정이 나타난다.

⑤ [A]~[D]에서 우물을 떠났다가 돌아오는 화자의 반복된 행동은 사나이를 완전히 미워하지 못하고 연민하며 내적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을 보여 준다.

04 이 시에서 ‘우물’은 평화롭고 아름다운 풍경을 담고 있는 이상적인 공간으로 화자의 자아 성찰의 매개체이다.

05 <보기>에서는 독자인 학생이 책을 읽고 나서 흥미를 갖게 된 것과 깨달은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즉 독자의 입장에서 책의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에 초점을 두고 작품을 감상한 것이다. ⑤ 역시 시에 나타난 화자의 행동을 통해 독자가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고 있으므로, 독자에 초점을 둔 감상이라고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② 시의 내적 요소인 시간적 배경과 구성에 주목한 감상으로, 작품의 내적인 요소에 초점을 둔 절대론적 관점의 감상이다.

③ 일제 강점기 현실과 관련지어 한 감상으로, 작품의 배경이 되는 현실에 초점을 둔 반영론적 관점의 감상이다.

④ 시인의 시에 나타나는 특징을 바탕으로 한 감상으로, 작가에 중점을 둔 표현론적 관점의 감상이다.

06 화자는 우물에 비친 ‘사나이’의 모습을 통해 자아를 성찰하면서 자신에 대해 ‘미움-연민-미움-그리움’으로 심리 변화를 겪는다. 이렇듯 화자는 애증의 반복으로 인해 내적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내적 갈등은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라는 시구에서 알 수 있듯이 화자가 순수했던 과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현실의 자아와 화해하면서 해소된다.

07 ‘한 사나이’는 우물에 비친 화자의 모습으로, 우물에 비친 자연 풍경과 대조를 이루는 현실 속 부끄러운 자아에 해당한다. 현재는 부끄러운 자아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과거에는 순수했던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에 마지막 연에서 추억처럼 서 있다고 한 것이다. 따라서 ‘한 사나이’는 현실 속 부끄러운 자아이자, 과거의 순수했던 자아라고 볼 수 있지만 화자가 추구하고자 하는 이상적 자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08 <보기>에서 설명하는 ‘시적 허용’은 시에서 시적 효과를 주기 위해 어법에 어긋나거나 맞지 않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파아란’은 어법에 어긋난 표현으로, ‘파란’이 맞는 표현이지만 시에서는 ‘파아란’으로 사용되어 맑고 순수한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다.

09 <보기>는 동화 『어린 왕자』의 일부분으로 ‘나’가 사막에서 만난 어린 왕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나’는 어린 왕자를 관찰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깨달음을 전하고 있다. 이 시에서는 화자가 우물을 매개로 자신을 성찰하고 있으므로 두 작품 모두 자아 또는 대상을 주의 깊게 살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보기>는 동화로, ‘나’의 허구적인 경험이 담겨 있다.
② 이 시는 성인인 화자의 시선에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③ 이 시에는 두 자아 사이에서의 화자의 갈등이 나타나며, <보기>에는 두 인물의 갈등이 나타나지 않는다.

⑤ 화자나 서술자가 내면적 자아에 대해 갖는 심리는 이 시에만 나타난다. <보기>에는 어린 왕자에 대한 심리만 나타나고 있다.

[참고 자료] 생텍쥐페리, 「어린 왕자」

갈래	동화	성격	우화적, 상징적
제재	사막에서 만난 어린 왕자		
주제	어린 왕자의 순수함		
특징	• 다른 별에서 온 ‘어린 왕자’가 어른들의 모순된 세계를 바라보는 내용의 우화적인 이야기임 • 꾸밈없는 진솔한 문체와 단순해 보이는 이야기 속에 삶을 돌아보는 깊은 성찰이 있음		

10 ㉠은 현실에 초점을 두고 작품을 감상하는 관점으므로, 작품 속에 어떠한 역사와 현실이 반영되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오답 풀이 ① ㉡는 작품 자체에 초점을 두고 작품을 감상하는 관점으므로, 작품의 내용이나 구성 요소를 이해해야 한다.

③, ④ ㉢는 작가에 초점을 두고 작품을 감상하는 관점으므로, 작가의 생애와 창작 성향 등을 고려하여 작품을 감상해야 한다.

⑤ ㉣는 독자에 초점을 두고 작품을 감상하는 관점으므로, 독자가 그 작품을 어떻게 이해하고 수용할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

11 이 시는 2연의 내용을 6연에서 반복하고 있다. 2연의 반복은 시에 구조적 안정감과 균형감을 부여한다.

[참고 자료] 「자화상」의 표현상의 특징

반복법	• ‘사나이’라는 시어의 반복 • ‘사나이가 ~입니다.’라는 구절의 반복 • 2연의 내용을 6연에서 반복
열거법	‘달이 밝고 ~ 가을이 있습니다.’에서 우물 속 아름다운 자연물을 나열함
공감각적 심상	‘파아란 바람’에서 공감각적 심상(촉각의 시각화)이 나타남

12 ㄷ과 ㄴ은 윤동주 시인의 작품 경향을 바탕으로 이 시를 감상하고 있다. 이처럼 작가에 초점을 두고 작품을 감상할 때에는 작가의 창작 의도, 창작 동기, 삶 등을 이해하며 작품을 감상해야 한다.

오답 풀이 ㄱ. 독자에 초점을 두고 작품을 감상하고 있다.

ㄴ. 작품 자체에 초점을 두고 작품을 감상하고 있다.

ㄹ. 현실에 초점을 두고 작품을 감상하고 있다.

13 화자는 우물에서 가까워지고 멀어지기를 반복하면서, ‘사나이’에게 미움, 연민, 그리움을 느끼며 내적 갈등을 겪고 있다. 하지만 화자가 우물에서 멀어졌을 때 불안감을 느끼지는 않았고, 우물로 다시 간 이유는 불안감 때문이 아니라 ‘사나이’에 대한 연민 때문이다.

오답 풀이 ① 3연에서 화자는 우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초라하다고 여겨 미움의 감정을 느꼈다.

② 3연에서 돌아가던 화자는 4연에서 우물 속 '사나이'인 자신의 모습에 연민을 느껴 '우물'로 되돌아갔다.

③ 5연에서 화자는 다시 '사나이'가 미워져서 돌아갔다.

⑤ 5연에서 우물에서 멀어지던 화자는 순수했던 자신의 내면에 대해 그리움을 느꼈다.

14 서술형 '파아란 바람'은 촉각('바람')의 시각화('파아란')가 나타나는 공감각적 표현이다.

평가 기준	확인 ☒
공감각적 심상이 나타난 부분을 찾아 2어절로 썼다.	☐
촉각이 시각을 불러일으켰다는 내용을 <조건>의 형식에 맞추어 썼다.	☐

15 화자는 '우물'에 비친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과, 이와 달리 초라하고 쓸쓸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자아를 성찰하고 있다. 이처럼 '우물'은 서로 대조적인 속성을 지닌 두 대상을 비추어 주고, 화자가 자아를 성찰하게 하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

16 화자는 자아에게 반복적으로 애증을 느끼며 내적 갈등을 겪는다. 그러다가 6연에서 과거의 순수했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며 내적 갈등을 해소한다. 6연의 '사나이'는 부끄럽고 미웠던 자아가 아닌 과거 순수했던 자아를 뜻한다.

17 사막이 아름다운 까닭은 사막에 감춰진 샘 때문이고, '나'가 옛집을 신비로운 마법에 걸린 것처럼 느낀 까닭은 그 집에 감춰진 보물 때문이었다. 이를 통해 '나'는 무언가를 아름답게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으며,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오답 풀이 ①, ② 사막에 감춰진 샘은 사막을 아름답게 만들었고, '나'의 옛집에 감춰진 보물은 집을 신비로운 마법에 걸린 것처럼 만들었다. 이처럼 샘과 보물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다른 대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중요한 것을 의미한다.

③ '껍질'은 눈에 보이는 것이므로 '어린 왕자'의 외면을,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므로 '어린 왕자'의 순수한 내면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④ '나'가 옛집을 신비한 마법에 걸린 것처럼 느낀 이유는, 그 집이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는 대상 자체가 아니라, 그 대상에 담긴 정서나 감정이 중요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01 3연에서는 현실 속 초라한 자신의 모습에 대한 화자의 부끄러움과 미움의 감정이 드러날 뿐, 연민의 감정은 드러나지 않는다. 화자 자신에 대한 연민은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없어집니다.'라는 행이 제시된 4연에서 드러난다.

오답 풀이 ① 1연에서 화자는 우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자아를 성찰하고 있다.

② 2연에서 화자는 우물 속 아름다운 자연물을 나열하고 있다.

④ 4연과 5연에서 화자는 우물 속에 비친 자아에 대해 애증을 반복하며 내적 갈등을 겪고 있다.

⑤ 6연은 2연의 내용을 반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시적 균형감과 안정감을 주고 있다.

02 ㉔는 작품의 내적 요소에 초점을 두어 감상한 것이다. 이 시의 화자는 '-비니다'의 평서형을 사용하여 자신의 내면을 고백하고 있다. 즉 독백적 어조를 사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으며, 특정한 청자는 설정되어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일제 강점기라는 현실과 관련지어 감상한 것으로, ㉔의 관점에 따른 적절한 감상이다.

② 시인에 초점을 두고 감상한 것으로, ㉔의 관점에 따른 적절한 감상이다.

④ 시의 형식과 관련지어 작품의 내적 요소에 초점을 두고 감상한 것으로, ㉔의 관점에 따른 적절한 감상이다.

⑤ 독자가 작품을 감상하고 느낀 점을 말한 것으로, 작품 수용과 관련되므로 ㉔의 관점에 따른 적절한 감상이다.

03 '그대로'는 우물 속 사나이의 변함없는 모습으로, 화자가 돌아가다가 사나이가 가없는 생각이 들어 우물로 돌아와서 다시 보게 된 모습이다. 화자는 '그대로' 있는 사나이를 보고 다시 미움을 느끼므로, '그대로'가 화자의 연민 또한 변함없음을 드러내는 시어는 아님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가만히'는 '움직임 따위가 그다지 드러나지 않을 만큼 조용하고 은은하게'라는 의미를 가진 부사어로, 화자가 고요하고 조심스럽게 우물을 들여다보고 있음을 나타낸다.

② '그리고'는 우물 속에 자연 풍경과 함께 '한 사나이'도 있음을 나타내는 말로, 자연 풍경과 한 사나이가 서로 잇닿아 있음을 보여 준다.

③ '어쩐지'는 '그냥', '왠지'라는 의미로 화자가 사나이에게 갖는 미움의 원인이 분명하고 명확한 것이 아니라 애매하고 불분명한 것이라는 인상을 부여한다.

④ '도로'는 우물로 되돌아가는 행동과 이어지고, '다시'는 사나이에 대한 미움 때문에 우물을 떠나는 행동과 연결되면서 화자가 우물로 돌아가고 되돌아가는 행동을 하며 내적 갈등을 겪고 있음을 나타낸다.

04 '달, 구름, 하늘'은 천상의 것들이면서 우물 속에 비친 풍경이다. <보기>에서 우물 속 자연 풍경이 화자가 지향해 온 세계를 암시적으로 보여 준다는 점을 고려하면 '달, 구름, 하늘'은 화자가 지향하는 이상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화자는 부끄러운 자아를 확인하고 내적으로 갈등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우물 속의 평화롭고 아름다운 풍경은 화자가 지향하는 이상을 드러낸다고 볼 수는 있지만 우물 속 풍경만으로 이상이 실현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소단원 심화 문제

본문 16~17쪽

01 ③ 02 ③ 03 ⑤ 04 ⑤ 05 ②

06 화자를 자아성찰에 이르게 하고, 이를 통해 내적 갈등을 해소하게 한다.

07 ②

오답 풀이 ① 우물을 들여다보는 행위는 자신의 내면을 살피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② 우물은 산모퉁이를 돌아 논가의 외딴 곳에 있다. 즉 사람들의 왕래가 뜸한 곳에 있는 것이다. '우물'이 화자의 내면세계와 관련된 공간이라는 점에서 '외딴'은 내밀한 공간임을 부각하는 시어라고 볼 수 있다.

③ 우물은 성찰의 매개체이므로 우물을 '홀로 찾아'간 것은 자아 성찰을 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④ 화자가 우물을 들여다보고 있으므로, 그 속에 비친 '한 사나이'는 우물에 비친 화자의 모습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우물은 화자의 내면을 비추어 주는 매개체에 해당하므로, 그 속에 비친 사나이는 화자의 자아라고 볼 수 있다.

05 화자는 우물 속에 비친 자아인 '한 사나이'에게 마음의 감정을 가지고, 돌아가다가 사나이에 대해 생각하고, 연민의 감정을 가지고 우물을 들여다보다 마음이 생겨 돌아가고 다시 그리움의 감정을 지니게 된다. 따라서 '돌아가다 생각'하는 것은 사나이에 대한 미련을 보여 주는 행동이면서 화자가 내면적으로 고뇌하고 있음, 즉 내적 갈등을 보여 주는 행동이다.

06 서술형 ㉠은 화자가 우물에 비친 자신의 부끄러운 자아를 확인한 것이고, ㉡는 자아에 대한 애증을 보이며 내적으로 갈등한 끝에 화자가 자신의 과거 순수했던 자아를 발견한 것이다. 즉 화자는 '우물'을 통해 자아 성찰을 하고, ㉠에서 ㉡로 인식이 변화하며 내적 갈등을 해소하게 된다.

평가 기준	확인 ☒
화자가 우물을 통해 자아 성찰을 한다는 내용을 썼다.	☐
화자가 우물을 통해 내적 갈등을 해소하게 된다는 내용을 썼다.	☐

07 ㉢에는 '거울 밖의 나'(현실적 자아)와 '거울 속의 나'(내면적 자아) 사이의 갈등이 나타난다. ㉢에서 화자는 '거울 속의 나'를 '악수를 모르는 왼손잡이'라고 하면서 '거울 속의 나'를 '근심하고진찰(珍察)할수없'다고 한다. 이는 두 자아가 화합하지 못하고 단절된 상황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두 자아가 화해의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에서 화자는 추억처럼 있는 순수했던 자아를 발견하고 내적 갈등을 해소하며 현실의 자아와 화해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에서도 '거울 밖의 나'와 '거울 속의 나'가 단절된 상황에서 화해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두 자아가 소통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과 ㉡ 모두 자아 사이에서의 내적 갈등이 나타나지만 참된 자아에의 해 위로를 받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④ 현실적 자아가 순수했던 자아를 발견하면서 내적 갈등이 해소되는 것은 ㉠에만 해당한다.

⑤ ㉠의 '우물'은 화자가 자아 성찰을 통해 순수했던 자아를 발견하고 화해하게 만드는 매개체로서 단절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의 '거울'은 '거울 밖의 나'와 '거울 속의 나'의 만남을 매개하면서 동시에 두 자아의 분열과 단절을 인식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참고 자료] 이상, 「거울」

이 시는 행과 연의 구분은 있지만 띄어쓰기를 무시하는 초현실주의 기법을 통해 현대인들의 자아 분열과 자의식을 표현하고 있다. 이 시에서 거울은 현실적 자아가 내면적 자아를 들여다보게 해 주는 매개체이면서 동시에 두 자아를 단절시키며 두 자아의 분열을 인식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시에서 화자는 자아 분열이 심화되는 모습을 보이며서 두 자아가 화해하지 못하고 분열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2) 책 속에 길이 있다

교과서 꼼꼼 이해하기

① 21쪽 01 ④ 02 ④ 03 ④

② 23쪽 04 ② 05 ③ 06 경험, 편견, 이미 알고 있다는 생각 07 ⑤ 08 ①

01 글쓴이는 어린 시절에 책 읽기를 통해 기쁨과 격려, 흥분과 위안, 황홀과 행복을 느꼈고, 친구가 별로 없고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아 위축되어 있던 그때, 책 읽기를 통해 결핍을 충족했다고 하였다. 하지만 책 읽기를 통해 우월감을 가졌다는 내용은 이 글에 제시되지 않았다.

02 ㉠은 과거와 지금의 청소년 모두 자신의 처지에 만족하지 않고 부족함을 느낀다는 것인데 글쓴이는 이에 대한 해답으로 책 읽기를 제시하고 있다. 글쓴이는 그 이유로 청소년들은 책을 읽으며 그 안에 담긴 다양한 사람들의 삶과 가치관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고 하며 그러한 경험을 통해 자신의 삶에서 모자라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03 '가운데-㉢'에서 글쓴이는 책을 읽으면 수많은 정보 가운데 의미 있는 것을 골라내는 눈, 무관해 보이는 정보를 엮어서 유관한 그 무엇으로 다시 만들어 내는 능력, 그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가치 있는 지식을 창조하는 능력을 갖출 수 있다고 하였다.

04 이 글에서 글쓴이는 책 읽기의 가치, 책 읽기의 중요성 등을 제시하면서, 책 읽기는 우리가 평생 해야 할 가치 있는 일임을 강조하며 책 읽기를 권유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글쓴이가 책을 많이 읽지 않는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바탕으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현실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는 것이 이 글에서 글쓴이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아니다.

③ 글쓴이가 언급한 문학 작품의 가치는 책 읽기의 가치를 이야기하기 위한 것으로, 이 글에서 글쓴이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아니다.

④ 독서를 통해 삶의 가치를 느낄 수도 있지만, 이 글에서 글쓴이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아니다.

⑤ 문학 작품을 읽음으로써 정신적으로 성숙한 시민이 될 수 있다고 하였지만 이는 책 읽기의 목적 중 하나로, 이 글에서 글쓴이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아니다.

05 이 글의 글쓴이는 문학 작품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거나 앞으로도 경험하지 못할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데, 이러한 이야기들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삶을 간접 경험해 봄으로써 자신과 다른 사람을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하며 고통받는 사람들의 아픔을 헤아릴 줄 아는 마음을 갖게 되어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문학 작품을 읽음으로써 어려운 일도 수월하게 해낼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06 ㉠은 우리의 시야를 가로막아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하고 왜곡된 사고를 하게 만드는 것으로, '경험', '편견', '이미 알고 있다는 생각(자만)'이 이에 해당한다.

07 ㉡은 글쓴이가 책 읽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부분이다. 글쓴이는 책을 읽으면 경험, 편견, 이미 알고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세상을 왜곡되게 바라보지 않을 수 있으며, 세상을 보는 시야가 넓어진다고 하였다.

08 '책 속에 길이 있다.'라는 것은 책을 읽으면 올바른 삶의 방향을 알 수 있다는 의미로, 여기서 '길'은 바람직한 삶의 방향을 비유적으로 일컫는 표현이다.

소단원 평가 문제

본문 24~27쪽

01 ③ **02** ③ **03** ⑤ **04** ① **05** ② **06** ③
07 ③ **08** ④ **09** ⑤ **10** 책을 읽으면 정보를 가치 있게 만드는 안목과 능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11** ③ **12** ⑤ **13** ①

01 이 글은 글쓴이의 경험을 바탕으로 독서의 가치를 전달하고 있을 뿐, 웃음을 유발하는 해학적 장치나 현실의 모순을 고발하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이 글은 현대 수필로, 회고적이고 교훈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②, ④ 이 글의 글쓴이는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있으며, 다양한 근거를 바탕으로 독서는 평생 해야 할 가치 있는 일이라는 주제를 전달하고 있다.
 ⑤ (마)에서 “그렇다면 흠어져 있고, 넘쳐 나고, 흘러 다니는 정보를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라고 스스로 묻고 그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방식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02 (다)에서 글쓴이는 “어떤 시대나 예민한 청소년기에는 늘 모자람을 느낀다는 사실입니다.”라고 하며 요즘이나 예전이나 청소년기에는 부족한 것이 있고 그래서 외로운 것이라고 하였다.

오답 풀이 ① (사)에서 책과 벗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라고 하였다.
 ② (라)에서 정보 혁명 이전에는 정보를 장악한 사람이 권력을 쥐었지만, 지금은 정보가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고 특징인이 그것을 독점할 수도 없다고 하였다.

④ (바)에서 문학 작품을 읽는 이유는 다른 이들의 고통을 어루만질 줄 아는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라고 하였다.

⑤ (마)에서 정보 가운데 의미 있는 것을 골라내는 안목과 정보를 바탕으로 가치 있는 지식을 창조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꾸준히 책을 읽어야 한다고 하였다.

03 (다)에서는 청소년들이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고, <보기>에서는 청소년기 독서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다)에서는 청소년기에 독서를 통해 자신의 모자라거나 부족한 부분을 채움으로써 자신감을 얻고 스스로 충만해지며 미래에 대한 전망을 얻을 수 있고, <보기>에서 알 수 있듯이 가치관을 정립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청소년기, 즉 사춘기를 겪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청소년기의 예민함을 겪지 않는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4 '책' 하면 어린 시절이 떠오르는 것은 단순히 유년 시절의 낭만적인 고향 풍경 때문이 아니라 책 읽기와 관련된 경험 때문임을 (나)를 통해 알 수 있다. 글쓴이는 책 읽기를 통해 어린 시절 행복함을 느꼈기 때문에 '책' 하면 어린 시절이 떠오른 것이다.

05 (마)에서 글쓴이는 정보를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수많은 정보 중에서 의미 있는 정보를 골라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하며(ㄷ), 무관해 보이는 정보를 관련이 있는 정보로 엮어 내는 능력(ㄱ)과 정보를 바탕으로 가치 있는 지식을 창조해 내는 능력(ㄹ)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06 이 글의 (라)에서 글쓴이는 현대에는 정보가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는 데다가 특징인이 그것을 독점할 수도 없기 때문에 정보는 이제 그 자체로는 가치를 지니지 못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마)에서 이러한 정보를 가치 있는 지식으로 만드는 능력은 꾸준히 책을 읽으며 키워 나가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인터넷에서 찾은 여러 정보를 단순히 나열하여 과제를 해결하는 것은 이 글을 읽고 할 수 있는 활동으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바)에서 문학 작품을 읽으면 고통받는 이들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마음을 갖게 된다고 하였다.
 ② (마)에서 수많은 정보 가운데 의미 있는 정보를 골라내고 그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가치 있는 지식을 창조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평소 꾸준히 책을 읽어 나가야 한다고 하였다.
 ④, ⑤ 이 글의 글쓴이는 독서의 중요성과 가치를 강조하고 있으므로 독서 신문을 만들거나 독서 토론을 하는 등의 적극적 독서를 하는 것은 적절하다.

07 읽을 책을 선정할 때는 자신의 흥미나 수준, 책을 읽는 목적 등을 고려할 수 있고, 매체에서 제공하는 서평 등의 정보도 참고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저자의 유명도는 책을 선정하는 기준으로 보기 어렵다.

08 글쓴이는 어린 시절 책을 읽으며 행복을 느꼈던 경험을 제시하여, 독자에게 친근감을 유발하고 독자들이 글에 더 쉽게 몰입할 수 있게 하였다.

09 (나)에서 글쓴이는 청소년기가 외로운 시기인 까닭을 이야기하고 있다. 청소년기는 예민한 시기라서 늘 모자람을 느끼고, 아무리 세상이 청소년들을 향해 새로운 것을 쏟아 내어도 부족한 것은 있기 마련이므로 외롭다고 하였다.

10 서술형 (라)에서 글쓴이는 정보를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수많은 정보 가운데 의미 있는 것을 골라내고, 무관해 보이는 정보를 엮어서 유관한 그 무엇으로 다시 만들어 내며, 정보를 바탕으로 가치 있는 지식을 창조하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안목과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책을 읽어야 한다고 하였다.

평가 기준	확인 ☒
책 읽기가 정보를 가치 있게 만드는 안목과 능력을 갖추게 해 준다는 내용을 썼다.	☐
완성된 문장으로 썼다.	☐

11 이 글은 책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을 뿐, 책 읽기에 대한 두 가지 견해를 비교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① (마)에서 '책 속에 길이 있다.'라는 격언을 들어 책 읽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② (나)에서 '공부하기도 바쁜데 책 읽을 시간이 어디 있는가?' 등과 같이 예상되는 반박을 질문의 형식으로 제시하고 있다.

④ 전체적으로 말하는 형식을 활용하여 독자에게 친근감 있게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⑤ '수없이 많은 문학 작품이 담긴 그릇, 그것이 곧 책입니다.', '좋은 책은 바로 그 비늘을 벗겨 줍니다.', '책 속에 길이 있다.' 등의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책 읽기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12 (가)에서 글쓴이는 문학 작품을 통해 간접 경험을 하며 다른 사람의 삶을 이해하고, 고통받는 이들의 아픔을 헤아릴 줄 알게 된다고 이야기하였다. ⑤의 '아인'은 학교 폭력 피해자의 삶과 아픔을 이해하게 되었으므로, (가)에서 설명한 책 읽기의 가치를 보여 주는 사례로 적절하다.

13 '책 속에 길이 있다.'에서 '길'은 바람직한 삶의 방향을 의미한다. 따라서 ㉠은 책 읽기를 통해 올바르게 가치 있는 삶의 방향을 찾을 수 있음을 뜻한다.

01 ㄱ. (라)에서 '문학 작품'을 '상상의 집'에, (사)에서 '경험, 편견, 이미 알고 있다는 생각'을 '비늘'에 빗대어 표현한 것에서 비유적 표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글쓴이는 책 읽기를 통해 우리 눈의 비늘을 벗길 수 있다고 하며 책 읽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ㄴ. (바)에서 대체로 하기 쉬운 일과 힘들고 부담스럽지만 가치 있는 일을 대조함으로써 책을 읽는 것이 가치 있는 일임을 강조하며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ㄷ. (가)에서 어린 시절에 책을 읽고 긍정적인 느낌을 받았던 경험을 제시하며 책 읽기에 대한 독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오답 풀이 ㄴ. 이 글에서는 책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 문학 작품의 특징과 문학 작품을 읽는 이유 등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나, 용어의 개념을 풀이하는 설명 방식은 사용되지 않았다.

ㄹ. 글쓴이의 견해와 다른 '인터넷이면 다 해결된다는 주장'은 제시하였지만, 이 글에 글쓴이의 주장과 유사한 견해를 인용한 부분은 없다.

02 <보기>에서 학생은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언론 분야의 책을 찾아 읽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특정 분야가 아닌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접했다는 반응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전·현직 기자들의 경험과 직업의식을 담은 책을 통해 기자들의 삶과 가치관을 간접 경험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② 진로와 관련된 독서를 하면서 기자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능력이나 소양 등과 관련된 지식과 정보를 얻었음을 알 수 있다.

③ '기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소양들을 하나씩 갖추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야겠다.'를 통해 책을 읽은 후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확인하고 이를 채우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음을 알 수 있다.

⑤ 언론 분야와 관련된 책을 찾다가 자신의 진로 탐색에 도움이 될 것 같은 책을 선정하였다는 것에서, 수많은 정보 가운데서 자신에게 의미가 있는 것을 선별해 내는 활동을 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진로 독서의 방법

- 관심 분야나 직업 등을 정리하며 진로에 대해 생각해 본다.
- 자신이 생각한 진로에 도움이 될 만한 책을 찾아 읽어 본다.
- 비슷한 진로를 생각하는 친구들과 함께 독서 계획을 세워 책을 읽은 후 정보를 공유하면 진로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03 서술형 (사)에서 글쓴이는 우리 눈에는 경험, 편견, 이미 알고 있다는 생각의 비늘이 덮여 있다고 하며 좋은 책은 그 비늘을 벗겨 주어 우리 시야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 준다고 하였다.

평가 기준	확인 ☒
독서를 통해 세상을 올바르게 바라보고, 우리 시야에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다는 내용을 썼다.	☐
한 문장으로 썼다.	☐

04 ㉠은 정보를 가치 있게 만드는 요건을 묻는 질문이다. 이 질문에 대해 글쓴이는 책을 읽으면 정보를 선별하는 안목과 정보를 바탕으로 가치 있는 지식을 창조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의미 없고 그 자체로서 가치를 갖지 못했던 정보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어 낼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소단원 심화 문제

본문 28~29쪽

01 ② **02** ④ **03** 독서를 하면 경험, 편견, 이미 알고 있다는 생각으로 세상을 왜곡되게 바라보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고, 또한 세상을 보는 시야가 넓어져 우리 시야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 주기 때문이다. **04** ⑤ **05** ②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것이라도 다듬고 정리하여 쓸모 있게 만들어 놓아야 값어치가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속담인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를 활용하여 답변하는 것이 적절하다.

- 오답 풀이** ① '티끌 모아 태산'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모이고 모이면 나중에 큰 덩어리가 됨을 이르는 말이다. 그런데 ㉠의 답변은 정보를 가지 있는 것으로 만드는 안목과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으로, 최대한 많은 정보를 모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 ②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는 무슨 일이나 그 일의 시작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을 통해 책 읽기를 강조하고 있기는 하나 책 읽기를 시작하는 것만으로 가지 있는 정보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하지는 않았다.
- ③ '공든 탑이 무너지랴'는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한 일은 그 결과가 반드시 헛되지 아니함을 나타내는 말로, ㉠의 답변과는 거리가 멀다.
- ④ '열 번 짚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아무리 뜻이 굳은 사람이라도 여러 번 권하거나 피고 달래면 결국은 마음이 변한다는 말로, ㉠의 답변과는 거리가 멀다.

05 ㉠은 다른 사람에게 연민과 공감의 정서를 가질 수 있는 마음을 가리킨다. ㉡는 춥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에게 대한 위로의 마음을 담은 시로, '함박눈'은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는 위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슬프지만 임이 떠나가는 상황을 체념하고 있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날 뿐, 다른 사람의 슬픔이나 고통에 대한 마음을 표현한 시는 아니다.
- ③ 능금이 익어 가는 과정을 그리움이 익어 가는 것으로 표현한 시로, 다른 사람에 대한 연민이나 공감의 정서를 표현한 시는 아니다.
- ④ 화자의 마음이 평온해진 무념무상의 상태를 '어둠'이라고 표현한 시로, 다른 사람의 아픔을 다룬 것이 아니라 화자의 내면에 대한 성찰을 담고 있다.
- ⑤ 조국 광복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는 시로,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슬픔을 헤아리는 마음을 표현한 시는 아니다.

본문 30~34쪽

대단원 정리 문제

- 01** ② **02** 다른 이들의 고통을 어루만질 줄 아는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03** ② **04** ⑤ **05** ④ **06** ⑤
- 07** ① **08** ② **09** ⑤ **10** • 정신적 능력을 키울 수 있다. • 시간을 생산적으로 보낼 수 있다. **11** ③ **12** ⑤ **13** ②
- 14** ③ **15** 이 학생은 작품의 내용이나 구성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 관점에서 이 시를 감상하였다. **16** ③ **17** ④ **18** ㉠
- 는 우리가 경험이나 편견으로 인해 세상을 왜곡되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데, 이를 해결하려면 책 읽기를 통해 세상을 보는 시야를 넓혀야 한다.

01 (가)에는 화자의 내적 갈등과 그 갈등이 해소되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 (가)의 화자는 우물을 들여다보다 돌아가기를 거듭하며 자신에 대한 애증을 반복하다 마지막 부분에서 과거의 순수한 자신의 모습을 추억하며 내적 갈등을 해소하고 있다. '한 사나이'는 다른 인물이 아니라 화자 자신의 모습이다.

- 오답 풀이** ① '-버니다.'의 평이한 구어체를 사용하고 있다.
- ③ 화자는 차분하고 고백적인 어조로 자신을 성찰하고 있다.

- ④ 화자는 우물 속 '사나이'를 바라보며 미움과 연민, 그리움을 번갈아 가며 느끼고 있다.
- ⑤ 2연의 내용을 6연에서 반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구성상의 안정감과 균형감을 주고 있다.

02 **서술형** (가)는 현대 시로, 문학 작품에 해당한다. (나)에서 문학 작품을 읽는 이유는 '다른 이들의 고통을 어루만질 줄 아는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함'이라고 하였다.

평가 기준	확인 ☒
'다른 이들의 고통(슬픔)을 어루만진다.'라는 내용을 바르게 썼다.	☐
'성숙한 시민'이라는 내용을 바르게 썼다.	☐

03 ㉠을 '파아란'과 '바람'으로 각각 나누면 시각적 심상과 촉각적 심상이 쓰였지만 '파아란 바람'은 '바람이 파랗다'라는 의미이므로 촉각(바람)을 시각화(파아란)하여 표현한 공감각적 심상에 해당한다. ㉡의 '푸른 휘파람 소리'는 청각(휘파람 소리)을 시각화(푸른)하여 표현한 것으로 ㉠과 같은 공감각적 심상에 해당한다.

- 오답 풀이** ① '보랏빛 색지'에서 색채어를 통한 시각적 심상이 쓰였다.
- ③ '돌 깨는 산울림'에서 청각적 심상이, '가슴에 금이 갔다'에 시각적 심상이 각각 쓰였다.
- ④ '진달래 향기', '보리 내음새'에 후각적 심상이 쓰였다.
- ⑤ '산수유 붉은 알알이'에 시각적 심상이 쓰였다.

04 작가를 중심으로 한 감상은 표현론적 관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시인 윤동주의 작품 성향에 주목하여 감상한 ㉡가 이에 해당한다.

- 오답 풀이** ① 독자가 작품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중심으로 감상하고 있으므로 효용론적 관점에 의한 감상이다.
- ②, ④ 작품의 내용을 중심으로 감상하고 있으므로 절대론적 관점에 의한 감상이다.
- ③ 시대적 배경에 주목하여 감상하고 있으므로 반영론적 관점에 의한 감상이다.

05 ㉠은 '사물을 보고 판단하는 힘'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이는 '사물을 보고 분별하는 견식'이라는 뜻의 '안목'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 것이다. ㉡도 '안목'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 오답 풀이** ① '물체의 존재나 형상을 인식하는 눈의 능력'인 '시력'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 ② '빛의 자극을 받아 물체를 볼 수 있는 감각 기관'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 ③ '무엇을 보는 표정이나 태도'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 ⑤ '사람들의 눈길'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06 ㉠은 다양하게 흘러 넘치는 수많은 정보로, 이 중에서 의미 있는 것을 골라낸 정보가 ㉡가 된다. 그리고 서로 연관이 없

어 보이는 정보(㉔)를 엮어서 관련이 있도록 만들어 낸 것이 ㉕이고,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가치 있는 지식(㉖)을 창조하는 것이다. 따라서 ㉕와 ㉖는 그 자체로서 가치를 지니지 못하는 정보에 해당하고, ㉔, ㉕, ㉖는 정보를 가치 있게 만든 것에 해당한다. 즉 ㉕~㉖는 정보의 가치 측면에서 나눌 수 있으며, 정보의 단위 크기는 관련이 없다.

07 이 글은 책 읽기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이 담긴 수필이다. 수필은 글쓴이의 경험이나 사상 등을 형식적인 구애 없이 산문 형식으로 쓴 글로서 글쓴이의 가치관, 생각 등이 잘 드러나며, 이를 통해 글쓴이의 개성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시에 대한 설명이다.

③ 전기문에 대한 설명이다.

④ 설명문에 대한 설명이다.

⑤ 수필에 등장하는 '나'는 글쓴이 자신이다. 허구의 인물 '나'가 등장하는 것은 소설이다.

08 (다)에서 정보 혁명 이전에는 정보를 장악한 사람이 권력을 쥐었지만, 지금은 특정인이 그것을 독점할 수도 없다고 하였다.

09 (다)에서 '이런 주장'은 '인터넷이면 다 해결된다.'라는 주장이다. 그런데 이 글의 글쓴이는 이 주장에 동의하지 않고 있으므로, 비판적 입장을 보인다고 볼 수 있다.

10 서술형 (라)에서 책 읽기는 어렵고 부담스럽지만 가치 있는 일이며, 이러한 일은 우리의 정신적 능력을 신장시키고 시간을 생산적으로 보내게 해 준다고 하였다.

평가 기준	확인 ☒
'정신적 능력의 신장'이라는 내용을 바르게 썼다.	☐
'시간을 생산적으로 보내게 해 준다.'라는 내용을 바르게 썼다.	☐

11 ㉔에서 열거한 '경험, 편견, 이미 알고 있다는 생각'은 우리의 시야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다. 따라서 '생각의 비늘'은 책 읽기를 통해 벗겨 내야 할 것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㉔에서 긍정적인 면을 부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12 이 시의 화자는 '우물'을 매개로 하여 시적 대상인 '사나이'를 관찰하며 자아를 성찰하고 있다.

[참고 자료] 「자화상」에서 '우물'의 기능

- 화자가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성찰할 수 있게 하는 매개체
- 화자를 자아 성찰에 이르게 하고, 이를 통해 내적 갈등을 해소하게 함

13 이 시에서는 '우물', '사나이' 등의 시어가 반복적으로 쓰이고 있다(ㄱ). 또한 시 전체에서 종결 어미 '-ㅂ니다'를 사용하여 문장을 종결함으로써 내용을 산문적으로 진술하고 있다(ㄴ).

오답 풀이 ㄴ. 이 시에 반어적 표현은 쓰이지 않았다.

ㄹ. '파아란 바람'은 촉각('바람')을 시각화('파아란')한 공감각적 표현이다.

14 화자는 우물 속 '사나이'를 바라보며 자신에 대한 '미움-연민-미움-그리움'의 감정을 느끼고 있다. 화자는 '사나이'가 가없어져 다시 우물로 오지만, 초라한 그대로의 모습을 보고 다시 미움을 느낀다. 이러한 화자의 내적 갈등은 마지막 부분에서 해소된다.

15 서술형 제시된 글의 학생은 작품에 초점을 맞추어 작품의 내용이나 작품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를 이해하는 관점을 취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작품의 내용이나 구성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을 썼다.	☐
제시된 형식에 맞게 썼다.	☐

16 (나)를 통해 가장 작고 낮은 단위의 정보부터 가장 크고 높은 단위의 지식까지 다루는 것은 오직 책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 글을 통해 크고 높은 단위의 지식을 다루는 것이 책뿐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

17 (다)에서는 문학 작품 읽기의 효용을 설명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책 읽기의 가치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㉑에는 책에 문학 작품이 실려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18 서술형 ㉑의 '비늘'은 경험, 편견 등을 뜻한다. (라)에서 글쓴이는 좋은 책이 경험이나 편견을 없애 준다고 하였다. 이는 책을 읽으며 새로운 지식과 정서를 접하면 세상을 보는 시야가 넓어지기 때문이다.

평가 기준	확인 ☒
㉑의 의미로 '우리가 경험이나 편견으로 인해 세상을 왜곡되게 바라보고 있다.'라는 내용을 썼다.	☐
㉑의 해결 방안으로 '책 읽기를 통해 세상을 보는 시야를 넓혀야 한다.'라는 내용을 썼다.	☐
완성된 문장으로 썼다.	☐

2. 마음을 잇는 소통의 창



(1) 매체를 읽는 눈

교과서 꼼꼼 이해하기

❶ 39쪽	01 ⑤	02 ②	03 ③	04 ②
❷ 41쪽	05 ③	06 ⑤	07 ①	

01 영상 광고는 그림, 문자 등의 시각적 요소와 소리와 같은 청각적 요소 등을 활용하여 복합적으로 정보를 전달한다. 이러한 영상 광고는 텔레비전 등으로 송출되기도 하므로 모든 영상 광고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지는 않으며, 영상 광고는 제작이 까다로워 수용자들의 의견을 광고에 즉각 반영하기는 어렵다.

02 이 광고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느라 일상생활에서 사람들과 소통하지 못하고 소중한 순간을 놓치는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지나친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고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며 살아가도록 권고하기 위해 제작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제시된 상황들은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예절을 지키지 않는 상황이라기보다, 과도하게 스마트폰을 사용해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고 보아야 한다.

③ 이 광고에서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등장하고 있으므로, 청소년이 받는 영향만을 부각한 것은 아니다.

④ 스마트폰의 다양한 용도보다는 지나친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부정적 상황들을 보여 주고 있다.

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의 긍정적인 면은 제시되지 않았다.

03 이 광고는 ‘잃어버린 []에 대한 묵념’이라는 빈칸이 있는 자막을 반복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표현 방법은 빈칸에 들어갈 내용에 대한 사람들의 궁금증을 유발하여 광고에 집중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04 이 광고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행동하도록 사람들을 설득하는 ‘공익 광고’이다. 따라서 특정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할 필요는 없다.

오답 풀이 ①, ④ 광고를 보면서 내용의 적절성을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③, ⑤ 광고에 사용된 표현 방법의 적절성을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참고 자료】 목적에 따른 광고의 종류

- 공익 광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행동하도록 사람들을 설득하는 광고
- 상업 광고: 특정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며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도록 설득하는 광고

05 신문 기사는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하는 글이기 때문에 정해진 형식에 따라 명확하고 분명한 의미를 가진 단어나 표현을 주로 사용한다. 글쓰이의 개성적 표현과 정서는 잘 드러나지 않으므로, 이것을 느끼며 읽는 방법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신문 기사의 목적은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므로, 의견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것을 구분하며 읽어야 한다.

② 표제는 기사의 핵심 내용을 압축하여 보여 주므로, 표제를 보고 어떤 내용이 전개될지 예측하며 읽는 것은 신문 기사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④, ⑤ 신문 기사는 객관적이면서 공정한 내용을 실어야 한다. 따라서 사실과 상관없는 글쓰이의 의견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지, 어느 한쪽의 의견에 치우친 내용을 전달하고 있지는 않은지 판단하고 평가하면서 읽어야 한다.

06 (나)는 통계청 분석과 통계청 분석에 대한 반박 견해 등 서로 대립되는 성격의 해석을 제시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는 통계청 관계자의 의견을, (나)에서는 대학교 교수의 의견을 인용하고 있다.

② (가)와 (나)에는 모두 1인 가구가 증가했다는 내용을 담은 기사의 표제가 나타나 있다.

③ (가)와 (나)는 모두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5 인구 주택 총조사’ 결과인 수치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④ (가)의 두 번째 문단에 연령별 통계 자료가 제시되어 있다.

07 ㉠ ‘혼자서도 잘해요.’는 누구의 도움 없이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는 의미로, ㉡ ‘혼자 살아요.’와 달리 1인 가구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반영된 것이다.

소단원 평가 문제

본문 42~45쪽

01 ③	02 ③	03 ①	04 ⑤	05 ⑤	06 ④
07 ④	08 ④	09 ①	10 ①	11 이 글에서는 여성 의 경제 활동 참여 증가, 대학생의 다른 지역 유학 등을 1인 가구의 확산 원 인으로 제시하였다. 반면 ㉠에서는 혼자 살아야만 하는 사람(부모 부양 문화 의 단절로 인한 독거 노인)의 증가를 그 원인으로 제시하였다.	12 ④

01 광고는 수용자를 설득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설득력을 높일 수 있는 내용과 표현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작 의도가 드러나지 않으면 수용자가 무엇을 받아들여야 할지 알 수 없으므로, 제작 의도를 분명히 드러내는 것이 좋다.

오답 풀이 ①, ② 광고는 설득을 목적으로 만든다. 이해하기 쉬운 내용이어서 수용자가 광고에 설득당하기 쉽다.

④ 아무리 좋은 광고라도 보는 사람이 없으면 만든 의미가 없기 때문에 시선을 끌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여 많은 사람들이 보게 만들어야 한다.

⑤ 수용자의 기억에 오래 남아야 설득하기가 더 쉽고 효과도 좋다.

02 (가)의 앞부분에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담은 문구가 사용되지는 않았다. (가)에서는 ‘잃어버린 ~에 대한 묵념’이라는 문구를 반복하고 있다.

03 (나)에서는 통계청 관계자의 말을, (다)에서는 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의 말을 인용하여 기사의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다.

04 (나)와 (다)는 통계청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인 가구가 증가하는 현상을 소개하고 있지만, 현상만 분석하고 있을 뿐 이 때문에 발생한 문제점이나 이를 해결할 대책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오답 풀이 ① (나)에서는 경제 활동 인구가 늘어나면 1인 가구는 자연적으로 늘어난다고 하였다.

② (다)에서는 현재 한국의 1인 가구 확산은 미혼 요인보다는 고령화 요인이 더 크다는 대학교수의 견해를 인용하여 제시하였다.

③, ④ (나)와 (다)는 모두 통계청이 발표한 '2015 인구 주택 총조사'의 결과를 전달하고 있다. 이처럼 동일한 정보를 다루고 있지만, (나)는 1인 가구 증가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는 반면, (다)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05 (나)와 (다)에 제시된 통계청의 '2015 인구 주택 총조사' 결과에는 노인 1인 가구 증가율과 여성 1인 가구 증가율을 분석하거나 비교한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나)에서 이번 조사 결과 1인 가구 비율은 27.2퍼센트, 5년 전 조사에서 1인 가구의 비율은 23.9퍼센트라고 하였다. 둘의 차이는 3.3퍼센트포인트이다.

② (다)에서 1인 가구의 비율은 27.2퍼센트, 2인 가구의 비율은 26.1퍼센트로, 가구의 절반 이상이 혼자 혹은 둘이 사는 형태라고 하였다.

③ (나)에서 1인 가구는 가구 유형 중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하였고, (다)에서 1인 가구의 비율이 27.2퍼센트, 2인 가구의 비율이 26.1퍼센트라고 하였다.

④ (나)의 도표를 참고할 때, 1990년의 1인 가구 비율은 9.0퍼센트로, 전체 가구 중에서 가장 비중이 적은 유형이었다.

06 <보기>에 제시된 인터넷 기사의 제목에는 '충격'이라는 강렬한 인상의 단어가 나타나 있다. 기사의 제목만 보면 음식점 주방의 위생상의 문제점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게 되지만, 실제 기사에는 청결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외식 사업가의 인터뷰 내용이 담겨 있다. 이는 인터넷이라는 매체의 특성 때문에 기사의 내용보다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는 데만 집중한 것으로, 조회 수를 늘리기 위한 행동이다. 이와 같은 행동은 독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

07 이 광고는 방송 매체 자료로, 지나친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고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며 살아갈 것을 권하는 내용을 담은 공익 광고이다. 광고에 담긴 의도, 주제 의식과 표현 방법을 파악하고 그 적절성과 타당성을 평가하며 읽어야 한다.

오답 풀이 ① 이 광고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행동하도록 사람들을 설득하는 공익 광고이므로 상업성과는 관련이 없다.

②, ③ 이 광고는 전문가의 의견이나 통계 자료를 활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점검해야 할 사항이 아니다.

⑤ 이 광고는 방송 매체에서 송출된 영상 광고이다. 광고의 조회 수를 늘리기 위해 정보를 과장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은 디지털 통신 매체를 수용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이다.

08 이 광고는 스마트폰을 보느라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반복적으로 보여 주어 스마트폰 중독의 악영향을 제시하고 있다. 스마트폰 사용의 부정적인 측면만을 강조하고 있을 뿐 긍정적인 측면까지 균형 있게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09 이 글은 통계청이 발표한 '2015 인구 주택 총조사' 결과를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여 내용의 객관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과거의 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현상의 추이를 밝히고 있으며, 이를 도표를 활용하여 시각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반면 주요 개념이나 용어에 대한 정의는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② 2010년의 통계 자료와 2015년의 통계 자료를 비교하여 5년 동안 1인 가구가 99만 가구 늘어났음을 밝혔다.

③ 시각 자료인 막대그래프를 제시하여 연도별 인구 주택 총조사 결과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④ '2015 인구 주택 총조사' 결과에 따른 객관적인 수치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⑤ 통계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10 '혼자서도 잘해요.'라는 문구는 1인 가구의 증가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을 드러낸다. 또한 기사에서는 1인 가구의 비중이 과거와 비교했을 때 최고치를 기록했음을 언급하며 연령별 비중과 그 원인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한 ①이 표제로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② 1인 가구의 증가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이 드러나지 않는다.

③ 1인 가구의 증가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이 드러나지 않으며, 기사의 주제에 벗어난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④ 1인 가구의 증가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이 드러나지 않으며, 고령층에서 1인 가구 비중이 늘어났음은 기사의 핵심 내용이 아니다.

⑤ 경제 활동 인구가 늘어나면서 1인 가구가 늘어난 것일 뿐 1인 가구의 경제 활동 참여율이 증가한 것은 아니다.

11 서술형 이 글에서는 통계청 관계자의 의견을 인용하여, 1인 가구가 확산되는 원인으로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 증가, 대학생의 다른 지역 유학 등을 꼽았다. 반면 <보기>에서는 경제 활동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평균 수명은 늘어나는데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는 문화가 사라지면서 혼자 사는 노인이 늘어난 것(㉠)을 그 원인으로 제시하였다.

평가 기준	확인 ☒
이 글에서는 1인 가구의 확산 원인으로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 증가, 대학생의 다른 지역 유학 등을 제시하고 있음을 썼다.	☐
<보기>의 ㉠에서는 1인 가구의 확산 원인으로 부모 부양 문화가 사라져서 혼자 살아야만 하는 사람이 많아진 것을 제시하고 있음을 썼다.	☐

12 이 광고는 '아름다운 선율도 아래층 이웃에게는 때론 큰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통해 위층 주민이 아래층 주민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지녀야 한다는 내용을 전달한다. 이 광고를 르에 근거하여 살펴볼 경우, 아래층 역시 위층의 상황이나 입장을 배려해야 한다는 내용은 전달하고 있지 않다는 측면에서 비판하는 것이 적절하다.

소단원 심화 문제

본문 46~47쪽

01 ⑤ 02 ③ 03 ② 04 ④ 05 ④는 1인 가구의 비중이 높아진 것을 사회 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고 있다. ⑥는 1인 가구의 비중이 높아지는 이유를 고령화로 인해 혼자 사는 노인이 늘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01 (가)는 스마트폰의 과도한 사용을 자제하도록 권하고 있는 영상 광고이고, (나)는 이웃을 배려하여 층간 소음을 줄이도록 설득하고 있는 인쇄 광고이다. (가)와 (나)는 둘 다 주제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광고 문구를 사용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가)는 마지막 영상에서 내레이션을 제시해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고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며 살아야 한다는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② 그림은 시각적 이미지이다. (나)는 수용자들에게 잘 알려진 그림을 위아래 층의 주민을 연상하도록 배치하여 수용자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③ (가)는 일상에서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문제 상황을, (나)는 위아래 층에서 서로 배려하지 않아 일상생활 속 소음 공해에 시달리는 문제 상황을 소재로 활용하고 있다. ④ (가) 영상은 자막 등의 시각적 요소와 내레이션이라는 청각적 요소를 모두 활용하지만, (나)는 그림과 문자라는 시각적 요소만 활용하고 있다.

02 광고를 읽을 때에는 내용 및 표현 방법의 적절성을 평가해야 한다. 내용 면에서는 편견에 치우치지 않은 공정한 관점에서 내용을 제시하였는지, 보편타당하고 믿을 만한 정보를 제시하였는지 평가하고, 표현 방법 면에서는 광고가 실린 매체에 맞는 적절한 표현 방법을 사용하였는지, 광고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표현 방법을 사용하였는지 평가해야 한다.

오답 풀이 ㄱ. 육하원칙에 따라 내용을 전달하는 것은 광고의 특성이 아니므로 이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ㄴ. 광고는 적절한 내용과 표현 방법으로 수용자를 설득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적절한 양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해야 하는 것이지 최대한 많은 정보를 담아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

03 (나)는 잘 알려진 명화를 위아래 층의 주민처럼 보이게 배치하여, 이웃을 이해하고 배려하며 층간 소음 문제를 해결하자는 주제를 전달하고 있는 공익 광고이다. (나)는 상업 광고가 아니기 때문에 특정 상품에 대한 정보는 나타나지 않는다.

04 <보기>의 ㉠에서는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라 발생하게 될 문제 상황을 제시해야 한다. (나)에서는 1인 가구 증가의 원인으로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율이 높아져 혼자 살 수 있는 여성이 늘어났기 때문임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경제적 능력이 없는 여성 1인 가구가 증가하였다는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

오답 풀이 ① (가)의 통계청 자료에는 1인 가구의 현황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에 활용할 수 있다. ② (가)의 인터뷰와 (나)의 통계청 분석에서는 여성의 1인 가구 비율이 증가하게 된 원인으로 경제 활동 참가율이 높아졌음을 제시하고 있다. ③ (나)의 인터뷰에서는 1인 가구 확산 요인을 고령화로 보고 있으므로, 이를 ㉠에 활용할 수 있다. ⑤ (나)의 인터뷰에서 노인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원인을 분석한 부분을 활

용하여 지식이 부모를 부양하지 않아 비자발적으로 혼자 살게 된 노인 1인 가구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할 수 있다.

05 서술형 ④는 경제 활동 인구가 늘어나면서 1인 가구가 자연적으로 늘어난다고 하였고, ⑥는 현재 한국의 1인 가구 확산은 고령화 요인이 크다고 하였다.

평가 기준	확인 ☒
④는 1인 가구 증가를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고 있음을 썼다.	☐
⑥는 1인 가구 증가의 원인을 고령화 요인에서 찾고 있음을 썼다.	☐
각각 한 문장으로 썼다.	☐

(2) 책임감 있게 글 쓰기

교과서 꼼꼼 이해하기

01 51쪽

01 ② 02 글쓰기 윤리 의식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03 ① 04 ⑤

02 53쪽

05 ⑤ 06 표절 07 ③ 08 ④

01 ‘윤서’는 진로 탐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에서 인터넷을 검색하여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찾은 후, 검색한 자료 중 하나를 그대로 복사하여 제출하였다. ‘윤서’가 중학교 때 작성했던 보고서를 찾아보지는 않았다.

02 ‘윤서’는 인터넷에서 검색한 자료 중 하나를 그대로 복사해서 제출하였는데, ‘처음-①’에서는 ‘윤서’가 이와 같은 행동을 한 이유가 글쓰기 윤리 의식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03 개인적 차원의 쓰기 윤리의 개념은 ‘가운데-①’에 나타나 있다. 개인적 차원의 쓰기 윤리란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을 거짓으로 꾸며 쓰거나 과장하지 않고 진실하게 글을 써야 하는 도리를 말한다.

04 개인적 차원의 쓰기 윤리란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을 거짓으로 꾸며 쓰거나 과장하지 않고 진실하게 글을 써야 하는 도리이다. 친구가 고민하는 글에 관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조언은 진실한 글이므로 ⑤는 개인적 차원의 쓰기 윤리를 위반한 사례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인기 연예인과 관련된 소문을 누리소통망에 올리는 것은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개인적 차원의 쓰기 윤리를 위반한 것이다.

②, ④ ‘가운데-①’에서 다른 사람에게서 듣거나 자신이 상상한 이야기를 마치 직접 겪은 일처럼 표현하는 것은 비윤리적인 행위라고 하였다. 소설을

쓰기 위해 상상한 이야기나 친구가 이야기해 주었던 경험을 자신이 겪은 일처럼 쓰는 것은 개인적 차원의 쓰기 윤리를 위반한 것이다.

③ '가운데-㉠'에 따르면 실험 결과를 조작하거나 왜곡하여 논문이나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은 개인적 차원의 쓰기 윤리를 위반한 것이다.

05 사회적 차원의 쓰기 윤리란 다른 사람이 창작한 글이나 연구 자료를 허락 없이 베껴 쓰지 않으며, 저자의 허락을 받아 자료를 사용할 경우에도 출처를 밝히는 도리를 말한다.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창작물을 공유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인터넷을 이용해 정보를 공유하는 것 자체는 사회적 차원의 쓰기 윤리를 위반한 행위가 아니다. 다른 사람의 글이나 자료를 허락 없이 쓰거나 출처를 밝히지 않았을 때 위반 행위가 된다.

06 '가운데-㉠'에 따르면 작가의 고통스러운 작업으로 탄생한 작품을 순식간에 나의 창작물로 둔갑시키는 행위는 '표절'이다. 이 글의 글쓴이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표절 행위는 훔친 물건을 처음부터 자기 것인 양 사용하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07 <보기>는 개인적·사회적 차원의 쓰기 윤리가 지켜지지 않는 문제 상황을 가정하고 있다. 다른 사람의 글을 마음껏 가져다 쓰는 상황이 되면, 다양한 종류의 글을 허락 없이 인용하기가 오히려 쉬워질 수 있다. 다만 그 글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우리 사회의 건강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오답 풀이 ①, ②, ⑤ '끝-㉠'에서 쓰기 윤리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의 신뢰가 무너지고 공동체의 의사 결정이나 정책 판단이 제대로 실행되기 어려우며, 이는 심각한 사회적 손실이라고 하였다.

④ '끝-㉠'에서 개인적·사회적 차원의 쓰기 윤리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의 건강한 의사소통은 기대할 수 없다고 하였다.

08 '끝-㉡'에서 '나와 남을 모두 배려하는 책임감 있는 태도로 글을 쓴다면, 올바른 글쓰기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건강한 의사소통 문화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소단원 평가 문제



본문 54~57쪽

- 01 ③ 02 ② 03 ④ 04 <보기>는 개인적 차원의 쓰기 윤리를 위반한 행위이다. 그 이유는 실험 결과를 진실하게 쓰지 않고 거짓으로 꾸며 썼기 때문이다. 05 ② 06 ③ 07 ④ 08 ⑤
09 ⑤ 10 <보기>의 연구원은 신약의 효용성을 사실과 다르게 조작하여 글을 썼으므로, 개인적 차원의 쓰기 윤리를 위반한 것이다. 11 ④
12 ⑤ 13 ④

01 이 글은 '글쓰기 윤리'라는 개념을 정의하고, 이를 개인적 차원의 쓰기 윤리와 사회적 차원의 쓰기 윤리로 분류한 뒤 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02 이 글은 글쓰기 윤리를 개인적·사회적 차원의 쓰기 윤리로 분류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한 뒤 쓰기 윤리를 지키며 책임감 있게 글을 써야 한다는 주제를 전달하고 있다. 즉 개인적·사회적 차원의 쓰기 윤리를 중심으로 책임감 있게 글을 쓰자는 주제를 제시하고 있는 글이다.

03 <보기>의 ㉠은 자신의 경험을 꾸미거나 과장한 것으로, 개인적 차원의 쓰기 윤리를 위반한 사례이다. ㉡는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자신의 창작물로 둔갑시킨 것으로, 사회적 차원의 쓰기 윤리를 위반한 사례이다. ㉠과 같이 사회적 차원의 쓰기 윤리를 지키지 않은 행위는 개인의 창작 의욕을 떨어뜨리고, 저작자가 창작이나 연구 활동에 전념하는 것을 방해한다. 따라서 ㉣의 설명은 ㉠이 아니라 ㉡에 해당하는 것이다.

오답 풀이 ①, ② ㉠은 자신의 경험을 꾸미거나 과장한 것으로, 개인적 차원의 쓰기 윤리를 지키지 않은 사례이다. ㉡는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자신의 창작물로 둔갑시킨 것으로, 사회적 차원의 쓰기 윤리를 지키지 않은 사례이다. 따라서 ㉠과 ㉡는 모두 글쓰기 윤리를 지키지 않은 사례이다.

③ ㉠은 경험을 거짓으로 꾸밈으므로 진실하지 않은 글을 쓴 것이고, ㉡는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베껴 쓴 것이므로 그 사람의 저작권을 존중하지 않은 글을 쓴 것이다.

⑤ ㉡는 표절 행위로, (라)에서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표절 행위는 마치 훔친 물건을 처음부터 자기 것인 양 사용하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04 서술형 (다)에서 실험 결과를 조작하거나 왜곡하여 논문이나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은 개인적 차원의 쓰기 윤리를 위반한 행위라고 하였다. <보기>에서 대학교수는 실험 결과를 진실하게 쓰지 않고 보고서를 조작하였다.

평가 기준	확인 ☒
개인적 차원의 쓰기 윤리를 위반한 행위를 썼다.	☐
실험 결과를 진실하게 쓰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썼다.	☐

05 글을 쓸 때 '인터넷에 있는 자료를 있는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올바른 글쓰기 태도가 아니다. 이 글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글을 사용할 때는 허락 없이 베껴 쓰지 않아야 하며, 허락을 받아 자료를 사용할 경우에도 출처를 밝혀야 한다고 하였다.

오답 풀이 ①, ④ 거짓이나 허위 사실을 쓰는 것은 개인적 차원의 쓰기 윤리를 어기는 행위이므로 점검해야 한다.

③ 자료의 출처를 제시하지 않는 것은 사회적 차원의 쓰기 윤리를 어기는 행위이므로 점검해야 한다.

⑤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상처가 되는 표현을 사용하면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는 사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점검해야 한다.

06 ㉠의 쓰기 윤리를 지키며 책임감 있는 태도로 글을 쓰는 태도는 (마)에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다. 글쓴이는 인터넷처럼 강한 파급력을 지닌 매체를 피해서 글을 쓰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매체의 경우 더욱 신중한 태도로 글을 써야 한다고 하였다.

07 개인적 차원의 쓰기 윤리란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을 거짓으로 꾸며 쓰거나 과장하지 않고 진실하게 글을 써야 하는 도리를 말한다. 반면 사회적 차원의 쓰기 윤리란 다른 사람이 창작한 글이나 연구 자료를 허락 없이 베껴 쓰지 않으며, 저자의 허락을 받아 자료를 사용할 경우에도 출처를 밝히는 도리를 말한다.

08 개인적 차원의 쓰기 윤리와 사회적 차원의 쓰기 윤리를 모두 지켜야 건강한 의사소통 문화를 만들 수 있다.

- 오답 풀이** ① 글을 쓸 때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하는 도리를 글쓰기 윤리라고 한다.
 ② 다른 사람의 논문을 표절하는 행위는 사회적 차원의 쓰기 윤리를 지키지 않는 것이다.
 ③ 글쓰기는 사회 구성원이 서로의 의견을 교환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이므로, 독자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며 신중한 태도로 글을 써야 한다.
 ④ 사회적 차원의 쓰기 윤리를 지키지 않는 행위는 개인의 창작 의욕을 떨어뜨리고, 저작자가 창작이나 연구 활동에 전념하는 것을 방해한다.

09 ‘윤서’는 진로 탐구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정보를 검색하다가, 검색한 자료 중 하나를 그대로 복사하여 과제로 제출하였다. 이처럼 다른 사람이 창작한 글이나 연구 자료를 허락 없이 베껴 쓰는 것은 쓰기 윤리를 위반하는 행위이다.

10 서술형 개인적 차원의 쓰기 윤리란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을 거짓으로 꾸며 쓰거나 과장하지 않고 진실하게 글을 써야 하는 도리를 말한다. <보기>의 연구원은 신약의 실제 효용성을 알고도 그 결과를 과장하여 글을 썼으므로 개인적 차원의 쓰기 윤리를 위반한 것이다.

평가 기준	확인 ☒
<보기>의 연구원이 개인적 차원의 쓰기 윤리를 위반하였다는 내용을 썼다.	☐
<보기>의 연구원이 개인적 차원의 쓰기 윤리를 위반한 근거가 사실과 다르게 실험 결과를 조작하여 보고서를 작성했기 때문이라는 내용을 썼다.	☐

11 <보기>에서는 창작의 고통을 겪었던 유명 작가들의 예를 제시하고, 이러한 창작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잘못된 방법으로 표절을 언급하고 있다. 표절을 하는 행위는 사회적 쓰기 윤리를 지키지 않은 것이므로, <보기>는 (라)를 뒷받침하는 사례로 제시할 수 있다.

12 글을 쓸 때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13 우리가 모두 아는 사람의 말을 인용하더라도 출처를 밝혀서 사회적 차원의 쓰기 윤리를 지켜야 한다. 한편 ⑤와 같이 사회 구성원이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는 인터넷 공간에서도 쓰기 윤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14 정답과 해설

소단원 심화 문제

본문 58~59쪽

- 01** ③ **02** ⑤ **03** ② **04** 쓰기 윤리를 지키며 글을 쓴다는 것은 자신의 생각을 진실하게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는 태도로 글을 쓰는 것이다. **05** ④ **06** ④

01 이 글은 (가)에서 글쓰기 윤리를 개인적 차원의 쓰기 윤리와 사회적 차원의 쓰기 윤리로 분류하고, (나)~(사)에서 각각의 개념과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의 문제점을 말하며 쓰기 윤리를 지키는 일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02 ㉠ ‘개인적 차원의 쓰기 윤리’는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을 거짓으로 꾸며 쓰거나 과장하지 않고 진실하게 글을 써야 하는 도리이므로, 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글을 쓸 때 꾸며 쓰거나 상상해서 쓰지 말아야 한다. ㉡ ‘사회적 차원의 쓰기 윤리’는 다른 사람이 창작한 글이나 연구 자료를 허락 없이 베껴 쓰지 않으며, 저자의 허락을 받아 자료를 사용할 경우에도 출처를 밝히는 도리이다. 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남이 쓴 글이나 자료를 허락 없이 가져다 쓰지 말아야 한다.

03 글쓰기 윤리란 글을 쓸 때 지켜야 하는 도리를 말한다. 어릴 적 경험을 글로 써서 블로그에 게시한 것은 자신의 경험을 진실하게 쓴 것이므로 글쓰기 윤리를 위반한 사례가 아니다.

- 오답 풀이** ① 실험 결과를 조작한 것은 사실이 아닌 내용을 거짓으로 꾸며 쓴 것이므로, 개인적 차원의 쓰기 윤리를 위반한 사례이다.
 ③ 다른 사람이 창작한 글이나 연구 자료를 허락 없이 베껴 쓰고 이를 자신이 만든 자료인 것처럼 제출한 것이므로 사회적 차원의 글쓰기 윤리를 위반한 사례이다.
 ④ 자신이 경험한 적이 없는 일을 마치 자신이 직접 겪은 일인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 쓴 것은 개인적 차원의 쓰기 윤리를 위반한 사례이다.
 ⑤ 다른 사람이 창작한 글을 사용할 때는 저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출처도 밝혀야 한다. 책의 한 구절을 누리소통망에 올리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것은 사회적 차원의 쓰기 윤리를 위반한 사례이다.

04 서술형 (사)에서는 쓰기 윤리를 지키며 글을 쓰는 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의 내용에 따르면, 쓰기 윤리를 지키는 것은 자신의 생각을 진실하게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는 태도로 글을 쓰는 것으로, 나와 남을 모두 배려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로 글을 쓰는 것을 말한다.

평가 기준	확인 ☒
‘쓰기 윤리를 지키며 글을 쓴다는 것은’으로 문장을 시작하였다.	☐
자신의 측면에서는 자신의 생각을 진실하게 표현하는 태도를, 다른 사람의 측면에서는 그의 권리를 존중하는 태도를 썼다.	☐

05 이 글의 글쓴이는 다른 사람이 창작한 글이나 자료를 사용할 때에는 저자의 허락을 받고 출처를 밝혀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보기>의 '스톨먼'은 정보를 저작권으로 설정하여 소수가 독점하는 것을 비판하고 지식과 정보는 모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스톨먼'은 정보를 무조건적으로 공유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정보를 나누면 우리 사회의 신뢰가 무너진다는 내용은 '스톨먼'의 발언이라 보기 어렵다.

06 (마)에서 논문 표절로 망신을 당한 사람에 대한 언급은 나와 있지만, 이 글에 쓰기 윤리를 어긴 사람들에게 대한 처벌 사례는 나와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나)에 '개인적 차원의 쓰기 윤리'가 무엇인지 그 개념이 설명되어 있다.

② (나)~(바)에서 개인적 차원의 쓰기 윤리와 사회적 차원의 쓰기 윤리를 지키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설명하고 있다.

③ 글쓰이는 (사)에서 글쓰기 윤리를 지키며 책임감 있는 태도로 자신의 생각을 진실하게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는 태도로 글을 써야 한다고 이미 말하였다.

⑤ (나)에서 글쓰이는 진실하지 못한 글은 글쓰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이 유포된 이가 악성 댓글이나 추측성 기사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였다.

(3) 서로를 존중하는 대화

교과서 꼼꼼 이해하기

① 63쪽	01 ⑤	02 겸양의 격률	03 ②
② 65쪽	04 ③	05 ④	06 ③ 07 ⑤

01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을 최소화하고, 이익이 되는 표현을 최대화하는 방법은 공손성의 원리의 원칙 가운데 요령의 격률에 해당한다. 또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표현은 최소화하고, 부담이 되는 표현은 최대화하는 방법은 관용의 격률에 해당한다. ⑤는 이와 같은 대화의 원리에 반대되는 잘못된 설명이다.

02 <보기>에서 '경수'는 '선생님'의 칭찬을 듣고 자신을 칭찬하는 표현을 최대화하고 있다. 이는 공손성의 원리 중 겸양의 격률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겸양의 격률은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 자신을 칭찬하는 표현은 최소화하고, 자신을 낮추는 표현을 최대화하는 방법이다.

03 [A]에서 '지호'는 같이 저녁을 먹기를 바라는 '찬우'와 의견 차이가 있지만, 먼저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 준 후, 저녁을 못 먹는 대신 음료를 마시자고 제안하여 서로의 의견 차이를 최소화하였다. '찬우'가 '지호'를 칭찬하는 표현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④ '찬우'는 '지호'와 저녁을 먹기를 바랐지만, '지호'가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의견 차이가 발생하였다. 대신 '지호'의 제안으로 음료를

를 같이 마시고 저녁은 다음에 먹기로 하며 의견 차이가 최소화되고, 일치 점이 최대화되었다.

③ '지호'는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같이 저녁을 먹자는 '찬우'의 제안을 들어줄 수 없었다.

⑤ '지호'는 "같이 저녁 먹으면 좋지."라고 하며 '찬우'의 의견을 존중한 후, 저녁을 같이 먹을 수 없는 상황이므로 대신 음료를 마시자고 제안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있다.

04 순서 교대의 원리란 대화 참여자가 서로 적절하게 순서를 교대해 가면서 말을 주고받아야 하는 것을 말한다. 상황에 따라 말하는 시점과 듣는 시점을 잘 선택해서 서로 차례로 말을 해야 하는 것이지, 상황과 관계없이 상대방에게 말할 수 있는 우선권을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05 '은채'는 점심 뭐 먹었냐는 친구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아침부터 자신에게 있었던 일을 장황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이는 듣는 사람이 요구하지 않은 정보를 불필요하게 많이 제공한 것으로 대화의 원리 중 협력의 원리를 어긴 경우에 해당한다.

06 <보기>에서 '딸'은 화제인 휴가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여 협력의 원리를 어기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보기>에서는 '딸'의 말을 화제와 연관된 내용으로 수정하였다. 이는 협력의 원리 중 대화의 목적이나 주제와 관련된 것을 말해야 한다는 관련성의 격률을 고려한 것이다.

07 대화의 원리인 공손성의 원리, 순서 교대의 원리, 협력의 원리를 기준으로 대화 내용을 평가할 수 있다. 대화는 서로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고 이해하는 상호 교섭 활동이므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받아들이도록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소단원 평가 문제

본문 66~71쪽

01 ④	02 ②	03 ⑤	04 ②	05 ④	06 ⑤
07 ③	08 '민주'가 '할머니' 세대의 말하기 방식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09 ④	10 ①	11 ④	12 ⑤
13 ②	14 ③	15 ③	16 ④	17 ④	18 ④
19 ②	20 ②	21 언어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차별과 편견이 담긴 말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22 ①		

01 협력의 원리란 대화 참여자가 대화의 목적에 최대한 기여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화 시간을 길게 늘리는 것이 목적은 아니다.

02 '지호'가 처음에 말을 할 때는 '찬우'와 의견 차이가 없었으므로, 의견 차이를 최소화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지호’는 ‘찬우’에게 배드민턴의 기본 동작을 설명해 줄 수 있는지 ‘찬우’의 의견을 물어보며 선택권을 주고 있다.

③, ⑤ ‘지호’는 ‘찬우’에게 선택권을 부여하고 ‘찬우’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요령의 격률을 사용하고 있고, ‘찬우’는 저녁에 따로 시간을 내기로 하여 자신이 부담을 지는 관용의 격률을 사용하고 있다.

④ ‘지호’가 ‘찬우’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은 ‘찬우’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찬우’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말하기이다.

03 (가)에는 공손성의 원리 중 찬동의 격률과 겸양의 격률이 나타나 있다. 하지만 (나)는 ‘친구 2’가 순서 교대의 원리를 지키지 않아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로, 공손성의 원리는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가)와 (나)에서는 공손성의 원리의 5가지의 격률 중 2가지만 찾아볼 수 있다.

04 (나)의 ‘친구 2’는 ‘친구 1’의 말을 가로채며 순서 교대의 원리를 지키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조언하는 것이 적절하다.

05 (가)의 여학생은 의문문을 사용하고는 있지만 이는 남학생에게 색연필이 필요한 이유를 묻거나 비난하는 남학생을 탓하는 것으로, 정중하게 거절 의사를 표현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06 (가)의 남학생은 색연필이 있으면 달라고 하며 자신의 부탁을 바로 들어줄 것을 요구하고(ㄴ), 여학생이 지금 색연필을 써야 해서 부담스러운 상황임에도 색연필을 빌려주는 게 아깝냐면서 비난하는 어조로 말하였다(ㄷ). (나)의 남학생은 “혹시 색연필 빌려줄 수 있어?”와 같은 의문문을 사용하여 완곡하게 부탁하고(ㄱ), 자신들이 기다리겠다고 하거나 필요한 게 있으면 빌려주겠다고 하는 등 상대의 부담을 줄이고 이익을 최대화하고 있다(ㄷ).

07 사과를 할 때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야 하며, 상대방에게 미안하다는 표현을 해야 한다. ③과 같은 말은 자신의 의도를 변명하며, 상대방이 오해했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므로 올바른 사과의 태도가 아니다.

[참고 자료] 사과할 때에 주의할 점

- 자신이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
- 상대방에게 불편을 주어 미안하다는 표현을 해야 하고, 상대방의 기본을 살피며 말해야 한다.

08 서술형 ‘민주’는 처음에 “우리 똥강아지 학교 가니?”라고 한 ‘할머니’의 말을 이해하지 못해서 화를 내고 있다. 이는 ‘민주’가 처음에 ‘할머니’ 세대가 말하는 방식을 잘 몰라서 ‘할머니’가 하신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민주’가 다른 세대가 사용하던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내용을 썼다.	☐
한 문장으로 썼다.	☐

09 이 대화에서는 ‘똥강아지’와 같이 세대의 특성이 반영된 말이 나타나 있다. 세대의 특성이 드러난 사회 방언은 세대 내에서 동일한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동질감과 친밀감을 느끼게 하며, 의사소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② 세대의 특성이 반영된 말을 사용한다고 해서 높임 표현처럼 상대방에 대한 공손함을 표현할 수 있거나 공부할 때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③ 전문적인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직업의 특성이 반영된 전문어의 효과에 해당한다.

⑤ ‘할머니’가 사용하는 ‘똥강아지’라는 말은 세대의 특성이 반영된 말이다. 지역의 특성을 계승할 수 있는 것은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지역 방언이다.

10 (가)의 ‘친구 2’는 친구네 집에 방문하여 인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인사말도 없이 오하려 ‘친구 1’에게 편지를 주고, (나)의 ‘친구 2’는 병원에 입원한 친구를 위로해야 하는 상황에서 ‘친구 1’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모두 상대방을 배려하거나 존중하지 않은 태도이다.

11 ‘친구 2’는 모두 상황에 적절하지 않은 말을 하여 상대방을 당황시키고 있다. 말을 할 때에는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해야 하며, 상황이나 대상에 따라 적절하게 표현해야 한다.

12 (나)의 내용에 따르면 지역, 나이, 성별, 계층 등에 따라 다양한 언어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다. 지역 방언을 희화화하거나 특정 성(性)을 비하하는 표현 등은 이러한 언어의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고 차별하고 편견을 갖는 것의 예이다. 따라서 언어의 다양성을 보여 주는 사례로 보기 어렵다.

오답 풀이 ① (나)에 따르면,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는 우리의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② (나)에 따르면, 한 공동체 안에서도 지역, 나이, 성별, 계층 등에 따라 다양한 언어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다.

③ (가)에 따르면, 공감하며 듣기의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소극적 듣기와 적극적 듣기가 있다고 하였다.

④ (가)에 따르면, 공감하며 듣기란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공감하면서 듣는 것이라고 하였고, (나)에서도 대화의 상황과 대상 등을 점검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소통해야 한다고 하였다.

13 <보기>에서 ‘민철’은 국어 시험에서 틀린 문제가 아쉽다고 말하는데, 이에 대해 ‘희수’는 그게 뭐가 아쉽냐며 편지를 주고 있다. 이는 상대방의 생각이나 감정을 공감하지 않은 듣기 태도로 볼 수 있다.

14 차별과 편견이 들어 있는 표현이란 특정 지역, 나이, 성별, 계층 등을 희화화하거나 비하하는 표현을 말한다. ‘환쟁이’는 ‘화가’를 비하한 표현이다.

15 ‘지호’는 ‘찬우’의 의견을 물어보며 선택권을 부여하여 ‘찬우’의 부담을 최소화하였으므로, 요령의 격률에 따라 대화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지호’와 ‘찬우’는 상대방의 말을 가로채지 않고 순서 교대의 원리를 지켜 말하고 있다.

②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 자신을 칭찬하는 표현은 최소화하고, 자신을 낮추는 표현을 최대화하는 것을 겸양의 격률이라고 한다. '지호'의 말에서 이와 관련된 표현은 찾아볼 수 없다.

④ 상대를 비난하는 표현은 최소화하고, 칭찬하는 표현은 최대화하는 것은 찬동의 격률이다. '찬우'의 말에서 이와 관련된 표현은 찾아볼 수 없다.

⑤ '찬우'는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표현은 최소화하고, 부담이 되는 표현을 최대화하는 관용의 격률을 지켜 말하고 있다.

16 '지호'는 자신을 칭찬하는 표현은 최소화하고 자신을 낮추는 표현은 최대화하는 겸양의 격률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자신이 부족한 점이 많다고 겸손한 표현으로 바꾸어 말한 것이다.

17 (가)의 남학생은 아직 끝나지 않은 친구의 말을 가로챈 뒤, 자신의 생각만 말하고 있다. 이러한 대화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화의 흐름을 잘 살피고 자신의 대화 순서에 유의하여 말하는, 순서 교대의 원리를 따라야 한다.

18 (나)에서 '딸'은 대화의 주제에 맞지 않는 내용을 말하며, 협력의 원리를 위반하고 있다. 따라서 ㉠은 '딸'이 휴가지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바람직한 태도로 말하는 내용으로 고쳐 써야 한다.

19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요리사는 자신이 속한 분야의 전문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학생은 요리 분야의 전문 지식이 적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요리사가 시청자의 이해를 돕는 말하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20 말하는 내용이 정당하더라도 말하는 상황이나 대상에 적절하지 않으면 대화 상대는 이 말을 수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21 서술형 이 글의 세 번째 문단에서 알 수 있듯이, 의사소통의 다양성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람이 존재하는 만큼 언어도 다양하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또한 누군가를 차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말을 쓰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평가 기준	확인 ☒
다양한 사람이 존재하는 만큼 언어도 다양하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는 내용을 썼다.	☐
누군가를 차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말을 쓰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썼다.	☐

22 ㉠의 예로는 장애인, 성, 직업, 지역, 인종 등을 차별하는 표현을 들 수 있다. ㉠에서는 차별과 편견이 들어 있는 표현이 쓰이지 않았다.

오답 풀이 ②, ④ '살색', '혼혈'은 인종에 따른 차별과 편견이 반영된 표현이다.

③, ⑤ '촌티', '서울로 올라올'은 지역에 따른 차별과 편견이 반영되어 있는 표현이다.

소단원 심화 문제

본문 72~73쪽

01 ④ **02** ③ **03** ② **04** 유사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고, 의사소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05 ②

01 '선생님'이 찬동의 격률을 사용한 것은 조원들이 조장으로 믿고 뽑을 정도로 리더십이 뛰어난 '유미'를 칭찬한 표현이다. 조원들을 칭찬했다는 것은 대화의 맥락에 맞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선생님'은 "오늘 방과 후에 잠시 시간 낼 수 있나?"라고 물으며 '유미'에게 선택권을 부여하고, "선생님도 같이 할 거니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야."라고 하며 '유미'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 이는 요령의 격률을 사용한 것이다.

② '유미'는 과제를 해야 하지만 잠깐 시간을 낼 것을 말하며 자신이 부담을 지고 있다. 이는 관용의 격률을 사용한 것이다.

③ '유미'는 조장을 하기에 자신은 부족한 점이 많다고 하며, 자신을 낮추는 표현을 최대화하고 있다. 이는 겸양의 격률을 사용한 것이다.

⑤ '선생님'은 조원을 바꿔 달라고 하는 '유미'와 의견 차이가 있지만, '유미'가 다시 한번 노력해 본 뒤에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조원을 바꾸는 것을 고민해 보겠다고 한다. 이는 서로의 의견 차이를 최소화하는 동의의 격률을 사용한 것이다.

02 ㉡의 앞 문장에서 '선생님'은 조원을 바꾸고 싶다는 '유미'의 제안을 거절하고 ㉡에서 거절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선생님'은 계속해서 '유미'의 조별 과제와 조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화제를 전환한 것은 아니다.

03 (가)에서 세대 간의 언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해 상대방의 생각을 오해한 사람은 '할머니'가 아니라 '민주'이다.

오답 풀이 ① '동강아지'는 '할머니' 세대에서 귀한 아이를 부르는 단어이다. ③ (나)에서 '민주'는 '오라베'라는 지역 방언으로 '오빠'에게 인사를 건네고 있고, '오빠'는 이를 알아듣지 못하고 있다.

④, ⑤ (다)에서 '요리사'는 자신이 종사하는 요리 분야의 전문적인 용어인 '라딩(larding)', '브레이징(braising)' 등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요리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민주'는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04 서술형 (가)~(다)의 상황은 <보기>에서 설명한 것처럼 한 공동체 안에서 나이, 지역, 직업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 언어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언어를 사용하면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끼리는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고, 의사소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사용자들끼리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다는 내용을 썼다.	☐
의사소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내용을 썼다.	☐

05 (가)~(다)는 각각 세대(나이), 지역, 직업에 따라 다양한 의사소통 방법을 보여 준다. '열공'은 '열심히 공부하다.'라는 뜻이고, '깎기빠빠'는 '깎 때 끼고 빠질 때는 빠져야 한다.'라는 뜻으로, 이러한 말은 청소년 세대가 주로 사용하는 단어이다.

- 오답 풀이** ① ‘오라베’와 ‘물꾸럭’은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말이다.
 ③ ‘똥강아지’는 세대의 특성, ‘라딩’은 직업의 특성이 반영된 말이다.
 ④ ‘버정’, ‘문상’은 세대의 특성, ‘브레이징’은 직업의 특성이 반영된 말이다.
 ⑤ ‘손녀’와 ‘할머니’는 모든 사람이 두루 쓰는 말이고, ‘오라베’는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말이다.

본문 74~78쪽

대단원 정리 문제

- 01 ⑤ 02 ④ 03 ⑤ 04 ③ 05 우리 사회의 건강한 의사소통을 기대할 수 없다. 우리 사회의 신뢰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 공동체의 의사 결정이나 정책 판단이 제대로 실행되기 어렵다. 06 ③
 07 ③ 08 ⑤ 09 ④ 10 ④ 11 ⑤ 12 ⑤
 13 ④ 14 ④ 15 ‘은채’는 듣는 사람이 요구하지 않은 정보를 불필요하게 많이 제공하고, 대화의 주제에 맞지 않는 내용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은채’는 대화의 목적에 최대한 기여할 수 있도록 협력의 원리를 지켜 대화해야 한다. 16 ④ 17 구성원 간의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고, 의사소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01 (가)에서는 사람의 외모를 희화화하는 희극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나)에서는 글쓰기 윤리를 지키지 않을 때의 문제점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가)의 첫 문단은 현재의 문제 상황과 유사한 글쓰기의 경험을 보여 주며, (나)는 현재의 상황만 보여 줄 뿐, 과거와 현재를 대조하지는 않았다.

- 오답 풀이** ① (가)에는 글쓰기의 초등학교 시절 경험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② (나)는 글쓰기 윤리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
 ③ (가)는 독자에게 방송에서 부적절한 내용을 다루지 않도록 제작자뿐 아니라 시청자도 문제의식을 지녀야 함을, (나)는 독자에게 나와 남을 모두 배려하는 책임감 있는 태도로 글을 써야 함을 권하고 있다.
 ④ (가)는 사람의 외모를 희화화해서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현상을, (나)는 글쓰기 윤리를 지키지 않는 현상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며 이러한 태도를 개선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02 (가)의 글쓴이는 온 가족이 함께 보는 희극 프로그램에서 사람의 외모를 희화화하여 웃음을 유발한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이를 비판하고 있다.

03 매체를 분석하고 평가할 때에는 신뢰성, 타당성, 공정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자극적인 요소만을 담아 독자의 흥미를 끄는 것은 오히려 매체가 지양해야 할 점이므로 평가 항목으로 적절하지 않다.

04 <보기>의 사례는 개인적 차원의 쓰기 윤리를 위반한 것이다. 보고서를 인터넷에 올렸다는 매체와 관련한 언급은 나오지 않으므로 인터넷의 파급력을 고려하지 않은 행동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05 **서술형** 개인적·사회적 차원의 쓰기 윤리가 지켜지지 않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은 (나)의 첫 번째 문단에 나타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세 가지 문제점을 모두 썼다.	☐
각각 한 문장으로 썼다.	☐

06 제시된 인터넷 기사 제목만 보면 음식점 주방의 위생상 문제점을 다루리라고 예상하게 되지만, 실제 기사에는 청결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외식 사업가의 인터뷰가 담겨 있다. 기사의 제목과 실제 내용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청결과 관련된 내용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07 제시된 기사는 조회 수를 늘리기 위해 본문의 내용과 큰 관련이 없는 자극적인 제목을 달고 있다. 이는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는 데에만 중점을 두는 인터넷 매체의 특징을 드러내고 있다.

08 ‘지호’는 같이 저녁을 먹기를 바라는 ‘찬우’와 의견 차이가 있지만, 먼저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 준 후 저녁을 못 먹는 대신 음료수를 마시자고 제안함으로써 서로의 의견 차이를 최소화하는 동의를 격률을 사용하였다. 자신의 이익을 최소화하거나 부담을 최대화하는 관용의 격률은 사용되지 않았다.

09 ‘남학생’은 병원에 입원한 친구를 위로해야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친구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다. 상황에 맞게 말하기 위해서는 먼저 입원한 친구의 상황에 공감하고 위로해 주어야 한다.

10 ‘규비’가 ‘유범’에게 선뜻 빌려준다고 한 것으로 보아 ‘규비’네 모두가 다른 모둠에게 색연필을 빌려주는 것을 아까워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 오답 풀이** ①, ② ‘유범’은 ‘규비’에게 색연필을 빌려줄 수 있는지 먼저 물어본 후, ‘규비’네 모둠의 상황을 고려하여 기다리겠다고 하였고, ‘규비’네 모둠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빌려주겠다고 하였다.
 ③, ⑤ ‘현표’는 막무가내로 “색연필 있으면 좀 줘 봐.”라고 요구하고, 상대가 거절하자 색연필 빌려주는 게 아깝냐고 하는 등 색연필을 빌려주기 곤란한 상황에 있는 ‘규비’에게 비난하듯 말하고 있다.

11 동일한 정보를 다루고 있는 기사라도 글쓴이의 관점에 따라 기사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신문 기사를 읽을 때에는 글쓴이의 의도를 파악하여 이면의 의미까지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12 (나)와 달리 (가)에서는 도표(막대그래프)를 활용하여 통계청의 ‘2015 인구 주택 총조사’ 자료의 내용을 시각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13 사회적 차원의 쓰기 윤리란 다른 사람이 창작한 글이나 연구 자료를 허락 없이 베껴 쓰지 않으며, 저자의 허락을 받아 자료를 사용할 경우에도 출처를 밝히는 도리를 말한다. ④에서 유

명 작가인 □□□가 다른 작가의 문장을 베껴 쓴 것은 사회적 차원의 쓰기 윤리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14 ‘찬우’는 ‘지호’를 위해 저녁에 따로 시간을 내기로 하여 자신이 부담을 지고 있다. 이는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표현은 최소화하고, 부담이 되는 표현은 최대화하는 관용의 격률을 사용한 것이다.

[참고 자료] 공손성의 원리

요령의 격률	상대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은 최소화하고, 이익이 되는 표현은 최대화하는 방법
관용의 격률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표현은 최소화하고, 부담이 되는 표현은 최대화하는 방법
찬동의 격률	상대를 비난하는 표현은 최소화하고, 칭찬하는 표현은 최대화하는 방법
겸양의 격률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 자신을 칭찬하는 표현은 최소화하고, 자신을 낮추는 표현은 최대화하는 방법
동의의 격률	자신의 의견과 상대방의 의견 사이의 차이점은 최소화하고, 자신의 의견과 상대방의 의견 사이의 일치점은 최대화하는 방법

15 서술형 ‘은채’는 점심으로 먹은 것을 묻는 친구의 질문에 적절하지 않은 내용을 불필요하게 많이 이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은채’는 대화 참여자가 대화의 목적에 최대한 기여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협력의 원리를 지켜 말해야 한다.

평가 기준	확인 ☒
‘은채’의 의사소통 문제점으로 정보를 불필요하게 많이 제공하였다는 내용과 대화의 주제에 맞지 않는 내용을 말했다는 점을 한 문장으로 썼다.	☐
‘은채’가 지켜야 할 대화의 원리가 ‘협력의 원리’라고 썼다.	☐

16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지역 방언은 구성원들이 소속감과 친근함을 느끼게 해 주며, 지역의 고유한 문화와 정서를 간직하고 계승하게 한다. ‘비리’와 ‘물꾸럭’은 지역 방언을 희화화한 것이 아니라 표현의 차이를 보여 주는 예로, 이러한 지역 방언의 사용이 지역 간 차별을 유발한다고 볼 수는 없다.

17 서술형 한 공동체 안에서도 지역, 나이, 성별, 계층 등에 따라 다양한 언어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다양한 삶의 방식이 언어에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유사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끼리는 구성원 간의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고 의사소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사람들이 유사한 언어를 사용하면 구성원 간의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다는 내용을 썼다.	☐
사람들이 유사한 언어를 사용하면 의사소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내용을 썼다.	☐

3. 문학으로 그리는 삶



(1) 첫사랑

교과서 꼼꼼 이해하기

83쪽

01 ② 02 ③ 03 ① 04 ① 싸그락 싸그락 두드려 보았겠지, ㉠ 난분분 난분분 춤추었겠지

01 화자는 한겨울 나뭇가지에 내리는 눈과 그 눈이 나뭇가지에 쌓여 있는 모습, 또 봄에는 그 눈이 녹은 자리에 핀 꽃의 모습에서 첫사랑을 떠올리고 있다. 즉, 이 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바뀌는 자연 현상의 모습에서 첫사랑의 의미를 떠올리는 발상을 취하고 있다.

02 이 시는 전체 4연으로 이루어져 있다. 1연과 2연에서는 눈꽃을 피우기 위한 눈의 끊임없는 도전과 시련을 제시하고 있고, 3연에서는 끈질긴 도전 끝에 피운 눈꽃을 예찬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4연에서는 눈꽃이 진 후 봄에 피어난 꽃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다.

03 ‘눈은 얼마나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랴’에서 ‘눈’이 도전한다고 표현하고 있으므로 의인법이 사용되었다. 또한 ‘멈추지 않았으랴’와 같이 의문형으로 시행을 끝냄으로써 ‘멈추지 않았다’라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으므로 설의법이 사용되었다. 이러한 표현을 통해 화자는 사랑을 이루기 위해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며 노력하는 ‘눈’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04 청각적 심상은 귀를 통해 소리를 듣는 듯한 느낌과 관련되므로 의성어를 통해 눈이 내리는 소리를 표현한 ‘싸그락 싸그락 두드려 보았겠지’에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시각적 심상은 눈으로 보는 듯한 느낌과 관련되므로 눈이 어지럽게 훑날리며 내리는 모습을 그린 ‘난분분 난분분 춤추었겠지’에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소단원 평가 문제



본문 84~87쪽

01 ② 02 ④ 03 ③ 04 ① 05 ⑤ 06 ②
07 ③ 08 화자는 은유법을 사용하여 눈이 역경과 고난을 이겨 내고 마침내 피워 낸 눈꽃을 예찬하고 있다. 09 햇숨 같은 마음 10 ③
11 ④ 12 ③ 13 ① 14 ④ 15 ③ 16 의
인법과 설의법을 사용하여 사랑을 이루기 위한 눈의 노력을 형상화하였다.
17 ⑤ 18 ② 19 ① 20 ⑤ 21 ⑤ 22 ④

01 이 시는 현대 시로, 서정 갈래에 해당한다. 서정 갈래는 기쁨, 슬픔, 사랑, 그리움 등과 같은 정서를 함축적이고 운율이 있는 언어로 형상화하되 시적 화자의 목소리를 통해 이를 독자에게 전달하는 문학의 갈래이다. 한편 작가가 현실 세계에 일어날 법한 일을 꾸며서 쓰는 글은 소설로, 서정 갈래가 아니라 서사 갈래에 해당한다.

02 이 시에서 시인은 나뭇가지에 눈이 내리고 눈이 녹은 자리에 다시 꽃이 피는 모습을 통해 사랑의 속성을 표현하고 있다. 운율을 형성하는 반복적인 표현, 청각적·시각적 심상, 비유적·역설적 표현 방법 등을 통해 도전과 헌신으로 피워 낸 사랑의 가치와, 사랑을 통한 정신의 성숙이라는 주제를 효과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03 이 시에서는 눈이 도전과 헌신을 통해 피워 낸 눈꽃을 가치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눈꽃이 피어난 계절적 배경은 겨울이다. 한편 봄에 피어난 것은 눈꽃이 아니라 봄꽃이다. 따라서 봄을 계절적 배경으로 눈꽃의 귀중함을 강조하였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겨울에서 봄으로 변화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눈이 내리고, 눈꽃이 피고, 눈이 녹은 자리에 봄꽃이 피는 자연 현상의 모습에서 시의 발상을 취하고 있다.

② ‘싸그락’, ‘난분분’, ‘~겠지’ 등의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눈꽃을 피우려 거듭 시도하는 눈의 노력과 헌신을 강조하고 있다.

④ 나뭇가지에 눈이 쌓여 눈꽃이 피어나는 자연 현상을, 눈이 사람처럼 첫 사랑을 이루기 위해 헌신하고 도전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⑤ 눈꽃이 있다가 사라진 자리에 새로이 피어난 봄꽃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라고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는 비록 첫사랑이 끝남으로써 상처를 받지만, 이를 바탕으로 아름답고 성숙한 사랑을 이루어 낼 수 있음을 형상화한 것이다.

04 이 시는 눈이 내리는 겨울에서 꽃이 피는 봄으로 이어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05 시인은 겨울에 나뭇가지에 눈꽃이 피었다가, 봄이 되어 그 눈꽃이 녹은 자리에 꽃이 피는 모습을 보고 첫사랑을 얻기 위한 인내와 노력, 그리고 첫사랑이 주는 아픔을 겪은 뒤 성숙해지는 사랑을 떠올리기 때문에 시의 제목을 ‘첫사랑’으로 지었을 것이다. 따라서 ㉠에는 눈꽃이 진 자리에 피어나는 봄꽃, 즉 첫사랑을 끝낸 자리에 첫사랑을 겪은 후의 아픔과 상처를 디디고 이룩한 사랑을 꾸미는 말이 들어가야 하므로, ‘푹푹한’이 아니라 ‘성숙한’이 적절하다.

06 이 시의 2연에는 ‘보았겠지’, ‘춤추었겠지’와 같이 ‘~겠지’라는 표현이 반복 사용되었고, ‘싸그락’, ‘난분분’과 같은 음성 상징어가 반복되고 있으며, ‘미끄러지고 미끄러지길’에서 유사한 시어가 반복되고 있어 운율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오답 풀이 ① 명사로 시행을 끝맺으면 여운을 남길 수 있으나, 이것만으로 음악성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③ 각 행의 글자 수를 동일하게 맞추면 운율을 형성할 수 있지만, 정형시가 아닌 이 시에는 해당되지 않는 설명이다.

④ 묘사의 정도는 시의 운율과 직접적인 상관이 없으며, 대상의 행동을 세밀하게 묘사할 때 음악적 요소를 넣지 않을 경우 오히려 산문적 느낌을 줄 수 있다.

⑤ 동일한 시어를 반복하여 사용하면 운율감을 형성할 수도 있으나, 이 시에서 2연의 시작과 끝 부분에는 동일한 시어가 사용되지 않았다.

07 ‘ㄱ. 싸그락 싸그락 두드려 보았겠지’에는 의성어가 사용되어 청각적 심상이, ‘ㄴ. 난분분 난분분 춤추었겠지’에는 의태어가 사용되어 시각적 심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③ ‘젊은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에’에는 ‘서늘한’에서 피부에 닿는 느낌이 차가움을 표현하는 촉각적 심상이 사용되었다.

오답 풀이 ① ‘배추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은 ‘발소리’에서 청각적 심상이 두드러진다.

②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는 쿵쿵거린다는 표현에서 청각적 심상이 두드러진다.

④ ‘개울물 돌돌돌 길썩으로 흘러가고’는 ‘돌돌돌’에서 물이 흐르는 소리와 모습이 나타나 있어 청각적 심상과 시각적 심상이 두드러진다.

⑤ ‘흰 보라 수수꽃 눈시린 유리창마다’는 색채어가 나타나 있어 시각적 심상이 두드러진다.

08 서술형 3연의 마지막 행인 ‘마침내 피워 낸 저 황홀 보아라’에서는 눈꽃이 핀 모습을 ‘황홀’이라고 표현하는 은유법이 사용되었다. 이 시구에서 화자는 이처럼 은유법을 사용해 눈이 역경과 고난을 이겨 내고 마침내 피워 낸 눈꽃을 예찬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해당 시구에 사용된 비유의 명칭을 썼다.	☐
해당 시구에 나타난 화자의 태도를 썼다.	☐
완성된 문장으로 썼다.	☐

09 ‘햇숨’은 ‘당해에 새로 난 숨’이라는 뜻을 가진, 하얗고 깨끗한 대상이다. 따라서 ‘햇숨 같은 마음’은 사랑하는 대상을 향한 ‘눈’의 순수한 마음을 빗대어 표현한 시구이다.

10 ㉠에서는 무생물인 ‘눈’이 사람처럼 ‘도전을 멈추지 않았다’고 표현하고 있어 ‘의인법’이 사용되었고, ‘않았으랴’라는 표현을 통해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사실을 의문의 형식으로 표현하여 의미를 강조하는 ‘설의법’이 사용되었다. ③에서도 ‘벼’를 사람처럼 표현하는 의인법을 사용하여 어우러져 살아가는 민중의 강인한 생명력을 노래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함께 가자’에서는 의문형이 아닌 청유형이 사용되었고, ‘우리’는 화자를 포함한 사람을 가리키므로 의인법과 거리가 멀다.

② ‘별은 밝음 속에 사라지고 / 나는 어둠 속에 사라진다.’에 대구법이 사용되었지만, 의인법이나 설의법이 사용되지는 않았다.

④ ‘옛날같이’, ‘불경처럼’에서 직유법은 사용되었으나 의인법이나 설의법이 사용되지 않았다.

⑤ ‘아아’에서 영탄법을 사용하였고, ‘(님은) 갓습니다’를 반복하는 반복법을 사용해 화자가 임과 이별하게 된 충격을 드러내고 있지만, 의인법이나 설의법이 사용되지 않았다.

11 ‘바람 한 자락 불면 획 날아갈 사랑’이라는 것은 아주 작은 충격에도 쉽게 사라진다는 특성을 보여 주므로, 위태로움과 순간성이라는 첫사랑의 속성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12 시인은 눈꽃이 핀 모습을 ‘황홀’이라고 표현하여 첫사랑이 이루어진 기쁨을 나타내었고, 봄이 되어 눈꽃이 녹은 가지에 피어난 꽃을 ‘상처’라고 표현하여 첫사랑을 겪고 난 후의 아픔과, 이를 바탕으로 도달한 성숙한 사랑을 나타내었다.

13 시는 작가가 자신의 정서를 주관적으로 드러내는 문학 양식으로 서정 갈래에 해당한다. 인물들이 겪는 갈등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는 것은 서사 갈래의 특징이다. 서정 갈래는 화자를 내세워 기쁨, 슬픔, 사랑 등의 정서를 함축적이고 운율이 있는 언어로 형상화하여 독자에게 전달한다. 또한 서정 갈래는 시어, 화자, 운율, 심상 등의 구성 요소와 다양한 표현 방법을 활용하여 작품의 주제를 형상화한다.

14 3연에는 눈이 고난과 시련에 좌절하는 모습이 아니라, 눈이 힘든 도전 끝에 피운 눈꽃에 대한 예찬이 드러난다. ‘마침내 피워 낸 저 황홀 보아라’라는 시구에 눈이 마침내 눈꽃을 피워 낸 것에 대한 감탄이 잘 드러난다.

오답 풀이 ① 이 시는 겨울에서 봄에 이르는 계절의 변화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②, ③ 1연과 2연은 나뭇가지에 눈꽃을 피우기 위한 눈의 도전과 시련이 나타나 있다. 이는 첫사랑을 이루기 위한 눈의 도전과 헌신을 의미한다.

⑤ 4연에는 눈꽃이 진 후 봄에 피어난 꽃의 아름다움이 나타나 있다. 이는 첫사랑의 아픔 뒤에 피워 낸 성숙한 사랑의 아름다움을 의미한다.

15 이 시는 겨울의 고통을 인내하고 대상을 위해 헌신해야 봄꽃을 피울 수 있듯이, 인내와 헌신을 통해 아름답고 성숙한 사랑을 이룰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시련과 고통을 인내와 헌신으로 이겨 내야 성숙할 수 있다는 독자의 반응이 적절하다.

16 **서술형** ‘눈은 얼마나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랴’에서는 의인법, 설의법을 사용하여 사랑을 이루기 위한 눈의 노력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였다. 이 시구는 ‘눈’을 도전하는 행위의 주체로 의인화하여 표현하고, 반문의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랴’를 사용하여 설의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제시된 시구에 의인법과 설의법이 사용되었음을 밝혀 썼다.	☐
제시된 형식에 맞게 썼다.	☐

17 이 시에는 공감각적 심상은 드러나지 않고, 청각적 심상과 시각적 심상이 드러난다. 2연의 ‘짜그락 짜그락 두드려 보았겠지’에서 눈이 내리는 소리가 표현되고 있어 청각적 심상이 드러나고, ‘난분분 난분분 춤추었겠지’에서 눈이 내리는 모습이 표현되고 있어 시각적 심상이 드러난다.

오답 풀이 ①, ③ ‘눈은 얼마나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랴’에서 눈을 의인화하고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의인법과 반문하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랴’를 사용하여 사랑을 이루기 위한 눈의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②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를 터뜨린다’에서 ‘아름다운’과 ‘상처’는 서로 모순되는 말로, ‘아픔 뒤에 찾아오는 성숙한 사랑’이라는 의미를 담은 역설법이 사용되었다.

④ 3연에서 직유법, 은유법과 같은 비유법을 사용하여 대상의 함축적인 의미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햇숨 같은 마음’에서는 눈의 마음을 ‘햇숨’에 비유하는 직유법을 사용하고, ‘마침내 피워 낸 저 황홀 보아라’에서는 눈꽃이 핀 모습을 ‘황홀’이라고 표현하는 은유법을 사용하였다.

18 이 시는 정하여진 형식이나 운율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형식으로 이루어진 자유시로, 글자 수를 동일하게 맞추거나 3음보의 민요적 율격을 사용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지 않다. 이 시는 비슷한 문장 구조(‘짜그락 짜그락 두드려 보았겠지 / 난분분 난분분 춤추었겠지’)를 반복하고, 유사한 시어(‘미끄러지고 미끄러지길’)와 동일한 어미(‘-겠지’, 음성 상징어(‘짜그락(의성어)’, ‘난분분(의태어)’)를 사용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오답 풀이 ㄴ. 이 시는 정하여진 운율에 구애받지 않는 자유시로, 3음보의 민요적 율격은 쓰이지 않았다.

ㄷ. 이 시는 정하여진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자유시로, 각 행의 글자 수를 동일하게 맞추지 않았다. 예를 들어 1행은 16자, 2행은 17자로 이루어져 있다.

19 이 시의 ‘꽃’은 눈꽃으로, ‘눈’이 헌신과 노력을 통해 피워내고자 한 사랑을 함축하고 있다. ‘눈’은 눈꽃(첫사랑)을 피우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② ‘눈’은 눈꽃(첫사랑)을 피우기 위해 노력하는 주체이다.

③ ‘춤’은 ‘눈’이 어지럽게 흔들리는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④ ‘도전’은 ‘눈’이 눈꽃을 피우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행위를 지칭한다.

⑤ ‘바람’은 눈꽃(첫사랑)을 위태롭게 만드는 어려움과 시련을 의미한다.

20 이 시의 화자는 한겨울 나뭇가지에 눈이 쌓이는 모습과 봄이 되어 꽃이 피어나는 과정 속에서 사랑의 의미를 발견하고 있다. 각 연의 내용을 고려할 때 1~3연은 겨울을, 4연은 봄을 배경으로 영상을 촬영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리고 4연에서는 ‘봄’이 되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 즉 꽃을 터뜨리는 나뭇가지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따라서 4연은 꽃을 아직 피우지 못한 쓸쓸한 나뭇가지 대신에 나뭇가지에 아름다운 봄꽃이 피어난 영상을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

21 이 시는 자연 현상에 빗대어 첫사랑을 형상화하고 있는데 ‘그 한 번 텐 자리’는 봄이 되어 눈꽃이 녹은 자리로, 첫사랑과의 이별이 주는 아픔을 의미한다. 따라서 화자가 ‘그 한 번 텐 자리’를 보면서 첫사랑의 결실을 이뤄 낸 기쁨을 표현하고자 하였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22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는 눈꽃이 진 후 그 자리에 피어난 봄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는 첫사랑(눈꽃)의 아픔과 슬픔에서 얻은 정신적 성숙을 통해 성숙한 사랑(봄꽃)을 이루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㉔는 첫사랑의 아픔을 겪은 후에 이룬 성숙한 사랑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소단원 심화 문제

본문 88~89쪽

01 ㉔ 02 ㉔ 03 '눈꽃'과 '첫사랑' 모두 인내와 헌신이 있어야 이루어질 수 있다는(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 실패로 인한 아픔을 남긴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처럼 눈꽃이 피는 과정을 매개로 사랑의 의미를 발견하고 있기 때문에 제목을 '첫사랑'으로 지은 것이다. **04 ㉔ 05 ㉔ 06 ㉔ 07 ㉔ 08** 역설법.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를 터뜨린다

01 서정 갈래에서 자연은 전통적으로 주요한 소재가 되어 왔다. 자연에서 이상적 삶의 태도를 발견하고 교훈을 얻는 경향은 고전 시가에서 두드러졌으며, 현대 시에서도 그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시는 자연에서 이상적 삶의 모습이 아닌 첫사랑의 의미를 발견하고 있기 때문에, ㉔는 적절한 설명이 아니다.

오답 풀이 ① 이 시에서는 은유법, 의인법, 직유법 등 다양한 비유법이 사용되었다.
② '~겠지'로 끝나는 문장 형태의 반복, '싸그락 싸그락', '난분분 난분분' 등과 같은 음성 상징어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③ 이 시에서는 청각적·시각적 심상을 통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자연의 모습을 한 폭의 그림처럼 보여 준다.
⑤ 이 시에는 함축적 의미를 지닌 많은 시어와 시구가 나타난다. 그 예로, '햇숨 같은 마음'은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순수한 마음을, '눈꽃'은 헌신이 있어야 이를 수 있는 첫사랑을, 봄에 핀 꽃은 첫사랑의 아픔을 겪은 후에 도달한 정신적 성숙이라는 함축적 의미를 지닌다.

02 이 시는 자연 현상에서 사랑의 의미를 발견하고 있으며, 화자가 극복하고자 하는 현실에 대한 언급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겨울에서 봄으로 흘러가는 계절의 변화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③ 영탄적 어조를 통해 사랑을 이루기 위해 도전하고 헌신하는 '눈'과, '눈'의 노력이 이룩한 결과(눈꽃)에 대한 경탄과 예찬을 표현하고 있다.
④ 음성 상징어인 의성어 '싸그락 싸그락', 의태어 '난분분 난분분'을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⑤ 이 시에서는 시각적 이미지와 청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눈이 내리고, 눈이 녹은 자리에 꽃이 피어나는 자연 현상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03 서술형 이 시는 자연물인 '눈'과 '꽃'에 빗대어 인내와 헌신으로 이뤄 낸 아름다운 사랑의 결실을 노래하고 있다. '눈꽃'과 '첫사랑'은 모두 인내와 헌신의 과정을 겪어야 이루어질 수 있다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또는 실패로 인한 아픔을 남긴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따라서 이 시는 눈꽃이 피는 현상을 매개로 사

랑의 의미를 발견하고 있기 때문에 제목을 '첫사랑'으로 지은 것이다.

평가 기준	확인 ☒
시의 제목을 '첫사랑'으로 지은 이유를 썼다.	☐
'눈꽃'과 '첫사랑'의 공통점을 썼다.	☐
완성된 문장으로 썼다.	☐

04 ㉔ '마침내 피워 낸 저 황홀'은 '눈'이 역경과 고난을 딛고 피워 낸 첫사랑, 즉 눈꽃과 그 기쁨을 의미하며, 이를 '황홀'로 은유하여 눈이 도전과 헌신 끝에 피워 낸 눈꽃에 대한 예찬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눈이 녹은 후 아름다운 자연의 풍경을 예찬하는 것은 아니다.

05 ㉔ ㉔의 '햇숨 같은'에서는 '같은'을 사용해 원관념 '눈'의 '마음'을 보조 관념 '햇숨'에 직접 빗대어 표현하고 있으므로 직유법이 사용되었다. ㉔의 '백로처럼'에서도 직유법이 사용되었다.

오답 풀이 ①, ② '이것은 ~ 아우성', '이것은 ~ 손수건'이라고 한 데서 은유법이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시에서도 눈꽃이 핀 모습을 '황홀'로 나타내거나 봄에 핀 꽃을 '상처'라고 표현하는 은유법이 사용되었다. 또한 '소리 없는 아우성'에서 역설법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시의 '아름다운 상처'에서 역설법이 사용되었다.

④ ㉔에는 영탄법이 사용되었다.

⑤ '슬프고도 애달픈 마음'에 은유법이 사용되었다. 또한 ㉔를 일반적인 서술의 순서로 표현하면 '이렇게 슬프고도 애달픈 마음을 맨 처음 공중에 달 줄을 안 그는 누구던가'이므로, ㉔에는 말의 차례를 바꾸어 변화를 주는 도치법이 사용되었다.

【참고 자료】유치환, 「깃발」

갈래	현대 시, 자유시, 서정시
성격	역설적, 의지적, 상징적
제재	깃발
주제	이상향에 대한 향수와 비애
특징	• '깃발'의 상징적 이미지를 역설을 통해 제시함 • 동경과 좌절이라는 이원적 대립 구조를 지니고 있음 • 관념을 압축하고 정서를 상징화하여 언어의 경제성을 발휘함

06 (가)에서도 (나)와 마찬가지로 직유법, 은유법, 의인법 등의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인내와 헌신으로 이뤄 낸 아름다운 사랑의 결실'이라는 주제를 간접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와 (나)는 모두 이별의 부정적 측면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별을 통해 성숙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표현하고 있다.

② (가)는 겨울과 봄에, (나)는 봄에 일어나는 자연 현상에 주목하고 있다. 따라서 계절적 배경이 주제를 형상화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③ (가)는 내리는 눈, (나)는 떨어지는 꽃잎이라는 하강적 이미지를 지닌 대상으로부터 시의 발상을 취하고 있다.

④ (가)는 인내와 헌신을 통해 얻어진 첫사랑의 의미를, (나)는 이별을 통한 내적 성숙을 주제로 삼고 있다.

【참고 자료】 이형기, 「낙화」

갈래	현대 시, 자유시, 서정시
성격	비유적, 성찰적
제재	낙화
주제	이별을 통한 내적 성숙
특징	- 꽃이 진 후에 열매가 맺히는 자연 현상으로부터 이별의 아픔이 내적 성숙으로 승화될 수 있다는 인생의 의미를 발견함 - 이별에 대한 긍정적인 수용과 극복의 과정을 다루고 있음

07 ‘난분분 난분분’의 ‘난분분’은 눈이나 꽃잎 따위가 흩날리어 어지러운 모습을 표현하는 의태어이다. 따라서 이 시구는 눈이 내리는 모습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눈이 내리는 모습을 청각적으로 형상화한 부분은 2연 1행 ‘싸그락 싸그락 두드려 보았겠지’이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는 겨울에 눈꽃이 피는 과정에서 첫사랑의 의미를, 눈꽃이 진 자리에 봄꽃이 피는 것에서 성숙된 사랑의 의미를 발견하고 있다. 즉 ‘눈’과 ‘꽃’이라는 구체적인 자연물을 통해 ‘첫사랑’이라는 추상적인 관념을 그려 내고 있다.

③ ‘미끄러지고’, ‘미끄러지길’이라는 유사한 시어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으며, 눈꽃을 피우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눈의 도전과 헌신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④ 눈의 마음을 ‘햇숨’에 비유하는 직유법을 사용하여 사랑하는 대상을 향한 눈의 순수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는 봄에 핀 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시구로, 눈꽃이 녹은 자리에서 봄꽃이 꽃망울을 터뜨리는 모습을 통해 첫사랑의 아픔과 상처를 딛고 새로이 시작하는 성숙한 사랑이라는 의미를 형상화하고 있다.

08 서술형 ㉠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사용된 표현 방법은 역설법이다. 부정적 의미의 단어인 ‘결별’이 긍정적 의미를 가진 ‘축복’을 이룩하였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에서 역설법이 사용된 부분은 부정적 의미를 가진 단어인 ‘상처’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이라는 긍정적인 어휘로 표현한 4연 2행이다.

평가 기준	확인 ☑
㉠에 사용된 표현 방법을 썼다.	☐
㉠과 같은 표현 방법을 사용한 (가)의 시행을 찾아 썼다.	☐

【참고 자료】 역설법

모순을 포함한 표현으로 그 속에 화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진리나 진실을 담는 표현 방법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를 반대로 표현하는 반어법과 구분된다.

예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 모란이 피었을 때의 ‘찬란함’과 모란이 지고 닳았을 때의 ‘슬픔’이 모순되지만, 이를 통해 모란이 지는 슬픔을 알면서도 모란이 피는 기쁨이 있기에 모란에 대한 기다림을 지속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음

(2) 아홉 켄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교과서 꼼꼼 이해하기

① 93쪽	01 ③	02 ⑤	03 ④
② 95쪽	04 ①	05 ④	06 ①
③ 97쪽	07 ②	08 ①	09 ②
④ 99쪽	10 ④	11 ⑤	12 ④
⑤ 101쪽	13 ⑤	14 “대문은 저쪽입니다.”	15 ①
⑥ 103쪽	16 ④	17 ④	18 아홉 켄레의 구두 19 ③

01 이 소설의 주인공은 ‘권 씨’로, 서술자인 ‘나’가 그의 이야기를 관찰하여 전달하는 방식으로 내용이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나’라는 1인칭 관찰자의 시점으로 글을 서술하고 있다.

02 ‘권 씨’는 임신한 아내와 태아가 수술을 하지 않으면 위급한 상황에서, ‘나’에게 수술비를 빌리기 위해 찾아온 것이다. 이때 ‘권 씨’는 돈을 빌릴 수 있는지만 물었을 뿐, 전세금과 관련된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

03 ‘나’를 찾아온 ‘권 씨’가 먼저 이는 언덕길을 올라왔음에도 그의 구두는 놀랄 만큼 반짝거리는데, ‘나’는 ‘권 씨’의 구두가 깨끗한 이유를 ‘나’를 기다리는 동안 틀림없이 바짓가랑이 뒤쪽에다 양쪽 발을 번갈아 가며 문지르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나’를 만나러 오기 전에 ‘권 씨’가 구두방에 들러 구두를 미리 닦았는지의 여부는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04 이 글에서 ‘권 씨’는 ‘나’에게 수술비를 빌려 달라고 부탁하고 있다. 하지만 ‘나’는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할 것을 염려하여 ‘권 씨’의 부탁을 거절하고 있다. 여기에서 두 사람의 외적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오답 풀이 ② ‘권 씨’에게 수술비를 빌려주는 것에 대해 내적 갈등을 겪고 있는 인물은 ‘나’의 아내가 아니라 ‘나’이다.

③ 이 글에서 ‘권 씨’의 아내에게 수술을 해 주는 일로 고민하는 ‘의사’의 내적 갈등은 나타나지 않는다.

④ 이 글에서 산업화된 사회와 그 과정에서 빈민층으로 전락한 ‘나’의 외적 갈등은 나타나지 않는다. 작품 전체를 살펴보면, 산업화된 사회와 그 과정에서 빈민층으로 전락한 ‘권 씨’가 외적 갈등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이 글에서 ‘권 씨’의 아내가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의사’와 그에 반대하는 ‘권 씨’의 외적 갈등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히려 ‘권 씨’는 아내가 수술을 받기를 원하여, ‘나’에게 수술비를 빌려 달라고 부탁하고 있다.

05 ‘나’는 ‘권 씨’의 처지에 연민을 느끼지만 자신에게 피해가 올 것을 염려해 그의 부탁을 거절하고 있으므로 이성적이고 계산적이며 이해타산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책임이 따르는 동정은 피하는 게 상책’이며, ‘기왕 피할 바엔 저쪽에서 감히 두 말을 못 하도록 야멸차게 굴 필요가 있었다.’라고 하였으므로 냉정

한 면모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유부단하다는 것은 '나'의 성격과 거리가 멀다.

06 '권 씨'는 '나'에게 돈을 빌리려 했으나 거절당한 후 자신이 대학을 나온 고학력자이자 지식인임을 드러냄으로써 상처 입은 자존심을 회복하고자 하고 있다.

07 '나'는 보증금 마련을 못하는 '권 씨'를 비판하는 '의사'의 말에 "의사가 애를 끼내는 방법도 여러 질이듯이 아버지 노릇 하는 것도 아마 여러 질일 것"이라고 응대한다. 이는 돈을 우선시하며 수술을 미룬 '의사'의 비인간적인 태도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므로 '나'가 '의사'의 말에 공감한 것이 아니다.

오답 풀이 ① '나'는 언덕을 내려가는 '권 씨'의 뒷모습을 보며 '이건 완전히 나체구나 하는 느낌'을 받는다. 이처럼 '권 씨'의 절박함을 뒤늦게 깨달은 후 돈을 마련하여 수술비를 낸다.

③ '의사'는 보증금을 마련해 오랬더니 오전 중에 나가서 얼굴 한 번 안 비치는 '권 씨'를 비난하는 어조로 말하고 있다.

④ '나'는 돈을 마련해서 '권 씨' 아내의 수술비를 냈고, '권기용 씨의 차남'을 대면할 수 있었다.'라고 하였다.

⑤ '우리 집에 강도가 든 것은 공교롭게도 그날 밤이었다.'를 통해 '나'의 도움으로 '권 씨' 아내가 수술을 받은 날 강도가 들었음을 알 수 있다.

08 '의사'는 '권 씨'의 아내가 바로 수술을 받아야만 하는 위태로운 상황인데도 곧바로 수술을 하지 않고 돈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며 수술을 미루고 있다. 이는 속물적이고 비인간적인 태도라고 볼 수 있다.

09 '나'는 집주인이고 '권 씨'는 세입자로 둘은 소시민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지만 처지가 같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나'가 뒤늦게 '권 씨'를 도운 것은 그가 절박한 생존의 문제에 처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오답 풀이 ① '나'는 '권 씨'가 언덕을 내려가는 뒷모습을 보다가 '뛰어서 그를 부르고 싶은 충동'을 느끼고 '권 씨'를 돕기 위해 돈을 마련한다. 이는 '나'가 '권 씨'에게 연민의 감정을 느낀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돈을 마련해서 병원에 가져간 '나'는 돈을 우선시하며 수술을 미룬 '의사'의 태도를 우회적으로 비판한다.

④ '나는 내 말이 제발 의사의 귀에 농담으로 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으나'에서 자신의 말이 '의사'에게 비판적으로 들리기를 바라는 '나'의 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의사'는 한 차례의 너털웃음으로 그걸 간단히 놓쳐 버렸다고 하였다.

⑤ '나'는 '권 씨'를 몰래 도와준 것은 물론, '권 씨' 아내가 낳은 태아의 울음소리를 듣고 자신의 일처럼 감격하고 있다. 이를 통해 '나'의 따뜻한 성품을 엿볼 수 있다.

10 강도는 자신을 두려워하지 않고 떨어뜨린 식칼을 되돌려주는 '나'의 모습에 자존심이 상한 표정이 되었을 뿐 물리적 위해를 가하고 있지는 않다.

11 '나'의 집에 침입한 강도는 '권 씨'로, 그는 <보기>에 제시된 것처럼 강도답지 못한 어설픈 행동을 보인다. 이는 '권 씨'가 강

도 행각을 벌이기에는 선량하고 순박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권 씨'가 자존심이 강한 인물인 것은 맞지만 <보기>에 제시된 강도의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는다.

12 ㉠과 ㉡에서는 서술자가 강도에 대해 '무척 모자라다'거나, '고의로 사람을 찌를 만한 위인이 못 된다'라고 직접 판단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한편 ㉢과 ㉣에서는 식칼이 텅텅 떨리는 모습과 동종이의 어깨를 토닥거리는 강도의 모습을 서술하여 강도의 순박하고 소심한 성격을 간접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13 '나'의 집에 강도로 침입한 '권 씨'가 '나'의 말을 듣고 이가 딱딱 마주칠 정도로 분개한 이유는 '나'의 집에 강도로 침입했는데도 돈을 구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나'에게 정체가 들켰음을 알고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기 때문이다.

14 '권 씨'는 자신이 강도로 침입하였다는 '자기 본분을 망각하고 엉겁결에 문간방으로 들어가려' 한다. 이에 '나'는 "대문은 저쪽입니다."라고 하며 '권 씨'의 행동을 바로잡아 준다. 이는 '권 씨'로 하여금 자신의 정체가 들켰다는 사실을 알게 함으로써 그의 마지막 자존심까지 무너뜨리게 된다.

15 '나'는 자신이 '권 씨' 아내의 수술비를 내 준 것을 우회적으로 말하지만, '권 씨'는 이 사실을 모른 채 "난 이제 아무도 안 믿어!"라고 말한다. 이는 '나'가 자신의 부탁을 거절한 것을 떠올리며 한 말로, 의지할 데 없는 현실로 인해 강도짓까지 하게 된 깊은 좌절감의 표현이다.

16 이 소설의 배경은 1970년대 산업화가 진행 중인 도시 변두리이다. 글쓴이는 '권 씨'의 힘겨운 삶을 통해 도시화·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계층의 힘겨운 삶을 그리고 있다.

17 '권 씨'는 아내의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나'의 집에 강도로 침입하지만 정체를 들키자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 상처를 입은 채 집을 떠난다. 그런 그가 행방불명된 채 소설이 끝난 것은, '권 씨'가 지키고자 했던 자존심이 회복되기 어려움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권 씨'는 자신이 직면한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집을 나가 귀가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② '권 씨'가 '나'의 의식을 변화시키려 한 것은 아니다.

③ '권 씨'가 자존심에 상처를 입고 귀가하지 않는 것은 의도치 않게 벌어진 일로, '나'는 '권 씨'가 일상으로 복귀하기를 바라고 있다.

⑤ '권 씨'가 고향으로 갔는지, 거기서 인간성을 되찾았는지를 판단할 만한 단서는 이 글에 나타나지 않는다.

18 '권 씨'는 궁핍한 형편임에도 구두를 매우 소중히 여겼던 인물이다. 그러나 아내의 수술비를 마련하지 못해 전전긍긍하다가 강도짓을 하고, 그마저 정체를 들키며 실패하면서 자신이 아끼던 아홉 켤레의 구두만 남긴 채 사라진다. 따라서 그가 남긴 아홉 켤레의 구두는 그의 상처 입은 자존심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19 ㉠은 '나(오 선생)'가 서술자로 등장하여 주인공인 '권 씨'를 관찰하고 있고, <보기>는 주인공인 '권 씨'가 서술자로 등장하여 자신의 심리와 태도를 전달하고 있다. 즉 ㉠에서 '나'는 '권 씨'의 행동을 관찰할 수 있을 뿐, '권 씨'의 심리를 직접 전달하기는 어렵다.

오답 풀이 ①, ② ㉠은 '나'가 주인공인 '권 씨'를 관찰하는 시점으로 1인칭 관찰자 시점이고, <보기>는 주인공인 '권 씨'가 자신의 심리와 태도를 전달하고 있으므로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

④, ⑤ <보기>에서 '권 씨'는 자신이 '오 선생'에게 직접 들은 말을 서술하고 있으며, 강도로서 '오 선생'을 마주했을 때 느꼈던 자신의 심리를 자세히 묘사하고 있다.

소단원 평가 문제



본문 104~109쪽

- 01 ⑤ 02 ⑤ 03 ③ 04 ⑤ 05 “오 선생, 이래 봐도 나 대학 나온 사람ियो.” 06 ② 07 ③ 08 ④ 09 ⑤
10 ⑤ 11 ④ 12 ① 13 ‘권 씨’를 끝까지 강도로 대우하여 ‘권 씨’가 전처럼 자신을 떳떳이 대하고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병원에 가서 아내와 새로 얻은 아이를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14 ①
15 ⑤ 16 ④ 17 ② 18 아내의 수술비를 빌리려는 ‘권 씨’와 그의 부탁을 거절하는 ‘나’의 외적 갈등이 드러나고, 갈등의 원인은 ‘권 씨’ 아내의 수술비이다. 19 ② 20 ③

01 이 글은 허구적으로 창조한 인물이나 사건이 특정 시점에서 서술되는 서사 갈래이다. 서사 갈래에서는 작가가 내세운 서술자가 사건의 전개 과정을 독자에게 전달한다. 이 글은 ‘나’라는 인물이 서술자가 되어 이야기를 전개하는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시점이 바뀌어 서술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① 서사 갈래는 갈등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된다. 이 글에서는 ‘나’와 ‘권 씨’의 갈등이 나타나 있다.

② 서사 갈래는 작가가 내세운 서술자가 사건의 전개 과정을 독자에게 전달한다. 이 글의 서술자는 주인공인 ‘권 씨’를 관찰하는 ‘나’이다.

③ 서사 갈래는 현실 세계에 일어날 법한 사건을 다루지만, 이는 작가가 꾸며 쓴 허구적 이야기이다.

④ 인물, 사건, 배경은 소설의 구성 요소이다. 이 글은 ‘나’와 ‘권 씨’가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내용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02 ‘나’가 ‘권 씨’의 부탁을 거절한 이유는, ‘권 씨’에게 돈을 빌려줄 경우 나중에 돌려받기 어렵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다)에서 ‘나’는 ‘권 씨’가 끼니조차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오답 풀이 ①, ② (가)에서 ‘권 씨’는 돈을 빌릴 수 없다고 직접적으로 물어본 뒤, 아내가 수술을 해야 하는 다급한 상황을 털어놓고 있다.

③ (가)에 따르면 ‘권 씨’의 아내는 빨리 손을 쓰지 않으면 산모나 태아나 모두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

④ (다)에서 ‘나’는 ‘빌려주는 어려움에만 골몰한 나머지 빌려줬다 나중에 돌려받는 어려움이 더 클 거라는 사실을 생각도 못 할 뻔했다.’라고 하며,

돈을 빌려줄 것을 고민하다가 빌려줬다 돌려받지 못할 때 생길 문제를 생각하고는 ‘권 씨’의 부탁을 거절하고 있다.

03 이 글에는 돈을 빌리기 위한 ‘권 씨’와 돈을 빌려주지 않으려는 ‘나’의 외적 갈등과 ‘권 씨’에게 돈을 빌려주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는 ‘나’의 내적 갈등이 나타나 있다. 돈을 갚을 방법을 고민하는 ‘권 씨’의 내적 갈등은 나타나 있지 않다.

04 (다)에서 ‘나’는 ‘권 씨’의 현실적 상황을 떠올려 본 후, ‘권 씨’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지 못할 때 생길 문제를 생각하여 ‘권 씨’의 부탁을 거절한다. 이를 통해 ‘나’의 이성적이고 냉정한 면모를 엿볼 수 있다.

05 ‘권 씨’는 위급한 상황에서 돈을 빌리기 위해 ‘나’를 찾아오지만 거절당한다. 이런 상황에서 ‘권 씨’는 “오 선생, 이래 봐도 나 대학 나온 사람ियो.”라고 말하는데, 이는 자신의 상한 자존심을 회복하고자 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다.

06 <보기>에서 돌팔매질을 하다 말고 삼륜차에서 쏟아진 참외를 먹는 군중들의 모습은 생존권을 빼앗기고 극단의 상황에 몰린 철거민들의 비참한 모습을 나타낸다. ‘나’는 자존심을 버리고 자신에게 수술비를 빌리러 온 ‘권 씨’의 모습에서 참외를 먹는 군중들의 모습을 떠올리고, 그가 절박한 생존의 문제에 놓여 있음을 깨닫게 된다.

07 ㉡는 돈을 빌리기 위한 ‘권 씨’의 절박한 심정을 나타내는 말이다. ‘권 씨’는 몰락했지만 선량한 소시민으로, 이 글에 ‘권 씨’가 돈을 갚기 위해 나쁜 일에 손을 댈 것이라는 암시는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어떤 상황에서도 구두를 반짝이게 유지하는 ‘권 씨’의 모습을 통해 자존심을 지키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② ‘권 씨’가 ‘나’를 찾아온 이유가 ‘나’에게 아내의 수술비로 쓸 돈을 빌리기 위한 것이임이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다.

④ ‘나’는 ‘권 씨’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받지 못하게 될 것을 걱정하여 ‘권 씨’의 부탁을 거절하고 있으며, ‘권 씨’에게 자신이 보증을 서 줄 테니 원장에게 매달려 보라고 제안하고 있다.

⑤ ‘권 씨’의 절박한 처지를 뒤늦게 깨달은 ‘나’는 언덕을 내려가는 ‘권 씨’의 뒷모습을 보다가 뛰어가서 그를 부르고 싶은 충동을 느낀 것이므로, ‘나’가 ‘권 씨’에게 연민의 감정을 느꼈음을 알 수 있다.

08 ‘나’가 대문의 위치를 알려 준 것은 ‘권 씨’를 끝까지 강도로 대우함으로써 ‘권 씨’의 자존심을 지켜 주고 ‘권 씨’가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오답 풀이 ① (가)의 ‘내 옆을 지나쳐 갈 때 그의 몸에서는 역겨울 만큼 술냄새가 확 풍겼다.’를 통해 강도가 술의 힘을 빌려 강도 행각을 벌였음을 알 수 있다.

② ‘권 씨’는 강도 행세를 하며 ‘나’의 집에 침입하고, 이를 눈치챈 ‘나’는 여유 있는 태도를 보인다.

③ (나)의 ‘복면 위로 드러난 두 눈을 보고 나는 그가 다른 아닌 권 씨임을 대뜸 알아차릴 수 있었다.’를 통해 ‘나’가 복면강도를 보자마자 바로 그의 정

체를 알아챘음을 알 수 있다.

⑤ (나)의 '어떤 근거인지는 몰라도 구두의 손질의 정도에 따라 그의 운명을 예측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었다.'와 (다)의 '구태여 꼭 단서가 될 만한 흔적을 찾자면 그것은 구두일 것이었다.'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다.

09 '나'는 일찌감치 강도의 정체가 '권 씨'라는 것을 눈치채지만 그를 끝까지 강도로 대우한다. 이는 '권 씨'를 배려하기 위한 것으로, (나)에서 '나'는 자신의 방법이 결과적으로는 졸렬했다고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나'의 태도로 미루어 보아 '나'가 '권 씨'를 농락했다고 볼 수는 없으며, 작가가 이를 통해 당시의 세태를 비판하고 있다는 근거도 찾을 수 없다.

10 이 글은 '권 씨'의 행방과 관련한 이야기를 명확하게 마무리하지 않고 있다. 이는 열린 결말 처리 방식으로, 독자의 궁금증을 유발하고 독자에게 깊은 여운을 느끼게 한다.

11 [A]에서 '나'는 자신이 '권 씨' 아내의 수술비를 내 준 것을 우회적으로 말하고 있다. 그러나 '권 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나'가 자신의 부탁을 거절한 것을 떠올리며, 의지할 데 없는 현실에 대해 깊은 좌절감을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A]의 대화를 통해 '나'와 '권 씨'가 서로의 갈등을 해결하거나 관계를 회복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12 아내의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집주인인 '나'의 방에 강도로 침입했던 '권 씨'는 자기의 사정을 던지시 설명하는 '나'의 말을 듣고 '나'가 자신의 정체를 눈치채고 있음을 깨닫는다. 이 때문에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채 방을 나간 것이다.

오답 풀이 ② '나'는 '권 씨'를 계속해서 강도로 대우하지만, '권 씨'의 정체를 알기에 여유 있게 대하고 있다. 따라서 '권 씨'가 자신을 강도로 대우해 주지 않는 점에 분노한 것은 아니다.

③ '권 씨'는 아내의 수술비를 빌리러 '나'의 학교를 찾아왔다가 거절당한 뒤, 다시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나'의 방에 강도로 침입한 것이다. 따라서 '권 씨'는 '나'가 이미 수술비를 지불하여 자신의 아내가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권 씨'는 자기의 피치 못할 사정을 던지시 설명하는 '나'의 말을 듣고 자신의 정체가 탄로 난 것을 알고 분개한 것이며, 또한 '나'가 '권 씨'의 집안일에 대해 떠벌리고 다닌 것은 아니다.

⑤ '권 씨'는 강도 행각을 벌인 자신의 정체를 '나'가 눈치챘음을 깨닫고 분개한 것이지, 강도 행각을 벌인 일이 결국 아픈 아내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임을 깨달아서 분개한 것이 아니다.

13 서술형 '나'는 일찌감치 '권 씨'의 정체를 파악하지만, 복면의 사내를 끝까지 강도로 대우해야 그가 전처럼 자신을 떳떳하게 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였다.

평가 기준	확인 ☑
(나)를 바탕으로 하여 '나'가 '애당초 의도했던 바'의 의미를 썼다.	☐
완성된 한 문장으로 썼다.	☐

14 '권 씨'는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나'의 집에 강도로 침입했다가 정체를 들켜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려다 '나'의 지적을 받게 된다. 이에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상태에서 ㉠과 같이 집을 나갔으므로 이를 표현하기 적당한 한자성어는 '자포자기(自暴自棄)'이다. '자포자기'는 절망에 빠져 자신을 스스로 포기하고 돌아보지 아니함을 의미한다.

오답 풀이 ② 와신상담(臥薪嘗膽) - 원수를 갚거나 마음먹은 일을 이루기 위하여 온갖 어려움과 괴로움을 참고 견뎌 버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③ 역지사지(易地思之) - 처지를 바꾸어서 생각하여 봄을 이르는 말이다.

④ 살신성인(殺身成仁) - 자기의 몸을 희생하여 인(仁)을 이룸을 이르는 말이다.

⑤ 권토중래(捲土重來) - 어떤 일에 실패한 뒤에 힘을 가다듬어 다시 그 일에 착수함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이다.

15 '권 씨'는 자신의 정체가 탄로 난 상황에서 상황과 어울리지 않게 자신이 대하 나온 사람임을 밝히고 있다. 여기에는 마지막까지 자존심을 지키고 싶은 '권 씨'의 심리가 반영되어 있으며, '나'에 대한 원망이 나타난다고 볼 수 없다.

16 이 글은 현대 소설로, 서사 갈래에 해당한다. 서사 갈래는 허구적으로 창조한 인물이나 사건을 특정한 시점에서 서술하는 문학 양식이다. 이 글은 '나'의 내면, '나'와 '권 씨', '권 씨'와 '의사' 등의 다양한 갈등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된다. 또한 이 글은 '나(오 선생)'가 서술자로 등장하여 주인공인 '권 씨'를 관찰하며 사건을 서술한다. ①은 극 갈래, ②와 ⑤는 서정 갈래, ③은 교술 갈래에 대한 설명이다.

17 (나)에 '나'가 자신에게 올 피해를 걱정하며 아내의 수술비를 빌려 달라는 '권 씨'의 부탁을 거절하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다. 하지만 '나'가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권 씨'를 꾸짖고 있지는 않다. '나'는 자신의 안위를 우선적으로 생각하여 처음에는 '권 씨'의 부탁을 거절하지만, '권 씨'의 절박함을 뒤늦게 깨닫고 '권 씨' 아내의 수술비를 대신 내 주는 것으로 보아 소외된 이웃에게 연민을 느끼는 인물이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 '권 씨'가 '나'에게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산모나 태아가 위험한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다.

③ (나)를 통해 '권 씨'가 제대로 된 수입 없이 막벌이나 출판사 싸구려 번역 일을 하면서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라)에서 '의사'는 '권 씨' 아내의 상태가 위중한데도 수술 보증금을 요구하며 수술을 미루고, '권 씨'의 경제적인 무능함을 탓하고 있다. 따라서 '의사'는 생명보다 물질을 중요시하는 비정한 인물이다.

⑤ (나)에서 '나'는 '권 씨'의 딱한 사정을 듣고 수술비를 빌려줄지 말지에 대해 고민하지만, '권 씨'에게 돈을 빌려줬다 돌려받지 못할까 봐 결국 '권 씨'의 부탁을 거절하고 있다.

18 서술형 (가)~(다)에는 아내의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돈을 빌리려는 '권 씨'와 그의 부탁을 거절하는 '나'의 외적 갈등이 드러난다. 아내의 수술비를 빌려 달라는 '권 씨'의 부탁을 '나'가 거절하면서 갈등을 겪고 있으므로, '권 씨'와 '나'는 '권 씨' 아내의 수술비 때문에 갈등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가)~(다)에 나타나는 외적 갈등 양상을 구체적으로 썼다.	☐
(가)~(다)를 바탕으로 '권 씨'와 '나'가 갈등하는 원인을 썼다.	☐
제시된 형식에 맞게 썼다.	☐

19 '권 씨'는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이지만 지식인으로 서의 자존심을 지닌 인물이다. '권 씨'가 어떤 상황에서도 구두를 반짝반짝 윤이 나게 유지하는 것은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고자 하는 행위이다. 그러므로 '구두'는 '권 씨'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대상이며, 지식인으로서의 '권 씨'의 자존심을 상징하는 소재이다.

20 (나)에는 극중 인물인 '나(오 선생)'가 서술자로 등장하여 이야기의 중심이 되는 인물인 주인공 '권 씨'를 관찰하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전달하는 1인칭 관찰자 시점이 사용되었고, <보기>는 이를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고쳐 쓴 것이다. 즉 (나)는 '나'가 주인공인 '권 씨'의 말과 행동을 관찰한 내용을 서술하고 있으므로 '권 씨'의 생각이나 심리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반면에 <보기>에서는 주인공인 '권 씨'가 서술자가 되어 자신의 심리와 태도를 독자에게 구체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소단원 심화 문제

본문 110~111쪽

01 ② 02 ③ 03 ② 04 인물의 행동을 보고 성격을 간접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05 ④ 06 ④

01 이 글은 서사 갈래에 해당하는 소설로, 작가가 내세운 서술자가 사건의 전개 과정을 독자에게 전달하는 허구적 이야기이다. 인물의 대사와 지시문을 통해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은 극 갈래에 해당하는 희곡이나 시나리오이다.

오답 풀이 ① 이 글은 서술자인 '나(오 선생)'가 주인공인 '권 씨'를 관찰하는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전개되고 있다.

③ 이 글은 소설이므로 작가의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 허구적인 이야기이다.
④ 이 글은 1970년대 경기도 성남 지역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도시 개발 과정에서 밀려난 '권 씨'(소외된 계층)의 삶을 다루고 있다.

⑤ 소설은 인물, 사건, 배경 등의 구성 요소와 서술 방식, 문체 등의 표현 방법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며 작품의 주제를 형상화한다.

02 이 글의 '의사'는 보증을 맡아주지 못하는 '권 씨'를 한심하게 여기며 혀를 차고 있다. 따라서 '권 씨'의 처지를 안타깝게 생각한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나)에서 '나'는 "의사가 애를 꺼내는 방법도 여러 질이듯이 아버지 노릇 하는 것도 아마 여러 질일 겁니다."라고 하며, 생명보다 물질을 중시하는 '의사'의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② (다)에서 '권 씨'는 강도 행각을 할 때 구두를 벗고 들어오다가 하면, 자신이 발을 밟아서 아이가 잠에서 깨자 아이를 토닥거리며 다시 재우고 있다. 이를 통해 '권 씨'의 소심하고 어수룩한 면모를 엿볼 수 있다.

④ (나)에서 '원 산부인과'에서는 만단의 수술 준비를 갖추고 보증금이 도착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의사'는 '권 씨' 아내가 위급한 상황에서도 보증금이 올 때까지 수술을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⑤ (가)에서 돈을 빌려 달라는 '권 씨'의 부탁에 '나'가 거절의 말을 한 후 '권 씨'의 모습은 '다시 수줍음이 돌아왔다.'라고 하였다. 그 후 '권 씨'는 실례 많았다고 하며 돈을 빌릴 것을 단념하고, '나'의 집에 강도로 침입한다.

03 이 글의 서술자인 ㉠은 '권 씨'를 관찰하는 '나(오 선생)'이고, <보기>의 서술자인 ㉡는 유치원에 가게 된 '나'이다. 따라서 ㉠과 ㉡는 모두 작품 속 인물 중 한 명으로 등장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이 글의 '나'는 물질을 중시하는 '의사'를 비판하는 시각을 드러내고 있으나, <보기>의 '나'는 그런 사회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③ 이 글과 <보기>의 '나'는 모두 자신의 관점으로 작품 속 주인공을 관찰하며 서술하고 있다.

④ 작품 속 설명이 객관적 사실인지 의심하며 읽어야 하는 것은 오히려 유치원생인 <보기>의 서술자(㉡)이다.

⑤ <보기>의 서술자(㉡)가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자신의 심리와 태도를 감각적으로 서술하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참고 자료】 주요섭, 「사랑 손님과 어머니」

어린이이인 '옥희'를 화자로 내세운 1인칭 관찰자 시점의 소설로, 남편과 사별한 '어머니'와 사랑(사랑방)에 머물게 된 '아저씨' 사이의 사랑과 이별을 그리고 있는 작품이다. 여자의 재혼을 탐탁지 않게 여기던 당시의 상황 때문에 헤어지게 된 남녀의 사랑 이야기를 어린 화자의 천진한 눈을 통해 서정적으로 그려 내고 있다.

04 서술형 소설에서 인물의 성격 제시 방법으로는 간접 제시와 직접 제시의 방법이 있다. <보기>는 '권 씨'가 강도로 침입했을 때의 행동을 보고 '권 씨'가 순박하고 착한 성품이라는 성격을 알 수 있었다고 하였으므로, 인물의 성격을 간접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인물의 행동을 보고 성격을 파악하고 있음을 썼다.	☐
인물의 성격을 간접적으로 파악하고 있음을 썼다.	☐

05 ㉠은 화자에게 가족에 대한 책임감을 일깨워 주는 대상으로, 그가 부양해야 할 가족들을 상징한다. 화자는 아홉 켄레의 신발, 즉 아홉 마리의 강아지 같은 가족을 위해 '굴욕과 굶주림과 추운 길'로 상징되는 삶의 고달픔을 참으며 살아가고 있다.

06 '나'가 '권 씨' 아내의 수술비를 마련하여 도와준 그날 밤 '나'의 집에 강도가 든 상황을 고려할 때, (다)의 '우리 집에 강도가 든 것은 공교롭게도 그날 밤이었다.'는 강도의 정체가 '권 씨'임을 암시한다. 뒤에 나타난 강도의 태도로 보아, 이는 '나'에게 여러모로 운수가 나쁜 날이었다는 의미와 거리가 멀다.

오답 풀이 ① '권 씨'는 수술 보증금을 내기 전에는 수술을 해 줄 수 없다고 하는 원장에게 거기 희망을 걸고 있지 않다. 따라서 '권 씨'는 원장이 이 해타산적이며 속물적인 사람임을 파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② ‘권 씨’가 바짓가랑이 뒤쪽에다 발을 문지르며 구두를 닦는 동작은 돈을 빌리려는 부탁을 거절당하자 상처 입은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 ③ 수술비를 빌려 달라는 ‘권 씨’의 부탁을 거절했던 ‘나’는 ‘권 씨’의 절박함을 뒤늦게 깨닫고 어렵게 돈을 마련하여 ‘권 씨’ 아내의 수술비를 대신 내주며 ‘권 씨’를 돕고 있다.
- ⑤ 암전히 구두까지 벗고 양말 바람으로 들어오고, 잠이 깬 아이의 어깨를 토닥여 재우다가 식칼을 이부자리 위에 떨어뜨리는 강도의 미숙하고 어설픈 태도를 ‘강도의 애교스러운 행각’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3) 결혼

교과서 꼼꼼 이해하기

① 115쪽	01 남자 02 ③ 03 ①
② 117쪽	04 ④ 05 ④
③ 119쪽	06 ④ 07 관객 외에 다른 인물은 듣지 못하는 대사 로(방백으로) ‘여자’보다 관객들이 먼저 ‘남자’의 심리를 알게 한다. 08 ②
④ 121쪽	09 ① 10 ⑤
⑤ 123쪽	11 ② 12 ① 13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은 빌 린 것이며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진다.
⑥ 125쪽	14 ④ 15 관객 16 ⑤

01 이 글에서 ‘남자’는 가진 것이 없는 빈털터리로, 이야기책 속의 사기꾼처럼 정해진 시간 동안에만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을 빌려 부자인 척하고 ‘여자’와 맞선을 본다.

02 이 글에서 ‘하인’은 벡타이 등 ‘남자’가 빌린 물건을 정해진 시간이 되면 회수해 가는 기계적인 역할을 하며, 주요 인물인 ‘남자’와 대비되는 보조적인 인물로 물건을 오랫동안 빌리려는 ‘남자’와 갈등을 겪고 있다.

03 ㉠에서 ‘여자’는 맞선을 볼 ‘남자’가 엄청난 부자인 것을 알고 황홀해하고 있고, ㉡에서도 남자가 부자면 꼭 붙들어야 한다는 ‘여자의 어머니’의 말에 오른손을 들어 맹세를 했다고 하였다. 이는 물질주의적 가치관을 중시하며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 주며, 작가는 이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04 ‘전개-⑤’에서 ‘여자’는 “덤, 혹시 그분도 그렇게 이 세상에 태어나셨던 건 아닐지……. 안 그래요?”라고 ‘남자’에게 말하고 있으나 이는 ‘여자’의 추측일 뿐 ‘여자의 아버지’가 부모님 없이 자랐음을 보여 주는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③ ‘덤’은 ‘여자의 아버지’가 ‘여자의 어머니’에게 사랑을 주고, 또 덤으로 ‘여자’를 주었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여자’의 여렸을 때 별명이다.

② “덤, 이 말 속엔 뭔가 그리운 게 있어요.”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여자’가 ‘덤’이라는 말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여자’는 “저는 아버지 미워 안 해요. 그분께겐 뭔가 덤이라는 옛 이름처럼 그리운 데가 있어요.”라고 말하며 ‘덤’이라는 말을 통해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05 등장인물인 ‘남자’가 관객에게 벡타이를 빌리고, 관객에게 시간을 재는 역할을 맡김으로써 관객은 극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등장인물은 관객과 소통하며 극의 주제를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06 ‘남자’는 ‘여자’의 ‘덤’ 이야기를 듣고 웬지 모르게 슬퍼진다고 말하며 ‘여자’를 사랑한다고 혼잣말을 하고 있다. ‘남자’가 웬지 모르게 슬퍼진다고 한 이유는 ‘여자’의 처지에 연민을 느끼며 ‘여자’에 대해 미안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다.

07 서술형 ‘전개-⑦’에 제시된 ‘남자’의 대사는 무대 위에 있는 다른 등장인물은 듣지 못하고 관객만 들을 수 있는 것으로 약속된 대사인 방백이다. ‘남자’는 이와 같은 방백을 통해 ‘여자’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됐음을 관객에게 보여 주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여자’보다 관객들이 먼저 ‘남자’의 마음을 알게 된다.

평가 기준	확인 ☑
방백의 특성을 썼다.	☐
‘여자’보다 관객들이 먼저 ‘남자’의 심리를 알게 되었다는 내용을 썼다.	☐

08 물질을 중시하여 부자 행세를 하고, ‘하인’이 정해진 시간이 되어 물건을 빼앗아 가면 저항하던 ‘남자’는 ‘하인’이 소지품들을 몽땅 털어 가도 자질구레한 여러 가지 것들이 떠나가고 있다고 하며 행복함을 느낀다. 또한 시간에 따라 소유한 것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예를 ‘여자’에게 들려주며 소유한 모든 것은 빌린 것이며, 시간이 지나면 모두 돌려줘야 한다는 소유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다.

09 사진은 자랑거리가 없나는 ‘남자’의 물음에 ‘여자’가 핸드백에서 꺼내 ‘남자’에게 보여 준 것으로 ‘여자’의 것이다. 이 때문에 ‘남자’는 자신이 빌리지 않은 사진을 넘보는 하인에게 “뭘 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오답 풀이 ② ‘남자’는 ‘하인’이 의자 위에 놓였던 ‘남자’의 모자를 집어 가져 모자가 의자에서 떠나간 것이 다행이며, “만약 의자가 모자에게서 떠나 갔더라면 얼마나 큰 손실이겠습니까?”라고 말하며 초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③, ④ ‘남자’와 ‘여자’는 사진을 가지고 놀이를 하고 있으며, ‘남자’가 ‘여자의 어머니’와 ‘여자의 할머니’의 사진을 ‘여자의 얼굴에 대어 주자 ‘여자’는 사진 속 인물의 나이에 맞게 ‘조금 씩 목소리’와 ‘뚝 씩 목소리’로 말하며 시간의 경과를 표현하고 있다.

⑤ ‘여자’는 자랑거리를 보여 달라는 ‘남자’에게 사진을 보여 주며 “저희 집 가문의 여인들은 대대로 미인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죠.”라고 하면서 자랑스러워하고 있다.

10 '남자'는 사진 놀이의 재미는 시간이 지나간다는 데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젊음이나 외면적인 아름다움도 시간이 흐르면 결국 사라진다는 점을 '여자'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 사진 놀이를 했음을 알 수 있다.

11 주인으로부터 온 경고문이 적힌 쪽지를 읽고도 '남자'가 저택에서 나가지 않자 '하인'은 비현실적으로 과장된 소품(ㄴ)인 '엄청나게 큰 구두 한 짝'을 가져와 신으며 그 구두발로 '남자'를 내쫓기 위해 차 널 듯한(ㄹ)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이러한 '하인'의 행동은 극의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ㄱ).

12 '남자'가 부자인 것에 황홀해하고, 맞선을 볼 남자가 부자거든 꼭 붙들겠다고 자신의 어머니와 맹세했던 '여자'는 '남자'가 자신이 빈털터리라는 실체를 고백했는데도 '남자'를 즉시 떠나지 않고 망설이고 있다. 이는 '여자'가 이미 '남자'에게 사랑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13 서술형 이 글은 등장인물의 대사를 통해 소유의 본질에 관한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남자'는 ㉠, ㉡와 같이 말하며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은 빌린 것이며,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진다는 주제를 전달하고 있다. 이는 '남자'가 소유의 의미를 깨달았음을 보여 준다.

평가 기준	확인 ☒
소유한 모든 것은 빌린 것이며, 시간이 지나면 변하고 사라진다는 '남자'의 생각을 썼다.	☐
완결된 한 문장으로 썼다.	☐

14 '여자'는 '남자'가 사기꾼임을 알면서도 결혼을 승낙하고 있다. '여자'는 '남자'의 진심이 담긴 말에 설득되었으며, 소유의 본질에 관한 '남자'의 말에 공감했기 때문에, 어머니와 한 맹세를 어기고 빈털터리인 '남자'의 청혼을 받아들인 것이다.

- 오답 풀이** ① '여자'가 자신의 어머니처럼 살고 싶어 하는지는 이 글을 통해 알 수 없다.
 ② '여자'는 '남자'가 빈털터리라는 것을 알고도 '남자'의 청혼을 받아들이고 있다.
 ③ '하인'의 구두발에 걸어진 '남자'의 처지에 연민이 생겼을 수는 있지만 이것이 청혼을 받아들인 이유는 아니다.
 ⑤ '하인'은 '남자'가 저택에서 나가기를 원하고 있으며 '여자'와의 결혼을 강요하고 있지 않다.

15 이 글에서는 등장인물이 관객에게 말을 건네고 소품을 빌리는 행위 등을 통해서 무대와 관객석의 경계를 없애는 실험적 기법으로 주제를 형상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보기>에서는 이러한 실험적 기법과, 실험적 기법의 효과로 극의 상황과 주제를 관객에게 쉽게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을 제시하고 있다. ㉠은 실험적 기법을 구현하는 대사로, '남자'가 벡타일을 빌렸던 남성 '관객'을 가리킨다.

16 '남자'는 '여자'가 자신의 소유가 아닌 세상에서 빌린 것이라고 말하며 빌리는 동안 아끼고 사랑하고, 시간이 되면 공손하게 되돌려 준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소유의 본질과 사랑에 대한 작품의 주제 의식을 드러낸다.

- 오답 풀이** ① '남자'는 '여자'를 소유하였다고 생각하지 않고, 세상에서 빌렸다고 말하고 있다.
 ② '남자'는 '여자'를 빌리는 동안 소중히 여기겠다고 했을 뿐, '여자'가 공짜로 얻은 덤이라서 소중히 여기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
 ③ '남자'는 '여자'를 세상에서 빌리는 동안 헌신적으로 사랑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④ 이 글에서 '여자'의 재산에 관한 언급은 없다. 다만 앞부분의 내용으로 보아 '여자'가 부유한 편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소단원 평가 문제

본문 126~131쪽

- 01** ① **02** ④ **03** ④ **04** ④ **05** ③ **06** '하인'은 '남자'가 빌린 물건들을 정해진 시간이 되면 회수해 가는 기계적 역할을 하며 물건을 오래 빌리려는 '남자'와 갈등을 겪는다. '하인'의 이러한 행동은 소유물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음을 보여 준다. **07** ⑤
08 ① **09** ② **10** '덤'은 물건을 사고팔 때 제 값어치 외에 조금 더 얹어 주거나 받는 물건으로, 작가는 세상의 모든 소유물은 덤으로 잠시 빌린 것이라는 주제를 전달하고 있다. **11** ② **12** ③ **13** ④
14 ③ **15** ① **16** ① **17** ② **18** '여자'는 결혼의 조건으로 물질적인 부유함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그러나 '여자'는 소유의 본질에 관한 '남자'의 말에 공감하고,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닫게 되면서 청혼을 수락하였다. **19** ④

01 이 글은 희곡으로, 희곡은 극 갈래에 속한다. 극 갈래는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전달하기 때문에 현장성이 강하며 영화로 상영되거나 무대에서 상연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장면 구현에 제약이 있다. 극 갈래의 종류에는 민속극, 인형극, 드라마 대본, 시나리오, 희곡 등이 있다. 또한 극 갈래는 등장인물의 대사와 행동으로 극을 이끌어 간다. 따라서 서술자의 서술만으로 극을 이끌어 간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참고 자료] 희곡의 구성 요소

해설	희곡의 첫머리에서 무대 장치, 등장인물, 배경 등을 설명하는 부분
대사	등장인물이 하는 말
지시문	무대 장치, 음향 효과, 조명 효과, 등장인물의 행동, 표정, 심리 등을 지시하는 글

02 지시문은 무대 장치, 음향 효과, 조명 효과, 등장인물의 행동, 표정이나 심리 등을 지시하는 글로, 이 글에서는 지시문을 통해 무대 밖의 사건을 전달하고 있지 않다.

03 이 글은 일반적인 현대극과 달리 무대와 객석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관객이 극 중에 참여한다. (라)에서 극 중 인물인 '남자'는 관객에게 말을 걸어 소품인 넥타이를 빌리고 있다.

04 (다)에서 '남자'는 '하인'이 넥타이를 빼앗아 가자 '여자'에게 "뭐, 놀랄 게 못 됩니다. 그저 시간이 지난 것뿐이니까요."라고 말하며 놀라움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태연한 척하고 있다. 이는 시간이 지나면 소유한 모든 것은 되돌려 주어야 한다는 '남자'의 깨달음을 보여 준다.

05 '여자'와 '남자'가 서로 외모에 이끌려 처음 보자마자 서로를 좋아하게 되었다는 내용은 드러나 있지 않다. 오히려 '여자'는 '남자'가 부자인 것에 황홀해하며 '남자'의 물질적인 면에 매력을 느끼고 있다.

오답 풀이 ①, ② (가)를 통해 '남자'는 자신이 낭독한 이야기책의 사기꾼처럼 빈털터리이지만 모든 것을 빌려 부자 행세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나)에서 '여자'가 '남자'의 화려한 저택 앞에서 황홀해했음을 알 수 있다. ⑤ 작가는 부자 행세를 하는 '남자'와 '남자'가 부자인 것에 황홀해하는 '여자'의 모습을 통해 현대인들의 물질 만능주의를 비판하고 있다.

06 서술형 '하인'은 이 글에서 정해진 시간이 되면 '남자'가 빌린 물건을 회수하고, 물건을 더 오래 빌리려는 '남자'와 갈등을 겪는 인물이다. 이러한 '하인'의 역할은 모든 소유물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평가 기준	확인 ☒
'하인'의 역할을 적절하게 썼다.	☐
'하인'의 역할은 소유물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음을 보여 준다는 내용을 썼다.	☐

07 ㉠에는 관객이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했던 것도 사실은 빌린 것이며, 모든 물건은 영원히 소유할 수 없고, 누군가에게서 빌린 것은 빌린 동안 소중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남자'의 생각이 드러나 있다.

08 (가)에서 '여자'의 덤 이야기를 들은 '남자'는 (나)에서 혼잣말로 '여자'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② '하인'은 '여자'가 보는 것과 관계없이 기계적으로 행동하고 있다. ③ (마)에 따르면 '여자의 아버지'와 '남자'는 본래 빈털터리지만 물건을 빌려 부자 행세를 한 사기꾼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④ (가)에서 '여자'는 '덤'이라는 말 속에 뭔가 그리운 것이 있다고 하며 이 말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⑤ (다)에서 '여자'는 '남자'의 고백을 듣고 충격을 받고, '남자'의 청혼을 받아 들여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다.

09 (다)에서 '하인'이 엄청나게 큰 구두 한 짝을 가져와 자기 발에 신고, 그 구두발로 차 낼 듯한 '험악한 분위기'가 조성된다고 했으므로 이 부분에서는 밝고 경쾌한 음악이 아닌 긴장감을 더

하는 배경 음악을 삽입하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나)에서 '남자'가 독백을 하며 '여자'에 대한 마음을 고백할 때에는, '남자'에게 관객의 시선이 집중되도록 조명을 '남자'에게만 집중하는 것이 적절하다. ③ (다)에서 '남자'가 '여자'에게 청혼하면서 하는 말은 소유의 본질을 깨달은 '남자'의 진심이 담긴 말이므로 진지한 표정과 눈빛으로 연기해야 한다. ④ (다)에서 '여자'는 '남자'가 빈털터리라는 것을 알고 충격을 받고 있으므로 놀란 모습이 드러나도록 연기해야 한다. ⑤ 등장인물들이 대화할 때는 대화가 관객에게 잘 들릴 수 있도록 배경 음악을 틀지 않거나, 음악을 틀더라도 음량을 낮추어야 한다.

10 서술형 '덤'이라는 여자의 별명을 통해 소유에 대한 작가의 관점을 엿볼 수 있다. 작가는 세상의 모든 소유물은 덤으로 잠시 빌린 것이라는 인식을 지니고 있다. 즉, '덤'이라는 소재를 통해 소유의 본질이라는 이 글의 주제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평가 기준	확인 ☒
'덤'의 사전적 의미를 적절하게 썼다.	☐
이 세상에 소유한 모든 것은 덤으로 잠시 빌린 것이라는 글의 주제를 썼다.	☐

11 이 글의 (라)에서 '남자'는 관객석의 사람에게 "이게 당신 겁니까?"라고 말을 걸고, <보기>에서 등장인물인 '말뚝이'는 "여보, 구경하시는 양반들"이라고 하며 관객에게 말을 걸고 있다.

12 ㉠은 무대 위에 다른 등장인물은 들지 못하고 관객만 들 수 있다고 약속된 방백으로 '남자'가 '여자'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됐음을 관객에게 보여 주는 장면이다. 이를 통해 관객들은 등장인물인 '여자'보다 먼저 '남자'의 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로 등장인물이 상대역 없이 무대 위에서 혼잣말로 하는 대사는 독백이다.

13 '남자'가 빈털터리임을 알고 놀라며 '사기꾼'이라 했던 '여자'는 결국 '남자'의 청혼을 받아들이고 '남자'와 포옹한다. 이로 보아 '여자'가 물질적인 부분과 관계없이 진정한 사랑을 깨달았음을 알 수 있다.

14 이 글은 희곡으로 극 갈래에 해당한다. 극 갈래는 서사 갈래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삶과 갈등을 형상화하는 문학 갈래이다. 즉, 극 갈래와 서사 갈래는 갈등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오답 풀이 ① 주로 과거 시제를 사용하여 사건을 표현하는 것은 서사 갈래의 특성이다. 반면에 극 갈래는 관객의 눈앞에서 사건을 보여 주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시제로 사건을 표현한다. ② 서술자가 자신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은 서사 갈래의 특성이다. 그러나 극 갈래는 서술자 없이 등장인물의 대사와 행동으로 사건을 전개한다. ④ 서사 갈래는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심리나 성격을 해설하거나 묘사하지만, 극 갈래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서술자 없이 등장인물의 대사와 행동으로

등장인물의 심리와 태도, 성격 등을 드러낸다.

⑤ 서사 갈래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자유롭게 장면 구현이 가능하다. 이에 비해 극 갈래는 영화로 상영되거나 무대에서 상연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서사 갈래에 비해 등장인물의 수, 시간적·공간적 배경 등 장면 구현에 제약을 받는다.

15 (가)에서 '여자'는 '남자'를 만나기 전에 어마어마한 저택만 보고도 황홀해한다. 이처럼 '여자'는 속물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남자'가 이러한 '여자'의 태도를 비판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② '여자'가 '남자'를 만나기도 전에 큰 저택만 보고 황홀했다고 말하는 것에서 '여자'는 '남자'가 부자라는 생각에 황홀해하며 '남자'에게 호감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남자'는 처음에는 물건을 빌려 부자인 척하는 등 물질적인 가치관을 중시하는 태도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소유한 모든 것은 빌린 것이므로 시간이 지나면 돌려주어야 하고, 사랑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④ 모든 것을 주인에게 되돌려 주고 빈털터리가 된 '남자'는 관객을 증인으로 내세워 '여자'에게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며 '여자'를 빌리는 동안에 소중하게 아끼고 사랑하겠다는 진심이 담긴 말을 '여자'에게 전하고 있다.

⑤ 결혼의 조건으로 물질적 부를 따지던 '여자'는 '남자'가 빈털터리라는 사실을 알고 갈등하지만, 소유한 모든 것은 빌린 것이라는 소유의 본질과 '남자'의 진실한 사랑을 깨닫고 '남자'를 떠나지 않는다.

16 '하인'은 벵타이와 같이 '남자'가 빌린 물건들을 시간이 되면 회수해 가는 기계적 역할을 담당한다. 이러한 역할을 통해 소유물에 대한 사용 시간이 정해져 있음을 보여 준다. 또한 '하인'은 보조적 인물로, 물건을 더 오랫동안 빌리려는 '남자'와 갈등을 겪고 있다. 따라서 '하인'의 등장은 극에 긴장감을 유발하고 관객의 흥미를 높인다.

17 (다)에서 '남자'는 직접 관객에게 말을 걸어 벵타이를 빌리고 관객에게 시간을 재는 역할을 맡김으로써 관객과 무대의 경계를 허물고 있으며, 관객의 물건을 이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설정은 관객의 극 중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관객이 극에서 능동적인 역할을 맡게 한다. 또한 극의 상황과 주제 의식을 관객에게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효과도 있다.

18 **서술형** '여자'는 처음에는 남자의 재산을 보고 황홀해하는 등 물질적인 부유함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소유한 모든 것은 잠시 빌린 것이라는 '남자'의 말에 공감하고, '여자'를 빌리는 동안에 소중하게 아끼고 사랑하겠다는 '남자'의 진심이 담긴 말에 설득되어 '남자'의 청혼을 받아들인다.

평가 기준	확인 ☒
청혼을 수락한 이유가 '소유의 본질과 진정한 사랑의 의미'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썼다.	☐
'여자'가 원래 가지고 있던, 물질을 중시하던 가치관을 포함하여 썼다.	☐

19 (라)에서 '남자'는 사랑은 '여자'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빌리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사랑할 것을 약속한다. 따라서 ㉔은 사랑하는 사람 역시 빌린 대상이므로 다시 되돌려 주기 전까지 아끼고 헌신적으로 사랑하겠다는 의미이다.

오답 풀이 ① '여자의 어머니'가 '남자'가 부자이면 꼭 붙들어야 한다고 당부하는 말에서 결혼의 조건으로 재산 소유의 정도와 같은 외면적 가치를 중시하는 물질적·세속적 가치관이 나타난다.

② '남자'는 '하인'이 벵타이를 빌린 시간이 다 되어 빼앗아갔다는 것에 대해 '여자'에게 자세히 설명하지 않으려고 한다. 또한 '여자'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화제를 전환하려고 한다.

③ '남자'는 사실은 관객도 누군가에게 벵타이를 빌렸을 수 있다며, 세상의 모든 것은 누군가에게 빌린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즉 '남자'는 우리가 소유한 것은 모두 빌린 것이며, 시간이 지나면 돌려주어야 한다는 소유의 본질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

⑤ '남자'를 부축하고 포옹하는 '여자'의 행동을 통해 '여자'가 소유의 본질과 진정한 사랑의 의미에 관한 '남자'의 말에 동감하고 설득되었음을 보여 준다.

소단원 심화 문제

본문 132~133쪽

01 ⑤ **02** ④ **03** ④ **04** ② **05** ③ **06** ④
07 관객, 이 글은 무대와 객석의 경계를 허무는 실험적인 기법을 통해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08** ③

01 이 글은 희곡으로 극 갈래에 속한다. 극 갈래와 서사 갈래는 운율이 없는 줄거로 구성되는 산문이며, 갈등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된다. 또한 수필과 달리 작가가 상상하여 쓴 허구적인 이야기이다. 그리고 극 갈래는 발단, 전개, 절정, 하강, 대단원이라는 구성 단계가 있으며, 서사 갈래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라는 구성 단계가 있다. ⑤에 제시된 '해설, 대사, 지시문'은 극 갈래에 속하는 희곡의 구성 요소로 극 갈래만의 특징이다. 서사 갈래에 속하는 소설의 구성 요소는 인물, 사건, 배경이다.

[참고 자료] 극 갈래와 서사 갈래

극 갈래	서사 갈래
- 등장인물의 대사와 행동으로 이야기를 전달함 - 장면을 구현할 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많이 받음 - 민속극, 인형극, 드라마 대본, 시나리오, 희곡 등이 있음	- 서술자가 사건의 전개 과정을 독자에게 전달함 -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자유롭게 장면 구현이 가능함 - 신화, 전설, 민담, 고전 소설, 신소설, 현대 소설 등이 있음

02 (라)에서 '남자'는 '여자'에게 소유의 본질을 이야기하며 '여자'를 빌리는 동안에 아끼고 사랑하며 헌신적으로 대하겠다는 '여자'에게 진심으로 청혼하고 있다.

03 <보기>는 이 글에 대한 작가의 설명으로, 잠시 빌렸다가 되돌려 주는 것은 이 연극에서 중대한 역할을 차지한다고 하였다. 이 글의 (가)와 (라)에서 '남자'는 세상의 모든 것은 잠시 빌린 것이며, 영원한 소유는 없고, 시간이 되면 모든 것은 되돌려 주어 야 한다는 주제 의식을 전달하고 있다.

04 이 글에서 '남자'는 '여자'도 소유의 본질을 깨닫고 자신의 진심을 알아주길 바라며 '여자'를 설득하고 있기 때문에 '설득적 어조'가 적절하다.

05 <보기>는 이 글의 주제로 소유의 본질과 관련된 내용이다. (다)에서 '여자'가 어머니에게 했던 맹세는 맞선을 볼 남자가 부자라면 꼭 붙잡겠다는 것으로 <보기>와 달리 현대인의 물질 만능주의를 보여 주는 것이다.

오답 풀이 ① '여자'의 별명 '덤'은 세상의 모든 것은 덤으로 빌린 것이라는 이 글의 주제를 보여 준다.
 ② (라)에서 '남자'는 관객에게 넥타이를 빌려서 소중하게 아꼈다가 돌려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역시 소유의 본질과 관련된다.
 ④, ⑤ 가을이 되자 수천 개의 이파리들을 돌려준 나무와 시간이 지나가자 생명을 돌려주고도 태연한 고양이는 (가)에서 '남자'가 소유의 본질을 여자에게 알려 주기 위해 든 사례이다.

06 ㉠은 젊음이나 외면적인 아름다움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사라지고 단지 과거의 흔적만 남는다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남자'가 한 말이다.

07 서술형 이 글은 무대와 객석의 경계를 없애는 실험적인 기법을 활용하여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라)에서는 등장인물인 '남자'가 관객을 증인으로 내세우며 관객을 극에 참여시키고 있다. 즉 ㉡은 관객을 의미한다.

평가 기준	확인 ☒
㉡이 관객을 의미하고 있음을 썼다.	☐
무대와 객석의 경계를 없애는 실험적인 기법으로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음을 썼다.	☐

08 ㉠과 ㉡은 '남자'의 소유가 아니라 '하인'의 주인 것으로, 정해진 시간이 되면 '남자'에게 빌려준 물건을 빼앗기 위해 필요한 소품이다.

오답 풀이 ① '하인'은 시계를 보며 정해진 시간이 되면 남자가 빌린 물건을 빼앗고 있다.
 ② '하인'은 저택을 빌린 시간이 다 되자 '남자'를 저택에서 내쫓기 위해 엄청나게 큰 구두 한 짝을 가져와 발에 신으며 그 구두발로 차 낼 듯한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④ ㉠, ㉡은 시간이 되면 물건을 빼앗는 설정을 보여 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극에서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⑤ '하인'은 시계를 보며 시간이 다 되자, '남자'를 저택에서 내쫓기 위해 엄청나게 큰 구두 한 짝을 신고 있다. 즉 시계와 엄청나게 큰 구두 한 짝은 '하인'이 사용하고 있는 물건이다.

(4) 반 통의 물

교과서 꿈꿨던 이해하기

- ① 137쪽 01 ③ 02 ③ 03 ④
 ② 139쪽 04 ③ 05 ② 06 ④ 07 ④

01 이 글의 글쓴이는 농사를 짓는 경험을 하며 얻은 깨달음을 전달하고 있다. 글쓴이는 당근을 쑤아 주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거리가 깨졌을 때 폭력과 환멸이 생기는 것처럼, 식물에게도 적절한 거리가 중요함을 깨닫고 있다. 즉 글쓴이가 사람들 사이에서 환멸을 느꼈다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으며, 농사를 짓게 된 계기 또한 이 글을 통해서 알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글쓴이는 풀을 그냥 두면 뿌려 놓은 채소들이 자라지 못하게 되니 채소들을 자라게 하기 위해 어느 정도는 풀을 뽑지만, 이런 안전부절 덕분에 채소가 반이고 잡초가 반이라고 하였다.
 ② 글쓴이는 '작년에도 너무 얹게 씨를 뿌려 낭패를 본 적이 있다'고 하며, 싹이 나오지 않아서 알아보았더니 새들이 잘 먹고 간 뒤였다고 하였다.
 ④ 당근 싹은 좀 늦긴 했지만 촘촘하게 돌아났다고 하였다.
 ⑤ 글쓴이는 ㉡의 첫 부분에서 김을 매며 속담을 자주 떠올린다고 하였다.

02 글쓴이가 뿌렸던 당근씨에서는 싹이 촘촘하게 돌아났고, 자라는 속도가 빨라 자리를 잡지 못하고 밀려 나오는 뿌리가 많았다. 글쓴이는 '이러다가는 당근 전체가 제대로 자랄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여 당근을 쑤아 주며 뿌리들의 '아우성을 중재'한다. 따라서 글쓴이가 당근을 쑤아 준 이유는 당근 사이에 적절한 거리를 만들어 당근의 뿌리가 뻗뻗하게 얹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임을 알 수 있다.

03 글쓴이가 ㉢에서 원주민 풀들에게 명목이 서지 않는다고 한 것은, 농사를 짓기 위해 그 자리에 원래 있던 원주민 풀들을 뽑아내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사를 망쳤기 때문에 미안함을 느끼는 것은 아니다.

04 교술 갈래는 작가가 경험하고 생각한 내용과 그로부터 얻은 깨달음이나 통찰을 글로 표현한 것이다. 즉 서술자가 작가 자신으로, 실제 존재하는 사람이다. 허구적인 서술자가 등장하는 것은 소설과 같은 서사 갈래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①, ② 교술 갈래는 형식과 표현이 자유롭고 작가의 개인적인 체험이나 생각, 정서를 직접 드러내기 때문에 문학 갈래 중에서 작가의 개성과 가치관이 가장 잘 드러난다.
 ④ 교술 갈래는 작가가 경험하고 생각한 내용과 그로부터 얻은 깨달음이나 통찰을 글로 표현한 문학 갈래이다.
 ⑤ 한국 문학의 교술 갈래에는 설(說), 기(記) 등의 한문 문학과, 편지, 일기, 기행문, 현대 수필 등이 있다.

05 '남은 반 통의 물을 살아 있는 것들에게 쏟아붓고 싶은 마음'에서 글쓴이는 몸이 불편한 할아버지가 물통의 물을 반 이상 흘리면서도 몇 번씩 길을 오가며 채소에 물을 주는 것을 본 경험을 통해 생명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깨달았음을 알 수 있다.

06 이 글의 글쓴이는 불편한 몸으로 채소에 물을 주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할아버지를 보고 감동과 깨달음을 얻고, 농사를 짓는 자신의 마음도 이 할아버지와 같다고 생각한다. 할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자신이 편안하게 농사짓는다고 생각하거나, 자신에 대해 반성하고 있지는 않다.

- 오답 풀이** ① 글쓴이는 마지막 문단에서 농사를 지으며 얻은 깨달음에 대해 말하며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② 글쓴이는 채소를 키우기 위해 애쓰는 자신의 마음도 할아버지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 등 생명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고 있다.
 ③ 글쓴이는 '푸성귀들을 키우는 것은 물이 아니라 농부의 발소리'라는 말을 인용하며 농작물을 키우는 것에는 농부의 사랑과 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말하고 있다.
 ⑤ 글쓴이는 불편한 몸으로 밭에 물을 길어다 주는 할아버지의 모습에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깨달으며 이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07 글쓴이는 농사를 짓는 것을 행복하게 여기며 생명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고 있다. ㉠은 채소들에게 물통의 물을 흠뻑 쏟는 것처럼 자신의 사랑을 흠뻑 쏟기 때문에 물통이 비게 된다는 의미를 담은 비유적 표현이다.

소단원 평가 문제

본문 140~143쪽

- 01 ④ 02 ② 03 ③ 04 ③ 05 ⑤ 06 반
 통의 물 07 ④ 08 ② 09 몸이 불편한 할아버지는 물통
 에 담긴 물을 반 이상 흘리지만 채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은 '반 통의 물'
 을 채소에게 쏟아붓는다. 따라서 '반 통의 물'은 생명에 대한 사랑을 의미한
 다. 10 ⑤ 11 ③

01 이 글은 작가가 경험하고 생각한 내용(②)과 그로부터 얻은 깨달음이나 통찰을 글로 표현(①)한 문학인 교술 갈래이고, 그중에서도 수필에 해당한다. 교술 갈래에는 편지, 일기, 기행문, 현대 수필 등이 있으며(③), 수필은 일상적인 경험을 다루면서도 그러한 경험을 겪은 글쓴이의 관점이나 태도에 따라 다양한 의미와 주제를 이끌어 낼 수 있다(⑤). 그러나 인물들 간의 갈등과 그것이 해소되는 과정을 통해 주제를 전달하는 것은 소설과 같은 서사 갈래에 해당한다.

02 (가)의 '어떤 아우성이 들려오는 것 같았다', (나)의 둔덕에서 원래 자라던 풀들을 '원주민 풀'이라고 표현한 부분 등에서 식물을 사람에 비유하였다(ㄱ). (다)에서 '절뚝절뚝', '휘청휘청'과 같은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고 있다(ㄴ). 또한 (가)에서는 당근을 속아 준 경험, (나)에서는 김을 맨 경험, (다)에서는 불편한 몸으로 물을 주는 할아버지를 본 경험을 말하며 농사와 관련한 이야기들을 병렬적으로 나열하고 있다(ㄹ).

03 (나)에서 글쓴이는 김매기를 하면서 풀 뽑기를 망설이고 있다. 이때 선택보다는 공존이 땅의 본래적 질서라고 하며, 생명이 공존하는 숲보다 잡초와 채소를 구분하여 잡초를 뽑는(죽이는) 밭이 오히려 생명에 덜 가깝다고 하였다.

04 글쓴이는 농사를 짓는 경험을 통해 식물들 사이에도 사람들 사이와 같은 적절한 거리가 필요하고, 선택보다는 공존이 땅의 본래적 질서이며,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란 어떤 것인지 깨닫고 있다. 이런 깨달음으로 보아, 글쓴이는 작은 생명이라도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생명 존중 사상을 지녔다고 볼 수 있다.

05 ㉠은 뻣뻣하게 자란 당근을 속아 주어서 적절한 거리를 만들어 주는 일이다. ㉡은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글쓴이가 농사를 지으며 잡초를 뽑지도 못하고 아예 안 뽑지도 못하며 망설이는 일이다. 따라서 ㉠은 농사를 잘 짓기 위한 행동으로 볼 수 있지만, ㉡은 글쓴이의 망설임을 담고 있으므로 농사를 잘 지어서 많은 수확물을 거두려는 행동과 거리가 멀다.

- 오답 풀이** ①, ③ '그 아우성을 중재하는 일'은 뻣뻣하게 자란 당근을 속아 주는 일을 말한다. 이는 당근이 제대로 자랄 수 있도록 식물들 사이에 적절한 거리를 주는 일이다.
 ②, ④ '이런 안절부절'은 선택보다는 공존이 땅의 본래적 질서라고 생각하는 글쓴이가 잡초를 뽑는 것을 망설이는 행동으로, 이것 덕분에 글쓴이의 밭에는 채소가 반이고 잡초가 반이라고 하였다.

06 할아버지는 불편한 몸 때문에 물통에 담긴 물을 반 이상 길에 흘리지만, 남은 '반 통의 물'을 채소에 쏟아부으며 생명에 대한 사랑을 보여 주고 있다.

07 '이 짙막한 이야기들'은 글쓴이가 경험했던 (가)~(다)에 나타난 이야기들을 말한다. (다)에 나타난 '그 젖은 길'은 할아버지가 물통을 들고 걸어가면서 생긴 것으로, 글쓴이가 그 길을 물로 적신 것은 아니다.

- 오답 풀이** ① (가)에서 글쓴이는 당근을 속아 주는 경험을 통해 식물들 사이에 적절한 거리가 필요함을 깨닫고 있다.
 ②, ⑤ (다)에서 글쓴이는 몸이 불편한 할아버지가 채소에 물을 주러 가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아, 어느 날부터인가 자신도 그 밭의 채소들처럼 할아버지의 발소리를 기다리게 되었다고 하였다.
 ③ (나)에서 글쓴이는 잡초와 채소는 인간에 의한 구분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김매기는 땅에 원래부터 살고 있던 풀들을 쫓아내는 일이므로 명목이 서지 않는다고 말하며, 자신의 밭에 나는 잡초를 완전히 뽑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풀을 아예 뽑지 않으면 채소들이 자라지 못하게 되니 어느 정도만 뽑아 주고 있어서 다른 밭보다 글쓴이의 밭에 풀이 무성하다고 하였다.

08 (나)에서 글쓴이는 밭에 난 잡초를 뽑지 않아 밭에 풀이 무성해진 일을 경험한다. 그러나 글쓴이는 잡초와 채소의 구분이 인간의 기준에 의한 것이며 잡초도 채소와 동등한 가치를 지닌 생명이라고 생각하여, 자신의 밭에서 잡초를 완전히 뽑지 않는다. 이와 같은 경험을 통해 글쓴이는 선택보다는 공존이 땅의 본래적 질서임을 깨닫는다.

09 서술형 할아버지는 불편한 몸 때문에 물통의 물을 반 이상 흘리면서도 몇 번씩 길을 오가며 남은 '반 통의 물'을 채소에게 쏟아붓는다. 따라서 '반 통의 물'은 생명을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할아버지의 마음을 나타낸다.

평가 기준	확인 ☒
몸이 불편한 할아버지가 물통을 나르는 이유를 포함하여 썼다.	☐
제목의 의미를 적절하게 썼다.	☐

10 이 글은 수필로 교술 갈래에 해당하고, <보기>는 극 갈래이다. 이 글은 글쓴이가 특정한 서술자를 내세우지 않고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독자에게 전달하고, <보기>도 특별한 서술자 없이 등장인물의 대사와 행동으로 사건을 전개한다. 교술 갈래는 작가가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독자에게 전달한다는 점에서 화자나 서술자를 내세우는 서정 갈래나 서사 갈래와 구별된다.

오답 풀이 ① 이 글은 형식적 제약을 받지 않는 문학 갈래이다. 그러나 <보기>는 해설, 대사, 지시문으로 구성되고, 이러한 형식을 바탕으로 하여 무대에서 연극으로 상연되는 문학 갈래이다.

② 작가가 경험에서 얻은 깨달음을 글로 표현한 것은 이 글에만 해당한다. 교술 갈래란 작가가 경험하고 생각한 내용과 그로부터 얻은 깨달음이나 통찰을 글로 표현한 문학 갈래이다.

③ 이 글과 달리 <보기>는 영화로 상영되거나 무대에서 상연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장면을 구현할 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다.

④ 이 글은 글쓴이가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서술하고 있으므로 허구적 사실을 더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보기>는 서사 갈래와 마찬가지로 허구성을 띠고 있다.

11 ‘그 붉은 뿌리들에서도 어떤 아우성이 들려오는 것 같았다.’에서 식물을 사람에 비유하고 있다. 그리고 글쓴이는 사람 사이에도 적절한 거리가 필요한 것처럼 식물들에게도 적절한 거리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처럼 같거나 비슷한 것에 기초하여 다른 사물을 미루어 추측하는 것을 유추라고 한다.

오답 풀이 ① (나)에서 ‘미운 풀이 죽으면 고운 풀도 죽는다.’라는 속담을 활용하여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나타내고 있다.

② (다)에서 ‘절뚝절뚝’, ‘휘청휘청’, ‘문득문득’ 등의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장면을 생동감 있게 묘사하고 있다.

④ (가)에서는 당근을 속아 준 경험, (나)에서는 김을 맨 경험, (다)에서는 불편한 몸으로 밭에 물을 주는 할아버지를 본 경험 등 농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병렬적으로 나열하고 있다.

⑤ 이 글에는 농사를 지으며 겪은 일과 관련 있는 깨달음이 드러나 있다. 농사를 짓는 일과 현실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다.

소단원 심화 문제

본문 144~145쪽

01 ① **02** ④ **03** ⑤ **04** 수필은 작가의 경험에서 얻은 소재를 바탕으로 쓴 글이다. / 수필은 사색과 성찰을 통해 쓴 글이다. / 수필은 자신의 정서를 진솔하게 담아 자유롭게 표현한 글이다. 등 **05** ③

01 이 글은 작가가 경험하고 생각한 내용과 그로부터 얻은 깨달음이나 통찰을 전달하는 수필이다. 수필을 읽을 때에는 작가의 경험과 깨달음을 정리하며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교훈을 파악하며 읽는 것이 좋다.

02 (나)에서 글쓴이의 밭에 풀이 무성한 것은 잡초와 채소의 기준을 알지 못해서가 아니라, 선택보다는 공존이 땅의 본래적 질서임을 깨달으며 생명을 키우기 위해 원래 있던 생명을 뽑아야 한다는 것이 내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 글쓴이는 ‘작년에도 너무 얇게 씨를 뿌려 낭패를 본 적이 있’다고 하였다.

② (가)에서 글쓴이는 ‘농부들이 씨를 뿌릴 때 적어도 세 알 이상씩 심는 뜻을 알 것 같았다.’라고 하면서 새와 벌레를 위해 나눌 줄 아는 농부들의 넉넉한 마음을 깨닫고 있다.

③ (나)에서 글쓴이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잡초와 채소를 구분하여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살리는 것이 이른바 농사다.’라고 하면서 밭을 일구면서 가장 고민되는 문제가 풀이라고 하였다. 즉 생명(채소)을 키운답시고 원주민 풀들(잡초)을 뽑아야 하는 것에 안타까워하고 있다.

⑤ (다)에서 글쓴이는 몸이 불편한 할아버지가 물통의 물을 반 이상 흘리면서도 몇 번씩 길을 오가며 채소에 물을 주는 모습을 보고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을 깨달으며 깊은 감동을 받고 있다.

03 글쓴이는 (다)에서 몸이 불편한 할아버지가 물을 흘리면서도 몇 번씩이나 길을 오가며 물을 주는 모습을 보고, 생명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깨닫는다. 성실하고 변함없는 태도가 중요함을 깨달았다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04 **서술형** 글쓴이가 글을 쓴 과정을 통해 수필의 갈래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글쓴이가 농사를 지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성찰하여 얻은 깨달음을 자유롭게 표현한 것이 곧 수필의 갈래적 특성이다.

평가 기준	확인 ☒
글쓴이가 글을 쓴 과정과 관련하여 수필의 특성을 썼다.	☐
수필의 갈래적 특성을 두 가지 이상 썼다.	☐

05 이 글에는 농사를 지으며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보기>에는 배추 포기를 묶으며 작은 벌레 한 마리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드러난다. 그러므로 이 글과 <보기>는 채소를 기르는 경험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드러낸다는 공통점이 있다.

【참고 자료】 나희덕, 『배추의 마음』

갈래	현대 시, 자유시, 서정시
성격	자연 친화적
제재	배추
주제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깨달은 생명의 소중함
특징	• 배추를 의인화하여 인간과의 교감을 형상화함 • 대화체, 독백체의 서술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화자의 내면 심리를 표현함

→ 배추를 의인화하여 생명의 소중함을 드러낸 시이다. 대화체로 서술하여 정감 있는 분위기를 그려 내었으며, 마지막 행을 통해 배추의 마음과 사람의 마음이 서로 교감하는 것을 표현하였다.

대단원 정리 문제



- 01 ③ 02 ⑤ 03 ③ 04 ① 05 ④ 06 ④
 07 ⑤ 08 ④ 09 ⑤ 10 ① 11 이 글에서는 '나'와 '권 씨'가 갈등하고 있다. '나'가 아내의 수술비를 빌려 달라는 '권 씨'의 부탁을 거절하자 이에 '권 씨'는 '나'의 집에 강도로 침입하였다. 12 ⑤
 13 ② 14 ⑤ 15 ② 16 ④ 17 ⑤ 18 ①
 19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를 터뜨린다. 첫사랑의 아픔을 통해 성숙한 사랑에 도달하였음을 의미한다. 20 ④ 21 ③ 22 ④
 23 독자의 궁금증을 유발하고, 독자에게 깊은 여운을 느끼게 한다. 24 ①
 25 ② 26 ① 27 ⑤ 28 잡초의 생명을 사랑하고 소중하게 생각했기 때문이다.

01 (가)는 서정 갈래인 시 작품이고, (나)는 극 갈래인 희곡 작품이다. 시의 구성 요소는 시어, 화자, 운율, 심상 등이 있다. ③에서와 같이 인물, 사건, 배경 등으로 이루어진 것은 서사 갈래인 소설에 해당한다.

02 (가)에는 사랑을 이루기 위한 눈의 헌신적인 노력과 눈꽃이 피어난 모습, 마침내 봄이 되어 '가장 아름다운 상처'인 봄꽃이 피어나기까지의 과정이 나타나 있다. (나) 또한 '남자'와 '여자'가 대화를 통해 서로 사랑하게 되고, 마침내 결혼을 하기까지의 과정이 나타난다. 따라서 (가)와 (나)는 모두 사랑을 이루기까지의 과정이 나타나 있다.

오답 풀이 ① (나)의 '남자'와 '여자'가 마지막 부분에서 사랑을 이루고 결혼을 하게 된 것은, (가)의 주제인 인내와 헌신으로 이뤄 낸 사랑의 결실과 유사한 면이 있다.

② (나)에서 '남자'는 '여자'에게 소유의 본질과 헌신적 사랑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며 진심으로 구애하는데, 이는 (가)에서 '눈'이 꽃을 피우기 위해 도전하는 모습과 연결하여 이해할 수 있다.

③ (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이 변화하는 모습을 통해 사랑의 속성을 표현하고 있고, (나)는 '남자'와 '여자'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④ (가)에서 '봄'이 되어 꽃이 피어난 것은 성숙한 사랑이 이루어진 부분으로, 이는 (나)에서 '여자'가 '남자'의 청혼을 받아 주며 진정한 사랑을 이루는 것과 유사한 의미라고 할 수 있다.

03 (가)의 2연에서는 '싸그락', '난분분'이라는 음성 상징어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ㄱ). 또한 2연의 '싸그락 싸그락 두드려 보았겠지'에서 눈이 내리는 소리를 표현하여 청각적 심상이, '난분분 난분분 चु추었겠지'에서 눈이 내리는 모습을 표현하여 시각적 심상이 드러나며, 이를 통해 대상을 감각적으로 묘사하고 있다(ㄷ).

04 (가)에서 '획 날아갈 사랑'은 바람 한 자락에도 쉽게 날아가는 첫사랑의 속성을 보여 주며 첫사랑이 쉽게 이루어질 수 없음을 암시한다. 사랑을 통해 얻게 될 자유와는 관련이 없다.

오답 풀이 ② '햇숨 같은 마음'은 상대를 위하는 눈의 순수한 마음을 '햇숨'에 비유하여 표현한 것이다.

③ '황홀'은 눈이 햇숨 같은 마음을 다 퍼부어 준 후에야 마침내 피워 낸 눈꽃으로, 역경을 딛고 피워 낸 아름다운 첫사랑을 의미한다.

④ '그 한 번 텐 자리'는 봄이 되어 눈꽃이 녹은 자리로, 눈꽃은 첫사랑을 의미하므로 첫사랑이 지나간 아픔의 흔적을 의미한다.

⑤ '아름다운 상처'는 봄에 피어난 봄꽃으로, 눈꽃이라는 첫사랑의 아픔을 통해 도달한 성숙한 사랑을 의미한다.

05 희곡은 무대 위에서 인물의 대사와 행동을 통해 사건이 전개되므로 주로 현재 시제를 사용한다. 주로 과거 시제를 사용하는 것은 소설의 특징에 해당한다.

06 (나)에서 '하인'은 보조적 인물로, '남자'가 빌린 물건들을 시간이 되면 회수해 가는 기계적 역할을 한다. (나)에서 '하인'은 '여자'가 자신의 마음을 '남자'에게 표현하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을 뿐, '여자'에게 '남자'의 사랑을 전해 주는 역할은 하고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여자'는 "그리고 보면 당신은 참 친절하신 분이네요."라고 하며 '남자'에 대한 호감을 드러내고 있다.

② '남자'는 '여자'에게 청혼할 때, "여기 증인이 있습니다."라고 하며 관객을 증인으로 내세우고 있다.

③ 방백은 무대 위에 있는 다른 등장인물은 듣지 못하고 관객만 들 수 있다고 약속되어 있는 대사이다. '남자'는 "덤, 덤, 난 당신을 사랑해……."라고 하며 방백으로 '여자'에 대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⑤ '남자'는 '여자'에게 청혼하며 "내가 이 세상에서 덤 당신을 빌리는 동안에, 아끼고, 사랑하고, 그랬다가 언젠가 그 시간이 되면 공손하게 되돌려 줄 테요."라고 말하고 있다.

07 (나)의 '남자'의 말에 소유에 대한 관점이 나타나 있다. '남자'는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은 빌린 것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으며 사랑도 '여자'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빌리는 것이고, 관객의 넥타이를 소중하게 돌려주었던 것처럼 '여자'를 빌렸기 때문에 오히려 더 사랑할 것을 약속한다. 따라서 진실한 마음이 있다면 빌린 것도 자신의 소유가 된다고 한 ⑤는 (나)에 나타난 소유에 대한 관점과 거리가 멀다.

08 이 글은 지식인이었으나 빈민으로 전락하게 된 '권 씨'의 삶을 통해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계층의 어려운 삶과 부조리한 현실을 고발하고 있는 소설이다. '권 씨'는 아내의 출산을 위해 수술비를 마련해야 하는 절박한 처지에서 돈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하고 있다. 이는 '권 씨'의 처지와 심리를 보여 주는 일화일 뿐, 이를 통해 생명의 존엄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이 글은 '나'가 주인공인 '권 씨'를 관찰하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전개하는 1인칭 관찰자 시점의 소설이다.

② 소설은 허구적 이야기이지만, 현실에서 일어날 만한 사건을 다룬다.

③ 강도로 침입해 어설픈 모습을 보이는 '권 씨'의 행동을 통해 소심하고 순박한 '권 씨'의 성격을 엿볼 수 있다.

⑤ 197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계층인 '권 씨'의 삶을 보여 주고 있다.

09 (라)에서 '나'는 "혹 누가 압니까,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을 아끼는 어떤 이웃이 당신의 어려움을 털어 주었는지?"라고 하며 자신이 '권 씨' 아내의 수술비를 내 준 것을 우회적으로 말

한다. 그러나 ‘권 씨’는 “그따위 이웃은 없다는 걸 난 똑똑히 봤어! 난 이제 아무도 안 믿어!”라고 하며 ‘나’가 자신을 몰래 도와준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나’는 ‘권 씨’를 관찰하여 ‘권 씨’의 외양이나 행동을 묘사하면서 ‘무척 모자라는 강도였다.’와 같이 자신의 판단을 드러내고 있다.
 ② ‘권 씨’는 ‘나’에게 “십만 원 가까이 빌릴 수 없을까요?”라고 하며, 그 뒤에 자신의 아내가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을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③ ‘나’는 어둠 속에서 복면의 사내를 보고 금세 강도가 초보임을 알아채며 여유로운 태도를 취하고 있다.
 ④ ‘나’ 외엔 더 깨우고 싶지 않은지 강도의 목소리는 무척 낮고 조심스러웠다.’ ‘먹을 겨는 식칼이 덜덜덜 위아래로 춤을 추었다.’ 등에서 ‘권 씨’의 긴장한 모습이 나타나며, 이를 통해 ‘권 씨’가 순진한 성격임을 알 수 있다.

10 이 글에서는 ‘오 선생(나)’이 서술자로 등장하여 주인공인 ‘권 씨’를 관찰하고 있다. 따라서 ‘권 씨’의 심리가 구체적으로 전달되지 않는다. 반면 <보기>에서는 주인공인 ‘권 씨’가 서술자로 등장하여 자신의 심리와 태도를 직접 전달하고 있다.

11 서술형 (가)와 (나)에서 ‘권 씨’가 ‘나’에게 수술비를 빌려왔다가 거절당한 사건이 갈등의 원인이 되어, 그 결과 (다)와 (라)에서 ‘권 씨’가 ‘나’의 집에 강도로 침입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나’와 ‘권 씨’가 갈등하고 있음을 썼다.	☐
갈등의 원인으로 ‘나’가 아내의 수술비를 빌려 달라는 ‘권 씨’의 부탁을 거절한 사건을 썼다.	☐
갈등의 결과로 ‘권 씨’가 ‘나’의 집에 강도로 침입한 내용을 썼다.	☐

12 ‘권 씨’는 ‘나’에게 아내의 수술비를 빌려 달라는 부탁을 거절한 뒤에, 또 얼굴을 숨기고 강도질을 하다가 정체가 들켰다는 사실을 안 뒤에 자신이 대학까지 나왔다는 사실을 강조하여 말한다. 두 상황은 모두 ‘권 씨’가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따라서 ㉠과 ㉡은 모두 ‘권 씨’가 자신의 상처 입은 자존심을 회복하려는 의도에서 한 말로 짐작할 수 있다.

13 ㉢의 ‘움쉴거리다’는 ‘몸을 뒤로 움츠리다.’라는 뜻이다. ㉡의 ‘기운이나 생각 따위가 새로이 일어나다.’는 ‘움트다’의 의미이다.

14 이 글은 작가가 받을 가꾸며 경험하고 생각한 내용과 그로부터 얻은 깨달음이나 통찰을 전달하는 수필이다. 즉 개인의 경험과 통찰을 전달하는 글로, 자신의 경험을 역사적 체험으로 확대하거나 사회·문화적 의미를 성찰하고 있지는 않다.

- 오답 풀이** ①, ④ 수필은 자신의 경험과 성찰을 담는 글이므로 전문 작가가 아니어도 누구나 쓸 수 있다.
 ② 수필은 형식과 표현이 자유로운 글이다.
 ③ 수필은 자유롭게 쓰는 글이므로 글쓰이의 개성과 가치관이 잘 드러난다.

15 ‘나’는 채소들에게 물을 주기 위해 물을 한 통씩 길어다 준다. 채소에게 반 통의 물을 부어 주는 것은 ‘나’가 아니라, 몸이 불편해서 길을 걸어가다가 물통의 물을 반 이상 흘리는 ‘할아버지’이다.

16 몸이 불편한 할아버지가 채소에 물을 주기 위해 애쓰며 걸 어간 길이 아름답게 느껴지는 이유는, 생명을 소중히 생각하는 할아버지의 사랑과 정성이 느껴지기 때문이다.

17 이 시의 화자는 눈이 꽃을 피우기 위해, 즉 사랑을 이루기 위해 거듭 실패하면서도 끊임없이 도전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통해 아름다운 사랑의 의미를 발견하고 있다. 또한 눈꽃이 녹은 ‘덴 자리’에 피어난 봄꽃의 모습을 통해 첫사랑의 아픔 뒤에 찾아오는 성숙한 사랑의 가치를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시에서 화자가 첫사랑과 재회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드러내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 오답 풀이** ① 이 시는 겨울에 눈꽃이 피는 과정에서 첫사랑의 의미를, 봄이 되어 눈꽃이 진 자리에 봄꽃이 피는 것에서 성숙한 사랑의 의미를 발견하고 있다.
 ② ‘바람 한 자락 불면 흰 날아갈 사랑을 위하여’는 바람이 불면 쉽게 날아가는 눈꽃의 속성을 통해 이루어지기 어려운 첫사랑의 속성을 나타내고 있다.
 ③ ‘그 한 번 덴 자리’는 봄이 오면서 눈꽃이 녹은 자리로, 첫사랑의 아픔을 의미한다.
 ④ 이 시의 주제는 ‘인내와 헌신으로 이뤄 낸 아름다운 사랑의 결실’이다. 이 시는 눈꽃을 피우기 위해 눈이 헌신하고 도전하듯, 첫사랑 또한 성취하기까지 헌신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18 이 시는 3음보의 율격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 시는 2연의 1행과 2행에 비슷한 문장 구조를 배치하고, ‘싸그락 싸그락’, ‘난분분 난분분’과 같은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또 ‘-겠지’라는 어미를 반복하고 ‘미끄러지고 미끄러지길’과 같은 유사한 단어를 사용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19 서술형 <보기>는 얼핏 보기에는 모순된 표현 같지만 사실은 그 속에 진리나 진실을 담아 표현하는 역설법에 관한 설명이다. 이 시에서 이러한 역설법이 사용된 시행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를 터뜨린다’이다. 이 시행은 봄꽃을 ‘아름다운 상처’라고 하여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첫사랑의 아픔을 통해 성숙한 사랑에 도달하였음을 의미한다.

평가 기준	확인 ☑
역설법이 사용된 시행을 찾아 바르게 썼다.	☐
시행의 함축적 의미를 적절하게 썼다.	☐

20 ‘마침내 피워 낸 저 황홀’에는 원관념 ‘눈꽃’을 보조 관념 ‘황홀’로 비유하는 은유법이 사용되었다. 이 시구는 눈꽃이 핀 모습을 ‘황홀’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역경을 딛고 피워 낸 첫사랑의 아름다움과 기쁨을 나타내고 있다.

21 (가)~(나)에서는 ‘권 씨’가 강도로 ‘나’의 집에 침입하면서, 그를 배려하고자 한 ‘나’의 말과 행동 때문에 ‘나’와 ‘권 씨’가 갈등을 겪는다. 이와 같은 서사 갈래는 주로 갈등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는 특성이 있다.

오답 풀이 ① 이 글에서 ‘권 씨’는 궁핍하지만 여러 켄레의 구두만큼은 소중히 여기며 깨끗이 닦아 놓는다. ‘구두’는 ‘권 씨’의 심리 상태를 암시하는 대상으로, ‘권 씨’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물건이며, ‘권 씨’의 지식인으로서의 자존심을 상징하는 소재이다.

② 작가가 내세운 서술자가 이야기를 전달하므로 사건의 전개 양상을 드러내는 서술자의 시점과 태도, 서술 방식도 작품의 주제를 구현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글은 이야기 안에 있는 서술자의 서술을 통해 사건을 전달하는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쓰인 소설이다.

④, ⑤ 이 글은 급격한 도시화·산업화가 진행되던 1970년대를 배경으로 한 소설이다. 이 글은 선량했던 ‘권 씨’가 강도가 되고 결국에는 행방불명되는 이야기를 통해 산업화 과정 속에서 소외된 계층의 어려운 삶과 부조리한 현실을 고발하고 있다.

[참고 자료] 갈등의 유형

외적 갈등	- 인물과 인물: 주동 인물과 반동 인물 사이의 갈등 - 인물과 사회: 인물이 그가 살고 있는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 제도 등과 입장을 달리하며 빚게 되는 갈등 - 인물과 운명: 인물이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운명과 대립함으로써 표출되는 갈등 - 인물과 자연: 인물이 그에게 제약을 주는 자연 현상에 의해 겪게 되는 갈등
	내적 갈등
	한 인물의 마음속에서, 대립되는 여러 욕구나 감정이 생겨 일어나는 갈등

22 ㉔는 서술자인 ‘나’가 직접 ‘권 씨’의 특성이나 성격에 대해 판단하고 분석해서 이야기해 주는 직접 제시의 예이다. ‘나’가 강도에 대해서 ‘그가 고의로 사람을 찌를 만한 위인이 못 되는 줄 일찍이 간파했기 때문’이라는 서술을 통해 강도가 강도질을 하기에는 착하고 심약한 성격임을 판단하여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㉔, ㉕, ㉖, ㉗는 ‘권 씨’의 행동을 통해 강도 행각을 못 할 정도로 소심하고 순박한 ‘권 씨’의 성격을 간접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23 **서술형**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권 씨’가 아홉 켄레의 구두만을 남긴 채 행방불명되면서 소설은 마무리되었다. 이 소설은 ‘권 씨’의 행방과 관련한 이야기를 완결 짓지 않음으로써 독자의 궁금증을 유발하고 독자에게 깊은 여운을 느끼게 한다.

평가 기준	확인 ☒
열린 결말의 효과를 적절하게 썼다.	☐
한 문장으로 썼다.	☐

24 이 글은 1인칭 관찰자 시점에서 ‘나’가 주인공인 ‘권 씨’를 관찰한 내용을 서술하고 있지만, <보기>는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 주인공 ‘권 씨’가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이 글은 ‘오 선생(나)’

이 서술자로 등장하여 주인공인 ‘권 씨’를 관찰하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전달하므로 ‘권 씨’의 심리가 구체적으로 전달되지 않고, ‘오 선생’의 눈에 비친 ‘권 씨’의 행동이나 외양만 서술하고 있다. 반면에 <보기>는 주인공인 ‘권 씨’가 서술자로 등장하여 자신의 심리와 태도를 독자에게 구체적으로 전달해 주고 있다.

25 ㉔에서 ‘나’는 ‘권 씨’ 아내의 수술비를 내 준 것을 우회적으로 말하였다.

오답 풀이 ① ‘피치 못할 사정’은 ‘권 씨’가 아내의 수술비를 마련하는 것을 가리킨다.

③ ㉔은 ‘나’가 자신의 부탁을 거절한 것을 떠올리며 ‘권 씨’가 한 말이자, ‘권 씨’가 의지할 데 없는 현실에 대한 깊은 좌절감을 표현한 말이다.

④ ㉔은 ‘권 씨’의 자존심을 지켜 주기 위한 ‘나’의 배려가 담긴 말이지만 오히려 이 말이 ‘권 씨’의 자존심을 자극하였다.

⑤ ‘한 켄레의 구두’는 ‘권 씨’의 상처 입은 자존심인 동시에 행방불명된 ‘권 씨’를 상징하는 소재이다.

26 이 글은 교술 갈래의 일종인 수필로, 작가가 경험하고 생각한 내용과 그로부터 얻은 깨달음이나 통찰을 글로 표현한 문학 갈래이다(㉔). 또한 수필은 작가가 자신의 의미 있는 경험에서 얻은 소재를 바탕으로 쓴 글로 가치관, 관심, 취향, 문체 등의 글 쓰이의 개성이 잘 드러나는 문학 갈래이다(㉔).

오답 풀이 ㉔. 서술자 없이 대사와 행동으로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는 것은 희곡과 같은 극 갈래의 특성이다.

㉔. 인간의 보편적인 정서를 함축적이고 운율이 있는 언어로 형상화하는 것은 시와 같은 서정 갈래의 특성이다.

27 (가)에서 글쓴이는 당근 농사를 지으면서 당근 싹이 너무 촘촘하게 돌아나면 영양분을 제대로 흡수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를 통해 글쓴이는 식물이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람 사이에도 적절한 거리가 필요한 것처럼 식물들 사이에도 적절한 거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28 **서술형** 글쓴이의 밭이 채소가 반, 잡초가 반일 정도로 잡초가 무성하게 된 것은, 잡초도 채소와 동등한 가치를 지닌 하나의 생명으로 여긴 글쓴이가 잡초 뽑는 것을 망설였기 때문이다. 즉 글쓴이가 생명 존중 의식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글쓴이의 밭에는 다른 밭보다 풀이 무성한 것이다.

평가 기준	확인 ☒
글쓴이의 삶의 태도를 생명 존중 사상과 관련하여 썼다.	☐
완성된 문장으로 썼다.	☐

4. 바른 말, 바른 글



(1) 음운의 변동

교과서 꼼꼼히 이해하기

① 159쪽

01 ⑤ 02 비음화 03 ② 04 ①
05 ②

② 161쪽

06 ② 07 ·그피, ㅍ ·싸치, ㅌ 08 ③
09 ⑤ 10 ②

01 ‘밭에서’는 [바테서]로 발음되는데, 앞말의 받침 ‘ㅌ’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뒷말로 연음된 것뿐이므로 음운 변동 현상이 일어났다고 할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먹는다’는 ‘먹’의 받침 ‘ㄱ’이 뒤에 오는 비음 ‘ㄴ’의 영향을 받아 비음 ‘ㅇ’으로 바뀌므로 [멍는다]로 발음된다. 즉 비음화가 일어났다.
② ‘해돋이’는 앞말의 끝소리 ‘ㄷ’이 모음 ‘ㅣ’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를 만나 구개음인 ‘ㅈ’으로 바뀌므로 [해도지]로 발음된다. 즉, 구개음화가 일어났다.
③ ‘닫는다’는 ‘닫’의 받침 ‘ㄷ’이 뒤에 오는 비음 ‘ㄴ’의 영향을 받아 비음 ‘ㄴ’으로 바뀌므로 [단는다]로 발음된다. 즉, 비음화가 일어났다.
④ ‘한라산’은 ‘한’의 받침 ‘ㄴ’이 뒤에 오는 유음 ‘ㄹ’의 영향을 받아 ‘ㄹ’로 바뀌어 발음되어 [할라산]으로 발음된다. 즉, 유음화가 일어났다.

02 ‘국민’은 [궁민], ‘침략’은 [침:략], ‘대통령’은 [대:통녕]으로 발음되며, 이들은 모두 비음이 아닌 음운이 각각 앞 또는 뒤에 오는 비음의 영향을 받아 비음으로 바뀌었으므로 공통적으로 비음화가 일어났다고 할 수 있다.

03 ‘ㄴ’이 앞이나 뒤에 오는 유음 ‘ㄹ’의 영향을 받아 유음 ‘ㄹ’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을 유음화라고 한다. ② ‘강릉’은 뒤 음절 첫소리 ‘ㄹ’이 앞의 비음 ‘ㅇ’의 영향을 받아 비음인 ‘ㄴ’으로 바뀌는 비음화가 일어난 것으로, 유음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신라[실라]는 받침 ‘ㄴ’이 뒤에 오는 ‘ㄹ’의 영향을 받아 유음 ‘ㄹ’로 바뀌어 발음되는 유음화가 일어난다.
③ 천리[철리]는 ‘ㄴ’이 ‘ㄹ’의 영향을 받아 유음화가 일어난다.
④ 광한루[광:할루]는 ‘ㄴ’이 ‘ㄹ’의 영향을 받아 유음화가 일어난다.
⑤ 대관령[대:괭령]은 ‘ㄴ’이 ‘ㄹ’의 영향을 받아 유음화가 일어난다.

04 ‘굳이’는 앞말의 끝소리 ‘ㄷ’이 모음 ‘ㅣ’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이’를 만나 ‘ㅈ’으로 교체되면서 [구지]라고 발음되므로 구개음화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②, ③ ‘마치’와 ‘해맞이’는 앞말의 끝소리가 ‘ㄷ’ 또는 ‘ㅌ’이 아니므로 구개음화가 일어날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구개음화는 하나의 형태소 안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⑤ ‘ㄷ, ㅌ’이 모음 ‘ㅣ’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를 만나 구개음화가 일어난데, ‘앞’은 실질 형태소이므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05 ②는 [날:로]로 발음되므로 ‘난’의 받침 ‘ㄴ’이 뒤의 유음 ‘ㄹ’의 영향을 받아 유음 ‘ㄹ’로 바뀌는 유음화가 일어난다. 나머지 단어는 비음화가 일어난다.

오답 풀이 ① [궁물]로 발음된다. 받침 ‘ㄱ’이 뒤의 비음 ‘ㅇ’에 영향을 받아 비음 ‘ㅇ’으로 바뀌었으므로 비음화가 나타났다.
③ [담:넙]으로 발음된다. 뒤 음절 첫 소리인 유음 ‘ㄹ’이 비음 ‘ㅇ’의 영향으로 비음인 ‘ㄴ’으로 바뀌었으므로 비음화가 나타났다.
④ [암마당]으로 발음된다. 받침 ‘ㅍ’의 대표음인 ‘ㅂ’이 뒤의 비음 ‘ㅇ’의 영향을 받아 ‘ㅇ’으로 바뀌었으므로 비음화가 나타났다.
⑤ [만며느리]로 발음된다. ‘만’의 받침 ‘ㄷ’이 뒤의 비음 ‘ㅇ’의 영향을 받아 비음인 ‘ㄴ’으로 바뀌었으므로 비음화가 일어났다.

06 ‘안기다’는 그대로 [안기다]로 발음이 되므로 된소리되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발전’은 [발쩐]으로 ‘ㅈ’이 된소리 ‘ㅉ’으로 교체되었다.
③ ‘입학식’은 [이팍씩]으로 ‘ㅈ’이 된소리 ‘ㅉ’으로 교체되었다.
④ ‘할 도리’는 [할또리]로 ‘ㄷ’이 된소리 ‘ㄸ’으로 교체되었다.
⑤ ‘만날 사람’은 [만날쌔람]으로 ‘ㅈ’이 된소리 ‘ㅉ’으로 교체되었다.

07 ‘급히’의 표준 발음은 [그피]로 앞말의 받침 ‘ㅂ’과 뒷말의 첫소리 ‘ㅎ’이 축약되어 ‘ㅍ’이 된 것이며, ‘쌍지’의 표준 발음은 [싸치]로 앞말의 받침 ‘ㅎ’과 뒷말의 첫소리 ‘ㅈ’이 축약되어 ‘ㅊ’이 된 것이다.

08 ③은 ‘자-+-았-+-다’가 결합된 형태로, 용언의 어간 끝 모음인 ‘ㅏ’ 뒤에 ‘ㅏ’로 시작되는 어미가 결합하여 한쪽의 ‘ㅏ’가 탈락하였다.

오답 풀이 ① ‘가-+-아라’가 결합된 형태로 같은 모음인 ‘ㅏ’가 탈락하였다.
② ‘꼬-+-어’가 결합된 형태로, 모음 ‘ㅡ’가 탈락하였다.
④ ‘쓰-+-어라’가 결합된 형태로, 모음 ‘ㅡ’가 탈락하였다.
⑤ ‘크-+-어서’가 결합된 형태로, 모음 ‘ㅡ’가 탈락하였다.

09 ⑤는 ‘건너-+-어서’의 결합으로 같은 모음이 중복되는 ‘ㄴ’이 탈락하였다.

오답 풀이 ① ‘잡히다’의 발음은 [자피다]로, ‘ㅂ’과 ‘ㅎ’이 합쳐져 ‘ㅍ’이 되므로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난 것이다.
② ‘더듬지’의 발음은 [더듬찌]로, 예사소리 ‘ㅈ’이 된소리 ‘ㅉ’이 되었으므로 된소리되기에 해당한다.
③ ‘닭장’의 발음은 [닥짱]으로 예사소리 ‘ㅈ’이 된소리 ‘ㅉ’이 되었으므로 된소리되기에 해당한다.
④ ‘와서’의 발음은 [와서]로, ‘오-’와 ‘-아서’가 결합하여 ‘와서’가 되었으므로 모음 축약에 해당한다.

10 ‘입술’은 [입쑤]로 발음되며, 예사소리인 ‘ㅈ’이 된소리 ‘ㅉ’으로 교체된 된소리되기가 일어났다. ‘파랑다’는 [파:라타]로 발음되며, ‘ㅎ’과 ‘ㄷ’이 만나 ‘ㅌ’으로 축약된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났다. ‘고파서’는 ‘고프-+-아서’가 결합한 형태로, 모음 ‘ㅡ’가 탈락한 경우이다. ‘파랑다’를 발음할 때는 축약이 일어났으므로 전체 음운이 7개에서 6개로 줄어들었다.

오답 풀이 ① ㉠은 교체가 일어났으므로 음운의 개수는 6개로 변동이 없다. 'ㅍ'은 하나의 음운이다.

③ ㉢은 어간 '고프-'에서 모음 'ㅡ'가 탈락하였으므로 음운의 개수가 7개에서 6개로 줄었다.

④ ㉣은 된소리되기가 일어났으므로 교체, ㉤은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났으므로 축약이 일어난 경우이다.

⑤ ㉥은 발음대로 표기하지 않은 반면, ㉦은 발음이 표기에 반영되었다.

소단원 평가 문제

본문 162~167쪽

- 01 ③ 02 ④ 03 ③ 04 탈락, ㉠ 05 ④ 06 ④
 07 ② 08 ② 09 조음 방법 10 ㅈ, 구개음화, ㅈ, ㅊ
 11 ② 12 ③ 13 ④ 14 ② 15 ⑤ 16 ③
 17 ② 18 ⑤ 19 ④ 20 [저카판], '적'의 'ㄱ'이 '합'의
 'ㅎ'과 축약되어 'ㅋ'으로 발음되고, '합'의 'ㅂ'이 '한'의 'ㅎ'과 축약되어 'ㅍ'으
 로 발음되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났다. 21 ⑤ 22 ④
 23 이럴게 → 이라게 24 ① 25 ② 26 ① 27 ④
 28 '노력하는'에서는 'ㄱ'이 'ㅎ'과 만나 축약되어 'ㅋ'으로 발음되는 거센소
 리되기가 일어났다. 29 ④ 30 ① 31 [무처] 32 ①

01 '음운'은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를 의미한다. 자음, 모음, 소리의 길이가 음운에 해당된다.

오답 풀이 ① 형태소에 대한 설명이다.

② 어절에 대한 설명이다.

④ 음절에 대한 설명이다.

⑤ 단어에 대한 설명이다.

02 음운 변동 현상에는 교체, 축약, 탈락, 첨가 등이 있으며, 이는 발음을 쉽게 하거나, 말의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서 일어난다.

03 '묻히다'는 [무치다]로 발음되는데, 이는 '묻'의 받침 'ㄷ'과 'ㅎ'이 만나 거센소리되기 현상이 일어나 [무티다]로 바뀐 후, '티'와 형식 형태소 'ㅣ'가 만나 구개음인 'ㅈ'으로 바뀐 것이다. 즉 '묻히다'를 발음할 때에는 축약(거센소리되기)과 교체(구개음화)가 일어난다.

오답 풀이 ① '꽃잎'은 [꼇닙]으로 발음되는데, 교체(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와 'ㄴ' 첨가가 일어난 것이다.

② '젓는다'는 [전는다]로 발음되는데, 교체(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만 일어난 것이다.

④ '낫설다'는 [낫셀다]로 발음되는데, 교체(된소리되기)만 일어난 것이다.

⑤ '물난리'는 [물랄리]로 발음되는데, 교체(유음화)만 일어난 것이다.

04 ㉠에서는 'ㄷ'가 탈락하며, ㉡에서는 'ㅎ'이 탈락하고 있으므로 공통적인 음운 변동 현상은 '탈락'이다. ㉠은 발음되는 대로 '따라'로 표기하여 소리를 표기에 반영한 것이고, ㉡은 원형을 밝혀서 적은 것이다.

05 '빛[빔]'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 '박사[박싸]'는 된소리되기, '논리[ल्ली리]'는 유음화, '많다[만:타]'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난다. 반면에 '넉음[넉빔]'은 앞 음절 받침의 'ㅂ'이 연음되어 발음된 것이므로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06 이 글의 (가)는 비음화, (나)는 유음화를 설명하고 있다. ㄴ의 '달나라'는 [달라라]로 유음화가 일어난다. ㄹ의 '밥물'은 [밤물]로 비음화가 일어난다. 따라서 ㄴ과 ㄹ의 질문에 답변할 수 있다.

오답 풀이 ㄱ. '툰밥'은 [툰뽕]으로 된소리되기가 일어난다.

ㄷ. '국화'는 [구과]로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난다.

07 '만리포[말리포]'는 유음화, '종로[종노]'와 '백마강[뱅마강]'은 비음화, '북한산[부칸산]'은 거센소리되기, '낙동강[낙뽕강]'은 된소리되기가 일어난다. 따라서 같은 음운 변동 현상이 일어난 것은 '종로'와 '백마강'이다.

08 ㉠은 받침 'ㄴ'이 뒷말 'ㄹ'의 영향을 받아 유음화가 일어나는 경우를 의미한다. 한편, ㉡ '실내화'는 뒷말 'ㄴ'이 앞말의 받침 'ㄹ'의 영향을 받아 유음으로 바뀐 경우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① '광한루'는 '한'의 받침 'ㄴ'이 뒷말 '루'의 'ㄹ'의 영향을 받아 유음화가 일어나 [광:할루]로 발음된다.

③ '난로'는 '난'의 받침 'ㄴ'이 뒷말 '로'의 'ㄹ'의 영향을 받아 유음화가 일어나 [날:로]로 발음된다.

④ '신라'는 '신'의 받침 'ㄴ'이 뒷말 '라'의 'ㄹ'의 영향을 받아 유음화가 일어나 [실라]로 발음된다.

⑤ '대관령'은 '관'의 받침 'ㄴ'이 뒷말 '령'의 'ㄹ'의 영향을 받아 유음화가 일어나 [대:팔령]으로 발음된다.

09 비음화는 비음이 아닌 음운이 비음을 만나 비음으로 교체되므로 영향을 준 비음과 조음 방법이 같아진다. 유음화는 비음 'ㄴ'이 유음 'ㄹ'의 영향으로 유음으로 교체되므로 역시 조음 방법이 같아진다. 조음 방법은 자음을 발음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하는데, 파열음, 마찰음, 파찰음, 비음, 유음으로 나뉜다.

10 '가을걷이'는 모음 'ㅣ'의 영향으로 음절의 끝소리 'ㄷ'이 'ㅈ'으로 소리 나는 구개음화 현상이 일어나 [가을게지]로 발음된다. 이처럼 'ㅣ' 모음 앞에서 'ㄷ'과 'ㅌ'이 각각 'ㅈ'과 'ㅊ'으로 바뀌어 소리 나는 이유는 발음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이다.

11 ㉠ '해돋이[해도지]'와 ㉡ '말이[마지]'에서는 'ㄷ'이 형식 형태소 'ㅣ'를 만나 'ㅈ'으로 바뀌는 구개음화가 일어났고, ㉢ '불임성[부침썰]' 역시 'ㅌ'이 형식 형태소 'ㅣ'를 만나 'ㅊ'으로 바뀌어 구개음화가 일어났다.

오답 풀이 ㉣ '감춰 왔던'은 '감추--어'가 '감춰'로, '오--았던'이 '왔던'으로 축약된 것이다.

㉤은 [이파칸]으로 발음되는데, 이는 'ㅂ'과 'ㅎ'이 축약되어 'ㅍ'으로, 'ㄱ'과 'ㅎ'이 축약되어 'ㅋ'이 된 것이다.

㉥은 'ㄷ'과 'ㅣ'가 결합했지만 하나의 형태소이므로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12 ③ ‘눈동자[눈똥자]’는 ‘ㄴ’ 뒤에 결합된 예사소리 ‘ㄷ’이 된 소리 ‘ㅌ’으로 발음된다. 하지만 눈동자는 ‘눈’과 ‘동자’가 합쳐진 합성어로, 눈동자의 ‘ㄴ’은 어간의 받침 ‘ㄴ’이 아니므로 ㉠의 경우와는 다르다. 이는 합성 명사에서 앞말의 끝소리가 올림 소리이고 뒷말의 첫소리가 안올림 예사소리이면 뒤의 예사소리가 된 소리로 발음되는 ‘사잇소리 현상’에 해당한다.

13 <보기>는 거센소리되기 위한 설명이다. ④번의 ‘썰네’는 [썰네]로 발음된다. 이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썰네’가 [썰네]가 되고, 다시 이 [썰네]의 받침 ‘ㄷ’에 비음 ‘ㄴ’이 영향을 주어 [썰네]로 비음화가 일어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거센소리되기는 일어나지 않았다.

- 오답 풀이** ① ‘국화꽃[구과꽃]’은 ‘ㄱ’과 ‘ㅎ’이 만나 ‘ㅋ’이 되었다.
 ② ‘잡혔다[자편따]’는 ‘ㅂ’과 ‘ㅎ’이 만나 ‘ㅍ’으로 축약되었다.
 ③ ‘급히[그피]’는 ‘ㅂ’과 ‘ㅎ’이 만나 ‘ㅍ’으로 축약되었다.
 ⑤ ‘빨강대[빨:가타]’는 ‘ㅎ’과 ‘ㄷ’이 만나 ‘ㅌ’으로 축약되었다.

14 ‘쌔다’는 ‘사-+-았-+-다’가 결합한 말로, 어간의 ‘ㅌ’가 탈락한 것이다. 한편 나머지는 모두 ‘ㄴ’이 탈락한 사례이다. 따라서 답은 ②다.

- 오답 풀이** ① ‘담가’는 ‘담그-+-아’의 형태로 모음 ‘ㅏ’가 탈락하였다.
 ③ ‘쌔다’는 ‘쓰-+-았-+-다’에서 모음 ‘ㅏ’가 탈락하였다.
 ④ ‘꺼’는 ‘끄-+-어’에서 모음 ‘ㅓ’가 탈락하였다.
 ⑤ ‘예뻐서’는 ‘예쁘-+-어서’에서 모음 ‘ㅓ’가 탈락하였다.

15 ㄱ의 ‘국물’은 [궁물]로 비음화가, ㄴ의 ‘윤리’는 [올리]로 유음화가, ㄷ의 ‘말형’은 [마형]으로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난다. ㄹ의 ‘먹을지’는 [머글찌]로 된소리되기가, ㅁ의 ‘피붙이’는 [피부치]로 구개음화가, ㅂ의 ‘갈 데가’는 [갈떼가]로 된소리되기 현상이 일어난다. 따라서 같은 음운 변동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각각 ㄹ과 ㅂ이다.

16 ‘집’은 [집]으로 발음되어 음절 끝소리의 교체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빚’은 [빔]으로 발음되며 음절 끝소리의 교체가 일어난다.

- 오답 풀이** ① ‘집’과 ‘빚’은 모두 [집]으로 발음된다.
 ② ‘빚’, ‘빚’, ‘빚’은 모두 [빔]으로 발음된다.
 ④ ‘빚’과 ‘하울’은 각각 [빔], [하울]으로 발음된다. 따라서 두 단어의 음절 끝소리는 모두 ‘ㄷ’으로 같다.
 ⑤ ‘하울’의 ‘히’는 받침이 없으므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17 ‘겉모양’은 [견모양]으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된 후, [견모양]으로 비음화가 일어난다. ‘꽃눈’ 역시 [꼇눈]으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된 후, [꼇눈]으로 비음화 현상이 일어난다.

- 오답 풀이** ① ‘밥물’은 [밤물]로 비음화만 일어난다.
 ③ ‘덮밥’은 [덱밥]으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된 후, [덱뽕]으로 된소리되기 현상이 일어난다.
 ④ ‘못한’은 [몽:한]으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된 후, [모:탄]으로 거센소리되기 현상이 일어난다.
 ⑤ ‘물상식’은 [물쌍식]으로 된소리되기 현상만 일어난다.

18 ㉠에서는 ‘ㄷ’이 ‘ㅎ’을 만나 ‘ㅌ’으로 발음되므로 거센소리되기, ㉡에서는 ‘ㅌ’이 모음 ‘ㅣ’를 만나 ‘ㄷ’으로 발음되므로 구개음화가 나타난다.

19 ㉢ ‘묻혀’는 ‘묻-’의 받침 ‘ㄷ’이 뒤에 오는 ‘ㅎ’과 축약되어 ‘ㅌ’이 된 후, 반모음 ‘ㅣ’로 시작하는 이중 모음과 만나 구개음화 현상이 일어나 [무쳐]가 된다. 마지막으로 용언의 활용형에 나타나는 ‘쳐’는 [치]로 발음하므로 [무치]로 발음된다.

- 오답 풀이** ① ㉠ ‘입니다’는 비음화에 의해 [임니다]로 발음된다.
 ② ㉡ ‘확정’은 된소리되기가 일어나 [확뽕]으로 발음된다.
 ③ ㉢ ‘역할’은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 [여칼]로 발음된다.
 ⑤ ㉤ ‘커지고’는 모음 탈락이 표기에도 반영되었다.

20 서술형 ㉤는 ‘적’의 받침 ‘ㄱ’이 뒤에 오는 ‘ㅎ’과 축약되어 거센소리인 ‘ㅋ’이 되고, ‘합’의 받침 ‘ㅂ’이 뒤에 오는 ‘ㅎ’과 축약되어 마찬가지로 거센소리인 ‘ㅍ’이 되므로 [저카판]으로 발음된다.

평가 기준	확인 ☑
㉡의 발음을 정확하게 썼다.	☐
㉡에서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났음을 썼다.	☐
㉡에서 어떤 음운이 어떻게 거센소리로 변화하였는지 정확하게 썼다.	☐

21 ‘의견(意見)’에 사용된 두 글자는 모두 변동 없이 [의:견]으로 발음되며, 본래 첫소리가 ‘ㄴ’이나 ‘ㄹ’이 아니기 때문에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오답 풀이** ① ‘래(來)’는 ‘내일(來日)’처럼 단어의 첫머리에서 ‘내’로 쓰이지만 ‘미래(未來)’에서처럼 뒤에 올 때는 ‘래’가 된다.
 ② ‘류(流)’는 ‘유행(流行)’처럼 단어의 첫머리에서 ‘유’로 쓰이지만 ‘하류(下流)’처럼 뒤에 올 때는 ‘류’가 된다.
 ③ ‘례(禮)’는 ‘예의’처럼 단어의 첫머리에서 ‘예’로 쓰이지만 ‘혼례(婚禮)’처럼 뒤에 올 때는 ‘례’가 된다.
 ④ ‘리(理)’는 ‘이발(理髮)’처럼 단어의 첫머리에서 ‘이’로 쓰이지만 ‘진리(真理)’처럼 뒤에 올 때는 ‘리’가 된다.

22 ‘흙으로’가 [흙그로]로 발음된 것은, 겹받침 뒤에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가 왔을 때 겹받침 중 뒤엣것을 연음해서 발음한다는 원리에 따른 것이다. 유음화가 일어나려면 원래의 단어에 비음 ‘ㄴ’이 있어야 하므로, ‘흙으로’는 유음화가 일어날 조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23 ‘이렇게’에서는 ‘ㅎ’과 ‘ㄱ’이 만나 축약되어 거센소리인 ‘ㅋ’으로 발음된다. 따라서 ‘이렇게’는 [이러케]로 발음된다.

- 오답 풀이** • 같고 / 있고 / 있다 -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된소리되기 의 해 각각 [간꼬] / [인꼬] / [인따]가 된다.
 • 시간 - 연음 현상에 의해 [시가]로 발음된다.
 • 달라져 - 용언의 활용형에 나타나는 ‘저’는 [저]로 발음하므로 [달라저]로 발음된다.
 • 세상은 / 어제와 / 흐르고 / 나만 / 혼자 - 모두 소리와 표기가 일치하는 단어들이다.

24 ‘굽히지’는 ‘굽-’의 ‘ㅂ’이 ‘-히-’의 ‘ㅎ’과 만나 축약되어 거센소리인 ‘ㅍ’으로 발음되는 거센소리되기가 나타나서 [구피지]로 발음된다. 즉, ‘굽히지’에서는 음운 축약 현상이 나타난다.

오답 풀이 ② ‘숨이불[숨:니불]’에서는 ‘ㄴ’이 첨가되는 음운 첨가 현상이 나타난다.

③ ‘갑자기[갑짜기]’에서는 ‘ㅈ’이 ‘ㅊ’으로 바뀌는 음운 교체 현상이 나타난다.

④ ‘국물[궁물]’에서는 ‘ㄱ’이 ‘ㅇ’으로 바뀌는 음운 교체 현상이 나타난다.

⑤ ‘줄제[조:치]’에서는 ‘ㅎ’과 ‘ㅈ’이 만나 ‘ㅊ’으로 줄어드는 음운 축약 현상이 나타난다.

25 ‘중로’는 뒤 음절 첫소리 ‘ㄹ’이 앞의 비음 ‘ㅇ’의 영향을 받아 비음인 ‘ㄴ’으로 바뀌므로, [중노]로 발음된다. ‘백마강’은 받침 ‘ㄱ’이 뒤에 오는 비음 ‘ㅁ’의 영향을 받아 비음 ‘ㅇ’으로 바뀌므로, [뱅마강]으로 발음된다. 따라서 ㉠에 ㄴ, ㅇ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26 구개음화는 앞말의 끝소리 ‘ㄷ, ㅌ’이 모음 ‘ㅣ’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날 때 일어난다. 그런데 ‘흙이불[흔니불]’에서 ‘이불’은 실질 형태소이므로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27 ‘더듬지’는 어간 ‘더듬-’의 받침 ‘ㄷ’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ㅈ’이 된소리 ‘ㅊ’으로 바뀌어 [더듬찌]로 발음된다. ‘신고’는 어간 ‘신-’의 받침 ‘ㄴ’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이 된소리 ‘ㄲ’으로 바뀌어 [신:꼬]로 발음된다.

28 서술형 ‘노력하는’에서는 ‘력’의 ‘ㄱ’과 ‘하’의 ‘ㅎ’이 만나 축약되어 ‘ㅋ’으로 발음되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난다. 따라서 ‘노력하는’은 [노려카는]으로 발음된다.

평가 기준	확인 ☑
‘ㄱ’과 ‘ㅎ’이 축약되어 ‘ㅋ’으로 발음되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났다는 내용을 썼다.	☐
완성된 문장으로 썼다.	☐

29 ㉠은 ‘답그--+어’가 결합된 형태로, 용언의 어간 끝 모음인 ‘ㄴ’ 뒤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가 결합하여 어간의 모음 ‘ㅡ’가 탈락하였다.

오답 풀이 ① ㉡은 ‘쓰--+어’가 결합된 형태로, 용언의 어간 끝 모음인 ‘ㄴ’ 뒤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가 결합하여 어간의 모음 ‘ㅡ’가 탈락하였다.

② ㉢은 ‘자--+았--+어’가 결합된 형태로, 용언의 어간 끝 모음인 ‘ㅌ’ 뒤에 ‘ㅌ’로 시작되는 어미가 결합하여 한쪽의 ‘ㅌ’가 탈락하였다.

③ ㉣은 ‘고프--+아’가 결합된 형태로, 용언의 어간 끝 모음인 ‘ㅂ’ 뒤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가 결합하여 어간의 모음 ‘ㅡ’가 탈락하였다.

⑤ ㉤은 ‘건너--+어서’가 결합된 형태로, 용언의 어간 끝 모음인 ‘ㄷ’ 뒤에 ‘ㄷ’로 시작되는 어미가 결합하여 한쪽의 ‘ㄷ’가 탈락하였다.

30 ‘지질학적[지질학적]’에서 ‘ㅎ’은 탈락하지 않고, ‘학’의 받침 ‘ㄱ’ 뒤에서 ‘적’의 ‘ㅈ’이 된소리 ‘ㅊ’으로 발음된다.

31 ‘묻혀’는 ‘묻-’의 받침 ‘ㄷ’이 뒤에 오는 ‘ㅎ’과 만나 거센소리되기 현상이 일어나 [무터]가 된다. 그리고 반모음 ‘ㅣ’로 시작하는 이중 모음 ‘ㅑ’와 만나 구개음화 현상이 일어나 [무쳐]가 된다. 최종적으로, 용언의 활용형에 나타나는 ‘쳐’는 [쳐]로 발음하므로 [무쳐]로 발음된다.

32 <보기>에서 비음 ‘ㄴ’이 유음의 뒤에서 유음 ‘ㄹ’로 바뀌어 발음되는 유음화는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② ‘젓는다[전는다]’에서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된 후 비음화가 일어난다.

③ ‘갈고[강꼬]’에서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어 ‘ㅌ’이 대표음인 ‘ㄷ’으로 바뀐다. 그리고 ‘ㄷ’과 만난 ‘ㄱ’이 된소리 ‘ㄲ’으로 발음되는 된소리되기가 나타난다.

④ ‘이렇게[이러케]’에서는 ‘ㅎ’과 ‘ㄱ’이 만나 두 음운이 축약되어 거센소리인 ‘ㅋ’으로 바뀌었다.

⑤ ‘있다[일따]’에서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어 ‘ㅌ’이 대표음인 ‘ㄷ’으로 바뀐다. 그리고 ‘ㄷ’과 만난 ‘ㄷ’이 된소리 ‘ㄸ’으로 발음되는 된소리되기가 나타난다.

소단원 심화 문제

본문 168~169쪽

01 ④ **02** ② **03** ㉠은 ‘발’과 실질 형태소인 ‘이랑’이 결합된 말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비음화가 일어났다. ㉡은 ‘발’과 형식 형태소인 ‘이랑’이 결합하여 구개음화가 일어났다. **04** ④ **05** ⑤
06 ㉠에서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앞말의 끝소리 ‘ㅌ’이 ‘ㄷ’으로 바뀌었다. ㉡에서는 구개음화가 일어나 ‘티’가 ‘치’로 바뀌었다. ㉢에서는 비음화가 일어나 ‘ㄷ’이 ‘ㄴ’으로 바뀌었다. **07** ④ **08** ⑤

01 (가) ‘꽃다발[꼇파발]’에는 받침 ‘ㅌ’이 ‘ㄷ’으로(음절의 끝소리 규칙), ‘ㄷ’은 ‘ㄸ’으로 바뀌는(된소리되기 현상) 교체가 일어났다. ‘발고[받꼬]’ 역시 ‘ㄱ’이 된소리 ‘ㄲ’으로 교체되었으며, ‘웃는[운:는]’은 받침 ‘ㅌ’이 ‘ㄷ’으로 바뀐 후, 비음 ‘ㄴ’의 영향을 받아 ‘ㄴ’으로 교체되었다. 따라서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ㄹ에 해당한다.

(나) ‘국화[구괘]’는 ‘ㄱ’이 ‘ㅎ’과 만나 ‘ㅋ’으로 축약되었으며, ‘종다[조:타]’ 역시 ‘ㅎ’이 ‘ㄷ’을 만나 ‘ㅌ’으로 축약되었다. 따라서 두 음운이 하나의 음운으로 줄어드는 ㄱ에 해당한다.

02 제시된 내용은 거센소리되기와 관련된 표준 발음법 조항이다. ②의 ‘놓은’에서는 자음 ‘ㅎ’이 탈락되어 [노은]으로 발음되므로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지 않는다. ‘많다’, ‘닿도록’, ‘좁히다’, ‘꽃 한 송이’는 모두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 각각 [만:타], [달토:록], [조피:다], [꼬탄송이]로 발음된다.

03 서술형 ㉔의 ‘밭이랑’은 ‘밭의 고랑 사이에 흙을 높게 올려서 만든 두둑한 곳’이라는 의미로, 실질 형태소인 ‘밭’과 ‘이랑’이 결합된 말이다. 그러므로 [밭이랑]처럼 먼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된 뒤, 비음화가 일어나 [반니랑]으로 발음된다. 반면, ㉕의 ‘밭이랑’은 실질 형태소인 ‘밭’과 형식 형태소인 ‘이랑’이 결합되어 구개음화가 일어난 것이다. 여기에서 ‘이랑’은 둘 이상의 사물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접속 조사로 쓰였다.

평가 기준	확인 ☑
㉔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비음화가 일어났음을 썼다.	☐
㉕에 구개음화가 일어났음을 썼다.	☐

04 ‘축하’에서는 ‘ㄱ’과 ‘ㅎ’이 기존에 있던 음운의 성질을 지닌 채 하나의 음운 ‘ㄱ’으로 축약되었다. 한편 ‘바쁘-’에 ‘-아서’가 결합한 ‘바빠서’에서는 ‘ㄷ’의 흔적이 남지 않고 사라지는 탈락이 일어났다. 따라서 모음 ‘ㅏ’가 ‘ㅑ’와 결합하여 ‘ㅑ’가 덧붙었다는 ㉔는 잘못된 내용이다.

05 제시된 표는 자음 체계표이며, <보기>의 ㉔은 비음화가 일어난 단어, ㉕은 구개음화가 일어난 단어이다. ㉔은 앞 음절 ‘식’의 끝소리 ‘ㄱ’이 비음인 뒤 음절 첫소리 ‘ㄹ’을 만나 비음 ‘ㅇ’으로 바뀐 것이므로 뒤 음절의 첫소리는 그대로 유지되며, 앞말 끝소리가 변화한 경우다. 한편 ㉕은 앞 음절 ‘돋’의 끝소리 ‘ㄷ’이 뒤 음절 모음 ‘ㅣ’의 영향을 받아 뒤 음절 첫소리의 음운이 구개음인 ‘ㄷ’으로 바뀐 것이다.

- 오답 풀이** ① ㉔은 비음이 아닌 음운 ‘ㄱ’이 비음 ‘ㅇ’으로 바뀌는 비음화가 일어난 예이다.
 ② ㉔에서 원래 음운인 ‘ㄱ’의 조음 위치는 여린입천장이다. 비음화가 일어난 후의 음운인 ‘ㅇ’도 여린입천장소리이므로 두 음운의 조음 위치는 동일하다.
 ③ ㉕은 자음 ‘ㄷ’이 모음 ‘ㅣ’의 영향을 받아 음운 변동이 일어난 구개음화 현상이 일어났다.
 ④ ㉕에서 원래의 음운 ‘ㄷ’은 잇몸에서 소리 나는 파열음이다. 한편 바뀐 음운 ‘ㄷ’은 센입천장에서 소리 나는 파찰음이다. 따라서 구개음화를 거치면서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이 모두 변했다고 할 수 있다.

06 서술형 ‘날날이’는 첫음절의 받침 ‘ㅌ’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대표음인 ‘ㄷ’으로 바뀌면서 [날:나티]가 되었다(㉔). 이어 [날:나치]가 되는 과정(㉕)에서 받침 ‘ㅌ’이 뒤에 오는 ‘ㅣ’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나 ‘ㅌ’이 되는 구개음화 현상이 일어난다. 마지막으로 [날:나치]로 되는 과정(㉖)에서 받침의 ‘ㄷ’이 뒤에 오는 비음 ‘ㄴ’의 영향을 받아 비음 ‘ㄴ’으로 바뀌는 비음화 현상이 일어난다.

평가 기준	확인 ☑
각 단계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 현상을 정확히 썼다.	☐
각 단계에서 음운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 양상을 정확히 썼다.	☐

가 탈락한 모음 탈락 현상이 일어났다. 그러나 ‘맞춰’는 ‘맞추-+어’의 결합이며, 이 과정에서 모음 ‘ㅜ’와 ‘ㅣ’가 하나로 줄어든 것이다. 즉 모음 축약이 일어났으며 탈락은 일어나지 않았다.

- 오답 풀이** ① ‘권력[권력]’과 ‘편리[편리]’는 비음 ‘ㄴ’이 유음 ‘ㄹ’이 되었으므로 유음화가 나타났다.
 ② ‘뽕느라[뽕느라]’와 ‘속는다[송는다]’는 비음이 아닌 음운이 비음을 만나 비음이 되었으므로 비음화가 나타났다.
 ③ ‘좁히고[조피고]’와 ‘옳지[올치]’는 예사소리가 ‘ㅎ’과 만나 거센소리가 되었으므로 거센소리되기가 나타났다.
 ⑤ ‘줄 사람[줄싸람]’과 ‘군세대[군세대]’는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뀌었으므로 된소리되기가 나타났다.

08 ㉔은 ‘럽’의 받침 ‘ㅂ’의 영향을 받아 ‘다’의 첫소리 ‘ㄷ’이 ‘ㅌ’으로 교체되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나 [존경스럽따고]로 발음된다. 음운이 교체될 때에는 음운의 수가 변하지 않는다.

- 오답 풀이** ① ‘내일(來日)’의 ‘내’는 본디 ‘래’로 쓰이는 글자이지만, ‘ㄹ’이 단어의 첫머리에 오기를 꺼리는 두음 법칙에 의해 ‘내’로 바뀌어 발음되는 것이다.
 ② ‘깎는’의 받침 ‘ㅂ’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 ‘ㄱ’으로 바뀐 후, ‘ㄱ’과 ‘ㄴ’이 만나 비음화가 일어나 [깁는]이 된다. 즉 ‘ㅂ’은 하나의 음운으로, ‘ㄱ’이 탈락한 것이 아니라 ‘ㄱ’으로 교체된 것이다.
 ③ 받침 ‘ㅌ’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 ‘ㄷ’으로 바뀐 후, ‘ㄷ’이 뒷말의 ‘ㅎ’을 만나 ‘ㅌ’으로 축약되어 [수탄]으로 발음된다.
 ④ ‘웃음도[우슴도]’는 받침의 ‘ㅌ’이 모음으로 시작되는 뒤 음절로 연음된 것으로 음운의 변동이 일어나지 않았다.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뒤 음절에 오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지 않고 본음 그대로 연음된다.

07 ‘치렀으니’는 ‘치르-+-었-+-으니’의 결합으로, 모음 ‘ㅡ’

(2) 한글 맞춤법

교과서 꿈공 이해하기

- ① 173쪽 01 소리, 어법, 단어 02 ③ 03 ㉠ 쿳구멍, ㉡ 전 세방
- ② 175쪽 04 ④ 05 ③ 06 차V한V대를V사려면V돈이V 얼마나V필요할까?

01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소리대로만 적으면 같은 단어인데도 표기가 그때그때 달라지거나, 다른 뜻을 지닌 두 단어의 표기가 같아지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뜻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법에 맞게 적는다’는 원칙을 추가하였다. 또한, 문장의 의미 파악이 쉽도록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참고 자료] 표음주의와 표의주의

표음주의	맞춤법에서, 단어를 소리 나는 대로 적어야 한다는 주장. 같은 단어라도 다르게 발음되면 소리 나는 대로 적음
표의주의	맞춤법에서, 단어를 어법에 따라 형태를 밝혀 적어야 한다는 주장. 단어가 환경에 따라 다르게 발음되더라도 언제나 동일하게 적음

02 한글 맞춤법 제35항 [붙임 2]에 따르면 ‘ㅅ’과 같이 어간이 ‘ㄱ’으로 끝나는 말에 어미 ‘-어’가 어울려 ‘-애’가 된 경우에 이를 준 대로 적어야 한다. 하지만 ③의 밑줄 친 말은 ‘ㅅ+고’의 결합으로 어미 ‘-어’가 어울리지 않았으므로 ‘ㅅ고’로 적어야 한다.

- 오답 풀이** ① ‘나뭇잎’은 ‘나무’와 ‘잎’이 결합한 순우리말 합성어로 ‘ㄴㄴ’ 소리가 덧나므로 사이시옷을 붙여 적어야 한다.
- ② ‘돌아가다’는 ‘돌다’와 ‘가다’가 어울려 하나의 용언이 된 것으로 앞말인 ‘돌다’의 본래 의미가 유지되고 있어 원형을 밝혀 적어야 한다.
- ④ ‘쓰러지다’는 ‘쓸다’와 ‘지다’가 어울려 하나의 용언이 된 것으로 앞말인 ‘쓸다’의 본래 뜻에서 멀어졌으므로 소리 나는 대로 적어야 한다.
- ⑤ ‘더듬이’는 용언 ‘더듬다’의 어간 ‘더듬-’에 ‘-이’가 붙어서 명사가 된 것이므로 어간의 본래 모양을 밝혀 적어야 한다.

03 ㉠은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며,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므로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어야 한다. ㉡은 한자어와 한자어의 결합이므로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더라도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지 않는다.

04 ‘야단법석’이 [야:단법석]과 같이 된소리로 발음되는 이유는 ‘받침 ㄱ, ㄷ, ㅂ’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라는 규정에 의한 것이다. 이처럼 음운 변동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된소리를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 오답 풀이** ① 한자음 ‘녀’가 첫머리에 쓰인 것이 아니므로, ‘남녀’로 적어야 한다.
- ② ‘룰’이 모음 뒤에 오고 있으므로 ‘내재율’로 적어야 한다.
- ③, ⑤ 한 단어 안에서 같은 소리가 겹쳐 나므로 ‘ 짹짹한’, ‘뚝뚝뚝’으로 적어야 한다.

05 ‘시작한 지’에서 ‘지’는 ‘어떤 일이 있었던 때로부터 지금까지의 동안’이라는 뜻의 의존 명사이다. 한글 맞춤법 제42항에 따르면 의존 명사는 띄어 써야 한다.

- 오답 풀이** ① ‘지’는 의존 명사로, 의존 명사는 자립성이 없어 다른 말에 기대어 쓰인다.
- ② ‘줄넘기’는 명사이다. ‘를’이 조사이기 때문에 명사인 ‘줄넘기’에 붙여 쓴 것이다.
- ④ 한글 맞춤법 총칙에 따르면 띄어쓰기의 기본 단위는 형태소가 아닌 단어이다.
- ⑤ ‘-째’는 ‘차례’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이지만, 단위 명사가 아니다.

06 한글 맞춤법에서는 각 단어는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조사는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또한 한글 맞춤법 제43항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쓴다’를 고려하여 ‘한’과 ‘대’를 띄어 써야 한다.

소단원 평가 문제

본문 176~181쪽

- 01 ④ 02 ② 03 ④ 04 ㉡는 한자어와 고유어(순우리말)의 결합인 반면, ㉢는 한자어끼리의 결합이다. 또 ㉣는 ‘제30항-3’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사이시옷을 표기하지 않는다. 05 ② 06 ②
- 07 ② 08 ④ 09 ⑤ 10 ③ 11 ③ 12 ④
- 13 ㉡는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쓰고, ㉢는 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쓴다. 14 ⑤ 15 ② 16 ⑤ 17 마니 → 많이, 해소될까 → 해소될까, 쓰는데 → 쓰는 데 18 ① 19 ④ 20 ②
- 21 ② 22 ① 23 ② 24 한자음 ‘룰’이 ‘ㄴ’이 아닌 받침 뒤에 오면 ‘룰’로 적으므로 ‘시청룰’로 적습니다. 25 ⑤ 26 ④
- 27 달입니다 → 다립니다, 남여노소 → 남녀노소

01 ‘괴로움’의 원형은 형용사 ‘괴롭다’이며, 어간 ‘괴롭-’에 접사 ‘-음’이 결합하여 명사가 된 것이다. 만일 형태를 밝혀 적고자 한다면 원래의 모습인 ‘괴롭-’을 밝혀 적어야 하나 그러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적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대개’의 발음은 [대:개]이다. 따라서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것이 아니다.
- ② ‘밥만’은 [밤만]으로 발음된다. 이때 ‘밥’을 ‘밤’이라 적지 않고 원래 형태대로 ‘밥’이라 표기하였으므로 어법에 맞게 적은 것이다.
- ③ ‘주었지만’을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주엄찌만’이 된다. 따라서 지금의 표기와 달라진다.
- ⑤ ‘차마’와 ‘참야’의 발음은 모두 [차마]이다. 따라서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할 경우 두 단어의 표기는 같아진다.

02 ‘날날이’는 명사 ‘날날’에 접미사 ‘-이’가 붙어 부사가 된 것이다. 즉 ‘날날’은 용언의 어간이 아니라 명사이며, ‘날날이’도 명사가 아니라 부사이다.

오답 풀이 ① '다듬이'는 동사 '다듬다'의 어간 '다듬-'에 '-이'가 붙어 명사가 된 것이다.

- ③ '많이'는 형용사 '많다'의 어간 ' 많-'에 '-이'가 붙어 부사가 된 것이다.
 ④ '익히'는 형용사 '익다'의 어간 '익-'에 '-히'가 붙어 부사가 된 것이다.
 ⑤ '바둑이'는 명사 '바둑'에 '-이'가 붙어서 된 말이다.

03 ④의 '햇별[해뻐/햐뻐]'은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지만, ㉠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순우리말과 한자어의 합성어여야 한다. '햇별'은 '해+별'의 결합으로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이므로 ㉠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①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로 [귀뻐/귄뻐], [나루뻐/나룬뻐], [아래뻐/아래뻐]와 같이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난다.
 ②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로 [인뻐], [아랜니], [툰마당]과 같이 뒷말의 첫소리 'ㄴ, ㄹ'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난다.
 ③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로 [갠뻐], [툰:닐], [두렌닐]과 같이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 ㄴ' 소리가 덧난다.
 ⑤ '훗날[훈:날]'은 '후(後)와+날'의, '제삿날[제:산날]'은 '제사(祭祀)+날'의, '툃마루[툃:마루/툃:마루]'는 '퇴(退)+마루'의 합성어이다. 따라서 이들은 모두 고유어와 한자어가 합쳐진 말로, 뒷말의 첫소리 'ㄴ, ㄹ'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난다.

04 서술형 ㉠은 한자어 '수도(水道)'에 고유어 '물'이 결합되었고 [수돈물]과 같이 'ㄴ' 소리가 덧나므로 사이시옷을 받쳐 쓰지만, ㉡은 한자어 '세(稅)'가 결합된 한자어끼리의 합성어이며 제시된 규정의 3번 항목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이시옷을 쓰지 않는다.

평가 기준	확인 ☑
㉠은 한자어와 고유어(순우리말)의 합성어, ㉡은 한자어끼리의 합성어임을 썼다.	☐
한자어끼리의 합성어에는 사이시옷을 쓰지 못함을 썼다.	☐
㉡의 경우 제시된 규정의 3번 항목에도 포함되지 않음을 썼다.	☐

05 '돼지'는 하나의 명사로, '돼'와 '지'를 분리할 수 없으며 용언이 아니기에 어간도 없다. 따라서 어간에 대해 설명하는 <보기>의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06 '씩뚝[씩뚝]'은 'ㄱ' 받침 뒤에 연결되는 'ㄷ'이 된소리로 발음된다. 이는 표준 발음법에 제시된 된소리되기 현상에 의한 것으로, 된소리로 발음되는 까닭이 분명한 경우이다. 또한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도 아니므로, 된소리로 발음되더라도 표기에 반영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씩뚝'이 맞는 표기이다.

오답 풀이 ① '잔뚝[잔뚝]'은 'ㄴ'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이다.
 ③ '거꾸로[거꾸로]'는 두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이다.
 ④ '씩씩씩씩[씩씩씩]'은 한 단어 안에서 같거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이다.
 ⑤ '납작하다[납짜카다]'는 표준 발음법에 의해 된소리가 나는 것이며,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도 아니므로 된소리로 적지 아니한다.

07 '용(龍)'은 본디 '룽'으로 읽지만, '용궁(龍宮)'이라는 단어의 첫머리에 왔기 때문에 두음 법칙에 따라 'ㄹ'을 'ㅇ'으로 교체하여 '용궁'으로 적는다. 또한 '매년(每年)'의 년(年)은 단어 안에서 단어의 첫머리에 쓰이지 않았기 때문에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아 '년'으로 적는다.

오답 풀이 ① '년세(年歲)'는 '연세'로 적어야 한다.
 ③ '년도(年度)'는 '연도'로 적어야 한다.
 ④ [제11항]의 [붙임 1]에 따라 '백분률(百分率)'에서 '률'이 'ㄴ' 받침 뒤에 오므로 '백분율'로 적어야 한다.
 ⑤ '남남북여(南男北女)'는 '남남북녀'로 적어야 한다.

08 ㉠은 부사 '안'이 '하면'을 수식하여 청소를 하는 동작을 부정하고 있으므로 띄어 써야 한다. 한편 ㉡의 '안'은 단일어 '안되다'의 여러 의미 중 하나인 '근심이나 병 따위로 얼굴이 많이 상하다.'의 뜻을 지니고 있으므로 '안됐다'로 붙여 써야 한다.

[참고 자료] 부사 '안'

(용언 앞에 쓰여) 부정이나 반대의 뜻을 나타내는 말인 '아니'의 준말

- 예 • 안 벌고 안 쓰다. / • 오늘은 날씨가 안 춥다.
 • 비가 안 온다. / • 이제 그 사람을 안 만나겠다.

09 (가)~(다)에서 조사를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는 것은 제시하고 있으나, 각각의 조사를 어떤 순서대로 붙여 써야 하는지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오답 풀이 ① (나)를 보면 의존 명사가 자립성이 없어서 홀로 쓰일 수는 없지만, 명사의 기능을 하는 단어이므로 앞말과 띄어 쓴다는 점을 알 수 있다.
 ② (가)를 보면 우리말에서 띄어쓰기의 기본 단위가 단어임을 알 수 있다.
 ③ '송이'는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이므로 (다)의 내용을 바탕으로 질문을 해결할 수 있다. '한 송이'로 띄어 쓰는 것이 맞다.
 ④ (나)에 의존 명사는 띄어 쓰고, 조사는 붙여 써야 함이 언급되어 있다. '너만큼'의 '만큼'은 조사이므로 붙여 쓰고, '먹을 만큼'의 '만큼'은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10 '밖에'는 '그것 말고는', '그것 이외에는', '기꺼이 받아들이는', '피할 수 없는'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로, 반드시 뒤에 부정을 나타내는 말이 따른다. 따라서 이 문장은 '그녀를V알아V주는V사람은V나밖에V없다.'라고 띄어 써야 한다. 한편, '대문 밖에 누가 왔다.'처럼 명사 '밖[外]'에 조사 '에'가 결합한 '밖에'는 앞말과 띄어 쓴다.

11 ③의 '동안'은 '어느 한때에서 다른 한때까지 시간의 길이'라는 의미를 지닌 명사이다. (나)에서는 의존 명사의 띄어쓰기 규정을 다루고 있으며 의존 명사, 조사, 어미, 접사 등에는 서로 형태가 같거나 비슷한 것들이 있어 띄어쓰기를 유의해야 함을 말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사례로 볼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보다'와 '도'는 조사가 둘 이상 겹쳐진 것으로 앞말과 붙여 써야 한다.
 ② '에게'는 조사로 앞말과 붙여 쓴 것이다.
 ④ '뿐'은 '다만 어떠하거나 어찌할 따름'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로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한편 조사 '뿐'은 체언이나 부사어 뒤에 붙어 '그것 만이고 더는 없음' 또는 '오직 그렇게 하거나 그러하다는 것'이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⑤ ‘마리’는 단위 명사로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12 우리말은 단어를 띄어쓰기의 기본 단위로 삼아 단어별로 띄어 쓰지만, 조사는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홀로 쓰일 수 없으므로 앞말에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3 서술형 ㉠의 ‘만’은 ‘앞말이 가리키는 동안이나 거리’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써야 하며, ㉡의 ‘만’은 다른 것으로부터 제한하여 어느 것을 한정함을 나타내는 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평가 기준	확인 ☑
㉠과 ㉡의 품사를 정확하게 썼다.	☐
의존 명사는 앞말에 띄어 쓰고, 조사는 앞말에 붙여 써야 함을 밝혀서 썼다.	☐

14 한글 맞춤법에서 한자음 ‘랴, 려, 례, 료, 류, 리’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야, 여, 예, 요, 유, 이’로 적고,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자리에 올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렬/률’의 경우 모음이거나 ‘ㄴ’ 받침 뒤에 오면 ‘열/율’로 적으며, ‘ㄴ’이 아닌 받침 뒤에 오면 ‘렬/률’로 적는다. ‘확’의 끝소리 ‘ㄱ’은 ‘ㄴ’이 아니므로 ‘확률’로 표기하는 것이 맞다.

오답 풀이 ① 어미 ‘-(으)르걸, -(으)르께’ 등은 된소리로 소리 나지만 예사소리로 적어야 하므로 ‘전화할게’가 맞는 표기이다.

② 지난 일을 나타내는 어미는 ‘-더라, -던’으로 적어야 하므로 ‘잘하더라’가 맞는 표기이다.

③ 한 단어 안에서 받침 ‘ㄴ, ㄹ, ㅁ, ㅇ’ 뒤에 온 자음이 된소리로 나는 경우에는 된소리를 표기에 반영한다. ‘몽똥그려[몽똥그려]’는 한 단어 안에서 ‘몽’의 받침 ‘ㅇ’ 뒤에 오는 자음 ‘ㄷ’이 된소리 ‘ㄸ’으로 소리 나므로 된소리를 표기에 반영한다.

④ 이 문장에서 ‘드러냈다’는 문맥상 ‘물건을 들어서 밖으로 옮기다’의 의미로 쓰였다. 따라서 앞말인 ‘들다’의 본뜻(아래에 있는 것을 위로 올리다)이 유지되므로 원형을 밝혀 ‘들어냈다’로 고쳐 써야 한다.

15 ‘우웃빃’은 한자어 ‘우유’와 고유어 ‘빃’이 결합되어, [우유편] 또는 [우윳편]으로 발음된다. 이처럼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발음되므로, 사이시옷을 붙여 ‘우웃빃’으로 적어야 한다. ‘꽤요’는 ‘되’ 뒤에 ‘-어’가 어울려 ‘꽤’가 된 것으로 바른 표기이다.

16 한글 맞춤법 제5항에 따라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다음 음절의 첫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 받침 ‘ㄴ, ㄹ, ㅁ, ㅇ’ 뒤에서 나는 된소리가 이에 해당하는데, ‘절뚝’은 ‘ㄹ’ 받침 뒤에서 된소리가 나므로 된소리로 적는다. 또한 ‘-ㄴ데’는 어미로 앞말과 붙여 써야 한다.

오답 풀이 ① 한글 맞춤법 제43항,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쓴다는 규정에 따라 ‘두 마리’로 띄어 써야 한다.

② 한글 맞춤법 제13항에 따라 한 단어 안에서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에는 같은 글자로 적으므로 ‘똑딱똑딱’이 바른 표기이다.

③ 한글 맞춤법 제5항 ‘다만’에 따르면, ‘ㄱ, ㅂ’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한 단어 안에서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쓰지 않으므로 ‘곱슬곱슬’이 바른 표기이다.

④ 한글 맞춤법 제13항에 따라 한 단어 안에서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부분은 같은 글자로 적어야 한다. ㉠ ‘맛잇한’의 ‘맛잇’은 [민민]으로 두 글자가 달리 발음되지만, 같은 음절이 겹쳐 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글자를 사용하여 ‘맛잇한’으로 표기해야 한다.

17 ‘마니’는 어간 ‘ 많-’에 접미사 ‘-이’를 붙여 부사가 된 경우이므로 원형을 밝혀 ‘많이’라고 적어야 한다. ‘해소될까’는 어간이 ‘해소되-’로, ‘ㄱ’ 뒤에 ‘-르까’가 붙은 형태이므로 ‘해소될까’로 적어야 한다. ‘쓰는데’의 ‘데’는 ‘일’이나 ‘것’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18 ㉠의 글쓴이는 제목을 통해 독자에게 질문을 하고 있으며, 댓글을 달 수 있는 누리집에 글을 게재하였으므로 독자를 염두에 두고 글을 썼음을 알 수 있다.

19 ‘오니’는 ‘오다’의 어간 ‘오-’에 어미 ‘-니’가 결합한 것이므로 붙여 쓴다.

20 ‘쓰러지다’, ‘홀어지다’, ‘벌어지다’는 모두 두 개의 용언이 어울려 만들어진 용언이다. ‘쓰러지다’는 ‘쓸다’의 의미가 사라졌으므로 ‘쓸-’의 형태를 밝히어 적지 않는다. 반면 ‘홀어지다’와 ‘벌어지다’는 각각 ‘홀다’와 ‘벌다’의 의미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그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21 사이시옷은 고유어 또는 고유어와 한자어로 된 합성어에서 앞 단어가 모음으로 끝날 때 나타난다. 이러한 환경에서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날 때, 뒷말의 첫소리 ‘ㄴ, ㄹ’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날 때,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날 때 사이시옷을 붙여 적는다.

22 어간이 ‘ㄱ’로 끝나는 말에 어미 ‘-어’가 결합하여 ‘내’로 줄어드는 경우, ‘내’로 적는다. ‘뵈다’의 경우, ‘뵈어요’는 ‘뵈요’로 줄여 쓸 수 있다.

23 한 단어 안에서 받침 ‘ㄴ, ㄹ, ㅁ, ㅇ’ 뒤에 온 자음이 된소리로 날 경우에는 된소리를 표기에 반영한다. ‘몽똥그려[몽똥그려]’는 한 단어 안에서 받침 ‘ㅇ’ 뒤에 온 자음이 된소리로 난 경우이므로, 된소리를 표기에 반영한다.

오답 풀이 ① ‘쏟쏟한[쏟쏟한]’은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므로 된소리를 표기에 반영하여 같은 글자로 적는다.

③, ⑤ 한 단어 안에서 ‘ㄱ, ㅂ’ 받침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ㅅ, ㅈ’은 언제나 된소리로 소리 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된소리로 표기하지 않는다. ‘갑자기[갑짜기]’와 ‘법석[법씩]’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

④ ‘절뚝[절뚝]’은 한 단어 안에서 받침 ‘ㄹ’ 뒤에 온 자음이 된소리로 난 경우이므로, 된소리를 표기에 반영한다.

24 서술형 한자음 ‘렬/률’은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 오면 ‘열/울’로, ‘ㄴ’이 아닌 받침 뒤에 오면 ‘렬/률’로 적는다. ‘시청률’에서 ‘률’은 ‘ㅇ’ 받침 뒤에 오므로, ‘시청률’로 써야 한다.

평가 기준	확인 ☒
한자음 ‘률’이 ‘ㄴ’이 아닌 받침 뒤에 오면 ‘률’로 적는다는 내용을 썼다.	☐
‘시청률’이 알맞은 표기라고 썼다.	☐

25 ‘느커녕’은 앞말을 지정하여 어떤 사실을 부정하는 뜻을 강조하는 보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느커녕’은 보조사 ‘느’에 보조사 ‘커녕’이 결합한 말이다.

26 ‘등곶길[등교길/등곶길]’은 한자어인 ‘등교(登校)’와 고유어인 ‘길’이 결합하여 만들어졌다. 앞 단어인 ‘등교’가 모음 ‘ㅛ’로 끝나고, 뒷말 ‘길’의 첫소리 ‘ㄱ’이 된소리 ‘ㄲ’으로 발음되므로 사이시옷을 붙여 적어야 한다. ‘쓰는 데’에서 ‘데’는 ‘일’이나 ‘것’의 뜻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27 ‘다리미로 옷이나 천 따위의 구김이나 주름을 문질러 펴다.’를 뜻하는 단어는 ‘다리다’이므로, 단어의 원래 모양을 밝혀 ‘다립니다’라고 적어야 한다. 또한 한자음 ‘녀’는 단어의 첫머리에 올 때를 제외하고는 본음대로 적어야 하므로, ‘남녀노소’라고 써야 한다.

④ ‘깊이’는 형용사 ‘깊다’의 어간 ‘값-’에 ‘-이’가 결합하여 부사가 된 것으로, 제19항의 규정을 따른다. 그러나 ‘살살이’는 명사 ‘살’에 ‘-이’가 결합하여 부사가 된 것으로 제20항의 규정을 따르고 있다.

02 서술형 ③ ‘들어내다’는 ‘물건을 들어서 밖으로 옮기다.’라는 뜻으로, 앞말 ‘들다’가 가진 ‘아래에 있는 것을 위로 올리다.’라는 본뜻이 유지되므로 원형을 밝혀 ‘들어냈다’로 써야 한다. 한편 ⑥ ‘드러내다’는 ‘가려 있거나 보이지 않던 것을 보이게 하다.’라는 뜻이다. 따라서 ‘들다’의 본뜻이 유지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소리 나는 대로 써야 하기 때문에 ‘드러냈다’로 표기해야 한다.

평가 기준	확인 ☒
해당하는 조항을 정확히 찾아 썼다.	☐
③과 ⑥의 본뜻이 유지되는지 아닌지를 구분하여 썼다.	☐

03 ⑤ ‘제사(祭事)+날’은 한자어와 고유어로 이루어진 합성어이므로 1단계를 만족하고, 앞 단어가 받침이 없이 모음으로 끝나므로 2단계를 만족한다. 마지막으로 [제산날]로 발음되어 뒷말의 첫소리 ‘ㄴ’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므로 3-3단계를 아닌, 3-2단계를 만족하여 ‘제삿날’이라고 써야 한다.

04 고유어끼리의 합성어인 ‘부싷돌[부싷돌/부싷돌]’은 결합한 뒷말 ‘돌’의 첫소리 ‘ㄷ’이 된소리 ‘ㄸ’으로 발음되기 때문에 ㉠을 충족하였다. ‘훑힐[훑:닐]’은 한자어와 고유어의 합성어로 결합한 뒷말 ‘일’의 모음 ‘ㅣ’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났기 때문에 ㉡을 충족하였다.

- 오답 풀이** ① ‘핏대[피때/핀때]’와 ‘햇볕[해뻐/햇뻐]’은 ㉠을 충족한다.
 ② ‘예삿일[예:산닐]’은 ㉡을 충족하지만, ‘잇뭉[인뭉]’은 3-2단계의 조건을 충족한다.
 ④ ‘멧나물[멘나물]’은 3-2단계의 조건을 충족하며, ‘콧병[코뻥/콧뻥]’은 ㉠을 충족한다.
 ⑤ ‘나룻배[나루뻤/나루뻤]’은 ㉠을 충족하지만, ‘뿔마루[툰:마루/툰:마루]’는 3-2단계의 조건을 충족한다.

05 질문에 대한 답변에 따르면 모음 ‘ㅛ’ 뒤에 ‘-었-’이 결합하면 ‘곶’이 된다. 질문의 경우 어간 ‘쫌-’에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었-’이 결합하여 ‘곶-’이 되므로 ‘곶다’로 적어야 바른 표현이다.

[참고 자료] 선어말 어미

어말 어미 앞에 나타나는 어미를 말한다. ‘-사-’, ‘-옵-’ 따위와 같이 높임법에 관한 것과, ‘-았-’, ‘-는-’, ‘-더-’, ‘-겠-’ 따위와 같이 시제와 관련된 것이 있다.

06 ‘오빠[오빠]’, ‘형썬[형썬]’, ‘영똥하다[영똥하다]’는 된소리로 발음될 뚜렷한 까닭이 없음에도, 다시 말해 된소리되기가 일어나는 환경에 놓여 있는 등의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된소리로 발음되기 때문에 이 된소리를 표기에 반영한 것이다. 주로 두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나, ‘ㄴ, ㄹ, ㅁ, ㅇ’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가 이에 해당한다.

소단원 심화 문제

본문 182~183쪽

- 01 ⑤ 02 한글 맞춤법 제15항에 따라 두 용언이 어울려 한 개의 용언으로 될 적에, ③은 앞말 ‘들다’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원형을 밝혀 적고, ⑥는 본뜻에서 멀어졌으므로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03 ⑤
 04 ③ 05 ② 06 ③ 07 ② 08 ②

01 ‘바둑이’와 ‘날날이’는 각각 명사 ‘바둑’과 ‘날날’에 ‘-이’가 결합하여 명사와 부사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 두 단어는 모두 제20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명사의 원형을 밝혀 표기하였다.

- 오답 풀이** ① ‘흠여지다’는 제15항 [붙임 1]의 예는 맞지만, 앞말 ‘흠다’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어서 용언의 원형을 밝혀 적는 것에 해당한다. ‘흠다’의 뜻은 ‘한데 모였던 것을 따로따로 떨어지게 하다.’이며, ‘흠여지다’의 뜻은 ‘한데 모였던 것이 따로따로 떨어지거나 사방으로 퍼지다.’이다.
 ② ‘꼼꼼히’는 부사 ‘꼼꼼’에 ‘-히’가 결합하여 부사가 된 것으로, 어간에 ‘-히’가 결합하지 않았기에 제19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예이다.
 ③ ‘살림살이’에서 ‘-이’는 동사 ‘살다’의 어간 ‘살-’에 결합한 것이기 때문에 제20항이 아닌 제19항의 규정이 적용된 예이다.

07 ㉞ ‘약속한대로’의 ‘대로’는 ‘어떤 모양이나 상태와 같이’라는 뜻을 지닌 의존 명사이므로 <보기>의 내용에 따라 앞말인 ‘약속한’과 띄어 써야 한다.

오답 풀이 ① ㉠의 ‘수’는 ‘어떤 일을 할 만한 능력이나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라는 뜻의 의존 명사이다. 따라서 앞말과 띄어 쓴다.

③ ㉡의 ‘뿐’은 보조사로 앞말에 붙여 쓴다.

④ ㉢의 ‘밖’의는 ‘일정한 한도나 범위에 들지 않는 나머지 다른 부분이나 일’을 뜻하는 명사 ‘밖’과 조사 ‘의’가 결합한 말이므로,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⑤ ㉣의 ‘만큼’은 ‘앞의 내용에 상당한 수량이나 정도임을 나타내는 말’인 의존 명사이다.

【참고 자료】 의존 명사 ‘뿐’과 조사 ‘만’

① 의존 명사

‘1. ‘뿐’: (어미 ‘-을’ 뒤에 쓰여) 다만 어떠한가나 어떠한 따름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말. 예 소문으로 들었을 뿐이네.

‘2. (‘-다 뿐이지’ 구성으로 쓰여) 오직 그렇게 하거나 그러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 예 시간만 보냈다 뿐이지 한 일은 없다.

② 조사

(체언이나 부사어 뒤에 붙어) ‘그것만이고 더는 없음’ 또는 ‘오직 그렇게 하거나 그러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보조사.

예 이제 믿을 것은 오직 실력뿐이다

08 ㉠의 ‘먹을 만큼’에서 ‘만큼’은 ‘앞의 내용에 상당한 수량이나 정도임을 나타내는 말’인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쓰는 것이 맞지만 ‘너만큼’에서 ‘만큼’은 앞말과 비슷한 정도나 한도임을 나타내는 조사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

오답 풀이 ① ㉡의 ‘벌’과 ‘그루’는 모두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로,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③ ㉢의 ‘같이’는 모두 조사로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④ ㉣의 ‘대’와 ‘맞’은 둘 다 두 말을 이어 주거나 열거할 적에 쓰이는 말로, 앞말과 뒷말에 띄어 써야 한다.

⑤ ㉤의 ‘뿐’은 모두 조사로,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본문 184~188쪽

대단원 정리 문제

- 01 ② 02 ① 03 ㉠ [흔니불], ㉡ ‘이불’이 형식 형태소가 아닌 실질 형태소라는 04 ③ 05 ④ 06 ⑤
- 07 ㉠ 음절의 끝소리 규칙, ㉡ [썬는다] 08 ⑤ 09 선를 → 선율.
- ‘물’은 ‘ㄴ’ 받침 뒤에 오면 ‘을’로 적어야 하므로 ‘선을’로 적어야 한다. / 쌍용 → 쌍룡. 두음 법칙은 단어의 첫머리에 올 때에만 적용되므로 ‘쌍룡’으로 적어야 한다. 10 ③ 11 ④ 12 ② 13 ③ 14 ⑤
- 15 ③ 16 ③ 17 ③ 18 ⑤ 19 ③ 20 ①
- 21 ⑤ 22 오 분 뿐이다 → 오 분뿐이다. ‘뿐’은 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23 ⑤

01 음운 변동 현상에는 교체, 축약, 탈락, 첨가 등이 있는데, 교체 현상은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으로 음운 변동 후 음운의 개수가 달라지지 않는다. (나)는 비음화, (다)는 구개음화로, 둘 다 교체에 속한다. 또한 (다)는 인접한 두 음운의 조음 위치를 비슷하게 만드는데, 이는 더 편하게 발음하기 위해 일어나는 현상이다.

02 (나)는 비음화의 개념과 예, (다)는 구개음화의 개념과 예를 설명하고 있다. ‘권력’은 받침 ‘ㄴ’이 뒤에 오는 유음 ‘ㄹ’의 영향을 받아 [꺠력]으로 발음되는 유음화 현상이 일어나므로, (나)의 설명과는 관련이 없다.

03 **서술형** 우선 ‘흔니불’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흔니불]이 된다. 이어서 ‘ㄴ’ 소리가 덧나서 [흔니불]로 발음된다. 그리고 이 ‘ㄴ’이 앞말 ‘ㄷ’에 영향을 주어 비음화가 일어나므로 최종적으로 [흔니불]로 발음된다. 한편 구개음화가 일어나려면 뒷말이 모음 ‘ㅣ’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여야 하는데, ‘이불’은 실질 형태소이므로 구개음화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평가 기준	확인 ☒
‘흔니불’의 정확한 발음을 썼다.	☐
‘흔니불’이 구개음화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유를 썼다.	☐
빈칸에 들어가기에 적절한 표현으로 썼다.	☐

04 ‘갑자기’는 [갑짜기]로 발음되어 예사소리 ‘ㅈ’이 된소리 ‘ㅉ’으로 바뀌는 교체가 일어난다. ‘맏다’는 [만:타]로 발음되어 ‘ㅎ’과 ‘ㄷ’이 ‘ㅌ’으로 줄어드는 축약이 일어난다. 또한 ‘따라’는 ‘따르-’와 ‘-아’의 결합인데, ‘ㄷ’이 탈락하여 [따라]로 발음된다.

오답 풀이 • 먹을지[머글찌] - ‘-(으)ㄹ’로 시작되는 어미 ‘-을지’에서 ‘ㄹ’ 뒤에 오는 ‘ㄱ, ㄷ, ㅂ,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하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났다.
• 칼국수[칼글쑤] - 받침 ‘ㄱ, ㄷ, ㅂ’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하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났다.
• 좋은[조은] - 자음 ‘ㅎ’이 탈락되었다.
• 메워서 - ‘메우-+어서’에서 모음 ‘ㅑ’와 ‘ㅣ’가 ‘ㅑ’로 축약되었다.
• 건너서 - ‘건너-+어서’에서 중복되는 모음 ‘ㅑ’가 탈락되었다.

05 ㉠ ‘갈증(渴症)[갈쑹]’은 한자어 ‘ㄹ’ 받침 뒤에 연결된 ‘ㅈ’이 된소리로 발음되므로 (다)의 예에 해당한다. ㉡ ‘절도(節度)[절도]’ 역시 한자어 ‘ㄹ’ 받침 뒤에 연결된 ‘ㄷ’이 된소리로 발음되어 (다)에 해당한다. ㉢ ‘입술[입쑤]’은 받침 ‘ㅂ’ 뒤에 연결되는 ‘ㅅ’이 된소리로 발음된 경우로 (가)에 해당한다. ㉣ ‘더듬고[더듬꼬]’는 어간 ‘더듬-’의 받침 ‘ㄷ’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이 된소리로 발음되므로 (나)에 해당하며, ㉤ ‘껴안다[껴안따]’ 역시 어간 ‘껴안-’의 받침 ‘ㄴ’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ㄷ’이 된소리로 발음되어 (나)에 해당한다.

06 (가)의 ‘웃 한 벌’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 [온한벌]로 바뀐 후, ㄷ과 ㅎ이 만나 거센소리되기 현상이 일어나 [오탄벌]로 발음되므로, 음운 변동 이후 음운의 개수가 줄어들었다. (나)

는 ‘쓰-’와 ‘-어서’가 합쳐져 ‘ㄴ’이 탈락하였으므로 음운의 개수가 줄어들었다. 즉 (가)와 (나) 모두 음운 변동의 결과로 음운의 개수가 줄어들었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는 예사소리가 ‘ㅎ’과 만나 거센소리로 발음되는 현상인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났다. 거센소리되기는 두 음운이 하나의 음운으로 줄어드는 축약 현상이다.

② 축약 현상은 두 음운이 가지고 있던 소리의 성질이 축약된 음운에 모두 남아 있다.

③, ④ ‘쓰-+ -어서’는 ‘써서’로 발음되며 ‘쓰-’의 ‘ㄴ’이 탈락한 것이다. 이러한 모음 탈락은 발음뿐 아니라 표기에도 반영된다.

07 ‘씻는다’가 ‘쥌는다’로 발음되는 것은 ‘ㅅ, ㅆ, ㅈ, ㅊ, ㅌ, ㅎ’이 음절의 끝에 올 경우 ‘ㄷ’으로 바뀌어 발음된다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한 것이다. 한편 ‘쥌는다’에서 ‘쥌’의 끝소리 ‘ㄷ’은 연결되는 비음 ‘ㄴ’의 영향을 받아 비음화가 일어나므로, [쥌는다]로 발음된다.

08 ‘납작하게’는 한글 맞춤법 제5항의 ‘ㄱ, ㅋ’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된소리로 적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납작하게’라고 적어야 한다.

09 서술형 한글 맞춤법 제10항과 제11항에 따르면, 한자음 ‘녀, 뇨, 뉴, 니’나 한자음 ‘락, 러, 레, 료, 류, 리’가 단어의 첫머리에 오면 두음 법칙이 적용되나, 그 외에는 본음대로 적는다. 다만, ‘렬/률’의 경우 모음이거나 ‘ㄴ’ 받침 뒤에서는 ‘열/울’로 적고, ‘ㄴ’이 아닌 받침 뒤에서는 ‘렬/률’로 적는다.

평가 기준	확인 ☑
맞춤법에 어긋난 부분을 모두 찾아 바르게 고쳤다.	☐
‘선률’에 해당하는 두음 법칙의 규정을 썼다.	☐
‘쌍용’은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음을 썼다.	☐

10 ㉠ ‘공짜[공짜]’는 받침 ‘ㄴ, ㄹ, ㅁ, ㅇ’ 뒤에서 나는 된소리이다. 이는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다음 음절의 첫소리를 된소리로 적어야 한다는 한글 맞춤법 규정에 해당하므로 맞는 표기이다.

오답 풀이 ① ㉡ ‘고기집[고기집/고기집]’은 ‘고기’+‘집’으로 고유어끼리의 결합이며,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발음되므로 사이시옷을 받쳐 ‘고기집’이라 적어야 한다.

② ㉢ ‘공사중입니다’에서 ‘중’은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따라서 ‘공사 중입니다’가 바른 표현이다. 한편 ‘입니다’의 원형 ‘이다’는 서술격 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쓴 것이다.

④ ㉣ ‘떡볶기’는 동사 어간 ‘볶-’에 ‘-이’가 붙어 명사가 된 형태이므로 원형을 밝혀 ‘떡볶이’로 써야 한다.

⑤ ‘남여노소’에서 ‘녀(女)’는 음절의 첫머리에 오는 경우가 아니면 두음 법칙의 적용을 받지 않고 본음대로 적어야 하므로 ‘남녀노소’가 맞는 표현이다.

11 ‘만큼’과 ‘뿐’은 의존 명사로 쓰였기 때문에 ‘그가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를 얻기를 바랄 뿐이다.’와 같이 띄어 써야 한다.

12 ‘발’과 ‘이랑’이 결합하면 ‘발’의 ‘ㅌ’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 ‘ㄷ’이 되고, 이 ‘반이랑’은 표준 발음법 제29항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나 접미사의 첫음절이 ‘이, 야, 여, 요, 유’인 경우에는 ‘ㄴ’ 음을 첨가하여 [니, 나, 녀, 뇨, 뉴]로 발음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반니랑]이 된다. 여기서 ‘ㄷ’이 뒤에 오는 ‘ㄴ’을 만나 비음화가 일어나 최종적으로 [반니랑]으로 발음된다. 즉 ‘발이랑[반니랑]’의 발음에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ㄴ 첨가, 비음화가 일어나며 앞말 ‘발’이 모음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을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이’와 ‘몸’은 모두 순우리말이며, 결합했을 때 [인몸]으로 발음되므로 ‘ㄴ’이 덧붙는다.

③ ‘꼭지’는 순우리말, ‘점(點)’은 한자어이며, 결합했을 때 [꼭찌점] 또는 [꼭찔점]으로 발음되므로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난다.

④ ‘전세(傳貰)’와 ‘방(房)’은 둘다 한자어이므로 ‘전세방’에는 사이시옷을 쓸 수 없다.

⑤ ‘초가(草家)’와 ‘집’이 결합했을 때 [초가집]으로 발음되므로, 사이시옷을 쓰기 위한 뒷말의 첫소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13 ㉠ ‘같이’는 앞말의 받침 ‘ㅌ’이 모음 ‘ㅣ’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인 ‘-이’를 만나서 구개음인 ‘ㅈ’으로 바뀌는 구개음화만 일어나고 있다.

14 ‘커녕’은 어떤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물론 그보다 덜하거나 못한 것까지 부정하는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따라서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15 ‘밥물[밥물]’, ‘앞날[앞날]’, ‘강릉[강릉]’, ‘부엌문[부엌문]’ 모두 비음화가 일어나는 단어이다.

오답 풀이 ① ‘덜개[덜개]’에서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된소리되기가 일어나고, ‘학교[학교]’에서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난다. 비음화가 일어나는 단어는 ‘국민[국민]’과 ‘종로[종로]’이다.

② ‘국밥[국밥]’과 ‘갈등[갈등]’에서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나고, ‘축하[축하]’에서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난다. 비음화가 일어나는 단어는 ‘남루[남루]’이다.

④ ‘신라[신라]’, ‘난로[난로]’, ‘칼날[칼날]’에서는 유음화가 일어난다. 비음화가 일어나는 단어는 ‘달는다[달는다]’이다.

⑤ ‘말형[말형]’에서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고, ‘달히다[달히다]’에서는 거센소리되기와 구개음화가 일어난다. 비음화가 일어나는 단어는 ‘강릉[강릉]’, ‘백마강[백마강]’이다.

16 구개음화는 앞말의 끝소리 ‘ㄷ, ㅌ’이 모음 ‘ㅣ’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를 만나 구개음인 ‘ㅈ, ㅊ’으로 교체되어 발음되는 현상이다.

17 ㉠은 ‘만나다’의 어간 ‘만나-’에 관형사형 ‘-(으)ㄴ’이 결합되고, 그 뒤에 ‘사람’이 연결된 것이다. 관형사형 ‘-(으)ㄴ’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하므로, [만날싸람]으로 발음한다.

오답 풀이 ①, ②, ④ ㉡은 [신고]로 발음되므로, 된소리되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⑤ ㉔은 한자어이고, ‘ㄹ’ 받침 뒤에 ‘ㄷ’이 연결되므로 이를 된소리로 발음하여 [갈똥]으로 발음한다.

18 ‘법학[버팍]’은 ‘ㅂ’과 ‘ㅎ’이 만나 ‘ㅍ’으로 축약되었다. ‘따라[따라]’는 ‘따르다’의 어간 ‘따르-’에 어미 ‘-아’가 결합하면서 모음 ‘ㅡ’가 탈락하였다. ‘법학’의 음운 축약 현상은 표기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따라’의 음운 탈락 현상은 표기에 반영되었다.

19 ㉔은 용언 ‘길다’의 어간 ‘길-’에 접미사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된 것이다. 따라서 제20항이 아니라 제19항에 따라 ‘길이’로 고쳐 써야 한다. ‘길이’는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이라는 뜻을 지닌 부사이다.

20 ‘ㄱ, ㅂ’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않으므로, ‘씩둑’이라고 써야 한다. 또한 한자음 ‘렬/률’은 ‘ㄴ’이 아닌 받침 뒤에 오면 ‘렬/률’로 적으므로, ‘성공률’이 알맞은 표기이다.

오답 풀이 ㄷ. ‘법석[법석]’에서는 뒷말의 첫소리인 예사소리 ‘ㅅ’이 앞말의 받침 ‘ㅂ’ 때문에 된소리되기가 일어났으므로, 된소리를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ㄹ. ‘씩씩씩씩[씩씩씩씩]’에서는 한 단어 안에서 ‘씩’, ‘씩’의 비슷한 음절이 반복되므로, 이 부분은 같은 글자로 적는다.

21 ‘수돗물[수돈물]’은 한자어 ‘수도(水道)’와 고유어 ‘물’이 결합한 단어이다.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의 첫소리 ‘ㄹ’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 [수돈물]로 발음되므로, 사이시옷을 적어야 한다.

오답 풀이 ① ‘갈빗살[갈빔살/갈비살]’은 ‘갈비’와 ‘살’이 합쳐져 만들어진 고유어이다.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므로 사이시옷을 붙여 적어야 한다.
② ‘빔물[빔물]’은 ‘빔’과 ‘물’이 합쳐져 만들어진 고유어이다. 뒷말의 첫소리 ‘ㄹ’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므로 사이시옷을 붙여 적어야 한다.
③ ‘대가(代價)’는 한자어와 한자어가 합쳐져 만들어진 단어이므로 사이시옷을 붙여 적지 않는다. 예외가 되는 한자어는 ‘곳간(庫間), 차간(車間), 퇴간(退間), 셋방(貰房), 숫자(數字), 횡수(回數)’뿐이다.
④ ‘나뭇잎[나문닙]’은 ‘나무’와 ‘잎’이 합쳐져 만들어진 고유어이다.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므로 사이시옷을 붙여 적어야 한다.

22 **서술형** 한글 맞춤법 제41항에 따르면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 제시된 문장의 ‘뿐’은 조사이므로 ‘오 뿐뿐이다’와 같이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평가 기준	확인 ☒
‘오 뿐뿐이다’를 ‘오 뿐뿐이다’로 고쳐 썼다.	☐
조사 ‘뿐’은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는 내용을 썼다.	☐

23 한자음 ‘년(年)’이 단어의 첫머리에 올 경우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연도(年度)’로 적는다.

5. 책 속의 지혜, 말 속의 길

(1) 고릴라를 못 본 이유

교과서 꼼꼼 이해하기

① 193쪽

01 ② 02 ④ 03 ④ 04 ④ 05 우리는 자연스럽게 시각의 능력을 높이 신뢰하게 된다.

② 195쪽

06 ② 07 물체를 보면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08 ③ 09 ②

③ 197쪽

10 ⑤ 11 ⑤ 12 ③ 13 ⑤

01 중요한 정보에 밑줄을 그으며 읽는 방법은 ‘읽기 중’ 과정의 활동으로 적합하다.

02 첫 문단에서 ‘그런데 과연 눈으로 보는 정보들은 다 믿을 수 있는 것일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정말 ‘눈에 보이는 대로’만 존재하는 것일까?’라고 질문함으로써 독자들을 글에 집중하게 하면서 앞으로 이어질 화제를 제시하고 있다.

03 「우리 가운데에 있는 고릴라」 실험에서 고릴라 의상을 입은 학생을 등장시킨 것은 공의 패스에 집중하고 있는 실험 참가자들이, 집중하던 대상이 아닌 고릴라를 인지하는지 알아보고자 한 것이지 그들을 속이기 위한 것이 아니다.

오답 풀이 ① ‘가운데 1’의 ㉔을 보면, 실험 참가자들에게 알려 주지 않은 실험의 목적이 따로 있었음을 알 수 있다.
② ‘가운데 1’의 ㉔을 보면, 실험자들은 농구공 패스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은 후 이를 실험 참가자들에게 보여 주었음을 알 수 있다.
③ ‘가운데 1’의 ㉔에서 ‘나머지 절반은 고릴라를 알아보고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는 부분을 보면 알 수 있다.
⑤ ‘가운데 1’의 ㉔을 보면, 일부 실험 참가자는 실험자가 자신을 놀리려고 다른 동영상을 보여 준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하기도 하였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04 글쓴이는 글의 ‘처음’에서 ‘그런데 과연 눈으로 보는 정보들은 다 믿을 수 있는 것일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정말 ‘눈에 보이는 대로’만 존재하는 것일까?’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그렇지 않다.’는 답을 「우리 가운데에 있는 고릴라」 실험의 결과를 통해서 보여 주고 있다.

05 ‘처음’의 내용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들의 시각의 능력을 높이 신뢰한다고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잘못 보았으리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자신이 본 동영상에서는 고릴라가 등장하지 않았다고 하거나 실험자가 자신을 놀리려고 다른 동영상을 보여 준 것이라고 하며 도리어 실험자들을 의심하는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06 다른 친구들은 이 글을 어떻게 읽었는지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글을 ‘읽은 후’의 과정에서 하기에 적절한 활동이다.

07 ‘가운데 1’의 ㉠에서 ‘무주의 맹시’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무주의 맹시’는 시각이 손상되어 물체를 보지 못하는 것과는 달리, 물체를 보면서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였다.

08 시각 피질은 물체의 기본적인 이미지인 선과 경계, 모서리를 구분하는 V1과 V2, 형태를 구성하는 V3, 색을 담당하는 V4, 운동을 감지하는 V5 등의 영역이 조합되어 사물을 인지한다. 따라서 V4 영역에 이상이 있으면 색을 감지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09 ㉠에 이어지는 내용에 따르면 ‘㉠ 고릴라’는 평소에도 존재했으나 주의 깊게 보지 않아서 인식하지 못했던 대상을 비유하는 말임을 알 수 있다.

10 과학적 정보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글을 읽을 때는 글쓴이가 제시한 정보를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 ‘자신의 생각과 글쓴이의 주장을 비교하며 읽는 것’은 글쓴이의 주장이 드러나는 글을 능동적, 비판적으로 읽을 때 어울리는 읽기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②, ③, ④ 글을 읽으면서 모르는 단어나 정보에 대해 찾아보며 읽기, 정보가 정확한지 판단하며 읽기, 중요한 정보에 밑줄을 긋거나 적어 두며 읽기, 스스로 묻고 답하며 읽기 등은 모두 과학적 정보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글을 읽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11 ‘가운데 2’의 ㉠에 따르면, 뇌는 부분적인 정보만으로도 전체를 파악할 수 있고 시각 정보의 심층적 의미까지도 파악할 수 있지만, 이것은 그 정보에 집중했을 경우에 가능하다.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시각 정보는 너무 많고 뇌가 이 모든 정보를 처리할 수는 없기 때문에, 뇌는 우리가 집중하지 않은 정보를 자연스럽게 흘려보내게 된다.

오답 풀이 ① ‘가운데 2’의 ㉠에서 우리의 뇌는 색의 이미지와 의미까지 읽어 낼 수 있다고 하였다.

② ‘가운데 2’의 ㉠에 따르면 감각 기관으로 들어오는 정보를 편식하는 것은 다른 감각도 마찬가지로 알 수 있다.

③ ‘가운데 2’의 ㉠에서 ‘세상은 워낙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눈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정보를 뇌가 빠짐없이 처리하기는 어렵다.’라는 부분을 보면 뇌가 정보를 받아들이는 데에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가운데 2’의 ㉠에서 ‘쥐의 꼬리만 봐도 벽 뒤에 숨은 쥐 전체의 모습을 그릴 수 있’다는 예에서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다.

12 ‘가운데 2’의 ㉠의 사례를 참고하면, 판전을 피우는 청중을 대상으로 발표할 때는 사람들이 귀를 기울일 만한 재미있는 말로 발표를 시작해야 효과적으로 청중을 집중시킬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운데 2’의 ㉠에 따르면 감각 기관으로 들어오는 정보를 고스란히 받아들이지 않고 제 입맛에 맞는 부분만 편식하는 것은 뇌의 보편적인 특성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각 정보를 선택적

으로 수용할 것이므로 절반이나 되는 사람이 모든 시각 정보를 처리할 수 있으리라는 추측은 적절하지 않다.

② ‘가운데 2’의 ㉠에서는 십 대 아이가 엄마의 잔소리를 흘려듣는 것은 일부러 한 행동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결과일 수 있다고 하였다.

④ 수업 내용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은 뇌의 한계 때문일 수 있으나, ‘가운데 2’의 ㉠에 따르면 우리의 뇌는 선택과 집중을 한다고 하였으므로, 집중만 한다면 수업 내용을 잘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⑤ 실현한 날 행복한 연인들이 자주 보이는 것은 우리의 뇌가 실연에 관한 정보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과 대비되는 행복한 연인들을 계속 인지한 결과라 할 수 있다.

13 ㉠은 ‘우리의 뇌는 집중한 정보만 처리하므로 우리가 보지 못한 것도 많음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의미이다. 즉, 자신의 의견이 옳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다른 사람의 의견에 포용적인 태도를 보일 것을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

소단원 평가 문제

본문 198~201쪽

01 ④ **02** ④ **03** ④ **04** ① **05** ⑤ **06** 유추(유비 추리), ㉠—시각 피질의 모든 영역이 각자의 역할에 맞게 일시에 조율되어야 세상을 볼 수 있음
07 ③ **08** ④ **09** ‘고릴라’는 ‘보고도 인지하지 못하는 대상’의 비유적 표현으로, ㉠은 ‘무주의 맹시’가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10** ④ **11** ④
12 자신이 잘못 보거나 보지 못한 것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상대방의 주장과 의견에 포용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

01 (가)를 통해 사람들은 오감 중에서 시각으로 습득하는 정보가 가장 많기 때문에 자연스레 시각의 능력을 높이 신뢰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02 첫 번째 메모는 제목의 의미를 추론해 보는 활동이고(㉠), 두 번째 메모는 글을 훑어보며 본문의 내용을 예측해 보는 활동이다(㉢). 세 번째 메모는 글의 내용과 관련된 서적이거나 인터넷을 활용하며 책을 읽는 활동이며(㉤), 네 번째 메모는 스스로 질문하고 답하며 읽는 활동이다(㉡).

03 ㉠, ㉡, ㉢, ㉤은 모두 항상 존재했지만 평소에는 주의 깊게 보지 않아서 인식하지 못했던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들은 갑자기 새롭게 나타난 것인 ㉡과는 반대의 대상이다.

04 설명하는 글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글의 구조도를 그려 가며 중요 내용을 요약하거나 과학적 정보를 쉽게 전달하기 위해 글쓴이가 어떠한 표현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읽기 방법이 적절하다. 이를 통해 설명문의 구조나 설명문에 사용되는 설명 방식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된다.

05 뇌는 자신의 입맛에 맞는 부분만 편식하듯이 자신이 집중을 기울인 대상에 대한 정보만 처리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뇌가 주로 어떤 구체적인 대상들에 관심을 기울이는지는 이 글에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다)를 보면 아이들이 잔소리를 흘려듣는 것은 무의식적으로 집중하지 않는 정보를 흘려버리는 뇌의 정보 처리 방식 때문이라고 하였다.

② (가)에서 시각 피질의 V1~V5 영역의 각 영역별 역할을 알 수 있다.

③ (가)에서 시각 피질에서 30여 개의 영역들이 조합되어 종합적으로 시각 정보를 처리하고 사물을 인지한다고 하였다.

④ (라)에서 편전을 피우는 아이는 일단 관심을 보일 만한 달콤한 말로 시작해서 집중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06 서술형 (나)에서 시각 피질을 구성하고 있는 약 30개의 영역들이 조합되어야 비로소 사람이 사물을 보이는 그대로 인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케스트라에서 여러 악기가 동시에 정확하게 연주되어야 음악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에 빗대어 설명하고 있다. 이렇듯 두 개의 사물이 여러 면에서 비슷하다는 것을 근거로 다른 속성도 유사할 것이라고 추론하는 일을 ‘유비추리’ 또는 ‘유추’라고 한다.

평가 기준	확인 ☒
(나)에 사용된 설명 방식이 무엇인지 썼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알맞게 썼다.	☐

07 이 글은 우리 뇌의 정보 처리 방식을 알려 주는 한 심리학 실험을 소개하고 그와 관련된 과학적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 설명문으로, 문제 상황과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한 내용은 찾을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라)에서 ‘무주의 맹시’와 관련된 사례를 들어 어려운 과학적 개념을 쉽게 풀이하고 있다.

② (라)의 ‘두 눈을 멀쩡히 뜨고 있는데 보지 못한다고? 정말 황당한 소리이다.’에서 글쓴이는 독자의 반응을 예측하고 그에 공감하면서 독자와 호응하고 있다.

④ (나)에서 신경 과학 분야의 국제 학술지에 실린 논문을 근거로 제시하여 글쓴이의 견해를 뒷받침하고 있다.

⑤ (가)에서 ‘그런데 과연 눈으로 …… 대로’만 존재하는 것일까?’에서 시각 정보에 관한 보편적 생각에 의문을 던지면서 독자의 주의를 환기하고 이 글에서 다룰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08 (가)에서 사람이 습득하는 정보의 80퍼센트는 오감 중 오로지 시각에 의존한 정보들이라고 하였으므로, ‘사람의 오감 중에서 가장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는 감각’은 더 알고 싶은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 ①은 (나)에서, ②는 (다)에서, ③은 (라)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다. ⑤는 (라)와 관련하여 더 알고 싶은 내용으로 적절하다.

09 서술형 ‘고릴라’는 우리가 보았는데도 인지하지 못한 대상을 비유한 것으로, ㉠은 ‘무주의 맹시’라는 현상이 특별한 경우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뜻이다.

평가 기준	확인 ☒
‘고릴라’가 비유하는 것이 무엇인지 썼다.	☐
㉠이 의미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썼다.	☐

10 (다)에서 뇌가 눈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정보를 빠짐없이 처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뇌가 선택과 집중, 적당한 무시, 엄청난 융통성과 같은 전략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 우리의 신체는 눈만이 빛을 인식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진화해 왔다고 하였다.

② (가)에서 빛이 눈동자를 지나 눈알 안쪽으로 들어오고, 망막의 시각 세포에 의해 빛이 전기적 신호로 변환된다고 하였다.

③, ⑤ (나)에 따르면 시각 피질은 단일한 부위가 아니라 약 30개의 영역으로 구성된 복합적인 영역이다. V1, V2 영역은 선과 경계, 모서리를 구분하고, V3 영역은 형태 구성, V4 영역은 색을 담당하고, V5 영역은 운동을 감지한다고 하였다.

11 글 제목의 의미를 추론하거나 글을 전체적으로 훑어보고 내용을 예측해 보는 읽기 방법은 ‘읽기 전’ 과정의 활동으로 적절하다. ‘읽기 후’에는 글의 중심 내용을 정리하기, 읽기 전에 예측했던 생각과 글의 내용 비교하기, 친구들과 글의 내용에 관한 의견 나누기 등의 활동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

【참고 자료】 다양한 읽기 방법

- 글을 훑어보며 내용 예측하기
- 모르는 단어의 뜻 찾아보기
- 비유적 표현의 의미 추측하기
- 중요한 정보 밑줄 긋고 적어 두기
- 글쓴이의 생각 파악하기
- 자신의 생각과 글의 내용 비교하기
- 글의 구조도 그리면서 내용 요약하기
- 정보의 정확성, 타당성, 적절성 판단하기

12 서술형 글쓴이는 우리의 뇌가 정보를 처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볼 수 없는 만큼 자신이 본 것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하였다. 즉, 자신의 눈으로 본 것만 옳은 것이라는 절대적 관점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평가 기준	확인 ☒
사람마다 다른 시각으로 현실을 바라보므로, 자신의 눈으로 본 것만이 옳다는 절대적 관점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내용을 썼다.	☐
한 문장으로 썼다.	☐

소단원 심화 문제

본문 202~203쪽

01 ⑤ 02 ③ 03 ③ 04 눈으로 보는 정보들을 다 믿을 수 있는지 밝히고자 하였다. 05 ② 06 ③ 07 ③

01 본문에 나온 쥐의 예는, 우리의 뇌가 집중했을 때 쥐의 꼬리만 보고도 벽 뒤에 숨은 쥐 전체의 모습을 그려 낼 수 있다는 뇌의 능력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이때 뇌는 벽에 가려진 꼬리만 보고도 쥐 자체에 집중한 것으로, 꼬리만 선택하고 몸통은 무시한 것이 아니다.

- 오답 풀이** ① (가)에서 시각이 다섯 가지의 감각 중 가장 많은 역할을 한다는 점이 나타난다.
 ② (라)의 '우리의 신체는 눈만이 빛을 인식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진화해 왔다.'라는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라)에 따르면 빛을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여 시각 피질로 보내는 것은 망막의 시각 세포이다.
 ④ (마)에 따르면 '뇌의 많은 영역이 오로지 시각이라는 감각 하나에 배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02 이 글은 '무주의 맹시'라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우리 가운데에 있는 고릴라」 실험을 소개하고 있으며(ㄷ), '무주의 맹시'가 일어나는, 독자들도 흔히 경험할 수 있는 일상 속 상황을 예로 들어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ㄴ).

03 '나'는 평소 A 빵집만 다녔기에 다른 빵집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B 빵집의 존재를 몰랐다. 그러나 B 빵집은 항상 존재했던 것으로 이제야 '나'의 필요에 의해 인지된 대상이다.

- 오답 풀이** ① A 빵집은 평소에 '나'가 즐겨 다니던 곳이므로, A 빵집이 평소에도 존재하였고 '나'가 인지하고 있는 곳임을 알 수 있다.
 ② B 빵집은 늘 존재하였지만 평소에는 주의 깊게 보지 않아서 인식하지 못했던 존재이므로 (나)의 실험 참가자들이 다른 것에 집중하느라 알아채지 못한 '고릴라'와 같은 대상이다.
 ④, ⑤ '무주의 맹시'가 청각에 일어난 경우이다. 친구가 큰 소리로 불렀기 때문에 '나'에게 그 친구의 소리가 들리기는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빵에 집중하느라 다른 감각에 집중하지 못해서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것이므로 '무주의 맹시'의 경우에 해당한다.

04 서술형 실험자들은 「우리 가운데에 있는 고릴라」 실험을 통해서 물체를 보면서 인지하지 못하는 '무주의 맹시'라는 개념을 증명하였다. 즉, (가)에서 제기한 의문인 '눈으로 보는 정보들은 다 믿을 수 있는 것일까?'에 대한 답을 밝히기 위한 실험이었던 것이다.

평가 기준	확인 ☒
눈으로 보는 정보들을 다 믿을 수 있는 것인지 밝히고자 하였음을 썼다.	☐
완성된 한 문장으로 썼다.	☐

05 ㉠의 태도와 가장 유사한 것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뜻으로, 자신의 비위에 따라서 사리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을 이르는 말'이라는 의미를 가진 '감탄고토(甘呑苦吐)'이다.

- 오답 풀이** ① 지록위마(指鹿爲馬) - 위사람을 농락하여 권세를 마음대로 함을 이르는 말
 ③ 암중모색(暗中摸索) - 물건 따위를 어둠 속에서 더듬어 찾음

- ④ 건물생심(見物生心) - 어떠한 실물을 보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싶은 욕심이 생김
 ⑤ 오매불망(寤寐不忘) - 자나깨나 잊지 못함

06 ㉠의 앞 문장인 '있어도 보지 못하거나 잘못 보는 경우도 많다.'와 ㉡이 '그러므로'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와 일맥상통하는 의미를 지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볼 수 없다.'라는 문장이 ㉢에 들어가기에 적합하다.

07 〈보기〉는 동피랑 마을을 다녀온 작가의 기행문이다. 정보를 수집하려는 목적으로 읽을 때에는 자신이 필요한 정보를 중심으로 읽은 내용을 정리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을 글 안에서 확인하거나 다른 매체를 통해 찾아보는 활동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보기〉의 제재 개관

갈래	기행문
성격	묘사적, 사색적
제재	통영 동피랑 마을
주제	통영 동피랑 마을의 아름다움
특징	한 마을의 역사로부터 얻은 삶의 교훈을 제시함

(2) 조선의 열, 광화문

교과서 꼼꼼히 이해하기

01 ④	02 ②	03 ③	04 조선 총독부는 일제의 조선 지배를 상징하는 건물인데, 광화문이 그 건물을 가리고 있으면 그러한 상징성이 두드러지지 않기 때문이다.
① 207쪽	05 ④	06 ⑤	07 광화문
② 209쪽	09 ②	10 ㉠ 국립 중앙 박물관, ㉡ 경복궁 재건, ㉢ 2006년	08 ⑤
③ 211쪽			

01 '가운데-②'에서 인용된 기사에 일제가 경복궁의 전각을 팔아 넘겼다는 사실은 나타나지만, 그 전각의 종류가 무엇인지는 나타나지 않았다.

- 오답 풀이** ① '처음-①'에 따르면, 광화문의 본래 이름은 '오문'이었다.
 ② '처음-①'에 따르면, 광화문이 결문 형식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 드러난다.
 ③ '처음-②'에 따르면, 경복궁의 주요 건물들이 '광화문-근정전-사정전-강녕전-교태전'의 순서로 배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⑤ '가운데-①'에 따르면, 일본이 조선을 병탄한 지 6년째 되던 해에 조선 총독부의 새 청사가 지어지기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02 광화문은 1395년 조선 태조 때 만들어진 문이다. 세종 때

에 집현전 학사들이 ‘오문’으로 불리던 광화문을 현재의 이름으로 바꾸었다.

03 ‘처음-㉔’의 내용에 따르면, 일제는 조선 민족의 정통성과 정기를 훼손하여 조선 백성을 일왕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 조선 총독부를 근정전 앞에 지었음을 알 수 있다.

04 서술형 조선 총독부를 경복궁 근정전 앞에 세운 이유는 조선을 일제가 지배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조선 왕조의 건축물인 광화문이 조선 총독부 건물을 가리고 있으면 이러한 상징성이 약해지기 때문에 광화문을 눈엣가시로 여겼던 것이다.

평가 기준	확인 ☑
광화문이 조선 총독부 건물을 가리는 것의 의미를 썼다.	☐
조선 총독부 건물이 상징하는 바를 썼다.	☐

05 <보기>의 사건이 일어난 순서는 1921년 5월 『동아일보』가 일제의 광화문 철거 계획을 폭로한 것(ㄷ), 1925년 10월 26일 『조선일보』가 「나는 가나이다」를 게재한 것(ㄴ), 1926년 7월 22일 광화문 철거 작업이 시작된 것(ㄱ)으로 이어진다. 한편 ‘가운데-㉑’을 보면 『동아일보』가 「헐려 짓는 광화문」을 게재한 것은 기사 「광화문 해체, 수일 전에 착수」를 내보내기 ‘며칠 앞서’임을 알 수 있으므로, 두 사건의 순서는 ㄴ → ㄱ이 되어야 한다.

06 문화부 기자인 설익식이 지은 「헐려 짓는 광화문」은 1926년 『동아일보』에 실린 고별사로, 광화문 철거에 대한 우리 민족의 슬픔과 분노의 감정을 표출한 글이지, 조선 총독부 건물의 철거를 주장한 글이 아니다.

07 ‘가운데-㉑’의 내용을 보면, 「나는 가나이다」가 ‘광화문 철거를 눈앞에 둔 조선 백성의 암담하고도 하소연할 데 없는 슬픈 심경을 광화문 스스로의 입을 빌려 이야기하는 형식의 글’임이 드러난다. 따라서 이 글의 ‘나’는 ‘광화문’을 가리킨다.

08 ‘가운데-㉑’의 내용을 보면,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자리를 옮기는 것이라 해도 본래의 자리를 뜨는 순간 그 존재 가치는 빛이 바랜다고 표현되어 있으므로, 광화문이 원래의 위상과 문화적 상징성을 온전히 지키게 되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09 ‘끝-㉒’에서 글쓴이는 광화문이 단순히 문으로만 기능하는 건물이 아니며, 그 자체로 우리의 역사이자 혼이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글쓴이의 생각에 가장 가까운 것은 ㉔이다.

10 ‘끝-㉑’의 내용에 따르면, 정부 청사로 사용하던 조선 총독부 건물을 1986년에 보수하여 국립 중앙 박물관으로 개관하였고, 1995년에는 경복궁의 재건 사업이 시작되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2006년에 비로소 광화문을 원래의 자리로 복원하는 작업이 시작되었다고 하였다.

소단원 평가 문제



본문 212~215쪽

- 01** ㉔ **02** 조선 민족의 정통성과 정기를 훼손하여 조선 백성을 일왕의 백성으로 만들려 하였다. **03** ㉔ **04** ㉔ **05** ㉑
06 ㉔ **07** 비유법, 광화문의 이전이 민족혼과 민족 문화를 말살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음을 고별사를 통해 폭로함으로써 일제에 저항하였다는 의미이다. **08** ㉔ **09** 조선 왕조의 위엄을 무너뜨리고, 일제가 조선을 지배하고 있음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다. **10** ㉔ **11** ㉔
12 우리의 민족혼, 민족 문화가 말살되는 데 대한 분노와 울분을 나타내고 있다. **13** ㉔

01 이 글은 (나)에서 당대에 발간되었던 신문 기사를 인용하여 광화문을 둘러싼 역사적 사실을 생생하게 설명하고 있다.

02 서술형 일본은 조선의 신을 모시던 남산의 국사당을 없애고 일본의 건국 시조를 신으로 받드는 신사를 건립하였으며, 조선 총독부를 근정전 앞에 세우고 광화문을 비틀어 일본의 신을 모시는 남산을 바라보게 하였다. 이는 (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선 민족의 정통성과 정기를 훼손하여 조선 백성을 일왕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함이었다.

평가 기준	확인 ☑
일본이 조선 총독부를 근정전 앞에 세우고 국사당이 있던 곳에 일본의 신사를 세운 공통적인 이유를 썼다.	☐
(가)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문장으로 썼다.	☐

03 조선 총독부 청사는 일제의 조선 지배를 상징하는 건물인데 광화문이 그 건물을 가리고 있으면 그 상징성이 두드러지지 않는다. 따라서 일제는 조선 총독부 건물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광화문을 없애려 하였을 것이다.

04 (나)의 마지막 문장에서 광화문은 철거된 뒤 경복궁의 동쪽 문인 건춘문의 옆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오답 풀이** ① 이 글의 (가)에 몇몇 일본인 학자들도 광화문을 철거하려는 조선 총독부의 처사가 부당하다고 지적하였다는 점이 드러난다.
 ③ (나), (다)에서 광화문 철거에 대한 조선 백성들의 슬픔과 분노를 담은 「나는 가나이다」, 「헐려 짓는 광화문」의 고별사가 『조선일보』나 『동아일보』와 같은 신문에 게재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④ (가)의 마지막 문장에서 광화문 앞의 해태 석상은 1923년 철거되었음을, (나)에서 광화문은 1926년에 철거가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⑤ (가)에 1921년 5월 『동아일보』가 일제의 광화문 철거 계획을 처음으로 폭로하였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05 국내 신문들이 조선 총독부의 광화문 철거 계획 및 그 과정을 보도하여 광화문 철거를 반대하는 국내 여론이 거세지자, 결국 일제는 광화문을 철거하는 대신 이전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당시에 광화문 철거 반대 여론을 형성하는 사회적 의사소통이 일어났음에도 해태 석상의 철거는 막지 못하였다. 그러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하여 이를 읽기를 통한 사회적 상호 작용의 부작용으로 볼 수는 없다.

오답 풀이 ② 읽기를 통한 사회적 상호 작용으로 형성된 광화문 철거 반대 여론 때문에 일제의 광화문 철거 계획이 취소되었으므로, 그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지식인들이 광화문 철거라는 사회적 문제를 언론을 통해 보도하고, 민중들은 그 기사를 읽고 공유하여 여론을 형성함으로써 이들 간에 사회적 상호 작용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④ 『동아일보』는 일제의 광화문 철거 계획을 최초로 폭로하였는데, 이는 사회 문제를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과 공유하여 여론을 형성하려는 사회적 상호 작용의 시도라 할 수 있다.

⑤ 고별사의 글쓴이들은 자신들의 글이 조선 백성의 슬픔과 분노를 반영하고 표현하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자신들의 글을 통해 여론을 형성하고 일제에 저항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었을 것이다.

06 ‘석공’과 ‘역군’은 광화문의 가슴을 망치로 두드리고, 연장으로 광화문의 허리를 들추는 존재이다. 또한 이를 지켜보는 조선 백성들의 마음이 괴롭다고 표현되었다. 따라서 이들은 광화문을 만든 사람이 아닌, 광화문을 철거하는 인부들을 나타낸다.

오답 풀이 ① ‘뚝뚝’, ‘우지끈’이라는 의성어를 사용하고 있다.

② 광화문을 ‘그’, ‘너’라고 칭하며 인격체처럼 대하고 있다.

③ 철거를 당하면서도 아무런 감정도 고통도 느끼지 못하는 광화문과는 달리, 조선 백성들은 광화문의 철거를 두고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한다는 점을 대조하고 있다.

⑤ ‘울어도 보고 설워도 할’, ‘가슴 아파하며’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광화문 철거를 보는 조선 백성들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07 서술형 ‘붓으로써’라는 말은 ‘글로써’라는 의미로, 글을 쓰는 행위를 저항의 수단으로 삼았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즉, ㉠은 설의식이 일제가 광화문을 옮기고자 한 것이 민족혼을 말살하려는 의도임을 고별사를 통해 폭로하여, 민족적 관심을 고취하고, 일제에 대한 저항의 마음을 표현하고자 하였다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에 비유법이 사용되었음을 썼다.	☐
고별사를 씀으로써 일제에 저항하였다는 ㉠의 의미를 썼다.	☐

08 이 글은 광화문이 겪어 온 수난의 역사와 광화문을 지켜 내 고자 애썼던 여러 언론의 노력을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글에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던 광화문의 재건에 대한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 광화문은 석축을 높게 쌓고 중앙에 홍예문을 터서 문루를 얹은 궐문의 형식을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가)에서 세종 때, 집현전 학사들이 나라의 위엄과 문화를 널리 만방에 보여 준다는 뜻으로 ‘광화문’이라는 이름을 새로이 붙인 것을 알 수 있다.

③ (나)에서 일제가 조선 민족의 정통성과 정기를 훼손하여 조선 백성을 일왕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 남산에 있던 단군을 비롯한 여러 신을 모신 국사당을 없애고 그 자리에 일본의 건국 시조를 신으로 받드는 신사를 건립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⑤ (나)에서 경복궁은 원래 광화문-근정전-사정전-강녕전-교태전이 남북으로 일직선상에 놓여 관악산을 바라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09 서술형 경복궁은 조선 왕조 제일의 법궁으로 국가의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공간이다. 여기에 조선 총독부의 새 청사를 세운다는 것은 조선 왕조의 상징인 궁궐을 훼손하여 조선 왕조의 위엄을 무너뜨리고 조선 백성을 일왕의 백성으로 만들고자 함이었다.

평가 기준	확인 ☑
조선 왕조의 위엄을 무너뜨리기 위함이라는 내용을 썼다.	☐
일제가 조선을 지배하고 있음을 과시하기 위함이라는 내용을 썼다.	☐

10 여러 신문사가 일제의 광화문 철거 계획을 보도하자 이를 접한 국내외 지식인과 조선 민중들 사이에 사회적 의사소통이 일어났고, 광화문 철거를 반대하는 여론이 거세졌다. 그리고 사회적 의사소통으로 형성된 여론의 영향으로 일제는 광화문을 철거한다는 계획을 접고 광화문을 이전하기로 하였다.

11 설의식이 집필한 「혈려 짓는 광화문」은 문장의 호흡이 긴 편이므로 짧고 간결한 문체를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 글은 반복법, 열거법을 사용해서 암울했던 당시의 시대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오답 풀이 나. ‘팔도강산의 석재와 목재와 인재의 정수를 뽑아 지은 광화문야!에서 조선의 재료로 조선 백성이 힘을 모아 지었기 때문에 광화문은 조선 그 자체의 상징물임을 알 수 있다.

다. ‘너의 천명과 너의 천직은 이미 없어진 지 오래였거니와, 너의 생명과 너의 일생은 지금 혈리는 순간에, 옮기는 찰나에 마지막으로 없어지려고 하는구나!’라는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라. ‘석공의 망치가 네 가슴을 두드릴 때에도’에서 광화문을 ‘너’라고 지칭하며 의인화하고, 광화문의 신체가 훼손되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

[참고 자료] 표현 방식

반복법	단어나 구절, 문장 구조를 되풀이하여 표현하는 방법
열거법	단어나 어구를 나열하여 표현하는 방법

12 서술형 조선을 나타내는 상징물인 광화문이 일제에 의해 강제로 철거되고 이전되는 상황에서, 설의식은 민족혼과 민족 문화가 말살되는 것에 분노와 울분을 느꼈다. 그리고 이러한 분노와 울분을 「혈려 짓는 광화문」이라는 고별사를 통해 표현하며, 일제에 저항하였다.

평가 기준	확인 ☑
민족혼과 민족 문화가 말살되는 것에 대한 분노와 울분을 나타내고 있다는 내용을 썼다.	☐
한 문장으로 썼다.	☐

13 의식이 없고 말을 못하는 사물이라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광화문과, 광화문을 위하여 서러워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대조하여 안타까움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 01 ③ 02 ⑤ 03 조선의 역사와 민족을 상징하는 광화문의 복원은 조선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이자 우리 민족의 정기를 지켜 나가는 것이다. 04 ③ 05 ⑤ 06 ⑤

01 이 글은 광화문이 겪어 온 수난의 역사와 복원 과정을 밝히며 광화문을 바로 세우는 것이 우리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임을 말하고 있다.

02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글을 읽고 자신이 처한 상황과 역사적 배경을 고려하여 자신의 관점을 형성하고, 이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사회적 상호 작용을 할 수 있다. 오히려 현대 사회에 이르러 인쇄 매체 이외에도 다양한 매체가 발달하면서 더 많은 사회 구성원들과, 시간과 장소의 구애 없이 글을 읽고 의견을 공유하며 상호 작용할 수 있게 되었다.

오답 풀이 ① 일제의 광화문 철거 기사를 읽은 사람들은 일제의 강압적인 통치를 받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일제의 광화문 철거 계획에 저항하려는 관점을 형성하였을 것이다.

② 읽기를 통한 사회적 상호 작용은 읽는 시점에 따라 독자가 처한 상황이 다를 수 있어 그 반응도 다를 수 있지만, 읽기를 통한 사회적 상호 작용 자체가 시간의 제약을 받는 것은 아니다.

③ 고별사를 신문에 게재하여 널리 알리는 것은 광화문 철거에 대한 글쓴이의 관점을 같은 사회의 구성원과 공유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④ 광화문 철거 반대 운동이 일제의 광화문 철거 계획이 취소될 정도로 거세게 일어났다는 것은, 기사의 독자가 같은 사회의 구성원들과 자신의 의견을 활발하게 공유하여 강력한 여론을 형성했기 때문임을 짐작할 수 있다.

03 **서술형** (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광화문을 철거하는 것이 조선 민족의 정통성과 정기를 훼손하는 것이라면, 광화문을 세우는 것은 조선 민족의 정통성과 정기를 세우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점은 (마)의 ‘광화문을 새로이, 바로 세운다는 것은 21세기에도 여전히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는 역사적인 사업임이 틀림 없습니다.’라는 부분에도 드러난다.

평가 기준	확인 ☒
광화문의 상징적 의미를 썼다.	☐
광화문을 복원하는 일이 조선의 역사와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는 일임을 썼다.	☐

04 (다)는 설의식이 쓴 「혈려 짓는 광화문」의 일부이다. ‘우지 곤하는 소리를 듣는 사람이 허리 저려 할 것을 내가 과연 아느냐, 모르느냐.’, ‘뿔아 지은 광화문아!’, ‘우리의 광화문아!’ 등에서 영탄법을 사용해 조선 백성들의 슬픔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광화문을 ‘너’라고 지칭하며 사람처럼 의인화하여 광화문에 대한 친밀감과 유대감을 드러내었다(㉡). ‘돌덩이 하나 옮기기에 억만 방울의 피가 흐르고, 기왓장 한 개 덮기에 억만 줄기의 눈물이 흘렀던 우리의 광화문아!’라는 부분에서 광화문을 만드는 데에 들인 정성과 우리 민족이 광화문에 대해 가지는 절절한 심정을 과장하여 표현하였다(㉢).

【참고 자료】 설의식, 「혈려 짓는 광화문」

갈래	신문 사설, 증수필
성격	민족적, 저항적
제재	일제의 광화문 훼손
주제	일제의 광화문 훼손에 대한 울분과 저항
특징	• 광화문을 의인화하여 친근감과 유대감을 표현함 • 반복법, 열거법을 통해 시대의 암울한 상황을 강조함

설의식은 1922년 「동아일보」 사회부 기자로 언론계에 들어가 주일 특파원과 편집국장 등을 지낸 평론가이자 언론인이다. 이름 높은 언론인이었으나,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에서 우승한 손기정 선수의 옷에서 일장기를 지워 보도한 ‘일장기 말소 사건’으로 1936년 「동아일보」 편집국장에서 사직하였다. 광복 후 「동아일보」가 다시 간행되자 언론계로 복귀하였다.

그가 쓴 「혈려 짓는 광화문」은 1926년 「동아일보」에 발표되었던 사설이다. 설의식은 이 글을 통해 광화문이 일제에 의해 강제로 철거되고 이 전되는 상황에 대한 분노와 울분을 표현하고 있다. 이로써 당대 조선 백성들에게 민족혼을 불어일으켰다.

05 ㉠~㉢은 일본이 조선 민족의 정통성을 훼손한 사례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은 우리 정부가 일제의 지배에서 벗어나 광복이 되었음에도 조선 총독부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정부 청사로 사용한 사례이다.

오답 풀이 ① 조선 총독부를 근정전 바로 앞에 세운 이유는, 조선 왕조를 상징하는 근정전을 일제의 통치를 상징하는 건물로 가림으로써 조선이 일제의 지배를 받게 되었음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② 단군을 비롯해 우리 민족의 신을 모시던 국사당을 허물고, 그 자리에 일본의 신을 모시는 신사를 건립한 것은 조선 민족의 정통성과 정기를 훼손하기 위한 것이다.

③, ④ ㉡의 광화문 앞을 지키던 해태 석상 두 점을 철거한 것은 광화문을 철거하여 새 자리로 이전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은 광화문을 철거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광화문은 우리 민족의 역사와 혼, 정기를 상징하므로 ㉡, ㉢은 조선 민족의 정통성과 정기를 훼손하며 조선 백성을 일왕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06 ㉠을 읽고 사회적 상호 작용으로서의 읽기 과정이 일어난 것은 알 수 있으나 이 글에서 ㉠의 독자가 글을 읽은 뒤 새로운 글을 생산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한편 〈보기〉의 독자는 댓글을 달며, 카드 뉴스 읽기를 통해 형성된 자신의 관점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글, 특히 신문이나 카드 뉴스처럼 많은 사람들이 읽으며 그 내용을 신뢰하는 매체는, 사람들로 하여금 사회 문제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형성하고 이를 공유하여 여론을 형성하게끔 한다.

②, ③ ㉠을 통해서 조선 백성들이 당대 사회의 문제였던 일제의 광화문 철거 계획을 접하게 되었고, 광화문 철거 반대 여론을 형성하게 되었다. 한편 〈보기〉는 반려동물 안락사 문제를 다룬 카드 뉴스인데, 이를 통해서 독자들이 자신이 속한 사회를 이해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댓글을 통해 타인과 공유하는 사회적 상호 작용이 일어났다.

④ ㉠ 기사는 인쇄 매체인 신문을, 〈보기〉의 카드 뉴스는 대부분 인터넷을 통해 전파된다.

(3) 전시회 공간을 빌려라

교과서 꿈공 이해하기

① 221쪽	01 ②	02 ③	03 ②	04 ③
② 223쪽	05 ㄱ, ㄴ	06 ③	07 ⑤	08 ⑤
	09 구가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 행사를 지원하고, 후원 사업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홍보할 기회를 얻음			

01 협상은 둘 이상의 사람 또는 집단이 각자의 이해관계가 달라 갈등이 생길 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타협하고 의견을 조정해 나가는 의사소통의 한 방법이다. 따라서 모두가 만족하는 대안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한편 상대방을 논리적으로 설득하여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것이 목표인 담화는 '토론'이다.

02 협상의 시작 단계에서는 우리 측과 상대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장 차이의 원인을 분석하여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확인해야 한다. 이 협상에서 '상우'와 '구 공무원'은 자신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질문을 하여 협상의 안전을 명확히 만드는 등, 서로의 입장을 이해해 가면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03 구청 강당을 빌리려는 이유를 묻는 '구 공무원'의 질문에 '상우'는 이번 전시회를 지역 주민도 함께 참여하는 행사로 기획했다는 점을 들어 답하고 있다.

04 ㉠은 사진 전시회에 공공성이 있어야 강당을 대여해 줄 수 있다는 '구 공무원'의 요구에 대해 자신들의 전시회가 공공성을 갖추고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는 발언으로, 돌려서 말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사진 전시회 장소로 구청 강당을 대여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이 협상의 안전이다.
 ② ㉠은 구청이 특정 단체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나 상업적인 행사에 강당을 대여해 주지 않는 이유를 밝힌 것이다.
 ④ '상우'는 '구 공무원'에게서 사진 전시회의 공공성이 약하다는 이야기를 듣자 ㉠에서 전시회의 공공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하고 있다.
 ⑤ 사진 전시회가 공공성을 갖추었다는 점에 대해서 '상우'와 '구 공무원'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05 ㉡에 이어지는 '구 공무원'의 첫 번째 발화를 보면 다음 주에 구청 강당에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강연회가 열릴 예정이며(ㄱ), 구의 강당 운영 규칙상 한 단체에게는 최대 2일까지만 강당을 빌려주고 있기 때문에(ㄴ) '상우'의 요구에 부정적으로 답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ㄴ. 청소년과 성인의 강당 대여 일수가 다르다는 규정은 이 담화에 나타나 있지 않다.
 ㄷ. '조정 단계'에서 '구 공무원'의 마지막 발화 중 '전시회의 성격이 좋고, 공공성도 충분하니까'라는 말을 통해 사진 전시회의 공공성이 확인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과 같이 말한 이유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06 '구 공무원'은 강당을 빌려 쓰는 시간이 짧은 상우네 동아리를 위해 최대 2일까지만 강당을 대여해 준다는 규정을 완화하여 3일 동안 대여해 주기로 하였다.

07 협상 결과, 상우네 동아리는 다음다음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강당을 빌려 3일간 전시회를 하기로 하였고, 구청 측에서 주민들에게 전시회를 홍보해 주기로 하였다. 상우네 동아리가 구청의 어린이 재단 후원 사업을 홍보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은 나오지 않는다.

08 협상은 서로의 이해관계가 다른 상황에서 이루어지므로, 서로 조금씩 양보함으로써 양측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최선의 합의를 이루려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09 협상에서 참여자 양측의 이익은 상호 의존적이다. '상우'와 '구 공무원'은 협상의 결과 둘 다 이익을 얻게 되었는데, '상우'는 구청 강당을 빌려 동아리의 사진 전시회를 열 수 있게 되었고, 구 측은 구가 주민을 위한 행사를 지원하고 후원 사업에도 관심을 두고 있음을 홍보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

소단원 평가 문제

본문 224~227쪽

01 ④ 02 ④ 03 ④ 04 ① 05 다음 주에는 구청 강당에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강연회가 열릴 예정이며, 강당 운영 원칙상 일요일에는 강당을 운영하지 않고, 한 단체에게는 최대 2일까지만 강당을 빌려줄 수 있기 때문이다. 06 ⑤ 07 ④ 08 ⑤
 09 ② 10 '상우': 구청 강당을 빌려 사진 전시회를 열 수 있게 되었다. / 구: 구가 주민을 위한 행사를 지원하고, 후원 사업에 관심을 두고 있음을 홍보할 기회를 얻었다. 11 ④ 12 ⑤

01 협상은 '시작 단계-조정 단계-해결 단계'로 전개되는데, 조정 단계에서는 주로 상대의 처지와 관점을 파악하기, 양측이 서로의 제안을 검토하여 입장 차이를 좁히기, 양보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아 합의를 유도하기 등의 전략이 사용된다. ④와 같이 상대방 의견의 허점을 찾아 반박하며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는 것은 '협상'이 아닌 '토론'에서 사용되는 전략이다.

02 (가)에서 '상우'는 '전시회를 할 장소로 구청 강당을 빌리고 싶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라고 자신의 요구 사항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따라서 '사진 전시회 장소로 구청 강당 빌리기'가 협상의 안전임을 확인할 수 있다.

03 '구 공무원'은 처음에 구청의 강당 대여 원칙을 제시하며 '상우'와 입장 차이를 보였지만, 상우네 동아리의 처지를 들은 뒤 강당 이용 시간이 짧은 것을 고려하여 대여 기간을 3일로 늘려 주고 있다. 따라서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는 범위를 재차 밝힌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 '상우'는 첫 번째 발화를 통해 자신의 요구 사항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② (나)에서 '상우'는 다음다음 주로 날짜를 옮기는 것이 어떠한 '구 공무원'의 제안을 수락하는 대신, 구 차원에서 전시회를 홍보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③ (가)에서 '구 공무원'은 구청 강당에서 전시회를 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음으로써 '상우'의 제안을 명확히 확인하고 있다. 또 (나)에서 '구 공무원'은 전시회 홍보를 해 달라는 '상우'의 요구를 확인하기 위해 질문을 하고 있다.

⑤ '구 공무원'은 최대 2일간 대여되는 구청의 강당 대여 규정을 완화하여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려 하고 있다.

04 '구 공무원'은 전시회 기간이 짧아져서 관람객 수가 줄어들 것을 걱정하는 상우네 동아리를 위해 주민들에게 전시회를 홍보하기로 하였으므로 이를 이행해야 하며, 상우네 동아리는 주민들 강연회가 잡혀 있는 다음 주를 피해서 전시회를 해야 하므로 이를 이행해야 한다.

오답 풀이 다. (나)의 첫 발화로 볼 때, 전시회의 공공성 확보 문제는 이미 완료된 상황이다.

라. '구 공무원'은 주민들에게 전시회 홍보를 하는 것만 수락하였으므로 일정 인원 이상의 관람객을 확보해 줄 필요는 없다.

05 서술형 '구 공무원'은 다음 주에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강연회가 예정되어 있다는 점, 일요일에는 강당을 운영하지 않는다는 점, 한 단체당 최대 2일까지만 강당을 대여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의 요청을 거절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구 공무원'이 '상우'의 제안을 거절한 이유를 썼다.	☐
(나)의 내용을 바탕으로 두 가지 이상의 이유를 썼다.	☐
완성된 문장으로 썼다.	☐

06 ㉠는 '컴퓨터 통신망이나 인터넷 신문에 파일이나 글, 기사 따위를 게시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⑤의 '올리다'와 그 의미가 유사하다.

오답 풀이 ① '윗사람에게 공손하게 말, 인사, 절 따위를 하거나 물건 따위를 건네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② '낮은 곳에 있는 것을 높은 곳으로 옮기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③ '의식이나 예식을 거행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④ '서류 따위를 윗사람이나 상급 기관에 제출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07 협상이 성립하려면 첫째, 각자의 이익과 주장이 달라 협상이 필요한 구체적인 갈등 상황이 있어야 한다. 둘째, 협상 참여자들은 상호 의존적인 관계여야 한다. 셋째, 협상 참여자들은 모두가 만족할 만한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며, 합의 결과를 이행할 의무를 지녀야 한다. 이와 같은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상황은 ④이다.

오답 풀이 ①, ③, ⑤ 상호 협조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문제이므로 토의에 어울리는 상황이다.

② 찬성과 반대로 나누어져 한쪽이 다른 한쪽을 설득해야 하는 토론에 어울리는 상황이다.

[참고 자료] 토의, 토론, 협상의 차이점

	토의	토론	협상
관계	상호 협조적	상호 경쟁적	상호 의존적
목적	정보 교환과 합의	주장과 설득	갈등 조정과 합의
평가 준거	해결 방안 모색	논증과 태도 변화	상호 이해득실

08 협상은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서 각자의 이익과 주장이 달라 갈등이 생길 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타협하고 의견을 조정해 나가는 의사소통의 방법으로,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서 양측이 서로의 입장 차이를 좁혀 나가며 합의에 이른다. 한편 상호 경쟁적인 관계에서 자신의 주장을 내세워 상대를 설득하는 것이 목표인 담화는 토론이다.

09 '상우'는 사진 전시회 준비 과정에서 모금한 돈을 △△ 어린이 재단을 후원하는 데 사용할 것임을 언급하며 전시회가 공공성을 갖추었음을 피력하였다. 구청으로부터 전시회 준비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게 되었다는 내용은 담화에 나오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구 공무원'은 학업에 지친 고등학생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힘을 주자는 내용만으로는 전시회의 공공성이 좀 약하다고 평가하였다.

③ '상우'는 이번 전시회는 우리 학교 학생뿐 아니라, 지역 주민도 함께 참여하는 행사로 기획했기 때문에 학교보다 구청 강당이 전시회 장소로 더 적합하다고 생각했다고 하였다.

④, ⑤ '구 공무원'은 다음 주에는 강당에서 강연회가 열릴 예정이고, 일요일은 강당을 운영하지 않고 한 개인 및 단체당 최대 2일까지만 강당을 빌려준다는 구청의 규정을 설명하며 '상우'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밝힌다. 그리고는 '상우'에게 전시회 날짜와 기간을 바꿀 것을 제안하였다. 그래서 '상우'는 전시회 기간을 줄였을 때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청 측에 전시회 홍보를 요청하였고 구청 측이 이를 받아들여 상우네 동아리는 다음다음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3일 동안 강당을 빌리기로 하였다.

10 서술형 협상의 과정에서 양보와 타협을 하여 '상우'는 구청 강당을 빌려 사진 전시회를 열 수 있게 되었고, '구 공무원'도 구가 지역 주민을 위해 일하고 있음을 홍보할 기회를 얻었으므로 협상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상우' 측에서 얻은 이익을 정확하게 썼다.	☐
'구' 측에서 얻은 이익을 정확하게 썼다.	☐
완성된 문장으로 썼다.	☐

11 협상은 양보와 타협을 통해 양측 모두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이끌어 내는 것으로, 상대와 함께 공동의 이익을 얻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협상을 할 때에는 상대측의 이익을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양측이 서로의 대안을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

최선의 해결책을 얻도록 해야 한다.

12 '구 공무원'은 강당 대여 일정과 대여 규칙을 언급하며 '상우'의 제안을 거절하였지만, 다시 날짜와 기간을 조정하여 '상우'에게 제안하였고 '상우'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또한, '상우'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에서 전시회 홍보를 해 줄 것을 부탁한 것일 뿐, 새로운 안건을 제시한 것은 아니다.

소단원 심화 문제

본문 228~229쪽

- 01 ③ 02 ③ 03 학업에 지친 고등학생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동아리 누리집에서 모금한 돈으로 어린이 재단을 후원할 것이다.
04 ③ 05 ⑤ 06 ⑤

01 협상은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서 각자의 이익과 주장이 달라 갈등이 생길 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타협하고 의견을 조정해 나가는 의사소통의 방법이다. 상대방을 논리적으로 설득하며 자신의 주장을 따르게 하는 것은 '토론'에 해당하는 말하기이다(ㄱ). 또한 양측이 조금씩 양보하여 서로 만족하는 결론을 얻는 것이 협상에 입하는 바람직한 태도이다(ㄹ).

02 상우네 동아리는 동아리 누리집을 통해 후원금을 모금하고, 그것으로 △△ 어린이 재단을 후원하려고 하며, 이 활동을 통해 전시회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있다. 구청의 주도로 후원 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다.

- 오답 풀이** ① 상우네 동아리는 학교 수업을 마치고 전시회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평일에는 저녁 6시 이후부터 강당을 이용할 예정이다.
② '상우'는 '고등학생인 저희가 친구들의 웃는 모습을 주제로 직접 찍은 사진을 전시할 거예요.'라고 전시회의 주제를 밝히고 있다.
④ 협상의 마지막 단계에서 '구 공무원'은 '제안하신 전시회는 우리 구가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 행사를 지원하고, 후원 사업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을 홍보할 기회이므로 저희에게도 도움이 됩니다.'라고 말하였다.
⑤ '구 공무원'은 구청 강당을 대여하기 위해서는 전시회의 공공성이 확보되어야 함을 말하면서, 특정 단체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나 상업적인 행사에는 강당을 빌려주지 않는다고 하였다.

03 서술형 ㉠에서 '구 공무원'은 구청 강당을 빌려주기 위해서는 전시회가 공공성을 띠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이에 '상우'는 두 가지 근거를 들어 전시회가 구청에서 강조한 공공성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학업에 지친 고등학생들에게 힘을 주고자 한다는 근거를 썼다.	☐
동아리 누리집을 통한 모금으로 어린이 재단을 후원하고자 한다는 근거를 썼다.	☐

04 '구 공무원'과 '상우'가 만족스러운 협상을 이끌어 낼 수 있었던 것은 구청 측이 구청의 강당 대여 원칙을 완화하여 상우네 동아리가 3일 동안 전시회를 열 수 있도록 양보해 주었기 때문이다. '구 공무원'이 상우네 동아리의 처지에도 불구하고 원칙을 고수했다면 협상이 결렬되거나 어느 한쪽이 불만족스러운 결과를 맞게 되었을 것이다.

05 '구 공무원'은 공공성이 없는 행사에 구청 강당을 빌려줄 수 없는 이유나, 다음 주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4일간 강당을 빌려줄 수 없는 이유를 분명한 근거를 들어 밝힘으로써 상대를 이해시키고 있다.

06 <보기>에서는 '먼저 자신이 양보를 한 후,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려는 전략'을 설명하고 있다. ㉠에서는 '상우'가 먼저 자신이 양보하여 '날짜를 바꾸는 것'을 수락한 후, 상대방에게 '전시회 홍보'라는 요구를 들어달라고 제안하였다.

본문 230~234쪽

대단원 정리 문제

- 01 ④ 02 ① 03 ⑤ 04 ⑤ 05 무주의 맹시
06 ② 07 ⑤ 08 ② 09 ② 10 ③ 11 ⑤
12 ⑤ 13 물체를 보면서도 인지하지 못했던 것을 말한다. 14 ③
15 ②

01 (가), (나)와 (다), (라)는 모두 설명문이다. 설명문은 어떤 대상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 등을 알기 쉽게 풀이하여 독자를 이해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객관적인 글이다.

02 (가)에서는 일상 속에서 '무주의 맹시'를 경험하는 예를, (나)에서는 뇌가 선택과 집중, 무시와 융통성이라는 전략을 사용하는 예를 각각 들고 있으며, (가)와 (나) 모두 뇌의 정보 처리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03 (다)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동아일보』가 보도한 것은 광화문 철거 계획이다. 이 글에는 일제가 경복궁의 철거를 계획했다는 내용이 없다.

- 오답 풀이** ① (다)의 두 번째 문단을 보면, '광화문 앞 양측에 '수문장' 노릇을 하던 해태 석상 두 점'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② (라)의 '원래의 목조 건축물이 지냈던 품격은 잃어버렸지만'이라는 부분에서 광화문이 원래 목조 건축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③ (라)의 두 번째 문단 '설의식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입을 모았듯이, 광화문이 헐린다는 것은 우리의 역사와 혼이 헐린다는 의미입니다.'라는 구절에서 '설의식'이 광화문 철거를 반대했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④ (다)를 보면 '몇몇 일본인 학자들도 광화문 철거가 부당하다는 의견을 밝혔고, '예상치 못한 거센 여론'에 밀려 광화문의 철거가 취소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국내외에서 많은 사람들이 철거를 반대했음을 알 수 있다.

04 (라)를 보면 글쓴이는 광화문은 그 자체가 우리 민족의 역사이자 숨결, 혼이므로 광화문을 바로 세우는 것이 우리의 정기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글쓴이와 의견이 유사한 것은 ⑤이다.

오답 풀이 ①, ④ (라)에서 글쓴이는 광화문이 단순히 문으로만 기능하는 건물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광화문을 건축물로만 보는 관점은 글쓴이의 관점과 다르다.
②, ③ 글쓴이는 광화문이 조선의 역사와 민족 그 자체를 상징하며, 바르게 복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므로 글쓴이의 관점과 다르다.

05 ㉠과 같이 뇌가 집중하지 않은 대상을 인지하지 못하는 현상을 (가)에서 '무주의 맹시'라고 칭하고 있다.

06 ㉡는 '고릴라'와 동일한 의미로 쓰인 것은 맞다. 그러나 '고릴라', 실연한 날 보이는 '행복한 연인들', 오랜만에 아버지를 만난 날 보이는 '나이 든 어른들'은 평소에 없었던 대상이 아니라 모두 평소에도 존재하였으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인지하지 못했던 대상들이다.

07 (다)에서 「나는 가나이다」는 광화문 철거에 대한 조선 백성의 슬픈 심정을 광화문을 의인화하여 표현한 글이라고 하였다. <보기> 역시 광화문 철거에 대한 조선 백성의 슬픈 심정을 표현한 작품으로, 광화문을 '너'로 표현하여 의인화하고 있다. 한편 <보기>에는 우리 민족이 처한 현실은 표현되어 있으나 그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안은 드러나 있지 않다.

08 협상의 시작 단계에서는 우리 측과 상대방의 입장을 확인하고,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확인한다. 조정 단계에서는 서로의 제안을 검토하여 입장 차이를 좁히며, 양보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아 합의를 유도한다. 해결 단계에서는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하여 합의에 이르게 된다. (가)는 협상의 조정 단계에 해당하며, (나)는 협상의 해결 단계에 해당하므로 정답은 ②이다.

09 ㉠에서 '상우'는 평일에는 학교 수업을 마치고 저녁 시간에 만 전시회를 진행해야 하기에 2일간의 전시회 기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시회 기간에 대해서 양보를 받고 싶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에 '구 공무원'은 ㉡에서 상우네 동아리의 처지를 고려하여 전시회 날짜를 다음다음 주로 바꾼다면 강당 사용 기간을 늘려줄 수 있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10 협상 참여자들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타협점을 찾도록 조금씩 양보해야 한다. 그리고 합의에 이르면 협상 결과를 받아들이고 합의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갈등 상황을 개선하려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 참고 자료 】 반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

- 반언어적 표현 : 어조, 장단, 강약 등의 표현 방식을 이룸
- 비언어적 표현 : 몸짓, 표정, 눈빛 등의 표현 방식을 이룸

11 (나)에 고릴라 실험의 결과가 제시되어 있으므로, ⑤는 읽기 후 활동으로 적절하지 않다. (나)에서는 고릴라 실험의 결과 실험 참가자 중 절반은 고릴라를 인지하고 황당해하였으나, 나머지 절반은 고릴라가 등장한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12 '고릴라 실험'은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농구공 패스 횟수)에만 집중하여 눈앞에 있는 것(경기 도중 등장한 고릴라)을 보고도 인식하지 못할 수 있음을 알려 준다.

13 **서술형** ㉠, ㉡, ㉢은 갑자기 새롭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존재하였으나 평소에는 주의 깊게 보지 않아서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무주의 맹시'의 예이다.

평가 기준	확인 ☒
'무주의 맹시'의 개념과 관련하여 ㉠~㉢의 의미를 정확히 썼다.	☐
한 문장으로 썼다.	☐

14 '상우'는 학교 수업을 마치고 전시회를 진행해야 해서 평일에는 저녁 6시 이후부터 3시간씩 강당을 이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전시 기간 2일은 너무 짧다는 자신의 처지를 말하고 있을 뿐, 구청에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을 언급하며 상대방의 양보를 유도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① '구 공무원'은 '상우'에게 "학생 동아리라면 학교에서도 전시회를 열 수 있을 텐데 굳이 구청 강당을 전시회 장소로 써야 할 이유가 있나요?"라고 물어보며 협상의 안건을 더 명확히 하였다.

② '상우'는 사진 동아리의 전시회 장소로 구청 강당을 빌리고 싶다는 자신의 요구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④ '구 공무원'은 구청에서는 특정 단체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나 상업적인 행사에는 강당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협상을 위한 구청 측의 기본 원칙을 제시하였다.

⑤ '구 공무원'은 행사 일정과 운영 시간 규정을 이유로 '상우'의 제안을 거절했으나, 이용 시간이 짧은 점을 고려하여 다음다음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3일간 강당을 빌려주기로 양보하였다.

15 '구 공무원'은 다음 주에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강연회가 예정되어 있고, 일요일에는 강당을 운영하지 않으며, 다른 주민 및 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한 개인 및 단체당 최대 2일까지만 강당을 빌려주고 있다는 원칙을 내세워 '상우'의 요청을 거절하였다.

시험 전에 풀어 보는 내신 적중 문제



1. 읽기의 가치와 즐거움

(1) 자화상

본문 236~237쪽

- ① 우물 ② 산문 ③ 한 사나이 ④ 추억
⑤ 가엾어짐 ⑥ 그리워짐 ⑦ 독자 ⑧ 구성 요소
⑨ 현실

- 01 ② 02 ⑤ 03 자아 성찰의 매개체 역할을 한다.
04 ② 05 ④ 06 ⑤

01 2연에서는 화자가 들여다보는 우물 속의 평화로운 풍경이 제시되고 있다. 이는 화자의 쓸쓸한 모습과 대조되는 풍경으로, 화자는 이를 들여다보면서 자아를 성찰하게 된다. 따라서 우물 속 풍경을 통해 화자의 행복한 마음이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1연에서는 '논가 외딴 우물'이라는 공간적 배경과 '가만히 들여다보는 화자의 행동이 제시되어 있다.

③ 3연에서는 우물 속 평화로운 풍경과 대조되는 초라한 사나이가 소개되고, 그에 대한 화자의 미움의 정서가 드러난다.

④ 3연에서 미움의 정서를 보인 화자는 4연과 5연에서 연민과 미움, 그리움의 정서 변화를 보이며 내적 갈등을 겪고 있다.

⑤ 6연에서 화자는 '추억' 속 순수했던 과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며 내적 갈등을 해소하고 있다.

02 이 시의 화자는 우물 속 '사나이'를 바라보며 초라하고 부끄러운 자신에 대한 미움과 연민, 그리움을 번갈아가며 느끼고 내적 갈등을 겪는다. 이러한 내적 갈등은 궁극적으로 자아 성찰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03 서술형 <보기>의 시는 어두운 시대 속에서 무기력하게 살아온 화자가 자신의 삶을 성찰하며 느끼는 부끄러움과 고뇌를 담고 있다. 이 시의 '우물'과 <보기>의 '거울'은 화자의 모습을 비추어 주는 것으로, 화자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게 해 준다. 이 시의 화자가 우물을 들여다보는 것과 <보기>의 화자가 거울을 닦는 것은 자아 성찰을 하는 행동으로 볼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자아 성찰의 매개체'라는 내용을 썼다.	☐
한 문장으로 썼다.	☐

[참고 자료] 윤동주, 「참회록」

이 시는 치욕스러운 역사와 어두운 시대 현실 속에서 무기력하게 살아온 화자가 자신의 삶을 성찰하며 느끼는 부끄러움과 고뇌를 자문자답(自問自答)의 형식으로 고백하고 있다. 이 시의 시간적 배경인 '밤'은 화자의 자기 성찰의 시간이면서 우리 민족이 처한 암울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화자가 '밤'에 '거울'을 닦는 모습은 현재의 암담한 상황을 극복하고 맞이하게 될 미래를 위한 준비이다.

04 <보기>는 일제 강점기라는 시대 현실과 관련지어 작품을 해석하고 있다. 당시의 시대 현실을 바탕으로 작품을 감상하고 있으므로, 이는 문학 작품 감상의 관점 가운데 '현실'에 초점을 두어 해석한 반영론적 관점을 적용한 것이다.

오답 풀이 ①, ⑤ 작가의 창작 동기나 의도, 가치관을 바탕으로 작품을 감상하는 것이나 작가의 다른 작품과 비교하여 작품을 이해하는 것은 '작가'에 초점을 둔 표현론적 관점이 나타나 있는 감상이다.

③ '작품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에 초점을 둔 절대론적 관점이 나타나 있는 감상이다.

④ '독자'에 초점을 둔 효용론적 관점이 나타나 있는 감상이다.

[참고 자료] 문학 작품을 감상하는 관점

- **절대론적 관점:** 작품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작품을 감상하는 방법
- **반영론적 관점:** 작품 속 배경이 되는 당시의 시대 현실을 이해하고 작품을 감상하는 방법
- **표현론적 관점:** 작가의 창작 의도와 창작 동기, 작가의 삶과 사상 등을 이해하고 작품을 감상하는 방법
- **효용론적 관점:** 작품이 독자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었는지, 독자의 가치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초점을 두고 작품을 감상하는 방법

05 '구름이 흐르고 바람이 부는 풍경'은 우물 속의 평화로운 자연 풍경을 표현한 것이다. 화자는 이러한 풍경 속에 비친 사나이의 모습을 보며 자아 성찰을 하다가 내적 갈등을 해소하고 있다. 따라서 우물 속 풍경이 화자의 현실 극복의 의지가 흔들리는 것을 나타낸다는 감상은 적절하지 않다.

06 이 시의 화자는 우물 속에서 평화롭고 아름다운 자연의 풍경과 '한 사나이'의 부끄러운 모습을 모두 보고 있다. '한 사나이'는 우물에 비친 화자 자신의 모습으로, 우물 속의 아름답고 고요한 풍경은 화자의 초라하고 쓸쓸한 모습과 대조적이다. 우물을 들여다보다 돌아가기를 거듭하며 자신에 대한 애증을 반복하던 화자는 마침내 마지막 연에서 과거의 순수한 자신의 모습을 추억하며 내적 갈등을 해소하고 있다.

(2) 책 속에 길이 있다

본문 238~239쪽

- ① 독서 ② 청소년기 ③ 가치 ④ 안목
⑤ 간접 ⑥ 성숙 ⑦ 바늘 ⑧ 지평
⑨ 진로

- 01 ⑤ 02 ④ 03 청소년들은 책을 읽으며 그 안에 담긴 다양한 사람들의 삶과 가치관을 간접 경험할 수 있고, 그러한 경험을 통해 자신의 삶에서 모자라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04 ⑤ 05 ④

01 (다)에서 수많은 정보 가운데 의미 있는 것을 골라내는 눈(②)과, 무관해 보이는 정보를 엮어서 유관한 그 무엇으로 다시 만들어 내는 능력(③)과, 그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가치 있는 지

식을 창조하는 능력(①)을 갖추기 위해서는 책을 읽어야 한다고 하였다. (라)에서는 간접 경험을 통해 다른 이들의 고통을 어루만질 줄 아는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④)하기 위해 문학 작품을 읽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독서를 통해 인생의 변수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02 이 글은 다양한 표현 방법을 통해 독서의 가치와 필요성에 대해 말하고 있는 수필이다. 이 글에 과학적 용어는 쓰이지 않았다.

- 오답 풀이** ① (라)에서 문학 작품을 '상상의 집', 책을 '그릇'에 비유하고 있고, (마)에서 편견을 '생각의 비늘'에 비유하고 있다.
 ② (가)와 (다)에서 스스로 묻고 답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③ (나)에서 정보 혁명 이전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을 대조하여 정보가 그 자체로 가치를 지니지 못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⑤ (라)에서 '공부하기도 바쁜데 ~ 재미없고 따분한 내용투성이인데 꼭 읽어야 하는가?'라고 하여 책 읽기에 대해 독자들이 제기할 법한 반론을 의문문 형태로 제시하고 일리 있는 말이라며 이를 인정하고 있다.

03 서술형 청소년들은 책 읽기를 통해 다양한 사람들의 삶과 가치관을 간접 경험함으로써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충족할 수 있다고 하였다.

평가 기준	확인 ☒
다양한 사람들의 삶과 가치관을 간접 경험하여, 자신의 삶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다는 내용을 썼다.	☐
'~ 때문이다.' 형태의 한 문장으로 썼다.	☐

04 ㉔의 '텔레비전, 게임, 영화 등 볼 것 천지'의 것들은 사람들이 책을 읽지 않게 하는 요소이다. 이는 재미있고 하기 쉬운 일로, 책 읽기와 반대되는 일에 해당한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 때문에 이미 알고 있다는 편견이나 자만에 빠지는 것은 아니다.

- 오답 풀이** ① (가)에서 청소년기는 세상이 새로운 것을 쏟아 내어도 비어 있고 부족한 것이 있게 마련이며 이 때문에 외로운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책을 통해 그 모자람을 채워 간다면 스스로가 충만해져 자신감이 생기고 미래에 대한 전망을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
 ② (나)에서 정보 혁명 이전에는 정보를 장악한 사람이 권력을 쥐었지만, 지금은 정보가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는 데다가 특정인이 그것을 독점할 수도 없어 정보가 그 자체로 가치를 지니지 못한다고 하였다.
 ③ (다)에서 흘러져 있고, 넘쳐 나고, 흘러 다니는 정보는 그 자체로는 가치를 지니지 못하는 정보라 하였으므로 이는 의미 있는 정보와 그렇지 못한 정보가 혼재한 상태라 할 수 있다.
 ④ (라)에서 문학 작품은 언어로 이루어진 상상의 집으로, 이 간접 경험의 세계를 통해 우리는 자신과 다른 사람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된다고 하였다.

05 진로나 관심사와 관련한 모둠 활동을 할 때에는 진로나 관심사가 비슷한 친구들이 모둠을 구성하여 독서 계획을 세우고, 진로나 관심사와 관련된 책을 선정하여 읽은 뒤, 느낀 점과 알게 된 내용을 서로 공유해야 한다. 흥미 위주로 책을 선정하는 것은 책을 읽는 목적에 어긋나는 것이다.

2. 마음을 잇는 소통의 창

(1) 매체를 읽는 눈

본문 240~241쪽

- ① 목념 ② 빈칸 ③ 반복 ④ 긍정적
 ⑤ 부정적 ⑥ 특성 ⑦ 비판적

01 ③ 02 ④ 03 ⑤ 04 ②

01 광고는 수용자를 설득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작한다. (가)의 광고는 지나친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지는 내용으로 수용자를 설득하고 있다. 한편 신문 기사는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나)와 (다)의 신문 기사는 통계청이 발표한 '2015 인구 주택 총조사' 결과라는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가)에서 청각적 자료인 내레이션을 활용하였다.
 ② 신문 기사는 디지털 매체나 인쇄 매체 등으로 전달된다.
 ④ 대체로 광고와 신문 기사 모두 불특정 다수를 수용자로 한다.
 ⑤ 광고와 신문 기사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수용자에게 전달한다.

02 (가)는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지나치게 사용하는 장면을 반복 제시하여 스마트폰 중독을 경계하고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며 살아갈 것을 권하고 있다. 이처럼 (가)에서는 스마트폰 사용의 부정적인 측면만 부각하고 있기는 하지만, 스마트폰과 관련하여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표현하거나, 정보를 왜곡한 부분은 나타나 있지 않다.

- 오답 풀이** ① 스마트폰 중독이 사람들과의 소통을 방해하고 삶의 질을 저해한다는 것은 보편타당한 내용으로 적절한 평가이다.
 ② (가)의 영상 구성과 문구는 수용자의 흥미를 끌면서도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므로 적절한 평가이다.
 ③ 스마트폰 사용은 부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 이 광고에서는 부정적인 부분만 부각하여 드러내고 있으므로 공정하지 못한 면이 있다고 한 것은 적절한 평가이다.
 ⑤ 목념하는 모습과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모습의 유사점을 활용하며 '스마트폰으로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목념'이라는 표현을 통해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03 (나)는 통계청 관계자의 말을 통해 1인 가구의 증가가 자연스러운 현상임을 말하고 있고, (다)는 대학교 교수의 말을 통해 1인 가구의 증가 원인은 미혼 요인보다 고령화 요인이 더 크다고 말하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1990년대 1인 가구의 비중은 (다)에만 나타나 있다.
 ② (나)와 (다)는 모두 인구 주택 총조사의 결과만 소개하고 있으며, 조사 과정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③ (나)와 (다)는 모두 앞으로 1인 가구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보여 주고 있다.
 ④ (나)에 통계청 관계자의 인터뷰가, (다)에 대학교 교수의 인터뷰가 제시되어 있으나, 이들은 각 기관의 일원일 뿐이며 (나)와 (다)가 이들 기관의 입장에서 사회 현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니다.

04 매체 자료에 반드시 사회 비판적인 시각을 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비판적인 시각은 매체 자료를 수용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자세이다.

(2) 책임감 있게 글 쓰기

본문 242~243쪽

- | | | | |
|---------|-------|-------|-------|
| ① 쓰기 윤리 | ② 책임감 | ③ 개인적 | ④ 사회적 |
| ⑤ 출처 | ⑥ 저작권 | ⑦ 진실 | ⑧ 권리 |
| 01 ⑤ | 02 ② | 03 ④ | 04 ④ |
| | | | 05 ③ |

01 (다)에 따르면, 더 큰 감동을 이끌어 내고 싶은 유혹을 받아서 자신이 경험한 적이 없는 일을 거짓으로 꾸며 쓰는 것은 개인적 차원의 쓰기 윤리를 어긴 비윤리적인 행위라고 하였다.

02 (가)에서 '윤서'는 '진로 탐구 보고서'를 기한 내에 작성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자료를 검색하여, 다양한 형태의 자료 가운데 하나를 그대로 복사해서 제출하였다. 이는 사회적 차원의 글쓰기 윤리를 어긴 행동으로, (가)에는 예상 독자에 대한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②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나)에서 '윤서'가 이와 같은 행동을 한 이유는 글쓰기 윤리 의식이 부족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하였다.

③, ④ '윤서'는 다른 사람이 창작한 글이나 연구 자료를 인터넷에서 찾아 자기 것인 양 사용하였다. 이는 사회적 쓰기 윤리를 어긴 것이다.

⑤ (라)에서 '윤서'처럼 다른 사람이 창작한 글이나 연구 자료를 베끼는 행위는 저작자가 창작이나 연구 활동에 전념하는 것을 방해한다고 하였다.

03 <보기>의 '민규'는 다른 사람이 창작한 글을 허락 없이 이용하여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있다. 이는 사회적 차원의 쓰기 윤리를 어긴 행동으로, 사회적 차원의 쓰기 윤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라)를 보완하기에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가)는 글쓰기 윤리를 위한 '윤서'의 사례가 나타나는 부분이다.

② (나)는 글쓰기 윤리의 개념과 종류에 대한 부분이다.

③ (다)는 개인적 차원의 쓰기 윤리의 개념에 대한 부분이다.

⑤ (마)는 쓰기 윤리를 지키며 책임감 있는 태도로 글을 써야 한다는 주제가 드러난 부분이다.

04 ㉔은 글을 쓸 때 갖춰야 할 올바른 태도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평소의 마음가짐이 더 중요함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㉑에서 '윤서'는 인터넷에서 찾은 자료를 그대로 복사하는 자신의 행동을 문제로 인식하지 않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

② 개인적 차원의 쓰기 윤리는 글을 진실하게 써야 하는 도리이므로, 남의 얘기나 상상한 내용을 거짓으로 표현한 ㉔은 이를 어긴 행위에 해당한다.

③ 문맥의 의미로 볼 때, 사회적 쓰기 윤리를 지키지 않는 행위는 결과적으로 ㉔과 같은 문제점을 발생시킨다.

⑤ (마)에서 문맥의 의미를 볼 때, 나와 남을 모두 배려하는 책임감 있는 태도로 글을 쓴다면, ㉔과 같은 결과를 낳는다.

05 이 글은 글쓰기 윤리에 대해 이해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로 글을 쓸 것을 말하고 있다. 글을 쓸 때에는 ③에서 말한 바와 같이 명확한 문장으로 내용을 짜임새 있게 구성해야 하지만, 이는 이 글의 내용이나 글쓰기 윤리와는 거리가 먼 내용이므로, '글쓰기 윤리 서약서'와는 거리가 먼 항목이다.

(3) 서로를 존중하는 대화

본문 244~245쪽

- | | | | |
|-------|-------|-------|--------|
| ① 공손성 | ② 요령 | ③ 최소화 | ④ 최대화 |
| ⑤ 겸양 | ⑥ 교대 | ⑦ 목적 | ⑧ 의사소통 |
| ⑨ 실수 | ⑩ 효율성 | ⑪ 차별 | |
| 01 ④ | 02 ② | 03 ⑤ | 04 ② |
| | | | 05 ③ |
| | | | 06 ④ |

01 (가)에서 '찬우'의 말에는 공손성의 원리 중 찬동의 격률이, '지호'의 말에는 겸양의 격률이 각각 나타나 있다. (나)에서 '지호'의 말에는 공손성의 원리 중 동의의 격률이 나타나 있다. 한편 (가)와 (나)에는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표현은 최소화하고, 부담이 되는 표현은 최대화하는 방법인 관용의 격률은 나타나 있지 않다.

02 '지호'는 같이 저녁 먹기를 바라는 '찬우'와 의견 차이가 있지만, 먼저 같이 저녁 먹으면 좋다고 말하며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 준 후, 저녁을 같이 못 먹는 대신 음료수를 마시자는 자신의 의견을 말하며 서로의 의견 차이를 최소화하고 있다.

03 <보기>에서 '유범'은 '규비'에게 부탁 상황에 적절한 말하기 태도를 보여 주며 색연필을 빌리고 있다. 그러나 '유범'이 '규비'를 칭찬하는 표현은 나타나 있지 않다.

04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타인에게 사과할 때에는 자신이 어떤 점을 잘못했는지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ㄱ) 앞으로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ㄷ). 또한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불편을 주어 미안하다는 표현(ㄹ)을 하는 것이 좋다.

오답 풀이 ㄴ. 사과할 때에는 자신이 잘못된 일을 이야기해야 하므로, 다름이 있었던 일을 다시 이야기하지 않기는 어렵다.

ㄴ.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에는 상대방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고려하여 말하는 것이 좋다.

05 밑줄 친 말은 '요리사'가 속한 요리 분야의 전문 용어이다. 이러한 전문 용어는 특정한 직업군에서 사용하는 말이다. '문상(문화 상품권), 버정(버스 정류장), 열공(열심히 공부하다.)'과 같은 말은 특정 직업군에서 사용하는 말이 아니라 청소년 세대에서 주로 사용되는 말이다.

06 '여의사', '여류 작가'와 같은 표현은 여성에 대한 편견이 들어 있는 표현으로, '의사', '작가'와 같이 고쳐 써야 차별과 편견을 없앨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살색'은 인종 차별적 표현이 될 수 있으므로 '살구색'으로 고쳐 쓰는 것이 좋다.

② 차별과 편견이 들어 있는 표현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여 이러한 표현을 쓰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차별과 편견이 들어 있는 표현을 고치는 일을 실천하면 언어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다.

⑤ 지역 방언을 희화화하는 것은 그 지역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드러낸다.

3. 문학으로 그리는 삶

(1) 첫사랑

본문 246~247쪽

- ① 시간 ② 사랑 ③ 눈 ④ 눈꽃
⑤ 봄 ⑥ 첫사랑 ⑦ 성숙 ⑧ 눈
⑨ 첫사랑

01 ③ 02 ③ 03 ④ 04 ① 05 ① 06 황
홀 07 ② 08 ③

01 시인은 시의 주제를 형상화하기 위해 화자, 운율, 심상, 시어, 표현 방법과 같은 다양한 구성 요소들을 활용한다. 이 시에서는 주로 시각적 심상이 사용되었으며 ‘짜그락 짜그락 두드려 보았겠지’에서 청각적 심상을 확인할 수 있지만, 공감각적 심상은 사용되지 않았다.

오답 풀이 ① ‘짜그락’, ‘난분분’, ‘~겠지’ 등을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② ‘햇숨 같은 마음’에서 직유법, ‘마침내 피워 낸 저 황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에서 은유법, ‘눈’이 도전하고 두드리고 춤춘다는 표현에서 의인법이 사용되고 있다.

④ 화자는 눈이 내려 눈꽃이 피고, 봄에 눈이 녹은 자리에 꽃이 피는 자연 현상에서 사랑의 의미를 발견하고 있다.

⑤ 이 시는 전체 4연으로 되어 있으며, 1연과 4연은 2행으로, 2연과 3연은 3행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고 자료】 공감각적 심상

하나의 시적 대상에 두 가지 이상의 심상이 결합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흔히 하나의 심상을 떠올리게 하는 대상에 다른 심상을 섞어 넣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예컨대 ‘새파란 초승달이 시리다’를 보면 ‘새파란 초승달’이 시각적 심상을 이미 드러내고 있는데, 여기에 ‘시리다’를 더해 촉각적 심상을 섞어 넣고 있다.

02 이 시는 눈이 나뭇가지에 내려 앉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하여 결국 눈꽃을 피우고, 봄이 되어 이 눈꽃이 녹은 자리에 아름다운 꽃이 피는 자연 현상을 통해 사랑의 속성을 표현하고 있다. 이는 현신적인 노력으로 이뤄 낸, 꽃과 같이 아름다운 사랑의 결실이라는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03 이 시는 눈꽃이 피는 과정에서 첫사랑의 의미를, 눈꽃이 진 자리에 봄꽃이 피는 것에서 성숙한 사랑의 의미를 발견하고 있다. 시인은 ‘눈꽃’과 ‘첫사랑’이 모두 쉽게 사그라들 수 있는 속성을 지닌 동시에 인내와 현신의 과정을 겪어야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눈꽃이 지나간 자리에 피는 것이 ‘봄꽃’이듯이 ‘성숙한 사랑’이 첫사랑의 슬픔을 딛고 온다는 점을 통해 인내와 현신을 통해 도달한 성숙한 사랑의 의미를 발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시에 봄이 오면 사라지는 눈꽃에 대한 슬픔은 드러나지 않는다.

04 이 시의 제목인 ‘첫사랑’은 이 시의 ‘눈꽃’이라는 시어에 대응된다. ‘바람 한 자락 불면 흰 날아갈 사랑’은 위태롭고 순간적이며, 일시적이고 아슬아슬한 첫사랑의 속성을 보여 준다(③, ④, ⑤). 또한 ‘마침내 피워 낸 저 황홀’ 역시 눈꽃, 즉 첫사랑을

의미하므로, 노력 끝에 이뤄 낸 첫사랑의 황홀한 속성을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②). 그러나 이 시에서 첫사랑의 냉정한 속성은 나타나지 않는다.

05 이 시에서 ‘텐 자리’는 눈꽃이 녹은 자리로, 첫사랑이 끝난 아픔을 나타낸다. 그러나 이 첫사랑의 아픔은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전보다 성숙한 사랑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가 피어날 수 있는 바탕이 된다. 따라서 ①에서 성숙한 사랑을 이루기 위해 선행해야 하는 ‘이별’이 이와 유사한 시어라고 할 수 있다.

06 이 시에서 ‘눈꽃’을 빗대어 표현하는 보조 관념은 ‘바람 한 자락 불면 흰 날아갈 사랑’과 ‘마침내 피워 낸 저 황홀’이다. 이중 첫사랑에 대한 화자의 예찬적 태도가 드러나는 2음절의 시어는 ‘황홀’이다.

07 ㉠은 미끄러짐을 거듭하면서도 나뭇가지 위에 내려앉으려는 눈의 노력이 나타나는 부분으로, ㉠에는 눈꽃을 피우기 위한 눈의 현신적인 노력과 끊임없는 도전이 드러난다. 따라서 이 시구의 함축적인 의미는 사랑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자, 첫사랑을 이루기 위해 겪는 수많은 실패라고 볼 수 있다. 사랑을 방해하는 외부의 존재나 이와는 갈등은 드러나지 않는다.

08 이 시에는 첫사랑의 실패(‘그 한 번 텐 자리’)를 발판으로 성숙한 사랑(‘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을 이루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 한편 <보기>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듯,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없다고 표현하여 성숙한 사랑을 이루는 데에는 시련과 고통이 수반됨을 노래하고 있다. 따라서 이 두 작품은 공통적으로 시련과 고난을 겪은 후에 성숙해지는 사랑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이 시는 ‘눈은 얼마나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랴’에서, <보기>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와 같이 의문문을 통해 설의적인 표현을 하고 있으나, 이를 통해 과거의 상황을 회상하고 있지는 않다.

② 이 시와 <보기> 모두 자연물에서 시의 발상을 얻고 있지만, 직접적인 표현 대신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④ <보기>는 시의 처음과 마지막 부분에서 ‘흔들리지 않고 ~ 어디 있으랴’의 시구를 반복하고 있지만, 이 시는 그러한 반복이 나타나지 않는다.

⑤ 이 시의 ‘바람’은 첫사랑을 위태롭게 만드는 시련을 나타내지만, <보기>의 ‘줄기’는 흔들리면서 곧게 세우고 있는 것이므로 시련에 굴하지 않는 의지를 의미한다.

【참고 자료】 도중환, 「흔들리며 피는 꽃」

갈래	현대 시, 자유시, 서정시
성격	관조적, 긍정적, 서정적
어조	차분하고 담담함
제재	꽃, 사랑, 삶
주제	고난과 역경 속에서 완성되는 사랑과 삶
특징	• 반복적인 표현으로 의미를 강조함 • 인생의 진리를 자연물에 비유하여 표현함

(2) 아홉 켄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본문 248~249쪽

- ① 관찰자 ② 소외 ③ 구두 ④ 자존심
⑤ 수술비 ⑥ 외적 ⑦ 거절 ⑧ 강도

01 ② 02 '나'는 '권 씨'에게 돈을 빌려줄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 내적 갈등을 겪고 있다. 03 ④ 04 ⑤ 05 ③

01 (나)에서 '권 씨'는 돈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거절당한 뒤, 길을 내려가다가 돌아서면서 '나'에게 자신이 대학 나온 사람임을 밝힌다. 이는 상처 입은 자신의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며, 뒤에 '권 씨'가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강도질을 택한 것으로 보아 이 말은 위기 극복의 의지와는 관련이 없다.

02 서술형 (가)에는 '권 씨'에게 돈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은 '나'의 내적 갈등이 나타나 있다. '나'는 거금에 해당하는 '십만 원 가까이'에 부담을 느끼며 자신의 상황이 어떠한지 돌아보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나'가 '권 씨'에게 돈을 빌려주는 문제로 갈등하고 있음을 썼다.	☐
'나'가 겪는 갈등의 유형이 내적 갈등임을 썼다.	☐

03 '권 씨'가 부탁을 거절당한 후 자신의 구두를 바짓가랑이 뒤에 달는 것은 돈을 빌리는 상황에서 '권 씨'가 자존심을 잃지 않으려 하는 행위이다.

오답 풀이 ① '나'는 (마)에서 '권 씨'가 세들어 사는 방에 가서 비어 있는 '한 켄레의 구두'를 보고 '권 씨'가 쉽사리 돌아오지 않을 것을 예감한다.

②, ③ 구두는 '권 씨'의 심리 상태를 암시하며, 지식인으로서의 '권 씨'의 자존심을 상징하는 소재이다. '비어 있는 하나'는 '권 씨'가 신고 나간 구두로, 돌아오지 않는 권 씨를 상징하며, 남겨진 '아홉 켄레나 되는 구두'는 '권 씨'의 부재를 상징하며, 비인간적인 산업화 사회 속에서 소외된 '권 씨'의 비참한 처지를 상징한다.

⑤ 세간이라곤 깔고 덮는 데 쓰이는 것과 쌀을 익혀서 담는 몇 점 도구들이 전부인 궁핍한 살림 속에서도 가장 값나가는 세간이 있을 법한 자리에 아홉 켄레나 되는 구두들이 사열받는 병정을 모양으로 가지런히 놓여 있는 것은 '권 씨'가 그만큼 구두를 소중히 여겼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04 이 소설의 결말 부분인 (마)에서는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권 씨'가 아홉 켄레의 구두만을 남긴 채 행방불명이 되고, '나'가 '권 씨'의 행방불명 사실을 깨닫는 것으로 끝맺고 있다. (다)~(라)에서 '나'는 '권 씨'를 강도로 대우해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권 씨'와 재회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나'가 '권 씨'를 배려한 행동 때문에 오히려 '권 씨'가 자신의 정체가 들쭉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에 '권 씨'는 자존심에 상처를 입고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게 된다.

05 (나)에서 '권 씨'는 '나'에게 돈을 빌리러 왔다가 거절당하자 낭패스럽고 자존심이 상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에 '권 씨'는 ㉠과 같이 말함으로써 자신이 고학력의 지식인임을 밝혀 상처 입은 자존심을 회복하려 한다.

(3) 결혼

본문 250~251쪽

- ① 소유 ② 관객석 ③ 물질 ④ 결혼
⑤ 빌린 ⑥ 관객 ⑦ 주제 ⑧ 덤
⑨ 시간

01 ⑤ 02 ③ 03 '하인'이 시간이 지나면 '남자'의 물건을 회수해 가는 것을 의미한다. 04 ② 05 ⑤

01 이 글의 주요 등장인물은 '남자'와 '여자'이며 보조적 인물은 '하인'이다. '하인'은 '남자'와 '여자'의 조력자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을 강제로 회수해 가고 '남자'를 위협함으로써 극의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이 글은 등장인물인 '남자'와 '여자', '하인'이 몇 개의 소품만을 활용하여 극을 진행하고 있을 뿐, 그 외의 별다른 무대 장치가 없고 조명이나 효과의 도움도 받지 않고 있다.

② (나)~(다)에서 소유와 사랑의 본질을 깨달은 '남자'의 대사를 통해 소유의 본질과 진정한 사랑의 의미라는 주제를 전달하고 있다.

③, ④ (가)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글은 등장인물인 '남자'가 직접 관객에게 물건을 빌렸다가 돌려주는 등 무대와 객석의 명확한 구분 없이 극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무대와 객석의 구분이 명확한 일반적인 현대극과 다른 이극의 실험적인 특징이다.

02 '남자'는 (나)에서 나무가 가을이 되자 수천 개의 이파리를 돌려주고도 아무 말이 없다는 것과, 고양이가 시간이 되자 생명을 돌려주고도 태연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다)에서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은 빌린 것임을 말하고 있다. 즉 '남자'는 '여자'에게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은 빌린 것이며 되돌려 주어야 한다는 소유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을 전하고 있다.

03 서술형 이 글에서 '시간'은 주제를 형상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시계가 주요 소품으로 등장하고, 등장인물 중 '하인'은 정해진 시간이 되면 '남자'의 물건을 회수해 간다. 이는 시간이 지나면 누구든 소유한 모든 것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는 것을 상징하는 행동으로 볼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시간이 지나면 '하인'이 '남자'의 물건을 회수해 가는 행동을 의미한다는 내용을 썼다.	☐
한 문장으로 썼다.	☐

04 (라)에서 '여자'는 '남자'가 사실은 빈털터리인 것을 알게 되었으면서도 그의 청혼을 받아들인다. 그 이유는 '남자'가 말하는 소유의 본질에 공감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남자'의 진심 어린 말에 설득되었기 때문이다.

05 시간이 흘러 가을이 되자 이파리가 다 떨어졌는데도 아무 소리 않고 받아들이는 나무의 사례는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은 빌린 것이며, 시간이 지나면 소유한 것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소유의 본질을 의미하고 있다.

(4) 반통의 물

본문 252~253쪽

- ① 깨달음 ② 농사 ③ 병렬적 ④ 거리
⑤ 공존 ⑥ 생명 ⑦ 경험 ⑧ 개성

01 ④ 02 ② 03 ⑤ 04 ① 05 밭에서는 잡초를 뽑고 농작물만 키우기 때문에, 모든 생명이 공존하는 숲보다 생명이 덜 가깝다. 06 ⑤

01 이 글은 글쓴이가 농사를 짓는 구체적 체험을 바탕으로 깨달음을 얻고 있는 내용의 현대 수필이다. 이 글은 문어체를 사용하고 있으며, 친근한 어조를 사용하거나 독자와 서술자 사이의 거리를 좁히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글쓴이가 농사를 지으며 밭을 일구고 물을 주었던 구체적 체험과 이 체험으로 얻은 깨달음이 나타나 있다.

② 글쓴이가 밭에 난 풀을 뽑지 않았던 경험, 채소에 물을 주기 위해 애쓰는 할아버지를 보았던 경험과 같은 짙은 이야기들이 나열되고 있다.

③ 농사와 생명에 대한 주관적인 깨달음을 전하고 있다.

⑤ '미운 풀이 죽으면 고운 풀도 죽는다.'라는 속담을 사용하였고, 농사를 짓는 사람을 '달갑지 않은 침입자'라고 하거나 원래 언덕에 살던 풀을 '원주민'이라고 하는 등 다양한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고 있다.

02 이 글의 글쓴이는 몸이 불편한 할아버지가 물통의 물을 반 이상 흘리면서도 몇 번씩 길을 오가며 채소를 위해 물을 주는 모습을 통해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깨닫는다. 따라서 '반통의 물'은 생명에 대한 사랑과 정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03 <보기>는 푸성귀, 즉 식물을 키우는 데는 물과 같은 단순한 생태적 조건뿐 아니라 부지런히 밭을 오가며 식물을 돌보는 농부의 정성이 중요함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를 통해 농부는 농작물을 부지런히 또 정성스럽게 돌봐야 함을 알 수 있다.

04 <보기>의 시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사과 속에서 원래 살던 벌레를 쫓아내고 죽이는 것을 비판하고 있다. 따라서 (가)와 <보기>가 모두 수확을 위해 힘쓰는 농부의 노력을 인정하고 있다는 감상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② (가)는 인간이 사과 호미로 쫓아내는 원주민 풀들에 대해서, <보기>는 인간에 의해 희생되는 벌레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③ (가)는 풀들이 원래 이 땅의 주인이라고 하며 사람을 '달갑지 않은 침입자'라고 하였고, <보기>는 '누가 사과가 사람들만의 것이라고 정했습니까?'라고 하였다. 이러한 부분에서 과연 자연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드러난다.

④ <보기>에서 사과와 벌레는 공존하는데, 이는 (가)의 숲에서 풀들이 공존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⑤ <보기>에서 사과와 공존하고 있는 벌레를 사람들이 쫓아낸 것은 (가)에서 밭이 생기기 전, 그 땅에서 잘 살고 있던 풀을 사람들이 사과 호미로 뽑아내는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김용택, 「짧은 이야기」

사람들이 사과와 벌레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고 마음대로 짓밟는다는 내용을 '사과'의 입장에서 노래한 시이다. 사람들의 인간 중심적인 태도를 비판하면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해야 한다는 주제를 전하고 있다.

05 **서술형** '밭은 숲보다 생명이 덜 가깝다.'라는 것은, 땅의 본래적 질서가 선택보다는 공존이라고 여기는 글쓴이의 판단 때문이다. 모든 생명이 공존하는 숲과 달리 밭에서는 잡초는 뽑고 농작물만 키우기 때문에 이와 같이 표현한 것이다.

평가 기준	확인 ☒
밭에서는 잡초를 뽑는다는 내용을 썼다.	☐
밭과 달리 숲은 생명이 공존한다는 내용을 썼다.	☐

06 ㉠ 김을 매는 것, ㉡ 잡초와 채소를 구분하여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살리는 것, ㉢ 침입자가 생명을 키운답시고 원주민 풀을 쫓아내는 것, ㉣ 채소가 자랄 수 있게 잡초를 뽑아 주는 것은 모두 잡초를 죽이는 반생명적인 행위이다. 이와 달리 ㉤는 잡초라도 하나의 생명으로 간주하여 함부로 죽이지 않으려는 글쓴이의 생명 존중 의식에서 비롯된 결과이므로 나머지와 내포된 의미가 다르다.

4. 바른 말, 바른 글

(1) 음운의 변동

본문 254~255쪽

- ① 뜻 ② 환경 ③ 비음화 ④ ㄴ
⑤ 날로 ⑥ 형식 ⑦ ㅈ, ㅊ ⑧ 갈땀
⑨ 축약 ⑩ ㅎ ⑪ 첨가

01 ① 02 ③ 03 ② 04 ③ 05 ② 06 ⑤
07 ⑤ 08 ⑤ 09 '있었기에는' [아췌끼에]로 발음된다. '었'에서 음절 끝의 'ㅍ'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ㄷ'으로 발음되고, 이 받침 'ㄷ' 뒤에 연결되는 'ㄱ'은 된소리되기에 의해 'ㄱ'으로 발음된다.

01 ㉠ '갈증(渴症)'은 한자어에서 'ㄹ' 받침 뒤에 연결되는 'ㅈ'이 된소리로 교체되는 경우(ㄱ)에 해당한다. ㉡ '마실 것'은 [마실게실]로 발음되며, '마실'의 관형사형 '-(으)ㄹ' 뒤에 연결되는 '것'의 'ㄱ'이 된소리로 교체되는 경우(ㄷ)에 해당한다.

02 '흔치'는 '흔하-'에 '-지'가 결합한 것이다. 이때 'ㅈ'이 탈락하여 '흔ㅎ-+지'의 형태로 결합하였고, 'ㅎ'과 'ㅈ'이 'ㅊ'으로 축약되어 최종적으로 [흔치]로 발음되었으며, 소리와 일치하도록 표기 또한 변화한 것이다.

오답 풀이 ①, ②, ⑤ 모두 'ㄴ'이 탈락한 경우이다.

④ 모음 'ㅏ'가 탈락한 경우이다.

03 <보기>에서 첫 번째 설명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 현상은 된소리되기이며, 두 번째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유음화이다. '줄넘기[줄럼기]'는 앞 음절 '줄'의 끝소리 'ㄹ'의 영향을 받아 'ㄴ'이 'ㄹ'로 변하는 유음화가 일어났으며, 어간 '넘-'의 받침 'ㅁ'의 영향을 받아 '기'의 'ㄱ'이 'ㄱ'으로 변하는 된소리가 되었으므로 된소리되기가 일어났다. 따라서 '줄넘기'는 두 가지 음운 변동 현상이 모두 일어난 단어이다.

04 ‘끼’는 ‘ㄱ-+-어서’가 결합한 것으로, 모음 ‘ㅡ’가 탈락한 경우에 해당한다.

- 오답 풀이** ① ‘씨서’는 ‘ㅅ-+-어서’의 결합으로 모음 ‘ㅡ’가 탈락하였다.
 ② ‘놓고’는 [노코]로 발음되며, 받침 ‘ㅎ’과 ‘ㄱ’이 만나 거센소리 ‘ㅋ’으로 축약되었다.
 ④ ‘밥물’은 ‘ㅂ’이 비음 ‘ㅁ’의 영향으로 ‘ㅁ’으로 바뀌어 [밤물]로 발음되는 비음화 현상이 나타난다.
 ⑤ ‘갈등’은 예사소리 ‘ㄷ’이 된소리 ‘ㄸ’으로 교체되어 [갈똥]으로 발음되는 된소리되기 현상이 일어난다.

05 ‘굳이’는 받침의 ‘ㄷ’이 모음 ‘ㅣ’를 만나 ‘ㅈ’으로 변하는 구개음화가 일어났으므로, ‘변화한 음운’ 항목에 ‘ㄷ → ㅈ’이 들어가야 한다.

06 ㉓는 ‘가-+-아라’가 결합된 것으로, 중복된 모음 ‘ㅏ’가 탈락하였고, ㉔는 ‘고프-+-아서’가 결합될 때 모음 ‘ㅡ’가 탈락하였다. 따라서 이 둘은 모두 모음에서 음운의 변동이 일어났다고 할 수 있다.

- 오답 풀이** ① ㉔는 [버팍]으로 발음되며 자음이 축약되어 음운의 개수가 줄어든다. 그러나 ㉔는 [학교]로 예사소리 ‘ㄱ’이 된소리 ‘ㄲ’으로 교체된 것으로 음운의 개수에는 변화가 없다.
 ② ㉔는 ‘ㅂ’이 ‘ㅎ’을 만나 거센소리 ‘ㅍ’으로 교체된 거센소리되기 현상으로, 자음에서 변동이 일어났다. 그러나 ㉓는 중복된 ‘ㅏ’가 탈락한 모음 탈락 현상으로, 모음에서 변동이 일어났다.
 ③, ④ ㉔는 된소리되기를 통해 음운이 교체된 것으로 음운의 개수에는 변화가 없고 탈락이 일어난 것이 아니다. 한편 ㉓와 ㉔는 모음의 탈락이 일어난 것으로, 음운의 개수가 줄었다.

07 ‘앞날’의 받침 ‘ㅍ’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음절의 끝에서 대표음인 ‘ㅂ’으로 발음되어야 한다. 이 ‘ㅂ’은 뒤에 오는 비음 ‘ㄴ’의 영향으로 비음 ‘ㅁ’으로 바뀌는 비음화가 일어난다. 따라서 ㉔에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㉔에는 비음화가 적용된 것이다.

08 ‘맞는’은 받침 ‘ㅈ’이 음절의 끝에서 대표음인 ‘ㄷ’으로 바뀐 후, 이 ‘ㄷ’이 뒤에 연결되는 비음 ‘ㄴ’의 영향을 받아 비음 ‘ㄴ’으로 교체되므로 최종적으로 [만는]으로 발음된다. 따라서 ‘ㅈ’이 음절 끝에서 ‘ㅈ’으로 바뀌었다는 설명은 잘못되었다.

09 서술형 ‘있었기에’는 [이썸끼에]로 발음된다. ‘었’의 받침 ‘ㅈ’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음절의 끝에서 ‘ㄷ’으로 바뀌어 발음된다. 이 받침 ‘ㄷ’은 뒤에 오는 ‘ㄱ’을 된소리인 ‘ㄲ’으로 바뀌어 발음되게 만든다. 따라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된소리되기 현상이 적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있었기에’의 정확한 발음을 썼다.	☐
어떤 음운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그 양상을 정확히 썼다.	☐
음운 변동 현상으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된소리되기가 일어났음을 썼다.	☐

(2) 한글 맞춤법

본문 256~257쪽

- ① 소리 ② 어법 ③ 단어 ④ 어미
 ⑤ 사이시옷 ⑥ ㄴ, ㄷ ⑦ 까닭 ⑧ 두음 법칙
 ⑨ 조사 ⑩ 의존

- 01 ⑤ 02 ① 03 ‘내과’라고 써야 한다. 사이시옷은 결합하는 두 명사 중 하나 이상이 고유어여야 하기 때문에, ‘내(內)’와 ‘과(科)’를 결합한 한자어에는 사이시옷을 받쳐 쓰지 않는다. 04 ㉔: 뒤야 ㉔: 놓- ㉔: -었- 05 ④ 06 ⑤ 07 ③ 08 ④

01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는다(㉑).’를 원칙으로 하되, 이것만으로는 그 뜻이 일관되게 파악되지 않고 독해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법에 맞도록 적는다(㉒).’라는 원칙이 추가로 존재한다. 또한 ‘각 단어는 띄어 쓴다(㉓).’라는 원칙 역시 의미가 분명히 드러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오답 풀이** ① ‘뺨꾸기’는 의성어 ‘뺨쪽’의 원래 형태를 살리지 않고, 연음이 일어나 발음되는 대로 [뺨꾸기]라고 적은 것이다.
 ② ‘꽃과, 꽃이, 꽃만’의 발음은 각각 [꼇파], [꼬치], [꼇만]인데, 발음대로 적지 않고 체언인 ‘꽃’과 조사 ‘과, 이, 만’을 구별하여 적은 것이므로 어법에 맞도록 표기한 것이다.
 ③ 띄어쓰기를 하지 않으면 해당 문장의 의미가 ‘숙이 상해요.인지, 숙이 상해요.인지’로 잘못 이해될 수 있다.
 ④ ‘소리대로’는 말 그대로 단어를 발음하는 대로 적는다는 의미이며, ‘어법에 맞게’ 적는다는 것은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기 쉽도록 각 형태소의 원래 형태대로 적는다는 의미이다.

02 ①의 ‘얹’은 어간 ‘알-’에 ‘-ㅁ’이 붙어 명사가 되었으므로 제19항의 예로 적합하며, ‘곳곳이’는 명사 ‘곳곳’에 ‘-이’가 붙어 부사가 된 말이므로 제20항의 예로 적합하다.

- 오답 풀이** ② ‘졸음’은 어간 ‘졸-’에 ‘-음’이 붙어 명사가 되었으므로, ‘굳이’는 어간 ‘굳-’에 ‘-이’가 붙어 부사가 되었으므로 둘 다 제19항의 예이다.
 ③ ‘높이’는 어간 ‘높-’에 ‘-이’가 붙어 명사(또는 부사)가 되었고, ‘미달이’는 어간 ‘미달-’에 ‘-이’가 붙어 명사가 되었으므로 둘 다 제19항의 예이다.
 ④ ‘집집이’는 명사 ‘집집’에 ‘-이’가 붙어 부사가 되었으므로 제20항의 예로 적합하며, ‘같이’는 어간 ‘갈-’에 ‘-이’가 붙어 부사가 되었으므로 제19항의 예로 적합하다.
 ⑤ ‘날날이’는 명사 ‘날날’에 ‘-이’가 붙어 부사가 되었으므로 제20항의 예로 적합하며, ‘달맞이’는 어간 ‘달맞-’에 ‘-이’가 붙어 명사가 되었으므로 제19항의 예로 적합하다.

03 서술형 제시된 문장에서 ‘넷과’는 사이시옷을 제거하고 ‘내과’로 고쳐야 한다. ‘내과’는 한자어 ‘내(內)’와 한자어 ‘과(科)’의 결합이므로 결합하는 두 명사 중 하나 이상이 고유어여야 한다는 사이시옷을 붙여 적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사이시옷을 받쳐 쓰지 않는다.

평가 기준	확인 ☑
‘넷과’의 바른 표기는 ‘내과’임을 썼다.	☐
사이시옷은 결합하는 두 명사 중 하나 이상이 고유어여야 받쳐 쓸 수 있다는 조건을 썼다.	☐

04 모음 ‘ㅜ’로 끝난 어간에 ‘-어’가 어울리면 ‘ㄱ’이 된다. 따라서 ‘두어야’의 준말은 ‘뒤야’이다(㉠). 한글 맞춤법 제35항 [붙임1]에 따르면 ‘놓아’는 ‘ㅍ’로 줄어든다(㉡). 어간이 ‘ㄴ’으로 끝나는 말에 어미 ‘-었-’이 결합하면 ‘냈’이 된다. 따라서 어간 ‘괴-’에 결합한 선어말 어미는 ‘-었-’이다(㉢).

05 ④ ‘쏟을하다’는 [쏟출하다]로 발음되는데, 제5항에 따라 ‘ㅂ’ 받침 뒤에서 된소리로 나는 것은 된소리로 표기하지 않는다. 그러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부분은 같은 글자로 적어야 한다는 제13항을 고려하면, 앞글자 ‘쏟’을 따라 ‘쏟출하다’로 적는 것이 바른 표기이다.

오답 풀이 ① ‘깍두기[깍뚜기]’는 ‘ㄷ’이 ‘ㄲ’으로 바뀌어 된소리가 나타나지만, ‘ㄱ’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이므로 한글 맞춤법 제5항 ‘다만’에 의해 된소리를 표기하지 않는다.
 ② ‘갑자기[갑짜기]’는 ‘ㅈ’이 ‘ㅉ’으로 바뀌어 된소리가 나타나지만, ‘ㅂ’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이므로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③ ‘꽃꽃하다’는 제13항에 따라 한 단어 안에서 같거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부분은 같은 글자로 적는 것이므로 맞는 표기이다.
 ⑤ ‘뭉뚱그리다’는 받침 ‘ㅇ’ 뒤에서 된소리가 난 것이므로, 제5항의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에 해당하므로 된소리를 표기에 반영한다.

06 1-㉠과 2-㉡의 경우 앞 단어의 품사는 모두 명사(번, 대궐)로 같다. 다만 1-㉠의 ‘만’은 의존 명사, 2-㉡의 ‘만큼’은 조사이기 때문에 띄어쓰기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07 ③의 ‘도착할 지’는 어간 ‘도착하-’에 ‘추측’에 대한 막연한 의문을 나타내는 어미인 ‘-ㄴ지’가 결합한 형태이므로 붙여 쓰는 것이 맞다. 또한 ‘수+가’의 경우, ‘가’는 조사이므로 앞말 ‘수’에 붙여 써야 한다.

오답 풀이 ① ‘대로’는 ‘어떤 모양이나 상태와 같이’라는 뜻을 가진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② ‘지’는 어떤 일이 있었던 때로부터 지금까지의 동안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써야 하며, ‘분’은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이므로 띄어 써야 하고, ‘만’은 ‘앞말이 가리키는 동안이나 거리’라는 의미를 가진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④ ‘안’은 부사로, 뒤의 동사 ‘하다’를 꾸미는 경우이므로 ‘청소를 안 하면’으로 띄어 써야 한다.
 ⑤ ‘느커녕’은 보조사 ‘느’에 보조사 ‘커녕’이 결합한 말로, 앞말을 지정하여 어떤 사실을 부정하는 뜻을 강조하는 보조사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

08 ④는 한자어 ‘등교(登校)’와 순우리말 ‘길’이 결합된 합성어이고, 발음은 [등교길] 혹은 [등곶길]로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발음되므로 사이시옷을 써서 ‘등곶길’로 적어야 한다.

오답 풀이 ① 어미 ‘-(으)르결, -(으)르게’ 등은 된소리로 소리 나지만 예사소리로 적어야 하므로 ‘청소할게’가 맞는 표기이다.
 ② 지난 일을 나타내는 어미는 ‘-더러, -던’으로 적어야 하므로 ‘잘하더러’가 맞는 표기이다.
 ③ ‘채’는 ‘이미 있는 상태 그대로 있다’는 뜻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에 띄어 써야 한다.
 ⑤ 어간 ‘만들-’에 ‘-ㅁ’이 붙어 명사가 될 때에는 원형을 밝혀 적어야 하므로 [만듬]으로 소리나더라도 ‘만듬’으로 표기해야 한다.

5. 책 속의 지혜, 말 속의 길

(1) 고릴라를 못 본 이유

본문 258~259쪽

- ① 뇌 ② 실험 ③ 무주의 맹시 ④ 선택
 ⑤ 포용 ⑥ 제목 ⑦ 밑줄 ⑧ 목적
 ⑨ 점검

01 ① 02 ② 03 ⑤ 04 ④ 05 ‘찬우’가 화장실을 찾는 것에 집중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대상인 ‘수현’을 인지하지 못하는 ‘무주의 맹시’ 현상이 나타났다. 06 ②

01 이 글은 ‘뇌의 정보 처리 방식’이라는 과학적 정보를 전달하는 설명문이다. 정의, 예시 등의 설명 방법을 활용하여 독자가 낮은 과학적 지식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 쓰고 있다.

오답 풀이 ② 수필, ③ 연구 보고서, ④ 전기문, ⑤ 논설문에 대한 설명이다.

02 (가)는 ‘무주의 맹시’라는 과학적 개념을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실연한 뒤’, ‘아버지의 늙은 모습을 본 날’ 등과 같이 누구나 일상 속에서 흔히 경험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비유, ③ 과정, ④ 분석, ⑤ 비교에 대한 설명이다.

03 이 글의 (다)에서 글쓴이는 우리가 보는 것이 절대적으로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무조건 옳다고 할 수 없으며, 따라서 다른 사람의 의견에 포용적인 태도를 가질 것을 제안하고 있다. 따라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⑤와 같이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조언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04 글쓴이는 눈으로 물체를 보면 당연히 인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독자가 기존의 통념을 뒤집는 ‘무주의 맹시’라는 개념을 처음 접했을 때 느낄 당혹스러운 감정을 예측하고 있다. 아울러 이는 ‘정말 황당한 소리’라고 하면서 예상되는 독자의 반응에 호응하고 있다.

05 서술형 제시된 상황에서는 ‘무주의 맹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무주의 맹시’는 주의를 다른 곳을 향해 있어서 눈으로 보고 있는 대상이 지각되지 못하는 현상을 말한다. ‘찬우’는 화장실을 찾는 것에 집중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는 대상인 ‘수현’이 눈앞에서 인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인지하지 못한 것이다.

평가 기준	확인 ☒
<보기>에 나타난 현상이 ‘무주의 맹시’임을 썼다.	☐
특정 대상(화장실)에 집중하느라 다른 대상(수현)을 인지하지 못하였음을 썼다.	☐

06 <보기>의 ‘어려운 내용이지만 쉽게 풀어 쓰고 있어서 나도 충분히 개념을 이해할 수 있었어.’, ‘무주의 맹시’라는 말은 쉽게 이해가 안 되었지.’라는 부분과 이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 ‘인터

넷으로 검색해 보고 나서야 확실히 이해를 할 수 있었어.'라고 밝힌 부분을 통해서 <보기>를 쓴 학생은 자신의 이해도를 점검해 가면서 읽었다고 할 수 있다.

- 오답 풀이** ① <보기>를 쓴 학생은 글의 제목을 보면서 시각과 관련된 내용이 나올 것을 예측하였고, 글을 읽으면서 그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 ③ <보기>에 드러난 읽기 목적은 과학적 지식을 얻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글의 제목을 보며 내용을 추측하고, 중요한 내용을 옮겨 적었으며,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은 검색을 통해 보충하였으므로 읽기 목적에 적합한 읽기 방법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 ④ <보기>를 쓴 학생이 읽은 내용을 자신의 실생활에 적용하는 활동을 수행했는지는 <보기>에 드러나지 않았다.
- ⑤ <보기>를 쓴 학생은 '무주의 맹시'의 개념이 이해가 잘 안가서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았다고 하였다.

(2) 조선의 얼, 광화문

본문 260~261쪽

① 소제목	② 신문	③ 광화문	④ 조선 총독부	
⑤ 경복궁	⑥ 복원	⑦ 여론	⑧ 고별사	
01 ⑤	02 ④	03 ④	04 ⑤	05 ③

01 (다)에서 글쓴이는 광화문이 조선의 역사와 민족 그 자체를 상징함을 드러내면서, 광화문을 바로 세운다는 것은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는 역사적인 사업이라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이는 광화문 복원이 지닌 역사적 의미를 제시하는 것이므로, '광화문 복원이 지닌 역사적 의미'라는 소제목은 적절하다.

- 오답 풀이** ① (가)는 일제의 탄압으로 광화문을 비롯한 조선의 유물들이 겪은 수난을 다루고 있다.
- ②, ③ (나)는 일제의 광화문 철거 계획에 대한 언론들의 보도와 그로 인해 형성된 광화문 철거 반대 여론을 중심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 ④ (다)는 광화문이 지닌 역사적 가치와 광화문 복원이 지니는 의미에 대해 다루고 있다.

02 이 글에서는 광화문을 '경복궁의 얼굴', '대한민국의 대표', '우리의 역사이자 숨결' 등으로 비유적으로 표현함으로써 광화문이 가지는 민족적·역사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ㄴ). 또한 광화문이 일제에 의해 훼손되고 다시 재건되었던 역사적 사실을 제시하여 광화문의 역사적 가치를 알고 광화문을 보존하는 데 힘써야 한다는 글쓴이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ㄷ).

- 오답 풀이** ㄱ. 대상을 구성 요소별로 나누어 설명하는 것은 분석의 방식이다. 이 글에서는 분석의 방법이 사용되지 않았다.
- ㄴ. 이 글에서는 특정 이론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예시를 통해 특정 이론을 뒷받침한다는 설명은 이 글의 서술상 특징에 해당되지 않는다.

03 (나)에서 광화문 철거 계획이 언론을 통해 발표되었을 때, 몇몇 일본인 학자들도 조선 총독부의 처사가 부당하다고 지적하였다는 내용이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모든 일본인이 광화문 철거를 지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오답 풀이** ① (가)의 끝부분을 보면 '일왕의 백성'이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따라서 일본은 당시에 왕을 섬기는 나라였음을 알 수 있다.
- ② (다)의 앞부분에 '원래의 목조 건축물이 지녔던 품격은 잃어버렸지만'이라는 내용을 참고하면, 광화문이 원래는 나무로 만들어진 건축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 ③ (가)에 따르면 경복궁의 건물은 '광화문-근정전-사정전-강녕전-교태전'의 순서로 배열되어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일제가 조선 총독부를 근정전 바로 앞에 세웠다고 하였으므로, 조선 총독부가 근정전과 광화문 사이에 위치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 ⑤ (가)에 따르면 일제가 광화문을 빼먹하게 비틀거나 국사당을 허물고 신사를 짓는 일들은 모두 조선 민족의 정기를 훼손하기 위함이라고 하였다.

04 글을 읽고 스스로 자신의 관점을 형성하고, 자신의 의견을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 사회의 다른 구성원과 상호 작용할 수 있는데, 이를 사회적 상호 작용으로서의 읽기 과정이라 한다. 따라서 읽기를 통해 형성한 자신의 관점을 학급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공유하는 활동은 사회적 상호 작용으로서의 읽기 과정이 가장 잘 드러난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05 이 글에서 '광화문'은 민족의 역사이자 혼, 민족의 정기로 간주되고 있다. <보기>에서도 역시 '왕궁은 그 민족, 그 나라의 역사적·문화적 정통성에 대한 확인이자 상징'이며 '경복궁'이 우리 민족에게 그런 존재라고 표현하였다. 따라서 이 둘이 상징하는 바는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 오답 풀이** ① <보기>의 글쓴이는 민족의 역사적·문화적 정통성을 상징하는 문화재를 보존해야 한다고 하였으나, 우리 민족에게 조선 총독부는 이에 해당하는 문화재가 아니다.
- ② 이 글과 <보기> 모두 왕가를 동경하는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다.
- ④ <보기>에 문화재를 반드시 원형대로 고쳐야 한다는 내용은 없다.
- ⑤ 이 글의 '몇몇 일본인 학자들'은 조선 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상징하는 광화문 철거에 반대하였다. <보기> 역시 민족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문화재를 보존해야 한다는 입장이므로 둘의 의견은 유사하다.

(3) 전시회 공간을 빌려라

본문 262~263쪽

① 강당	② 참여자	③ 대안	④ 가능성
⑤ 조정	⑥ 양보	⑦ 합의	⑧ 공공성

01 ④ 02 사진 전시회를 학교의 학생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함께 참여하는 행사로 기획했기 때문이다. 03 ④ 04 ⑤ 05 ③

01 제시된 답화는 '협상'이다. 협상의 참여자들은 서로 주장이나 이익이 달라 갈등을 빚는 상태(⑤)이지만, 둘의 이익은 상호 의존적(①)이므로 협력을 통해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협상 참여자들은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어 내고(③), 이를 책임지고 지키는 태도가 필요하다(②). 한편 상대를 논리로 설득하여 자신의 주장을 따르도록 만드는 것은 '토론'의 목표라 할 수 있다.

【 참고 자료 】 토론

토론은 찬성과 반대의 입장으로 나뉘는 주제에 대하여 자신의 입장을 관철하고, 상대를 설득하기 위하여 근거를 들어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펼치는 말하기이다.

02 서술형 (가)에서 '상우'는 학교가 아닌 구청 강당에서 굳이 전시회를 열려는 이유에 대해 묻는 '구 공무원'에게 이번 전시회는 자신의 학교 학생뿐 아니라 지역 주민도 함께 참여하는 행사로 기획했다고 대답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사진 전시회가 지역 주민도 함께 참여하는 행사로 기획되었음을 썼다.	☐
한 문장으로 썼다.	☐

03 '상우'는 전시회 기간을 줄이는 대신 구청 측에서 전시회 홍보를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전시회 기간이 줄면 관람객 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점과, 학생인 자신들이 주민에게 홍보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을 들고 있다. 지역 주민 강연회가 구청 강당에서 실시되는 것을 근거로 삼지는 않았다.

오답 풀이 ① '상우'는 '전시회 날짜를 바꾸는 것은 괜찮습니다만'이라는 발언을 통해 상대방의 절충안에 대해 수락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② (나)의 '구 공무원'의 발언을 통해 상우네 동아리가 전시회를 통해 얻은 후원금으로 △△ 어린이 재단을 후원한다는 점이 드러난다.

③ '상우'는 전시회 기간이 4일에서 3일로 줄었음을 밝히며, 구청에서 이번 전시회를 지역 주민에게 홍보해 줄 수 있냐고 묻고 있다. 이는 전시회에 대한 구청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하는 것이다.

⑤ (나)에서 '구 공무원'은 다른 주민 및 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한 개인 및 단체당 최대 2일까지만 강당을 빌려주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상우'가 처음 요구한 4일 동안은 대여가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04 '상우'는 첫 발언에서 '전시회를 할 장소로 구청 강당을 빌리고 싶다.'라는 자신의 요구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상대방에게 적절한 양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예의를 갖추어 협상에 참여하고 있다.

05 (나)에서 '상우'의 발언에 따르면 상우네 동아리는 평일에는 방과 후 저녁 6시부터 3시간씩 강당을 이용하려 한다. 또한 '구 공무원'의 발언에 따르면 토요일에는 구청의 강당 대여 규정상 강당을 저녁 6시까지만 운영한다. 그러므로 평일 및 토요일 10시까지 강당을 빌려 쓴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상우'와 '구 공무원'은 각각 사진 동아리와 구청을 대표하여 전시회를 위한 구청 강당의 대여 여부를 안건으로 협상을 진행하였다.
② '상우'의 마지막 발언을 보면 다음다음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3일 동안이라는 최종 합의된 강당 대여 날짜와 기간을 알 수 있다.
④ (나)의 '구 공무원'의 발언에서 상우네 동아리가 전시회를 통해 얻은 후원금으로 △△ 어린이 재단을 후원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⑤ (나)에 따르면 상우네 동아리는 전시회 기간을 줄이면 관람객 수가 줄어들 것을 우려하여 구청 측에 전시회 홍보를 요구하고 있으며, 구청 측은 이를 수락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m e m o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spanning the width of the page.

m e m o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spanning the width of the page.

m e m o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spanning the width of the page.